

# 空軍



국군장병(國軍將兵)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으며 또 쉽게 아물지도 않을 상처(傷處)를 남긴 이번 대한항공(大韓航空) 여객기(旅客機)의 피격(被擊) 추락사건(墜落事件)을 통해 강자(強者)의 논리(論理)만이 통용(通用)되는 국제정치(國際政治)의 냉혹(冷酷)함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認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힘의 뒷받침이 없는 평화(平和)와 안전(安全)은 한낱 허구(虛構)에 불과(不過)하다는 뼈저린 교훈(教訓)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화(平和)를 수호(守護)하고 국제간(國際間)에 우호(友好)를 증진(增進)시켜 나가려는 우리의 염원(念願)과 의지(意志)가 강(強)하면 강(強)할수록 우리의 힘 또한 그만큼 강(強)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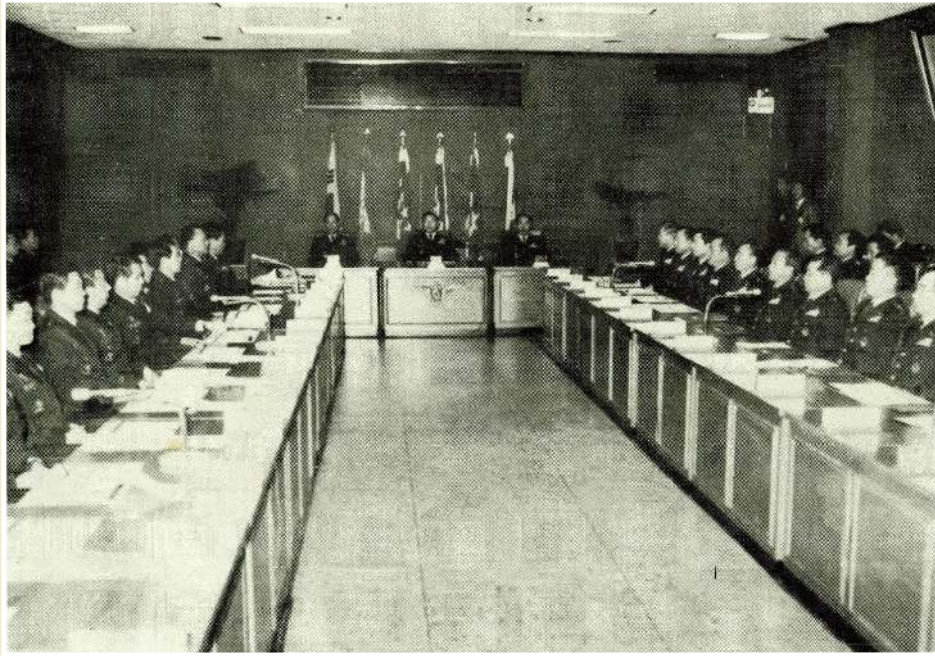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불의(不義)와 침략(侵略)으로부터 보호(保護)할 수 있는 힘을 확보(確保)하는 데 최선(最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국군(國軍)의 날 담화문(談話文) 중(中)에서



국제의회연맹(IPU) 제70차 총회<국회의사당. 10.5.>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8.22. 본부)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제3252부대 9.29.)

스페인공군참모총장 공본 예방(10.9.)



전 미태평양공군사령관 공본 예방(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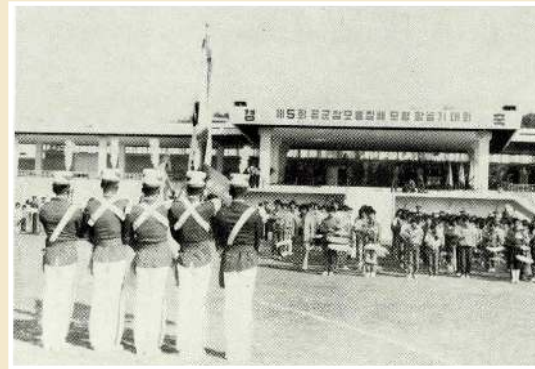


무사고비행 시상식(제 3526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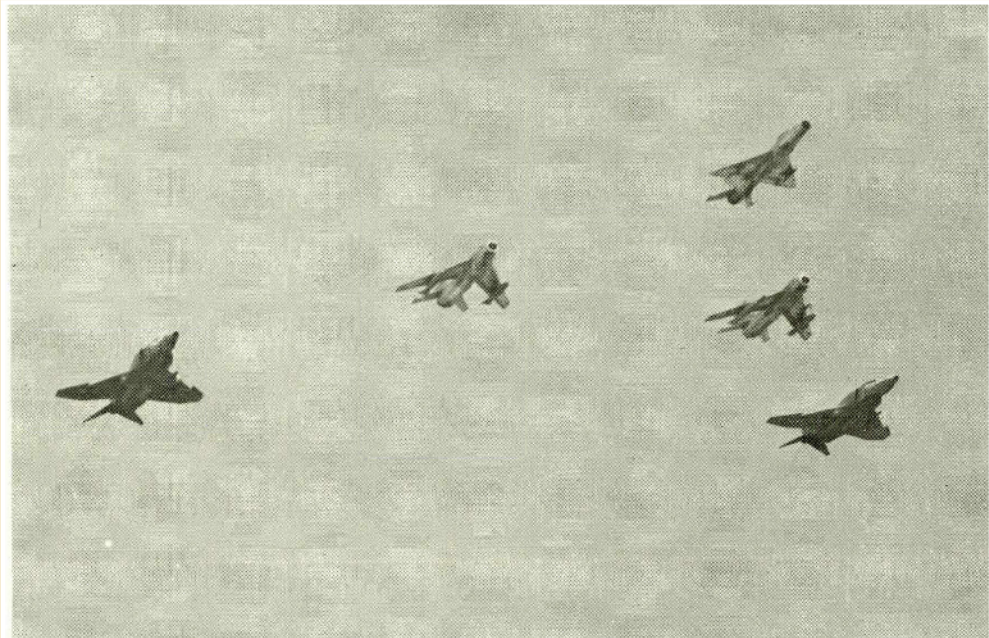


귀순중공기 유도착륙  
유공자 포상식  
<제3579부대. 8.19.>



제 5 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험항공기대회 <정무대 10·23>

시험비행 중인 미그-21. 미그-19기





목 차 (目次)

권두언(卷頭言) ..... 정훈감(政訓監) 김희중(金熙中)(1)  
 미·소관계(美蘇關係)의 새로운 전망 ..... 전정환(金正煥)(3)  
 한국(韓國)의 국제적(國際的) 지위향상과 안보(安保)전망 ... 문도빈(文道彬)(8)  
 집단 안보(安保)와 미국(美國)의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 ... 이선호(李善浩)(14)

〈특집(特輯) I · 선진조국(先進祖國)에로의 길〉

자율화(自律化) 시대(時代)의 국민윤리(國民倫理) ..... 마옥(馬郁)(24)  
 첨단 기술산업(技術產業)의 미래(未來) ..... 현원복(玄源福)(32)  
 선진조국(先進祖國) 창조(創造)와 우리의 다짐 ..... 조복신(趙福新)(38)

〈특집(特輯) II · 10월(月)의 결의(決意)〉

나는 이렇게 다짐한다 ① ..... 고석진(高錫珍)(45)  
 ② ..... 이창수(51)

김일성 주체사상(主體思想)의 기능과 비판 ..... 허영식(117)  
 기독교 섭리사관과 공산주의(共產主義) ..... 유무상(柳茂相)(128)  
 북한주민(北韓住民)들의 생활실태(生活實態) ..... 김영준(143)  
 안전(安全)사고 방지로 전력증강(戰力增強) ..... 민영기(151)

항공기(航空機) 구조용(構造用) 복합재료의 역학적 특성(特性)과 결합 ... 최청호(56)  
 최신(最新) 공대공(空對空)미사일 개발(開發) ..... 윤형기(尹炯基)(68)  
 소련(蘇聯)의 화학전(化學戰) 능력(能力) 하(下) ... 최량수(崔良洙)(75)  
 전자전(電子戰)의 현대화(現代化)를 위한 도전 ..... 안병문(81)  
 왜 우리는 핵방어능력(能力)을 보유해야만 하는가 ..... 최병선(86)  
 착륙유도 장치 ..... 박흥부(92)

신앙생활(生活)과 군정신전력(軍精神戰力) ..... 유법성(154)  
 독심술과 대인관계(對人關係) ..... 민재훈(158)  
 충무공(忠武公)의 오자정신(五自精神) ..... 김덕용(金德龍)(162)  
 신용사회(信用社會)로 가는 길 ..... 김인호(167)  
 직장정화운동(職場淨化運動)의 필요성(必要性) ..... 임성호(173)

수필 내가 본 장교상(將校像) ..... 김덕용(107)  
 얼마짜리요 ..... 최병훈(110)  
 서부전선(西部戰線) ..... 김학웅(113)  
 자유의 다리에 서서 ..... 박정엽(115)

시 보라매 일기(日記) .....〈만화〉 ..... 정운섭(鄭雲燮)(55)  
 유명 이야기 .....〈단편〉 ..... 하근찬(175)

# 空軍

통권 제 186  
187 합병호

(1983년 제 4 호)



제30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서울운동장. 10.2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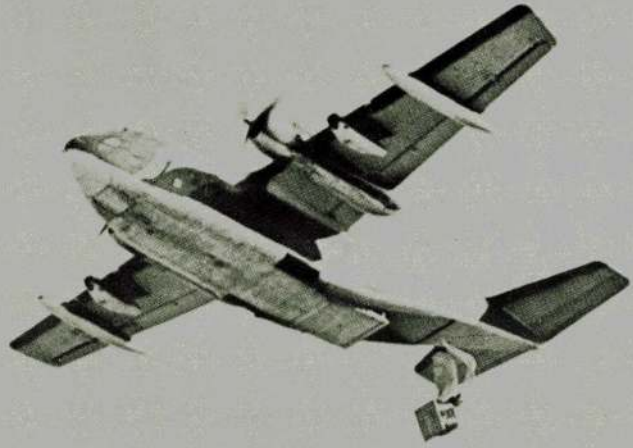
참모총장통솔방침  
(參謀總長統率方針)  
**제공통일(制空統一)  
이룩하자**  
 인화단결(人和團結)  
 인기연마(人機練磨)  
 견적필승(見敵必勝)

## 공군본부 (空軍本部)





병력과 장비의 신속한 공중수송은 공군만이 지닌 기동력이요 특수성이다.



권두언(卷頭言)



## 부전이굴인 不戰而屈人

정훈감(政訓監) 공군준장(空軍准將)  
김 희 중(金熙中)

대통령 각하의 서남아순방 중 일어난 버마암살폭발 사건은 그 유가족들에 있어서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런 일로서 결국 복귀는 버마의 단교 및 승인 취소로 자승자박의 우를 초래했을 뿐이지만, 다시 한번 4대 체제의 범죄성을 온 천하에 들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을 당하여 우리는 일의 앞뒤를 가려보지 않고 무모한 도발만을 일삼는 저들의 사고방식을 의심해 보며, 또 사전에 이를 예방하지 못한 버마 관계자들의 실수를 안타까워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체제가 어떤 정치이념을 가졌든 간에 그래도 체제의 최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 체제에 가져올 영향과 결과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을 정하며, 이는 소련과 같은 공산중주국에서도 정치국의 내적 민주 원칙이라 해서 통용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아웅산 암살폭발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복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합리성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은 일을 감행키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의사결정기구에 무엇인가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이 내재해 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저들의 비합리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들어낸 것으로서, 이 같은 저들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저들의 예측을 불허하는 비이성적 만행에 주의를 보다 세심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소관계(美·蘇關係)의 새로운 전망(展望)

미국(美國)과 소련(蘇聯)이 앞으로 상호 간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초강대국들 간의 불신과 경쟁 및 대립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 정 환(金正煥)

〈국제정치학박사(國際政治學博士), 국방대학원교수(國防大學院教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아쉬움은 “천정을 사전에 한 번 확인만 했던들”이라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나 버마 관계자들의 실수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의 자세를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뜻밖의 분단을 감수해야 했던 이후로 수많은 복귀 도발이 있었습니 다만, 우리의 도발 대응은 적의 도발이 자행된 후 응징 격퇴하는 차원에서 계속 수행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백전백승이 최상의 전법은 아니고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 [부전이굴인(不戰而屈人)]이야말로 최선의 병법이라 했습니다.

적의 도발을 사후에 격퇴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도발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니, 저들이 어떠한 도발을 획책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그 같은 기도를 좌절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부전이굴인(不戰而屈人)의 싸움을 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안보 자세에 “조사해 보지 않은 천장”이 없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점검해 봄으로써, 저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싸움이 아니라, 저들의 어리석음을 막아주는 싸움으로 조국 통일의 길을 앞당기도록 노력합시다.

## 1. 미·소관계(美·蘇關係) 악화(惡化)의 배경(背景)

70년대 이후 미국과 소련 간의 관계는 대략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첫째, 70년대 초반의 이른바 미·소간의 「데탕트」시기이다.

둘째, 70년대 후반에 미·소간의 「데탕트」가 급속히 퇴조하고 다시 심각한 불신과 대립으로 양국이 빠져들어 간 시기이다.

셋째, 70년대 말 이후 현재까지 미·소 두 초강대국이 50년대 이후 가장 격심한 대결 및 적대 관계에 빠져들고 있는 시기이다.

1969년에 등장하였던 미국의 「닉슨」행정부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 제국들과의 「데탕트」정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1947년에 선언된 「트루먼독트린」을 기반으로 미국이 근 4반세기 동안 강력히 추진하여 왔던 대공산권 봉쇄 정책 혹은 강력한 자유 세계 방위 정책은 1969년 7월에 선언된 「닉슨독트린」을 통하여 일대 전환을 시작하였다.

즉, 미국은 악으로 규정한 공산주의 세력들을 철저히 봉쇄하고 이들과 대결하려던 정책으로부터 소련을 포함한 공산 제국들과의 평화 공존, 상호 신뢰 관계의 발전, 상호 협력 및 의존관계의 증진, 신뢰와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군비축소의 실현 등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에 따라 미국은 월남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병력과 기지를 철수 내지 대폭 감축하였으며, 군비를 축소하였고, 소련과 각종 협력관계의 발전을 추진하고 SALT 협정을 체결하였고, 20여 년간 격렬한 적대관계를 지속하여 왔던 중공과도 화해하고 협력관계를 발전시켰다.



즉, 미국은 70년대에 들어와 소련을 비롯한 공산 제국과 「데탕트」정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소련, 중공을 비롯한 공산 제국들도 「데탕트」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였고 또한 믿으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련 역시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에 대하여 「데탕트」정책을 활발히 추진하는 체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전연 다른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소련은 미국이 군비를 축소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군비증강을 더욱 적극화하였다. 특히, 소련의 군비증강 정책은 미국과의 군사적 균형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군사력의 우위 확보를 목표하고 있음이 점차 분명해졌다.

그리고 소련은 미국의 소극적인 정책과 정치·군사적 후퇴 정책을 이용하여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 지역과 심지어 서구의 일각에서까지 팽창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련은 증강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 일본 같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까지 「핀란드」화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이 뚜렷해졌다.

소련의 이러한 위협적인 정책과 활동은 미국인들의 강한 불안과 반발을 유발하였고, 소련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1976년 3월, 당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던 「포드」대통령은 소련과의 관계에서 「데탕트」라는 용어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1977년에 등장한 미국의 「카터」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고집하였으면서도 서구 방위 체제 강화를 역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1978년에 「카터」행정부는 일·중공 간의 평화조약 체결과 미·중공 간의 수교를 통하여 소련을 대상으로 하는 미·일·중공 3국의 협조체제 내지 연합체제를 구체화하였다.

1979년에 소련을 배후 세력으로 한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략과 인지반도 전체의 소련세력권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략과 중동지역에 대한 소련 위협의 가중, 구라파 및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의 소련 군사력의 계속적인 증강 등은 소련에 대한 미국의 불안과 반발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소련의 이러한 위협적인 정책에 대응하여 「카터」행정부는 미국의 군비증강을 다시 시도하였고, 서방 국가들과의 동맹,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중공 등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과의 협력관계의 강화를 활발히 추진하였다.

## 2. 미·소관계(美·蘇關係)의 현황(現況)

1981년 미국의 「레이건」행정부의 등장으로 미·소 관계는 현저히 긴장되고 악화되었다.

왜냐하면 「레이건」대통령은 냉전 이후 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 강력한 반소정책을 주장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이건」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우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과 오히려 미국이 소련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회복 내지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레이건」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에 의한 군비축소의 실현을 추구하지 않고 미국과 소련의 상응한 양보에 의한 군축의 실현을 주장하였다.

「레이건」대통령은 미국이 자유 세계의 지도국의 지위와 역할을 회복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레이건」행정부는 「카터」행정부에 의하여 취소 내지 중단되었던 신형무기의 연구, 개발을 다시 추진하였고 국방비를 대폭 증강하였다.

그리곤 「레이건」행정부는 서방 동맹국들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광범위하고 강력한 반소연합체제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레이건」대통령의 이러한 강력한 반소정책 속에서 주한미군 철수 정책이 백지화되었으며 한·미동맹관계가 70년대 이후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특히 「레이건」대통령은 소련이 구주지역에 계속 증가 배치시키고 있는 SS-20 미사일을 철거하지 않는 한 1979년 12월에 NATO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던 「퍼싱 II」와 「크루즈미사일」의 서구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결의를 반복하여 표명하고 있다.

「레이건」대통령의 이러한 강경한 반소정책은 당연히 소련의 강한 반발을 유발하였고 따라서 미·소간의 관계는 냉전 이후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악화되어 있다.

소련은 「레이건」대통령의 반소정책에 대하여 그들의 군비증강 정책이나 팽창주의 정책을 완화 내지 중단하려는 것보다 더욱 강경한 반미정책으로 맞섰다.

소련이 미국에 대하여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미국의 평가를 소련은 미국이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레이건」대통령이 핵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소련은 중공과의 화해를 통하여 미·중공의 반소연합체제의 형성을 저지하려고 적극적으로 획책하였고, 서구 제국 및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과 우방들에 대하여 위협과 회유 양면 작전을 통하여 미국과 이들 국가들과의 결속을 방해하고 「레이건」대통령의 반소정책에 대한 견제와 반대를 유도하려고 꾀하였다.

특히, 소련은 금년 12월부터 시작되기로 결정된 미국의 「퍼싱 II」와 「크루즈미사일」의 서구 배치를 저지하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련은 SS-30 등 중거리 미사일을 구주로부터 철거하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서구 배치를 중단하겠다는 「레이건」대통령의 이른바 「0의 선택」을 전면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주에 배치되는 미·소의 중거리 미사일의 수를 동수로 하자는 「레이건」대통령의 제의 역시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1982년 11월에 「브레즈네프」가 사망하고 「유리 안드로포프」가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것을 계기로 하여 미·소간의 관계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기대하였으나 현



재까지는 소련 지도자의 교체가 미·소 관계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안드로포프」는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된 후 행하였던 첫 연설에서 「브레즈네프」의 정책을 충실히 계승할 것을 선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대미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에서 거의 아무런 변화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이 강력한 군비증강 정책과 팽창주의 정책을 완화하였음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미국 역시 반소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것임을 「레이건」대통령이 아직까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미·소 관계는 계속 긴장되고 악화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퍼싱II」와 「크루즈미사일」의 서구 배치 시기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소간의 대결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미·소관계(美·蘇關係) 전망(展望)

「초병기」개발계획을 비롯한 미국의 강력한 군비증강 정책과 소련의 팽창주의 정책에 단호히 대응하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강한 결의와 결속만이 소련의 군비증강 정책과 팽창주의 정책을 수정 내지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레이건」대통령은 믿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련은 「레이건」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이 핵전쟁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이간을 획책하고 미국 내에서 「레이건」대통령의 반소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유발하여 「레이건」대통령의 정책을 수정 내지 중단시키려고 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은 각각 이러한 강경정책을 아직까지 고수하면서 어느 편도 먼저 양보하지 않고 상대방의 양보를 주장하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소간의 관계는 계속 긴장 내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러한 강경정책을 오래 지속하고 양국 간의 관계를 계속 악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우선 「레이건」행정부의 강력한 반소정책은 이미 상당한 불안과 반대를 유발하고 있다.

즉, 서구의 여러 나라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과 우방들 및 미국 내의 일부 여론은 「레이건」대통령의 이러한 반소정책이 세계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군비경쟁을 촉진하고 핵전쟁의 위협을 증대시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서구 배치계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서구나라들도 실제로 이 계획이 실현되는 경우, 동·서간의 「데탕트」가 종식되고 새로운 대결체제가 이루어지고 서구에 대한 소련의 위협이 가중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레이건」대통령의 군비증강 정책으로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고 미·소간의 충돌 위험이 증대되는 것을 불안해하고 반발하는 여론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련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대결을 계속하기에는 아주 심각한 장애 요인들이 많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관계 악화는 소련과 이들 서방 국가들 간의 경제, 기술협력을 크게 위축시켜 소련의 경제체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소련의 경제력과 기술 수준 등은 미국과 무제한 군비경쟁을 벌이기에 현저히 열세에 있

음도 사실이다.

특히 소련의 강력한 팽창주의 정책은 경제적 및 군사적으로 소련에게 힘겨운 부담을 이미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제3세계국가들로부터도 소련에 대한 강한 의구와 반발 및 반소대응 조치를 유발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 각기 처하여 있는 이러한 내외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양국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와 계기를 이용하여 부분적인 타협을 모색하고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즉, 내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소련의 「안드로포프」체제가 정착되면서 미·소 양국은 어느 일방의 양보와 굴복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상호 간의 양보와 타협이라는 형태 하에 대결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앞으로 상호 간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초강대국들 간의 불신과 경쟁 및 대립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 미·소간의 이러한 경쟁, 대립 관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숙명적이라고 할 만큼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소 두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도 그들의 사상, 이념, 체제를 전 세계에 확대시키려는 중국적인 목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한 세계의 지배를 결코 용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건강코너

#### 급성간염의 종류

급성간염의 원인은 바이러스성(性)과 약제 알레르기에 의한 것으로 대별되는데, 전자의 경우가 압도적이다.

현재 간염바이러스로 불리는 것은 A형, B형, 비(非)A 비(非)B형 등 3종류로 분류된다. 그러나 비(非)A 비(非)B형에도 그 감염원(源) 임상 경과로부터 최소한 그 종류가 더 존재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A형 간염은 일종의 장(腸)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식수·식품을 매개로 한 경구(經口) 감염이 그 원인 때로는 집단적으로 발생되기에 유행성 간염이라고도 불린다. 동양인의 경우 40세 이상의 절반 이상은 핏속에 바이러스 항체(抗體)를 보유하고 있으나 20, 30대는 항체 보유자가 적으므로 젊은 세대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지역으로 여행했을 때의 감염도 비교적 젊은 층에 많이 나타난다.

B형 간염은 핵(核), 피막(被膜)의 구조를 지닌 DNA 바이러스에 의한 것, 이 바이러스는 HB 항원(抗原)이라고도 불린다. HB 항원 감염은 사람과 침팬지 등 영장류에게만 일어난다. 동양인에게는 HB 항원 감염자가 대개 2~3%이다. 이들의 혈액 성분, 체분비액 내에 존재하는 항원이 비감염자의 상처를 통해 핏속에 침투, 급성 감염이 발병한다. 감염 원인으로서는 출산 시 출혈에 의한 감염, 혈액 오염물(주사침·가위·메스·손톱을 깎기·기타 세면구)에 의한 피부 손상, 성교가 주원인이다. 다만 일부 사람들 특히 신생아의 경우는 감염이 되어도 급성간염은 발병되지 않고, 앞서 언급한 HB항원 보유자로서 서서히 만성간염으로 진행한다.



## 한국(韓國)의 국제적(國際的) 지위 향상과 안보전망(安靑展望)

우리는 주변 정세의 기본 추세와 북한(北韓) 내부 사정의 변화 요인을 동태적(動態的)·복합적(複合的)인 시각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對備策)을 빈틈없이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도빈(文道彬)

〈서울신문 논설위원(論說委員)〉

### 1. 한국(韓國)의 압도적인 대북(對北) 외교우위(外交優位)

한반도(韓半島)의 안전보장은 우리의 자주국방력(自主國防力)과 한·미(韓·美) 안보협력 체제의 강화, 그리고 한국(韓國)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통해 북한(北韓)으로 하여금 대남(對南)전쟁 도발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시킬 때에 비로소 기약(期約)될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

이러한 시각(視角)에서 볼 적에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이 펼친 자신감 넘치는 정상외교(頂上外交)는 「세계 속의 한국(韓國)」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81년 2월 전(全) 대통령의 미국(美國)방문으로 이루어진 한·미(韓·美) 정상회담은 한때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던 미국(美國) 정부의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방침을 백지화(白紙化)시키는 성과(成果)를 가져왔고, 한·미(韓·美) 안보협력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한반도(韓半島)는 물론 동북아(東北亞)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어 81년 6월 「아세안」 5개국을 공식 방문한 전(全) 대통령은 이를 5개국과의 개별적인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우리나라와 「아세안」제국(諸國) 간의 우호(友好) 협력관계에 새 장(章)을 열었다.

또한, 82년 8월 전(全)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아프리카」대륙을 공식 방문, 이 지역에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지위를 확고히 부각시키고 우리 기업(企業)들의 적극적인 대아(對阿)진출 여건을 마련했다.

그리고 특히 전(全) 대통령이 한·일(韓·日) 경협(經協) 문제를 양국 간의 외교적 과제로 제기,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둔 것은 커다란 외교적 성과였다. 「나카소네」 일본(日本) 수상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를 반성함과 함께 현안(懸案)의 경협(經協)문제를 타결 지음으로써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해 앞으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한 것은 중대한 외교적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남·북한(南·北韓)의 외교정책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韓國)은 국가안보, 경제 발전, 평화통일의 국가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① 통일안보(統一安靑)외교 ② 경제(經濟)외교 ③ 문화(文化)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북한(北韓)은 한반도(韓半島) 전체의 적화통일(赤化統一)을 위한 소위 「국제혁명역량의 강화」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한국(韓國)의 평화 지향 외교와 북한(北韓)의 전쟁 지향 외교는 국제사회에서의 대결(對決)에 있어서 완전히 판가를 나고 있다. 그것은 금년 10월의 IPU(국제의회연맹) 총회, 85년의 IMF(국제통화기금) 총회, 86년의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등이 잇달아 서울에 유치된 사실에서 단적으로 입증(立證)되고 있다.

한국(韓國) 외교의 이 같은 압도적인 대북우위(對北優位)는 새삼 말할 것도 없이 바야흐로 선진국(先進國)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韓國)의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평화를 회구하는 국제사회의 한국(韓國)에 대한 의당한 신임(信任)의 결과라고 하겠다.

남·북한(南·北韓) 외교력의 격차를 보다 자세히 알아본다면 현재 전 세계 1백73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교국(修交國) 수는 한국(韓國)이 117개국으로 북한(北韓)의 105개국보다 12개국이나 더 앞지르고 있다.

재외상주공관(在外常住公館)은 한국(韓國)이 115개소(대사관 80, 영사관 32, 대표부 및 출장소 3)인데 비해 북한(北韓)은 91개소(대사관 75, 영사관 8, 대표부 및 출장소 8)이며, 서울과 평양(平壤)주재 외국공관은 서울 50개소 평양(平壤)은 29개소이다.

또한, 각종 국제기구(國際機構) 활동을 보면 유엔 산하 직속 및 전문기구 26개 중 한국(韓國)은 17개 기구에 북한(北韓)은 10개 기구에 각각 가입해 있다. 한편 43개 정부 간 국제기구에는 한국(韓國)이 40개 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北韓)은 불과 5개 기구에 가입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각종 국제기구의 활동 면에서도 한국(韓國)이 북한(北韓)을 단연 압도하고 있다.

민간(民間)외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 인력(人力)진출을 본다면 80년 말 현재 한국(韓國)이 15만 명으로 북한(北韓)의 3천5백 명에 비해 무려 43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南·北韓) 외교력의 격차는 앞으로 IPU 및 IMF 서울총회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을 계기로 더욱 심화(深化)될 것이 분명하게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 2. 「민주통일」 지지기반(支持基盤)도 확산추세

우리의 안보(安保) 노력은 궁극적으로 분단 조국의 통일 실현과 직결된다. 한반도(韓半島)의 통일은 우리 민족사의 당위적(當爲的) 요청일 뿐만 아니라 부강한 민족국가를 이루어 세계 선진 열강(先進列強)의 대열에 당당히 끼어야 한다는 우리 민족의 금세기(今世紀) 최대의 염원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제5공화국 출범 이래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과감하면서도 체계적인 대북(對北) 제의를 통해 통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관되게 주도권(主導權)을 장악해 온 노력은 국내외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내놓은 통일방안에 대해 현재 97개국이 지지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사실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제5공화국의 통일주도 노력은 전(全) 대통령이 81년 1월 12일 천명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제외와 6월 5일 제창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제외에서 구체화되었다. 이어 82년 1월 22일 전(全) 대통령은 이제까지의 대북(對北) 제의를 총망라하여 체계화한 역사적인 「민족화합(民族和合) 민주통일방안(民主統一方案)」을 다시 내놓았다.

주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통일헌법(統一憲法)을 제정하기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과 통일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한(南·北韓)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 협정」체결 등을 기본 골자로 하는 다시 말해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뜻을 담고 더 나아가 북한(北韓) 측의 주장까지도 적극 포용해서 남·북(南·北) 대화(對話)의 길을 폭넓게 열어놓은 획기적인 제안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 방안에 의한 남·북한(南·北韓) 최고책임자 회담이 실현되기 이전이라도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 의지를 행동적으로 실천하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82년 2월 1일 「20개 시범 실천 사업」의 실시와 2월 25일 「남·북한(南·北韓) 고위 대표회담」제의를 연이어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북한(北韓) 측은 이들 제의에 대해 줄곧 부정적(否定的) 반응만 보여왔다. 그래서 올해 들어 전(全)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국정(國政) 연설을 통해 이 일련의 제의들이 계속 유효(有效)함을 밝힘과 아울러 「남·북한(南·北韓)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에 대한 북한측(北韓側)의 조속한 긍정적 반응을 재차 촉구했던 것이다.

남·북한(南·北韓) 간의 모든 현안(懸案)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먼저 쌍방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대화 통로가 열려야 한다는 것은 세계의 여러 협상사례(協商事例)로 미루어 너무나도 당연한 요청(要請)이다.

분쟁 당사자 간 최고책임자들이 서로 포용적인 자세로 대좌(對坐)할 때 분쟁 해결의 극적인 전기(轉機)가 마련된 보기로서는 1970년 두 차례에 걸쳐 실현된 동·서독(東·西獨) 수상 간의 상호방문 및 정상회담이 양독(兩獨) 관계 정상화(正常化)의 바탕이 되었고, 1977년 「이집트」대통령과 「이스라엘」수상 간의 교환 방문 및 그 이듬해 미국(美國)에서 있는 「캠프데이비드」회담

이 양국 간 평화협정(平和協定) 체결의 기초가 된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事例)들을 감안할 때 북한(北韓) 측이 자신의 국제적 고립(孤立)을 자초(自招)하지 않으려면 「남북한(南北韓)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에 지체없이 호응,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지지하고 있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협의에 허심탄회하게 임해야 할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 3. 북한(北韓)의 대화기피(對話忌避)가 뜻하는 것

사리(事理)가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北韓) 측은 전(全) 대통령의 국정(國政) 연설이 있는 그날 느닷없이 주한(駐韓) 미군(美軍) 철수 문제만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한 제정당(南·北韓 諸政黨)·사회단체 연석회의」란 것을 열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대화를 마다하고 더구나 의제(議題)를 일방적으로 단일(單一) 고정화시킨 이 역제의는 사실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 표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2월 1일 북한(北韓)에 대해 「남·북한(南·北韓)당국·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의 개최를 다시 제의했다. 이는 북한(北韓) 측의 기만적인 역제의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주도하는 남북대화를 기필코 재개(再開)하여 민족의 여망(興望)에 부응하려는 우리 정부의 포용성을 재차 보일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북한(北韓) 측의 반응은 여전히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전제조건(前提條件)」이 충족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남북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되고 있다. 그 「전제조건」이란, ① 남한(南韓)의 현 정부가 물러나고 「용공(容共)」내지 「연공(聯共)」정부가 들어설 것 ② 남한(南韓)에서 반공정책(反共政策)이 철폐될 것 ③ 6·23 평화통일 정책이 철회될 것 ④ 주한미군(駐韓美軍)을 철수시키고 한·미(韓·美)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할 것 등 한국(韓國)의 무력화(無力化)와 공산화(共產化)를 강요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그들이 이 같은 강탈적(強奪的) 논리의 「전제조건」을 내세워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전적(全的)으로 그들 내부 사정(事情)에 있다. 즉, 첫째로 김일성(金日成), 김정일(金正日) 세습 체제의 구축을 위한 내부적 불안(不安)상태에서 정상(頂上)회담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며, 둘째로는, 70년대의 대화 경험으로 미루어 남·북한(南·北韓) 사회를 서로 개방할 경우 철저한 폐쇄(閉鎖)정책을 방편으로 지탱돼 온 독재권력(獨裁權力)의 유지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北韓) 측은 허구적(虛構的)인 「연방제(聯邦制)통일방안」을 내세워 자신의 대화기피 책임을 호도하려고 꾀하는 한편, 우리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방해하고자 각종 국제행사(國際行事)의 서울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대남(對南)파괴 공작에만 줄곧 혈안(血眼)이 되어 있는 것이다.



#### 4. 우리의 안보(安保)·통일전망(統一展望)은 밝다

그러나 장기적(長期的)인 전망(展望)에서 볼 때 적어도 80년대가 다 가기 전에 북한(北韓) 측의 이 같은 태도에는 반드시 변화(變化)가 일어날 것으로 예견(豫見)되고 있다. 그것은 크게 벌어져가고 있는 남·북한(南·北韓) 간 힘의 격차,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북한(北韓)의 체제 내 갈등, 부단히 강화되고 있는 주변정세(周邊情勢)의 압력 등 세 가지 변수(變數)와 관련해서 상정(想定)이 가능하다.

첫째로 한국(韓國)의 정치·사회가 확고히 안정되고 경제·군사적 힘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北韓)의 눈에 정확히 비치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살길을 찾기 위해서도 무망(無望)한 「대남혁명론(對南革命論)」을 스스로 수정 내지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지난해 말 국토통일원(國土統一院)이 발표한 「남·북한(南·北韓)경제력 비교」에 따르면 남·북한의 국민총생산(GNP)은 81년 말 현재 한국(韓國)이 6백22억 달러, 북한(北韓)이 1백36억 달러로 4.6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 오는 80년대 말기에 이르면 무려 7대 1 이상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북한(北韓)이 이를 거역할 수 없는 대세(大勢)로 받아들인다면 다음으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우리와의 평화적인 대화(對話)와 협상(協商)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두 번째는 북한(北韓) 내부의 체제변화(體制變化) 가능성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共產主義) 1인 독재체제의 권력승계(權力承繼)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거의 정식화(定式化)된 변화가 있어왔다. 즉, 제도화(制度化)된 관례가 없기 때문에 항상 승계 위기에 있었다는 점 승계를 위한 권력투쟁 과정 또는 그 이후에 전임자(前任者)의 사상과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이 으레 대두되었다는 점, 1인 독재자를 신격화(神格化)하는 과정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불만(不滿)이 그의 사망 후 「밀로부터의 개혁(改革) 운동」을 반드시 불러일으켰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조짐(兆朕)은 북한(北韓)의 세습 체제 구축 과정에서 이미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아무런 투쟁경력이 없는 김정일(金正日)의 횡포(橫暴)에 대한 군부(軍部)와 반발, 그가 지휘하고 있는 소위 「3대 혁명소조(革命小組)」운동의 가혹한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등이 그러한 변화 가능성을 예고(豫告)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狀況)에서 김일성(金日成)이 죽을 경우 북한(北韓)에서도 「스탈린」·모택동(毛澤東)의 사후(死後)에 일어난 것과 같은 체제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 경우 김정일(金正日)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집단지도체제(集團指導體制)일 것이며, 정책 노선 또한 주민의 의식주(衣食住) 생활 향상을 위한 실용주의(實用主義)로 전환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세 번째로는 북한(北韓)이 미국(美國)·일본(日本)·중공(中共) 등 주변 강대국의 전쟁포기 종용을 끝내 외면(外面)할 수 없게 되리라는 점이다.

80년대의 전체적인 정세 추이를 볼 때 동북아(東北亞)지역의 국제정치를 안정(安定)시키기 위해 미국(美國)은 북한(北韓)을 소련(蘇聯)의 영향력에서 끌어내는 탈소(脫蘇)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구할 것이며, 일본(日本)도 그 뒤를 따를 것이다. 한국(韓國)의 우방인 미국(美國)·일본(日本)과 3각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공(中共) 또한 「이념(理念)과 체제(體制)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에 호혜평등(互惠平等)의 원칙 아래 문호(門戶)를 개방한다」고 선언한 한국(韓國)의 외교정책을 계속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상황의 진전(進展) 속에서 필경 한반도(韓半島)의 평화정착(平和定着)을 위한 남·북한(南·北韓) 당사자 간 협상과 가능성은 보다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주변정세의 기본 추세와 북한(北韓) 내부 사정의 변화 요인(變化 要因)을 동태적(動態的)·복합적(複合的)인 시각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對備策)을 빈틈없이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고 사 일 화 〉

제자들이 아인슈타인에게 「선생님의 그 많은 학문은 어디에서 나왔나요?」라고 물었더니 그는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며 「나의 학문은 바다에 비하여 이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학문에 성공했나요?」하고 다시 묻자 그는 「S=X+Y+Z」라고 써 주면서 S는 성공이며, X는 말을 많이 하지 말 것, Y는 생활을 즐길 것, Z는 한가한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며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고, 너무 한가한 시간이 없으면 고요히 생각할 시간이 없으며, 감정적인 데서 이성적인 데로 돌아갈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된다.

# 집단안보(集團安保)와 미국(美國)의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

이 선 호(李善浩)  
〈국방대학원 교수(國防大學院 教授)〉

## 1. 집단안보체제(集團安保體制)의 배경(背景)

인류역사(人類歷史)의 발전단계(發展段階)는 자연사회(自然社會), 농업사회(農業社會), 산업사회(產業社會)의 3단계(段階)를 거쳐 이뤄져 왔는데, 이들 각 단계(各 段階)는 수개(數個)의 하위체제(下位體制)가 종합체제(綜合體制)를 이루고 있다. 즉, 인류(人類)는 가족 단위(家族單位)에서 출발(出發)하여 가족(家族)·혈연공동체(血緣共同體)란 이중조직(二重組織)으로 된 자연사회(自然社會)로 성립(成立)하였으며, 농업혁명(農業革命)을 전기(轉機)로 하여 가족(家族)·직능공동체(職能共同體)·국가(國家)·국제기구(國際機構)란 4중(重) 조직(組織)으로 된 새로운 산업사회(產業社會)로 발전(發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즉, 오늘날의 사회(社會)는 범세계적(汎世界的)인 통합체제(統合體制)로서 국제기구(國際機構)가 있으며, 그 하위체제(下位體制)로서 직능사회(職能社會)가 있고, 차차(次次) 하위체제(下位體制)로서 가족(家族)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사회(產業社會)로 이행(移行)된 이후 19세기(世紀) 초(初)에 와서 독립적(獨立的)인 정치단위(政治單位)로서의 기능(機能)을 가진 다수(多數)의 분립(分立)된 국가(國家)들이 대내외적(對內外的) 문제(問題)에 봉착(逢着)해 되자, 상호접촉(相互接觸)을 모색( 모색)하게 되고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와 체제적(體制的) 방법(方法)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국제기구(國際機構)가 형성(形成)되기 시작(始作)했다. 이리하여 1815년(年)에 개최된 「비엔나」회의(會議)를 필두로 회의외교(會議外交)가 진전(進展)됨에 따라 그 후 약 80년간에 걸쳐 간헐적으로 30여 회의 국제회의(國際會議)가 주(主)로 「유럽」강대국(強大國) 중심(中心)으로 열림으로써 「유럽」협조체제(協調體制)(Concert of Europe)를 형성(形成)하였다.

이러한 최초(最初)의 국제체제(國際體制)를 다변적(多邊的) 협상(協商)을 통한 호혜원칙(互惠原則)을 확인(確認)하기는 하였으나, 고차원적(高次元的)인 정치(政治) 및 안보문제(安保問

題)를 다루는 상설기능(常設機能)으로서의 제도(制度)를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유럽」협조체제(協調體制)는 「알프레드(Alfred Zimmer)」가 말한 바와 같이 『「유럽」을 위한 일용(日用)할 양식(糧食)보다는 의약품(醫藥品)』의 구실에 불과(不過)하였고, 강대국 협조체제(強大國協調體制)(Concert of Great Power)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후 1899년(年)과 1907년(年)에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와 초국가주의(超國家主義)를 표방하는 오늘날의 국제기구(國際機構)와 유사한 성격을 띤 「헤이그」체제(體制)(Hague System)가 형성(形成)되었다. 1899년(年)의 회의(會議)에는 「유럽」국가(國家)들 중심(中心)으로 단지 26개국(個國)이 참석(參席)하였으나, 1907년(年)의 제2차(第2次) 회의(會議)에는 다수(多數)의 중남미국가(中南美國家)들을 포함하여 44개국(個國)이 참석(參席)함으로써 최초(最初)의 총회(總會)를 결성(結成)하게 되었다.

이 회의(會議)의 의장(議長)이 『본회의(本會議)는 공동(共同)의 이익(利益)과 인류(人類)의 선(善)을 위한 토의(討議)를 하고자 사상(史上) 최초(最初)로 입헌국가(立憲國家)들의 대표(代表)가 가진 회합(會合)이었다.』고 말했듯이 비(非) 「유럽」국가(國家)와 약소국가(弱小國家)도 참여한 범세계적(汎世界的) 국제회의(國際會議)의 제도화(制度化)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리하여 19세기말(世紀末)에 이르러 국제사회(國際社會)는 강대국(強大國) 중심주의(中心主義)를 택(擇)하고 있는 구주협조체제(歐洲協調體制)의 경험(經驗)과 1, 2차(次) 「헤이그」체제(體制)를 통한 보편주의(普遍主義)의 원칙(原則)이 정립(定立)되었다. 특(特)히 약소국(弱小國)들은 「헤이그」체제(體制)를 통하여 그들의 평등성(平等性)과 독립성(獨立性)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세기(世紀)로부터 물려받은 강대국중심주의(強大國中心主義), 보편성(普遍性)의 원칙(原則), 기능주의(機能主義)를 통한 협력주의(協力主義), 그리고 상설적(常設的)인 사무국(事務局)의 역할(役割)을 통한 국제관료제(國際官僚制)의 도입(導入) 등을 가능케 해 준 것이다. 19세기말(世紀末)에서 20세기초(世紀初)에 걸친 「헤이그」체제(體制)를 바탕으로 한 국제관계(國際關係)는 제1차(第1次) 대전(大戰)의 발발로 말미암아 오래 지속(持續)되지 못하고 시련(試鍊)을 겪게 되었으나 집단적(集團的) 안보체제(安保體制)의 형성(形成)에 기여한 것은 사실(事實)이다.

## 2. 개별적(個別的) 국가안보(國家安保)와 집단적(集團的) 국가안보(國家安保)

제1차(第1次) 대전(大戰)이 끝나자 영국(英國)의 「씨실」卿(Lord Robert Cecil), 남아연방의 「스무츠」장군(將軍)(Jan Christian Smuts) 그리고 미국(美國)의 「윌슨」대통령(大統領)의 평화(平和)를 위한 14개(個) 조항(條項) 등에 나타난 이념(理念)을 기초로 하여 1919년(年)의 제5차(第5次) 「파리」평화회의(平和會議)에서 연맹규약(聯盟規約)이 채택되어 32개국(個國)이 비준함에 따라 국제연맹(國際聯盟)(League of Nation)이 창설되었다. 이는 제1차(第1次) 세계



대전(世界大戰)의 산물(產物)로서 세계최초(世界最初)의 전쟁예방(戰爭豫防)을 위한 평화기구(平和機構)임과 동시에 집단안보체제(集團安保體制)였다. 전쟁기간(戰爭期間) 중(中)의 연합국(聯合國) 간(間)의 동맹(同盟)을 통한 협력(協力)의 유형(類型)은 전후(戰後)의 세계평화(世界平和)를 위한 결속(結束)의 심리적(心理的) 기반(基盤)이 됨으로써 국제연맹(國際聯盟)을 탄생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연맹(國際聯盟)은 전쟁(戰爭)의 불법화(不法化)가 제도적(制度的)으로 불가능(不可能)하였으며, 집권적(集權的) 안보장치(安보裝置)가 미약하였고, 또한 미국(美國)의 불참(不參)과 영국(英國)과 「프랑스」의 대독정책(對獨政策)의 상반(相反) 등으로 「스페인·이디오피아」 분쟁(紛爭)과 만주사변(滿洲事變) 등을 막지 못하였고, 마침내 군비경쟁(軍備競爭)의 가속화(加速化)와 제2차(第2次) 대전(大戰)의 발발(勃發)을 방지하는 결과를 가져와 집단안보체제(集團安保體制)가 실패적(失敗的)으로 끝나게 되었다. 특히 국제연맹(國際聯盟)은 침략국에 대하여 경제적(經濟的) 제재(制裁)는 의무화(義務化)하였으나 무력적(武力的) 제재(制裁)가 의무화(義務化)되어 있지 않았으며 하부조직(下部組織)으로 지역적(地域的) 기구(機構)에 대한 구상(構想)이 없어 미대륙(美大陸)의 비식민주의(非植民主義)와 비간섭주의(非干涉主義)를 내세운 「몬로」주의(主義)에 집착한 미국(美國)이 연맹규약(聯盟規約)의 비준을 거부하는 사태(事態)로 말미암아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존속(存續)하다가 제2차(第2次) 대전(大戰)이 끝나기 직전에 국제연합(國際聯合)의 창설원칙이 강대국 사이에 채택(採擇)됨으로써 해체(解體)되고 말았다.

따라서 집단적(集團的)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의 연원(淵源)은 「윌슨」대통령(大統領)이 1918년(年)의 연두교서(年頭敎書)에서 발표(發表)한 14개(個) 항목(項目)에 달(達)하는 연합국(聯合國)의 강화원칙(強化原則)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이 현대적(現代的) 집단안보(集團安保)의 이념적(理念的) 바탕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제1차(第1次) 세계대전(世界大戰) 직후 새로운 이념(理念)에 따라 국제기구(國際機構)를 설립(設立)하려고 한 「윌슨」대통령(大統領)은 1919년(年) 9월(月) 「사우스 다코다」에서 행한 연설에서 19세기적(世紀的) 세력균형(勢力均衡)과 집단안보(集團安保)를 비교(比較)하여 『19세기적(世紀的) 세력균형(勢力均衡)은 국가(國家)보다 권력(權力)에 의존(依存)하는 정책(政策)이지만 집단안보(集團安保)는 국가(國家)의 권력(權力)을 지양하고 국제주의(國際主義)의 입장(立場)을 취하는 것이다. 즉, 집단안보(集團安保)는 세계적(世界的) 규모로 권력(權力)을 집결(集結)시켜 그 힘으로 집단(集團) 내(內)에서 위법자(違法者)를 처벌하려는 차원(次元)을 달리하는 안보체제(安保體制)가 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제1차(第1次) 대전(大戰) 이전이 개별적(個別的) 국가안보(國家安保)의 시대(時代)임에 대하여 전후(戰後)는 국제연맹(國際聯盟)이 창설됨으로써 집단적(集團的) 국가안보(國家安保)의 시대(時代)로 옮겨가게 되었다. 전자(前者)는 침략을 당한 경우 그 국가(國家)가 처한 입장에 따

라 단독으로, 동맹(同盟)으로, 또는 중립(中立)으로 제재조치(制裁措置)를 취했던 것이다. 따라서 군비(軍備)나 전쟁(戰爭)은 실정법상(實定法上) 하등의 제한(制限)이 가해져 있지 않았고, 철학적(哲學的)으로는 전쟁예찬(戰爭禮讚)의 입장이었다. 또한 타국(他國)의 전쟁(戰爭)에 대해서는 자국(自國)의 장래(將來)의 안전(安全)을 위해 또는 정치권력(政治權力)의 획득을 위해 참가(參加) 여부(與否)는 개별국가(個別國家)의 자유의사(自由意思)에 맡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개별적(個別的) 국가안보체제하(國家安保體制下)에서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현상(現象)을 초래(招來)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그 이유(理由)는 불법행위(不法行爲) 또는 침략의 인정(認定)은 피해국가(被害國家)의 자의적(恣意的) 판단(判斷)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쌍방(雙方)의 제재행위(制裁行爲)와 그 반작용(反作用)에 의한 전쟁(戰爭)의 악순환(惡循環)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즉, 개별적(個別的)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는 국가생존(國家生存)을 위해 군비(軍備)를 유지(維持)하거나 방위(防衛)의 제수단(諸手段)을 갖고 대외적으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전쟁(戰爭)을 치르거나 동맹(同盟)을 맺어 제3국(第3國)에 대항하든지 하는 자유(自由)가 허용(許容)된 제도(制度)였다. 19세기(世紀) 이후 이러한 국가(國家)의 기본권(基本權)은 국제법상(國際法上) 자존권(自存權)으로 불려 왔으나, 이의 필연적(必然的)인 결과(結果)와 제1차(第1次) 대전(大戰)이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집단적(集團的) 안전보장체제(安全保障體制)는 제1차(第1次) 세계대전(世界大戰) 직후 「윌슨」대통령(大統領)이 국제연맹(國際聯盟)을 통하여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當時) 미국(美國)은 고립주의(孤立主義)에 도취하여 국제연맹(國際聯盟)의 가입(加入)을 거부(拒否)하게 되었으며, 1920년(年)의 대통령 선거(大統領選舉)에서 「윌슨」이 패배(敗北)함으로써 그의 꿈은 좌절되었고 단지 국제연맹규약(國際聯盟規約) 11조(條)에 그의 뜻이 부분적(部分的)으로 반영되었을 따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개별적(個別的)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와 집단적(集團的)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를 비교(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개별적(個別的)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에 있어서는 전쟁(戰爭)은 자유(自由)이나 집단적(集團的) 국가고보체제(國家考保體制)에 있어서는 전쟁(戰爭)은 통제(統制)되며 단독국가(單獨國家)의 전쟁(戰爭)을 불법화(不法化)한다.
- ② 개별적(個別的)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에 있어서는 가상 적국을 목표(目標)로 하나, 집단적(集團的) 안보체제(安保體制)에 있어서는 가상 적국이 없다.
- ③ 일단 전쟁(戰爭)이 발발하면 종래의 대등(對等)한 관계(關係)로 규정했던 결투(決鬪)「룰」인 전시국제법(戰時國際法)이 대폭적(大幅的)으로 바뀌어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한 제재(制裁)가 규정화(規定化)되었으며, 국제법(國際法)은 서서히 집단안보기구(集團安保機構) 내(內)의 국내법적(國內法的) 성격(性格)을 띠게 되었다.
- ④ 개별적(個別的)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에 있어 중립국(中立國)의 존재(存在)는 시인(是認)될 수 없게 되었다.

국제연맹(國際聯盟)의 무력(無力)함을 절감한 연합국(聯合國) 지도자(指導者)들은 이에 대치(代置)할 새로운 만족(滿足)스러운 형태(形態)의 국제기구(國際機構)를 창설할 것을 모색해 오던 중, 1944년(年) 가을에 「워싱턴」의 「덤바톤 오크스」(Dumbarton Oaks)에서 소련(蘇聯), 영국(英國), 미국(美國) 및 중국(中國)이 회담(會談)을 갖고 전시(戰時) 반주축연맹(反主軸聯盟)(Wartime Anti-Axis Coalition)의 이름을 따서 국제연합(國際聯合)(the United Nations)이라고 칭하는 새로운 기구(機構)를 발족(發足)시키기 위한 헌장(憲章)의 초안(草案)을 작성(作成)하게 되었다. 그 후 1945년(年) 봄 「샌프란시스코」 회의(會議)에서 「유엔」헌장(憲章)이 완성됨으로써 「유엔」의 목적(目的)을 다음 3가지로 선언하게 되었다.

첫째, 효과적(效果的)인 집단조치(集團措置)를 통한 국제평화(國際平和)와 안전(安全)의 유지(維持) 둘째, 국민평등(國民平等) 및 자결(自決)의 원칙(原則)에 입각한 우호적(友好的)인 관계(關係)의 발전(發展) 셋째, 국제협력(國際協力)을 통한 경제적(經濟的), 사회적(社會的), 문화적(文化的) 혹은 인도적(人道的)인 문제(問題)의 해결(解決)

이리하여 1945년(年) 10월(月) 51개국(個國)이 비준을 끝냄으로써 국제연합(國際聯合)이 발족(發足)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제연맹(國際聯盟)의 미비점(未備點)을 보완한 명실공(名實共)히 현대적(現代的) 국제기구(國際機構)로서의 제특성(諸特性)을 갖춘 집단적(集團的) 국가안보체제(國家安보體制)의 전형(典型)으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국제연맹(國際聯盟)과 국제연합(國際聯合)의 주요차이(主要差異)는 제재(制裁)의 실행(實力行使)이 분권적(分權的)이나 집권적(集權的)이나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국제연맹(國際聯盟)에 의한 집단안보(集團安보)는 제재(制裁)를 위한 실행(實力行使)이 각국(各國)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분권적(分權的) 집단안보(集團安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비(比)해 국제연합(國際聯合)에 있어서는 안보이사회(安보理事會)가 평화(平和)에 대한 위협(威脅), 평화(平和)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侵略行爲)의 존재결정(存在決定) 그리고 국제적(國際的) 평화(平和) 및 안전유지(安全維持)와 회복을 위한 권고나 비군사적(非軍事的) 조치(措置)를 취하는 결정(決定)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군사적(軍事的) 및 비군사적(非軍事的) 조치(措置)는 가맹국(加盟國)에 대하여 법적(法的) 구속력(拘束力)을 갖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사회(國際社會)에는 4,000여 개의 정부(政府) 또는 비정부(非政府) 간(間)의 국제기구(國際機構)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국제연합(國際聯合)만이 전세계(全世界) 국가(國家)를 회원국(會員國)으로 포용하며, 인류평화(人類平和)와 국제안보(國際安보)를 중심(中心)으로 한 다원적(多元的)인 목적(目的)을 추구하고 복수국가(複數國家) 간(間)의 집단안보체제(集團安보體制) 형성(形成)의 원칙(原則)을 제공하는 조직(組織)이 되고 있다. 집단안보체제(集團安보體制)는 국제사회(國際社會)의 형성(形成) 원칙(原則)인 『전체(全體)를 위한 하나와 하나를 위한 전체(全體)』(One for All, All for One)에 기초하고 있어 모든 전원국(全員國)이 국제적(國際的)인 수준(水準)에서 형제적(兄弟的)인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遂行)하게 되는 것이다.

즉, 집단안보(集團安보)는 모든 국가(國家)가 침략자가 될 수 있다는 상황(狀況)에서 가상적(假想敵)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가맹국(加盟國) 중(中) 어느 국가(國家)도 침략자가 될 수 있는바 오늘날의 우방이 내일(來日)의 적(敵)이 될 수 있다는 국제정치(國際政治)의 비리(非理)를 시인(是認)하고 있다.

또한 집단안보(集團安보)는 2개국(個國) 이상(以上)의 국가(國家)들이 주로 군사적(軍事的)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키 위해 공동(共同)으로 행동(行動)하려는 것으로 세력균형(勢力均衡)의 유지(維持)보다 침략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힘의 압도적(壓倒的) 우위(優位)(Overwhelming Power)를 이루려는 데 목적(目的)을 두고 있다. 따라서 힘의 압도적(壓倒的) 우위(優位)에 의한 집단안보체제(集團安보體制)의 억제 효과(抑制 效果)는 패배(敗北)를 자초(自招)하지 않으려는 이상적(理想的) 판단(判斷)에 따라, 전쟁(戰爭)이 억제(抑制)될 것으로 보는 것이며, 제2차(第2次) 세계대전(世界大戰) 직후에 발족(發足)한 국제연합(國際聯合)이 집단안보체제(集團安보體制)의 발전(發展)과 그 정착화(定着化)를 위한 바탕을 제공하게 되었다.

### 3. 국가안보체제(國家安보體制)의 형성(形成)·발전(發展)

다원적(多元的)인 목적(目的)을 추구(追求)하는 개방체제(開放體制)로서의 국제조직(國際組織)인 국제연합(國際聯合)이 전후세계평화(戰後世界平和)를 위한 결속의 기초가 되고 집단안보체제구축(集團安보體制構築)을 위한 원칙(原則)을 제공하게 되었으나 개별국가(個別國家)는 자국(自國)의 안보(安보)를 위한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채 제2차(第2次) 대전(大戰) 중 경험(經驗)한 제반(諸般) 국가정책(國家政策)·전략(戰略) 및 자원관리상(資源管理上)의 불합리(不合理)와 모순이 노출(露出)되기 시작함으로써 특히 국가안보(國家安보)와 군사구조(軍事構造) 간(間)의 심한 갈등을 빚게 된 것이 전후(戰後)의 미국(美國)을 중심(中心)으로 한 자유진영(自由陣營) 제국(諸國)의 국내상황(國內狀況)이었다. 국가안보체제(國家安보體制)의 필요성(必要性)은 전쟁(戰爭), 혁명(革命) 및 변화(變化)의 공포(恐怖), 자본주의경제(資本主義經濟)의 불안정성(不安定性), 그리고 핵무기(核武器)와 군사기술(軍事技術) 때문에 대두(擡頭)된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체제(國家安보體制)는 통치(統治)「엘리트」들의 정책실현(政策實現)을 위한 장치(裝置)로서도 필요했으며, 관료제도(官僚制度)와 연결됨으로써 이것이 대통령(大統領)의 직권강화(職權強化)에 따른 국가안보활동(國家安보活動)의 조정자(調整者) 및 합법화(合法化) 도구(道具)로서 뒷받침하게 된 것이다.

미국(美國)의 국가안보체제(國家安보體制) 성립(成立)과 연관(聯關)한 3가지 주요(主要)한 변수(變數)의 범주(範疇)는 국제정치적(國際政治的) 및 군사적(軍事的) 발전(發展), 국내정치(國內政治), 기술적(技術的) 변화(變化)와 전략(戰略) 및 군사력(軍事力) 구조(構造)라고 하겠다.



### 가. 국제정치적(國際政治的) 및 군사적(軍事的) 발전(發展)

국제환경(國際環境)은 미(美) 국가정책(國家政策)의 중요(重要)한 지속적(持續的)인 변화 요인(變化 要因)으로 작용(作用)해 왔으며, 미국(美國)의 전략(戰略)은 주(主)로 국제영역(國際領域)에 존재(存在)하는 미국(美國)의 이익(利益)과 목표(目標)에 대한 대응조치(對應措置)로서 표현(表現)되었다. 일찍이 「리프만」(Walter Lippmann)은 국가(國家)의 독립(獨立)이나 영토(領土)의 보전(保全)과 같은 핵심 가치(核心 價値)(Core Value)를 희생할 위험에 처하지 않을 정도(程度)가 되어야 국가(國家)가 안전(安全)하며, 도전(挑戰)을 받게 되면 전쟁(戰爭)에서 승리(勝利)함으로써 이들 핵심가치(核心價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미국(美國)의 핵심가치(核心價値)와 이익(利益)에 대한 국제적(國際的) 위협(威脅)의 인지(認知)는 국가안보체제(國家安보體制)의 성립(成立)과 안보정책(安보政策) 형성(形成) 및 집행(執行)을 위한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즉, 미국은 국가안보(國家安보)를 추구(追求)함에 있어 2가지의 측면으로 접근(接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는 자국(自國)의 폭력(暴力)을 극대화하려는 노력(努力)으로써 국가안심(國家安深)의 정도(程度)는 잠재적(潛在的)인 적(敵)에게 필적(匹敵)할 수 있는 군사력(軍事力) 보유(保有) 여하(如何)에 의존(依存)한다는 측면(側面)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제질서(國際秩序)의 유지(維持) 그리고 국제협력증진(國際協力增進)과 국제관계(國際關係)에 있어 폭력(暴力)의 최소화(最小化)를 도모(圖謀)하려는 집단안보개념(集團安보概念)은 결국 이러한 2가지 측면의 국가안보체제(國家安보體制)의 확립(確立) 및 강화(強化)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努力)의 일환(一環)이었던 것이다.

### 나. 국내정치(國內政治)

일국(一國)의 국가안보체제(國家安보體制)가 정착(定着)되는 데는 국내정치(國內政治)가 중요(重要)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국가안보정책형성(國家安보政策形成)에 있어서 국내적(國內的) 환경(環境)이 대외정책(對外政策)과 국방정책(國防政策)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력(努力)의 정도(程度)를 결정(決定)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美國)에서는 국내정치(國內政治)가 예산절차(豫算節次)와 인력정책(人力政策)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따라서 병력(兵力), 무기체계(武器體系), 전략적(戰略的) 기동성(機動性) 등 국가안보(國家安보)에 가용(可用)한 전략자원(戰略資源)은 국방예산(國防豫算)에 의해 그 윤곽이 결정되는 것인바, 비록 국방예산(國防豫算)이 군사전략(軍事戰略)을 결정(決定)하지는 않는다 해도 국가안보대안(國家安보代案)은 가용자원(可用資源)의 성격(性格)과 정도(程度)에 따라 조절(調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미국(美國)의 국내정치현실(國內政治現實)인 것이다. 즉, 미국

(美國)의 국가안보체제(國家安보體制)는 이와 같은 국내정치(國內政治)의 관료제적(官僚制的) 맥락에서 볼 때, 국가(國家)의 중추적(中樞的) 의사결정자(意思決定者)들의 정치잠재력(政治潛在力)을 강화(強化)시키고 민주적(民主的) 의사결정(意思決定)을 합법화(合法化)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를 마련하는 방향(方向)으로 형성발전(形成發展)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 다. 기술적(技術的) 변화(變化)와 전략(戰略) 및 군사력구조(軍事力構造)

군사기술(軍事技術)은 국가안보정책결정(國家安보政策決定)을 위한 영향력의 상관관계에 있어 중요(重要)한 변수(變數)의 하나이다. 미국(美國)의 국가안보(國家安보)를 위한 가용대안(可用代案)의 마련은 미국(美國)과 그 적대국(敵對國)의 군사기술능력(軍事技術能力)에 따라 상당부분(相當部分)이 좌우(左右)되었던 것이다. 15세기(世紀)의 화약발명(火藥發明)에 따른 총·포(銃·砲)의 출현(出現)과 더불어 군사기술(軍事技術)은 부단(不斷)히 발전(發展)하여 새로운 무기체계(武器體系)의 출현(出現)을 촉진(促進)해 왔으나, 오늘날의 핵시대(核時代)에 이르기까지 군사기술(軍事技術)을 선도(先導)해야 할 상위체계(上位體系)로서의 군사전략(軍事戰略)이 이에 보조(步調)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전략(戰略)·전술(戰術)과 전력(戰力)의 부조화현상(不調和現象)을 보게 됐으며, 이와 같은 급속(急速)한 기술변화(技術變化) 특히 핵무기출현(核武器出現)에 따라 개별국가(個別國家)와 집단안보체제(集團安보體制)가 무기력(無氣力)하게 취약화(脆弱化)되고 불안정(不安定)하게 됨에 따라 미국(美國)은 국가안보체제(國家安보體制)의 정착(定着)을 통하여 그 처방(處方)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關聯)하여 군사력(軍事力)의 구조(構造)에 의하여 주로 뒷받침되는 국가안보정책(國家安보政策)이나 군사전략(軍事戰略) 역시 국제관계(國際關係)와 국내정책(國內政策)의 상호융합(相互融合)을 전제로 한다. 즉, 전략적(戰略的) 결정(決定)은 주로 국제환경상(國際環境上)의 인지(認知)된 위협(威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근본적(根本的)으로 군사력(軍事力)의 투입(投入), 전개(展開) 및 운용(運用) 그리고 군사능력(軍事能力)의 배비(配備) 및 개발(開發)에 관련(關聯)되며, 구조적(構造的) 결정(決定)은 주로 국내정치적(國內政治的) 측면(側面)으로서 근본적(根本的)으로 병력(兵力), 물자(物資) 및 조직(組織)에 대한 예산(豫算) 및 규모결정(規模決定)과 연관(關聯)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사기술혁신(軍事技術革新)과 관련(關聯)한 군사전략(軍事戰略) 및 군사력구조(軍事力構造)의 결정(決定)은 국가안보적(國家安보的)인 차원(次元)에서 대내외적(對內外的) 요인(要因)의 복합적(複合的)인 결합(結合)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가안보체제(國家安보體制)의 형성(形成)·발전(發展)이 불가피(不可避)하였던 것이다.

#### 4. 결론(結論)

한 나라의 안보(安保)는 인적(人的), 천연적(天然的), 기술적(技術的), 정치적(政治的) 자원(資源)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좌우(左右)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가장 중요(重要)한 자원(資源)은 이들 자원(資源)을 조직화(組織化)하여 응집력 있고 이지적(理智的)인 양태(樣態)로 조정(調整)·결집(結集)시킬 수 있는 능력(能力)인 것이다. 이러한 조직능력(組織能力)은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란 틀을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 미국(美國)의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는 헌법(憲法)과 전통(傳統) 그리고 외부적(外部的) 군사위협(軍事威脅)으로부터의 상대적(相對的)인 자유(自由)란 틀 속에서 발전(發展)되어 왔다.

특히 미국(美國)은 권력(權力)의 집중(集中)에 대한 강(強)한 불신(不信)이 계승되어 와 국가안보(國家安保)를 유지(維持)하는 데 포함된 권력(權力)은 전반적(全般的)으로 정부(政府)에 부여되어 왔으나, 대통령(大統領)과 의회(議會)가 기본적(基本的)으로 분담(分擔)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즉, 행정부(行政府)가 국가정책(國家政策)을 주도(主導)·촉진(促進)하되 입법부(立法府)가 감시하고 사법부(司法府)가 행정부(行政府)와 입법부(立法府)의 권력남용(權力濫用)을 경고(警告)하는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의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를 통하여 국가(國家)와 국민(國民)의 자유(自由)를 지켜왔으며, 대통령(大統領)은 민선(民選) 최고위(最高位) 공무원(公務員) 및 3군(軍) 총사령관(總司令官)으로서 강력(強力)한 문민통제(文民統制)(Civil Control Over Military) 원칙(原則)에 따라 전쟁(戰爭)을 지도(指導)해 왔다. 19세기 말(世紀末)까지 세계정세(世界情勢)가 미국(美國)에 위협(威脅)을 주는 사태(事態)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미국(美國)의 국가안보정책(國家安保政策)은 복잡(複雜)한 동맹관계(同盟關係)를 회피하려는 국가적(國家的) 결단(決斷)을 표명(表明)한 고립주의적(孤立主義的) 철학(哲學)에 의해서 지배(支配)되어 왔던 것이다. 이는 미국(美國)과 인접(隣接)한 강대국(強大國)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太平洋)과 대서양(大西洋)이 천연적(天然的)인 방어를 제공해 준 덕분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대규모(大規模) 상비군(常備軍)의 보유(保有)를 거부(拒否)하고 단지 상징적인 군사력(軍事力)만을 보유(保有)하는 데 급급해 왔다.

2차대전(2次大戰) 후(後)에도 상당 기간 육군(陸軍)과 해군(海軍)의 2개(個) 군종(軍種)이 각각(各各) 정부직할(政府直轄)로 분리(分離)·운용(運用)되었고 각 군성 간(各軍省間)은 물론 군사기구(軍事機構)와 정부(政府) 타기관(他機關)과도 상호(相互) 정책적(政策的)인 협조(協調)를 할 수 있는 제도(制度)가 마련되지 않았다.

미국(美國)은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가 없이 유럽과 태평양(太平洋)에서 전쟁(戰爭)을 치르는 동안 빚어진 행정부 각 성 간, 군·민간 및 각 군 간의 정책 형성 및 집행상의 갖가지 모순과 불합리(不合理), 중복과 낭비 등 문제점투성이의 당시 상황은 SNAFU(Situation Normal All Fouled up)라고 혹평하는 신조어를 내놓을 정도까지 발전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점차 국가안보체제의 형성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을 고수하려는 전쟁성 및 해군성이 자군 중

시 사상과 이해관계 때문에 통합된 국방성의 창설을 거부함으로써 국가안보체제의 발족이 오랫동안 지연되다가 1947년 7월에 비로소 국가안보법이 제정되어 현대적 개념의 국가안보체제가 탄생하였다. 즉, 국가의 대외, 대내 그리고 군사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국가안보회의와 국가안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자원의 동원, 관리, 배분을 담당하는 국가자원위원회 그리고 양 군사성을 통합한 국방성의 전신인 국가군사기구가 국가안보법에 의해 설치됨으로써 군사·비군사의 융화와 문무합일(文武合一)의 국가안보정책결정을 통한 양병(養兵)·용병(用兵) 일원화(一元化) 및 전략(戰略)·전력조화(戰力調和)의 국가 군사정책을 형성 집행함으로써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오늘날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합법적으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자율화(自律化) 시대(時代)의 국민(國民) 윤리(倫理)

### 선진조국(先進祖國) 창조는 우리 세대(世代)의 소명(召命)

자율화(自律化)는 방종이나 사치가 아니라  
도덕적 윤리관(倫理觀)을 스스로 정립(定立)하여  
인간(人間)의 참 삶을 찾는 것이라 하겠다.

마 옥(馬郁)

〈일간(日刊)「호국(護國)」 편집실장(編輯室長)〉

#### 사회(社會)급변, 세대차이(世代差異)와 가치관(價値觀)

산업이 발전되고 생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들의 처신이나 생각이 도덕적으로 볼 때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져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오늘을 극언하여 도덕암흑시대(道德暗黑時代)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교복을 자율화하고 생업과 시민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기 위한 통금(通禁)해제 등의 자율화가 국민도덕이나 윤리(倫理)에 위배되고 그것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

아니다. 선진조국 창조는 새 가치를 높이든 제5공화국은 이제 우리 국민도 그 의식(意識)을 선진화시키고 자율화하는 데서 선진국을 따라잡고 나아가서는 '86아시아게임이나 '88서울올림픽을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생활에서 규범을 찾을 줄 알고 사회에서 질서(秩序)를 지켜 문화 국민임을 자부하게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화는 방종(放縱)이나 사치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도덕적 윤리관을 정립하여 인간의 참 삶을 찾으라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도덕교육을 강조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질서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자율화 또는 도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생활환경이 급속히 변함으로써 종래의 도덕적 규범들이 그 구속력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새 세대에겐 구식(舊式)이란 이유로 무조건 거부하는 현상, 즉 세대차이(世代差異)에서 오는 반발이다.

둘째는 오늘날의 물질문명이 정신문명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감각적(感覺的) 가치(價値)가 인격적(人格的) 가치(價値)를 누르고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질 만능과 찰나주의는 인격 형성이란 뒷전에 놓고 당장의 안주(安住)나 향락(享樂)에 치우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셋째는 민족문화의 전통이나 고유의 미풍(美風)을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배척하고 맹목적인 작태에서 전통윤리(傳統倫理)에서 벗어나 방종한 자유주의 행동이 도덕의 몰락을 가져왔고, 나아가 자율(自律)마저 침해하는 경향이 짙다.

물론 이 같은 조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으나 어쨌든 물질문화의 성장은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이나 전통이란 구속력을 탈피하려 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나 그 어느 국민이 그 나라의 전통윤리를 간직하고 자율 할 줄 어느나에 따라 발전 속도가 다르다 하겠다.

다시 말해 국민의 자각, 자율, 자진 숭상하는 자세로 사회의 모든 규범을 이행한다는 것이 그 나라의 국민 된 도리요 의무(義務)란 뜻이다.

원래 「자유」란 지킬 줄 모르면 손에 쥐여줘도 모른다고 했다.

우리 국민 의식 이제는 의식적으로나 행동을 도덕이 뭐고, 자율이 뭐란 정도는 이해하고 이에 접근 내지는 지킬 줄 아는 습성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 산업(産業)·민주화(民主化)에의 생활적응(生活適應)

이렇게 해서 도덕적 암흑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원래 도덕적 규범이란 전통문화(傳統文化)를 기쁨으로 하고 삶의 공동체를 울타리로 하는 등불의 빛과 같다고 했다.

그런데 이 등불은 전통문화의 기쁨이 떨어져도 꺼져버리고 그 전통문화를 간직한 삶의 공동체를 떠나도 꺼져버리는 성격의 등불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현대의 지식인으로서 도덕적 규범의 정당성을 순수 이성적인 합리성이나 실천 이성적인 효율성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이러한 합리적(合理的)인 효율성은 인간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천하(天下)보다 고귀하다는 것은 전통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 이성적(理性的) 합리성이나 실질적인 효율성으로 인해서 보장되는 진리는 아니란 것이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사람을 무능하게 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도 이용될 수도 있고, 반면 사람을 살리고 구원(救援)하는 데도 이용된다.

즉, 과학이나 기술은 그 활용 여하에 따라 상반된 효과를 내듯 우리의 전통문화도 보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고루하고 보수적인 도덕이나 윤리라도 그것을 현대화할 줄 아는 우리의 자세, 그것을 승화(昇華)시켜 오늘에 살리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국민윤리(國民倫理)를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류의 정신사(精神史)를 돌이켜 보면 모든 뜻 있는 개혁(改革)이나 발전뿐만 아니라 위대한 혁명은 적어도 그 기본적 정신은 전통문화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

모든 혁명적인 정신운동은 언제나 전통문화 속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가치들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 민족이 고유의 언어, 풍습, 예의를 5천 년이란 오랜 세월을 두고 닦아오고 기르고 다듬어 오늘에 전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 또 남보다 나은 것을 만들어 후세에 이어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또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지상소명(至上召命)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진화하자면 도덕적 위기를 극복하고 도덕적 규범의 등불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문화 속에 담겨있는 도덕적 가치를 되찾아서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삶의 방식이 크게 변화했고 또 더욱 변화해 가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된 생활환경과 생활방식에 적응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도덕의 가치를 되살려 나가야 하겠다.

아무리 훌륭한 서구(西歐)의 자유 문명도 우리가 소화하기 따라서는 크게 유익도 되고 반대로 백해무익(百害無益)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의 생활을 자율화(自律化)한다는 것은 그 어떤 규범보다도 더 진취적이고 전진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할 때다.

## 질서(秩序)는 어머니 무릎 위서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 사회의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한 불합리와 형식(形式)들이 타성화되면 우리들의 삶에 또는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되살린다는 것은 전통문화 속에 담겨있는 윤리적인 정신을 합리적인 형식에 담아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의 등불을 다시 밝히고 우리에게 부과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 우리 도덕교육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지상(紙上)이나 TV 등의 홍보 매체를 보면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제자에게 체형(體刑)을 가한 교사(教師)가 자살했는가 하면, 남편의 외도를 비판한 가정부인이 자식 셋과 음독자살, 전경(戰警) 대원이 만취 끝에 시민에게 행패, 그런가 하면 수억대의 재물을 훔친 도둑놈이 탈옥(脫獄)하여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는니 정말 인구가 늘고 보니 별의별 일이 다 많다.

또한, 사회의 급변은 젊은이들에 괴상한 것만 눈에 비친다.

도색잡지에 도색 비디오, 노출과대의 사진과 그림, 그런가 하면 고고클럽의 난무에서 심지어는 찌르고 때리고, 부수는 성적 자극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서 듣겠는가 하는 반문도 나오지만 우리는 이것을 소화하고 극복하여 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선도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이라 하겠다.

자유(自由)를 자율(自律)로 자기 소화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의식의 선진화요, 선진조국 창조를 앞당기는 것이다. 모순은 시정할 수 있는 자세…… 또 그러한 사회의 변천 상황을 누가 먼저 받아들이고 누가 늦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세대 차이를 가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는 어디까지나 기성세대의 이해와 올바른 판단이 있어 청·소년을 선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부계사회(父系社會)의 윤리는 노유유서(老幼有序)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선인은 인간의 질서와 예의는 어머니의 무릎 위서부터라고 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꼭지를 물려서 키울 때 그 어린애의 버릇은 길러진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가정교육(家庭教育)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철저한 가정교육이 돼 있는 사람은 사회에 나와도 모범이 된다는 것이다. 또 우리 속담(俗談)에 「세 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그만큼 유년기의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의 방탕이나 방종을 사회나 학교(學校)에만 돌릴 수 없다. 어디까지나 부모의 책임이요, 또 책임지고 선도해야 한다.

때문에 변천 사회에서의 자율화는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이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지(衿持)와 자각과 자신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영위하게끔 인도해야 하겠다.

## 자유화(自由化)와 자율화(自律化) 그리고

인간 윤리란 시대적인 구분을 초월한 영구불멸의 것이 아니란 것을 이야기한 바 있다. 다만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그 기본적 가치들을 전제한 윤리적 전통을 떠나서는 도덕은 그 정당성을 보장할 수도 없고 그 구속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오리는 우리의 전통사회를 지배한 다섯 가지 도덕적 규범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륜(五倫)이다.

군신유의(君臣有義),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봉우유신(朋友有信)을 말한다. 이 오륜(五倫)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의 의(義)·친(親)



·별(別)·서(序)·신(信)이 우리 전통사회를 지배했고 또 그것이 생활 규범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지켜왔다.

이제 시대가 자유(自由)를 부르짖고 자율화하라고 한다 해서 면면히 흘러 내려온 그 오륜을 당장에 버리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유가 소중하면 그 자유를 지킬 줄 알라고 했다. 또 그 고귀한 자유를 오늘까지 지켜오기 위해 세계의 슬한 인류가 희생되었고 또 지금도 희생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다.

원래 자유란 남의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범위 내에 있어서의 자기 마음대로의 행위, 즉 남으로부터 구속이나 강제 지배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자율(自律)은 뭔가? 그것은 자기를 억제하고 즉, 실천이성(實踐理性)이 스스로 보편적 도덕법을 세워 따르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성 이외의 외적 권위나 자연적 욕망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이는 「칸트의 윤리」 사상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관념으로 그 반대는 타율(他律)이다.

자유를 구가한다 해서 의(義)가 없고 친(親)이 없고 친구 사이에 신의마저 저버려야 하는 것이겠는가. 어떻게 보면 자유의 사회일수록 나라에 충의(忠義)하고 부모에 효도(孝道)하고 친구 사이는 신의가 더욱 소중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우리가 자율화를 외치는 것도 자신이 찾고자 하는 자유를 위해선 실천적인 이상을 가지고 나라의 질서, 즉 법(法)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원래 법은 지배받는 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즉, 지배자가 지키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배자의 월권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법이라고 할 때 피지배자가 법을 지킨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감시와 책임 이행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86아시안게임이니 '88서울올림픽을 유치했다고 해서 자신이나 자만을 가지지 말고 우리의 전통문화, 풍습을 오늘에 승화시켜 질서 있고 자율성 지닌 국민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남이 보기에 흉하지 않고, 손님을 손님답게 대접하고 주인은 주인다운 행동을 하자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국민이 지녀야 할 윤리인 것이다.

그것이 고유의 전통 문명을 계승 받은 민족의 자세이기도 하다. 여기서 먼저 얘기한 오륜의 대강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 자율(自律)과 윤리신뢰(倫理信賴)의 사회(社會)

그럼 윤리(倫理)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켜야 할 이치(理致)이며 규범(規範)이다.

그러나 국민윤리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이치와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오면서 우리 국민윤리로 삼아 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륜」이다. 그

오륜은 우리 생활의 기본토대가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오늘의 위치에서 그것을 간략하게 재조명해 보기로 하자.

그 첫째로 우리는 예로부터 나라에 대한 충성(忠誠)을 윤리의 가장 큰 규범으로 생각해 왔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도덕이요, 의무였다.

그런데 오늘날의 개인주의(個人主義) 윤리는 이렇듯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마치 개인의 존엄성을 억누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봉건 윤리의 잔재라고까지 해서 배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때만 요청하는 제오차적(支五差)적외형적인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 국민윤리는 나라에 대한 충성을 국민으로서 그 본분을 다해야 하는 1차적이고 본질적인 규범으로 삼고 있다.

물론 사회의 형태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그 사회 위에 세워진 통치 기구로서의 국가도 그 성쇠(盛衰)가 무상(無常)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회나 국가를 피상적인 관념에서 보지 않고 생존과 발전의 터전이라고 본다면 충성에 대한 도덕 윤리는 마땅히 1차적인 국민윤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부모에 대한 효성(孝誠)이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恭敬)하고 소중히 모시는 것을 나라에 충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시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가족제도가 핵가족화(核家族化)함에 따라 점점 소홀해지는 감이 없지 않다. 우리들의 핵가족화와 합리화를 추구함에 따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마치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효도를 우리 국민윤리 가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고 또 그것이 틀림없다. 충(忠)이 만약 국가 윤리라면 효(孝)는 곧 가정 윤리인 것이다.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단위이며 우리 삶의 보금자리다. 그렇다면 부모에 대한 효도와 나라에 대한 충성은 인간으로서의 교양(教養)과 성숙(成熟) 그리고 품위(品位)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셋째로는 부부(夫婦)의 윤리, 즉 성도덕(性道德)에 대한 것이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정조(情操)를 지키고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는 것이 절대 요구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아내의 이러한 정조는 여인으로서 그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왔다.

물론 이에 대응하는 남편의 도리와 사랑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그 부부관계가 점점 편이주의 또는 합리주의에 따라서 이해되면서 가정의 그 절대적인 안정이나 아름다운 순결(純潔)을 잃어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의 이러한 불안정은 인간 윤리 타락의 중요한 원인이며 또한 현대인의 삶의 불안의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자라나는 2세대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안정된 가정의 뒷받침 없이는 훌륭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의 안정과 순결은 오직 부부관계의 올바른 정립에 달려 있다 하겠다.

넷째로 세대간(世代間)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들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장유유서(長幼有序)의 규범을 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은 이를 불합리한 규범이라고 이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다. 인간은 그 자질과 능력과 업적(業績)에 따라 대우를 받아야 하지 연령(年齡)에 의해서 더 존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삶의 경험을 더 많이 쌓아 올린 사람을 대우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확실히 아름다운 풍습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또 그것은 만물의 영장(靈長)인 인간사회의 아름다운 풍습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질서인 것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생활환경이 급속히 발전돼 가고 기술과 지식이 발전돼 가기 때문에 신·구(新·舊)의 교체가 빨라졌지만 이를 연결하는 것은 역시 유서(有序)의 윤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결코 사회의 발전이나 개인의 발전을 방해함이 없이 그 사회의 전통을 연결시키고 대인관계(對人關係)를 자연스럽게 질서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셋째는 친구끼리의 신의(信義)인 것이다.

신의 또는 신뢰란 안정된 사회, 발전될 수 있는 사회의 기틀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바람직한 상호작용은 신뢰를 전제로 하고서 만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경계해야 할 사람도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사람은 이기주의(利己主義) 동물이기 때문에 지대나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지만 그 근본은 신뢰 없이는 형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남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 일종의 모험이다. 그러나 그 모험을 통해서만 친구와 친구, 인간과 인간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공동체(共同體)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가족에서부터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의 유대는 일종의 모험으로부터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친구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 선진조국(先進祖國) 창조와 국민윤리(國民倫理)

윤리란 시대의 구분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인류문화의 기본적인 가치를 전제로 한 윤리적 전통을 떠나서는 도덕은 그 정당성을 보장할 수도 없고 그 구속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고대의 금욕주의·윤리, 중세기의 봉건적인 윤리, 근대의 개인주의 윤리 그리고 오늘의 합리주의(合理主義) 윤리 등이 모두 그 시대에 적응했고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태의 변천에 따라 사람은 달라져도 그 기본적인 가치 도덕과 윤리의 바탕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먼저 말한 오륜의 윤리는 어제나 그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또 그러한 윤리를 명문화(明文化)하기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지켜왔고 또 그것은 오늘까지 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시대가 변천돼도 자율하는 국민의 자세 그리고 도덕적 전통으로서의 윤리는 변할 수 없고 또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암흑의 극복과 새로운 윤리의 재건(再建)을 위해서 요청되는 것은 전통윤리의 새로운 해석(解釋)과 전통윤리의 새로운 적응의 자세인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전통윤리의 다섯 가지 규범, 즉 오륜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또 오늘의 사회적 상황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 것인가를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무리 뭐라 해도 오늘의 우리들에게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의 오륜은 우리 도덕 생활의 근간(根幹)이며 기본임에는 틀림없다.

우리가 개인의 전통을 아무리 존중해도 국가에 충성(忠誠)할 줄 모르면, 아버지께 효성(孝誠)할 줄 모르면 결국은 많은 개인들이 아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도덕적인 인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숭배해도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면 인간성의 요람으로서의 가정에 금이 가고 따라서 안정된 인격의 도야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남녀동등(男女同等)을 외쳐도 남녀관계를 분별(分別) 있고 절도 있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도덕적인 타락을 면치 못하고 도덕적인 인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우리가 아무리 능력(能力)이 있다 해도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신용이 없다면 그는 결국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에 새 시대 제5공화국에서 숨 쉬는 우리는 이제 해방된 지 33주년이 되고 보니 장년(壯年)으로서의 자율성과 국민으로서의 윤리를 지킬 줄 아는 시민이 돼야 하겠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것이 이 땅에 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의당히 해야 할 땅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곧 우리 한국인의 길ियो, 새 시대 새 나라의 선진조국 창조를 한발 앞당기는 우리의 예지와 슬기가 돼야 하겠다.

에 너 지 는 국 력 이 다  
아 께 써 서 애 국 하 자



## 첨단기술산업(尖端技術産業)의 미래(未來)

- 하이테크의 열풍 -

생물공학을 비롯하여 광기술, 신소재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이 서로 영향을 주거나 복합화되면서  
새로운 고도 기술사회를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

현 원 복(玄源福)  
<과학(科學) 저널리스트>

3~4년 전부터 일기 시작한 하이테크놀로지의 선풍은 지구 도처에 뜨거운 열기를 몰고 왔다. 요즘 지구는 '하이테크 열풍'에 들떠 있다. 나라의 선후진을 가릴 것 없이 그들의 장래를 가름하는 것이 바로 '하이테크'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미국 같은 가장 앞선 나라의 국민들도 날로 치열해지는 대외경쟁력을 부추기고 1천만이 넘는 실업자들에게 직장을 줄 수 있고 병든 미국경제를 소생시키는 유일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하이테크'라고 믿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신생공업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나 민간기업 그리고 연구 기관들은 선진공업 국가로 발돋움하는 지름길이 바로 '하이테크'의 발전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이테크'란 무엇일까? 미국 정부 노동통계국(BLS)의 정의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가 표준산업 코드를 부여한 977개의 산업 중에서 36개는 연구개발지출고와 기술계 종업원 수가 전체 미국제조업 평균치보다 2배나 높기 때문에 이들 업종을 '하이테크'로 본다. 이 중에는 제약, 컴퓨터, 전자제품, 항공기 및 연구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직장을 창출할 산업」이나 「높은 변화율을 가진 기술」을 '하이테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범주에는 정보처리, 통신, 반도체, 로보트 생물공학과 같은 첨단기술이 포함된다.

과학기술사라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세계는 80년을 고비로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의 장이 열렸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TV, 트랜지스터, 로켓, 나일론, 폴리에스터, 페니실린 등으로 대표되던 1940년대 이래의 기술혁명은 이제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래의

이 기술들은 그동안 갈고 닦아 고도화, 극한화, 복합화로 치달으면서 종착역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프 슈페터(Joseph Schumpeter)에 의하면 산업 혁명 이래 인류의 기술 혁신은 대체로 50년의 사이클을 두고 활짝 피었다가 시들어간다고 했다. 이른바 '기술의 영고 성쇠(榮枯盛衰)론'을 믿는다면 40년대에 피어났던 종래의 기술혁신은 60년 중반에는 정상에 올랐다가 70년대에는 정체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어 갔다는 것이다. 실제로 60년대 중반부터는 40년대와 50년대를 휩쓸었던 그 눈부신 신기술과 견줄만한 새로운 기술은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60년대와 70년대에든 꾸준한 기술 발전은 있었으나 거의가 이미 있던 기술의 개량이나 조합이라는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걸쳐 세계 기술계에는 새로운 조짐이 서서히 일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정보, 메카트로닉스(기계+전자), 재료, 광, 생물공학 등 몇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혁명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요 몇 해 동안 등장한 첨단기술들은 종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들이며 충격적인 기술 변혁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공학을 비롯하여 광기술, 신소재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이 서로 영향을 주거나 복합화되면서 새로운 고도 기술사회를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

이 기술혁신의 배경에는 미국의 거대한 과학의 잠재력이 도사리고 있다. 30년대 이래 압도적인 기술 역량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미국은 70년을 고비로 일본, 서독, 프랑스 등의 맹렬한 추격을 받아오다가 70년대 이래 오일쇼크가 준 기존산업에 대한 충격이 겹쳐 점차 경제 대국이라는 면목을 잃기 시작했다. 그래서 '위대한 미국'이라는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하이테크'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쏠리게 된 것이다. 기술집약적이며 자원 절약을 뼈대로 하는 이 새로운 기술들은 결국 한 세대를 주름잡던 철강, 조선, 화학, 섬유 등 중진의 주력 산업들의 후퇴를 강요하게 될 것이며 에너지, 정보, 통신, 컴퓨터, 생물공학 등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을 새로 펼쳐질 기술혁신 시대의 주도산업으로 부각시킬 것이다.

따라서 40년대 이래 새로운 기술과 제품으로 막대한 시장을 창출한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선례로 보아 앞으로 전개될 기술혁신 시대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한다는 것은 국가나 기업으로서는 생사를 건 중대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후발국 이던 일본이 지난번 기술혁신 시대를 슬기롭게 탄 결과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사실은 뜻있는 개도국가들에게 다가온 기술혁신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새로운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첨단기술산업의 미래를 분야별로 점차 본다.

### 반도체(半導體) 컴퓨터

세계는 바야흐로 컴퓨터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퍼스널 컴퓨터는 280만 대나 팔려나갔고 일본은 43만 대 그리고 유럽은 39만 대가 나갔다. 올해는 미국만 줄잡아 5백만 대, 일본도 1백만 대의 매출고를 바라보고 있다. 85년의 미국 퍼스널 컴퓨터의 예상 매출

고는 1천만 대, 그래서 자동차 판매 대수를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이리하여 컴퓨터는 학교와 직장가 가정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금성, 삼성, 동양정밀 등 여러 기업들이 퍼스널 컴퓨터 산업에 진출했으며 올해 5개 사에서 5천 대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몇 해 전 국내 수요가 올림픽이 열리는 88년에 대체로 1만 대 안팎을 내다보았으나 올해 안으로 이 수준을 넘어설지 모른다고 전망된다. 미국 내 퍼스널 컴퓨터 시장은 올해 5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이며 비디오 게임용의 카세트 시장만도 30억 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올봄부터 메이커들의 대투매전이 벌어져 값은 지난해의 반 이하로 떨어져 컴퓨터 대중화의 물결을 더욱 세차게 부채질하고 있다. 세계 퍼스널 컴퓨터 시장의 복병은 일본이다. 84년과 85년에 선을 보일 컴퓨터는 3백여 종이나 되며 이 중에는 책 크기의 50달러(약 4만 원) 안팎의 것도 있다. 그런데 퍼스널 컴퓨터는 앞으로 2년 이내에 손가방 속에 들어갈 정도의 것이 보편화되어 더욱 쓰기 쉽게 될 것이다.

컴퓨터가 이렇게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것은 트랜지스터와 실리콘·칩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덩치가 줄어들고 값이 크게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퍼스널 컴퓨터의 두뇌인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값은 단위 자료 처리용량에 대해 해마다 25퍼센트의 꼴로 떨어지고 있으나 복병인 일본이 이 시장에 뛰어들 때 더욱 빠른 속도로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칩의 수도 100개 이상이나 되는 것이 있으나 초대규모집적회로(VLSI) 기술이 보편화되면 칩의 수가 1~2개로 줄어들게 되어 생산비는 90퍼센트나 떨어진다.

결국, 서기 2천 년째가 되던 오늘날 집집마다 TV를 갖고 있듯이 컴퓨터가 보급되어 바야흐로 컴퓨터를 주축으로 하는 정보화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 생물공학(生物工學)

세계는 지금 ‘바이오피버’(생물공학 열병)를 앓고 있다. 1973년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S. 코엔과 H. 보이어 등이 유전자를 재결합하는 기초기술을 완성한 이래 생물공학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전자 재결합 기술은 뉴우턴물리학이 물고 온 성과와 진배없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오늘날 인류는 에너지 사용량의 60퍼센트를 화학공장, 철강공장 등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미생물을 ‘자연의 공장’으로 이용하면 보통 온도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1개의 대장균은 불과 12시간이면 1천억 개의 세포로 분열 증식한다. 이 대장균의 유전자 일부를 당뇨병 치료제인 인형(人型) 인슐린이나 항암 바이러스인 인터페론이나 소인증 치료제인 성장호르몬의 유전자로 바꿔 넣어준 뒤 증식시키면 이런 고귀한 의약품을 대량으로 싸게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가을 유전공학을 이용한 인형(人型) 인슐린은 시장에 선을 보였다. 유전공학을 화학 공정에 이용할 때 종래의 고온 고압 등 에너지 소비가 많고 또 사고 발생률이 많은 공정을 벗어날 수 있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개발한 특수한 미생물은

바다를 더럽히는 폐유를 무서운 속도로 먹어 치운다. 이 기술을 작물의 품종개량에 이용하면 사막과 같은 극한상황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 질소비료가 필요 없는 작물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생물공학이 창출할 새로운 시장 규모는 1990년께 연간 줄잡아 5백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유전공학의 전문기업은 미국의 제넨테크사를 비롯하여 모두 150여 개 기업이나 되고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국책 연구 개발사업으로서 정부의 차원에서 강력히 지원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유전공학의 연구개발을 밀고 있으며 86년까지 모두 1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기업도 이 분야에 만만치 않은 의욕을 보이기 시작했다. 올봄 충남 대덕에 1천 평 규모의 현대식 유전공학 연구 등을 마련한 럭키중앙연구소는 86년까지 박사급 15명을 포함한 60명의 전문연구진을 확보하고 B형간염 백신, 식물의 신종품 개발, 화공기초원료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인터페론의 양산 기술개발에 성공한 삼성 계열의 제일제당은 산하 식품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82년의 135명에서 올해는 500명 선으로 크게 증원하는 한편 올해 연구개발 투자로 47억 원을 투입할 계획. 이 기업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새로운 효소 개발에 주력하고 장기계획으로는 항암제, 항생제, 무공해 농약, 농산물 품종개량을 겨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미원, 한국아쿠르트, 두산그룹, 삼양식품, 태평양화학, 녹십자사, 유한양행 등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 메카트로닉스

수십 년간 정체를 벗어날 수 없었던 기계 기술은 전자공학이라는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 메카트로닉스(기계+전자=기전)혁명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로써 기계는 두뇌를 갖게 되었다. 기전 혁명은 TV, 전자레인지,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제품, 완구, 사무처리기, 자동차용 컴퓨터, 생산 기계(로봇) 등에 이미 깊숙이 스며들었으며 최근에는 텍세스·인스트루먼트(TI) 사의 영어 회화 연습기로 대표되는 말하는 기계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산업 혁명의 주도 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CAD(컴퓨터 지원에 의한 설계)/CAM(컴퓨터 지원에 의한 생산 작업)시스템은 종래 제품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3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전기발명 이래 가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는 CAD/CAM 시스템은 중국적으로는 무인자동생산공장을 실현시키는 길을 터주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 등지에서는 CAD/CAM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하여 팔고 있으며 84년의 미국 시장 매출고는 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메카트로닉스의 대표적인 제품인 로봇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 그 수는 세계를 통틀어 현재의 10만 대에서 90년 초에는 1백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기아산업 대우중공업, 삼성정밀, 금성사, 통일산업 등 여러 기업이 로봇 산업에 참여하거나 진출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 신소재(新素材)

지난날 새로운 소재의 출현은 기술혁신의 방아쇠 구실을 해왔다. 예컨대 반도체는 전자공학의 혁신을 가져왔고 철과 같이 강하고 높은 열에 견딜 수 있는 세라믹스의 개발은 자동차 개발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것이다.

최근의 재료개발 추세는 종래의 구조재료에서 기능재료로 연구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기능재료의 예를 들면 우선 기억의 기능이다. 절연체의 가도름과 갈륨비소를 소재로 한 인공 보석 가넷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버블 메모리의 연구가 한창이다. 이 메모리는 소형이고 전력 소모가 적으며 전원을 끊어도 기억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미 전화국 요금 기억, NC 공작기계장치 등에 쓰이기 시작했다. 한편 실리콘칩의 소자의 수가 10만 개, 1백만 개로 늘어나면 여기에서 나오는 열로 실리콘이 녹아 버린다. 그래서 극저온 상태에서 쓰는 '조셉슨소자'에 관한 연구가 정력적으로 진척되고 있으며 90년대에는 시장화의 길이 열릴 것 같다. 이 밖에도 인체 적응성의 기능을 가진 재료나 높은 효율을 가진 분리막, 내열성이 높은 세라믹 등 많은 새로운 재료들이 등장할 계제에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세라믹엔진은 자동차의 열효율을 현재의 30퍼센트 안팎에서 45퍼센트로 올릴 뿐만 아니라 중량도 반으로 줄기 때문에 이것이 실용화될 80년대 후반기에는 자동차공업에 커다란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 광산업(光産業)

광산업은 오늘날의 전자산업을 이을 핵심 산업으로 꼽고 있다.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전자기술도 역시 넘어야 할 벽이 가로막고 있다. 그중 하나가 부품의 수이며 다른 하나는 주파수이다. 부품이라는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초 LSI이며 주파수의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레이저이다. 광통신의 매력은 통신의 고밀도화에 있다. 1백 개의 신호 전송용의 광화이버를 묶어도 연필심 정도의 부피밖에 되지 않는다. 1개의 화이버로 한 번에 1천 통화의 전화나 몇 개 채널 분의 TV 프로그램을 보낼 수 있다. 광통신의 종가인 미국은 81년에 이미 2만 2천 킬로미터의 광케이블을 깔았으며 1988년에는 대서양횡단 해저광케이블 6천5백 킬로미터가 부설될 것이다. 또 9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일본-하와이 간의 제3 해저케이블도 광섬유로 깔게 될 것이다. 광통신의 생산고는 90년대 초 미국만 65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ATT사가 광기술로 현재의 통신망을 바꾼다면 1천 6백억 달러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된다. 일본의 전전공사를 광통신으로 바꿀 때 1백 30억 달러의 시장이 생긴다. 광통신의 신장률은 연간 50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기통신연구소, 광진전자, 금성전기, 금성전선, 대한전선 등이 광섬유 통신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81년 하반기에 신제품을 내놓았다. 또 한국기술진흥과

금성전선, 대한전선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한국 광통신은 반월공단에 연 1만 2천 킬로미터 생산 규모의 광섬유 케이블공장을 세워 83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광기술의 응용은 통신 외에도 광컴퓨터나 메모리 등의 광정보처리, 가공이나 절단 등의 공작 분야, 레이저·메스 등의 의학 분야, 핵융합이나 태양전지 등 에너지 분야로 다양하게 번져 나가고 있다.



## 선진조국(先進祖國) 창조(創造)와 우리의 다짐

### 선진화(先進化)의 전제(前提)는 무엇인가

#### 정신적 근대화를 이룩하고

나보다는 사회(社會)와 국가(國家)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보다 큰 대아(大我)를 향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조 복 신(趙福新)

〈전우신문(戰友新聞) 논설위원(論說委員)〉

#### 확신(確信)에 찬 우리의 미래상(未來像)

미래(未來)에 대한 희망적(希望的)인 비전(Vision)을 설정함과 아울러 그것의 구현(具現)을 위한 의지(意志)를 가다듬는 것, 바로 이것은 국민 개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민족전체(民族全體)를 위해서도 매우 유익(有益)하고 절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시대(時代),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민족(民族)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미래상(未來像)을 내세워 단합해서 꾸준히 분투 노력(努力)하는 민족(民族)은 앞날의 번영(繁榮)이 약속되게 마련이다. 그것은 역사(歷史)에 나타난 인간승리(人間勝利)의 필연(必然)에 속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이 연초(年初)에 국정 연설을 통해 제시(提示)한 「선진조국(先進祖國)의 창조(創造)」라는 대과제(大課題)는 우리의 국가 목표로서 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미래상(未來像)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국회(國會)에서 행한 국정(國政) 연설에서 '선진조국(先進祖國)의 창조(創造)' 그것은 우리의 국민적 여망(興望)과 시대적(時代的) 소명(召命)으로서 본인은 내 임기(任期) 중(中) 신명(身命)을 바쳐 기필코 이를 실현(實現)하고자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국민 모두의 힘과 정성이 이에 기울어지기를 기대(期待)한다고 호소하였다.

전(全) 대통령은 또한 선진조국(先進祖國)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하는 우리 국민의 위대성(偉大性)과 국민적 저력(底力)은 이미 입증(立證)되었으며 문제는 그 위대성(偉大性)과 저력(底力)

을 어떻게 분산(分散)시킴이 없이 단단하게 결집(結集)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혈관(血管) 속에는 지난날 광활한 영토(領土)를 달리던 웅장한 민족혼(民族魂)이 맥맥히 흐르고 있고 또 우리의 머릿속에는 훌륭한 문화(文化)를 꽃피운 조상(祖上)들의 슬기가 아직도 충만해 있음을 상기시켰다.

우리는 이제 오늘의 우리 스스로를 냉철히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勿論) 민족(民族)의 자아(自我)를 재발견(再發見)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땀 흘려 노력(努力)하면 선진조국(先進祖國)을 창조(創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확고히 다져놓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60년대(年代)와 70년대(年代)에 걸쳐 국민 모두가 하나로 단합(團合)하고 땀 흘려 일한 결과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 가운데 선두주자(先頭走者)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리고 80년대(年代)에 접어들어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선진화(先進化)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시켜 왔다.

창조(創造), 개혁(改革), 발전(發展)의 새 시대정신(時代精神)으로 민주복지(民主福祉)국가 건설을 지향해 온 제5공화국 정부는 그동안 통금(通禁)해제, 교복자율화(校服自律化), 해외여행 자유화 등 개방(開放)과 자율(自律)의 새로운 정책(政策)으로서 국민 의식(意識)의 선진화(先進化)를 꾀해 왔던 것이다.

또한 88년(年) 올림픽과 86년(年) 아시아경기대회의 서울 유치로서 우리 민족(民族)과 우리 문화(文化)를 세계(世界)에 과시(誇示)할 수 있는 계기(契機)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의 미국(美國)방문, 아시안 5개국 방문, 아프리카 및 캐나다 방문, 나카소네 일본(日本) 수상의 방한(訪韓) 등의 외교적(外交的) 성과는 국제화 시대와 개방(開放)시대에 부응하여 한국의 국제적 지위(地位)와 「세계(世界) 속의 한국(韓國)」의 위치를 확고히 해 준 선진화(先進化)에의 발돋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꿈에 안주(安住)하기에는 너무나 위대(偉大)한 한국민(韓國民)임을 깨달아야 함은 물론 민족적(民族的) 자긍(自肯)을 견지(堅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한국(韓國)은 일부 인사들이 이야기하듯 결코 정체(停滯)나 후진(後進)의 운명에 처해 있지 않다.

번영(繁榮)되고 통일(統一)된 선진조국(先進祖國)의 꿈은 이미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확신(確信)으로 굳게 자리를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耳目)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창의력(創意力)을 발휘(發揮)하고, 땀 흘려 노력(努力)함으로써 선진조국(先進祖國)을 기필코 창조(創造)하고자 말겠다는 굳은 결의와 용기(勇氣) 그리고 신앙과 꿈을 보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물질(物質)과 정신(精神)의 조화(調和)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 목표로 제시(提示)된 선진조국(先進祖國)의 참다운 상(像)은 무엇이며 이의 실현(實現)을 위한 전제조건(前提條件)은 무엇인가. 선진국(先進國)이라는 것은 흔히 서구형(西歐型)의 선진공업국(先進工業國)을 연상하기 쉬우나 1인당 국민총생산(GNP), 물가수준, 인구(人口)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先進國)으로 평가하는 것은 단순 논리(論理)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물질적인 기초(基礎)가 튼튼한 것은 국민들이 행복하고 고상한 삶을 영위하는 조건(條件)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진정한 행복과 질(質)이 보장(保障)되는 삶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으면서도 건실(健實)한 도덕적 기초(基礎)가 확립(確立)된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한 사회의 선진성(先進性)과 건실성(健實性)은 견고한 도덕률이 지배(支配)하며 물질적 기초가 확립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전(全) 대통령이 선진국(先進國)을 건설함에 있어 선진고도공업국(先進高度工業國)에의 이행(移行)이 아니라 선진조국(先進祖國)의 창조(創造)라고 천명한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염원(念願)하고 시대적(時代的)인 소명(召命)으로 부각된 선진조국(先進祖國)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있으나 정신적(精神的)으로 황폐한 나라들을 단순히 답습,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우리의 역사(歷史)와 문화(文化)축적에 적합한 선진국(先進國)으로 창조(創造)해 나가는 것이다.

서구(西歐) 여러 나라의 장점(長點)과 경험을 배우고 우리의 전통가치(傳統價値)를 창조적으로 계발(啓發)하여 상호보완해야만 우리가 목표(目標)로 하는 선진조국(先進祖國)은 건설(建設)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적(傳統的)인 가치관은 오늘에 와서도 미래건설(未來建設)의 정신적인 지주(支柱)가 되어야 함은 물론 조상들이 정성 들여 가꾸어 놓은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가벼이 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상에서 소개한 선진조국(先進祖國)의 창조(創造)는 제5공화국 정부의 국정지표의 하나인 「복지(福祉) 및 정의사회(正義社會)」의 건설(建設)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조국(先進祖國)의 참다운 상(像)은 「정의(正義)로운 민주복지국가」인 것이다.

복지사회(福祉社會)란 국민 각자가 원하는 삶의 기쁨, 인생(人生)의 행복, 문명(文明)된 사회생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保障)된 사회를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산업화(產業化), 근대화(近代化)의 편익(便益)과 과실(果實)이 유산자(有產者), 특권층 등 어느 일부 계층에 독점(獨占)됨이 없이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확산(擴散)되고 향수(享受)되는 사회를 말한다.

복지사회(福祉社會)를 건설(建設)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方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生活)을 할 수 있는 물질적, 환경적 조건(條件)을 마련해주는 방법(方法)이다.

이것은 복지사회 건설(建設)의 환경적, 외면적, 물질적, 객관적, 현대적 접근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민들이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生活)을 할 수 있는 정신적(精神的), 내면적(內面的), 도덕적, 주관적, 전통적 접근법이다.

상기(上記) 정신적(精神的) 도덕적(道德的) 접근법이 강조되는 소이(所以)는 선진화(先進化)를 이룩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다름 아닌 안정과 질서(秩序)이기 때문이다.

국민 도의가 붕괴되고 사회정의(社會正義)가 바로 서지 못한 국가나 사회는 아무리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참다운 개개인의 삶의 의미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經濟的)으로도 부강(富強)하고 정신적(精神的)으로도 풍요한 속에서 이 땅에 사회정의(社會正義)가 실현(實現)되고 복지(福祉)가 구현(具現)되는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民主福祉國家), 다시 말하면 선진조국(先進祖國)을 창조(創造)해 가고 있다.

선진화(先進化)를 이룩함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것은 다름 아닌 질서(秩序)와 안정(安定)이다.

법(法)이 공동체(共同體)의 질서(秩序)를 유지(維持)시키는 구속적 규범(規範)이라고 한다면 도덕이나 윤리(倫理)는 질서(秩序)와 안정을 유지시키는 자율적(自律的)인 길잡이가 된다.

그런 뜻에서 법(法)이나 편리(偏理), 도덕(道德)이 모두 궁극적으로는 공동체(共同體)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 수호(守護)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사회(正義社會)란 곧 공공(公共)의 질서(秩序)와 공익(公益)을 염두에 두면서 사적(私的) 이익(利益)을 자유롭게, 질서 있게 추구함으로써 멘담이 말한 이른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구현(具現)시킬 수 있는 사회(社會)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先進國)이란 쉽게 말하면 복지사회에 정의사회를 플러스시킨 국가이며 이것이 선진국(先進國)의 이상형(理想型)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선진화(先進化)의 전제조건(前提條件)은 물질적인 문명(文明)[생산력(生産力), 생활조건(生活條件), 기술과 과학(科學), 자원]과 정신적(精神的)인 문화(文化)[제도, 조직, 가치, 문학(文學), 종교(宗教), 예술(藝術) 등]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人間)은 물량적으로도 아무런 부족(不足)이나 불편(不便)함이 없이 풍요롭게 살아야 하겠지만 정신적으로도 건전하게 살아야 한다.

건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前提)가 또한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선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덕(道德)이나 윤리(倫理)가 바로잡힌 사회가 전제(前提)되어야 한다.

서로가 신뢰(信賴)하면서 정직(正直)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社會)가 되고, 부정과 부패가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때 국민 개개인의 의식개혁(意識改革)은 선진화(先進化)의 전제조건(前提條件)이 되는 것이다.

선진조국(先進祖國)을 달성(達成)하기 위해서는 의식개혁(意識改革)이 선행(先行)되어야 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행동화(行動化)하기 위한 가치관(價値觀)과 신념(信念)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지시하는바 있어야 할 것이다.

### 의식개혁(意識改革)으로 선진조국(先進祖國) 창조(創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고, 국민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意識)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말해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國民)의 의식(意識)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다.

국민들의 의식(意識)이 올바르게 확립(確立)되고, 발전(發展) 지향적일 경우에는 그 나라가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 자연조건(自然條件)이나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位置)에 처해 있을지라도 발전(發展)을 거듭하여 풍요한 복지국가(福祉國家)를 이룩하게 되는 것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역사(歷史)가 이를 입증(立證)하고 있다.

이와 반대(反對)로 아무리 좋은 천혜(天惠)의 자연조건(自然條件)이나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를 가졌다 할지라도 국민(國民)들의 의식(意識)이 부정적인 심리(心理)들로 가득 차 있을 경우에는 발전(發展)은커녕 퇴보(退步)를 거듭함으로써 결국(結局)에 가서는 다른 나라의 지배(支配)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발전(國家發展)에 있어서의 국민의식(國民意識)의 중요성(重要性)은 국가의 자연조건(自然條件)이나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가 불리(不利)하면 할수록 더욱 높아지게 마련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理由)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선진조국(先進祖國)을 창조(創造)하는 과업(課業)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의식개혁(意識改革)은 선결(先決)되어야 할 핵심적(核心的)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조국(先進祖國)의 창조(創造)를 위해서 선행(先行)되어야 할 의식개혁(意識改革)의 내용은 크게 구분(區分)하여 3대 부정적 심리(心理)의 추방과 3대 적극적(積極的) 심리(心理)의 계발(啓發)강화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추방되지 않으면 안 될 3대 부정적 심리는 지난해부터 우리 국민이 추방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부패 심리(心理), 무질서심리(無秩序心理), 인플레 심리(心理)이다.

이들 부정적 심리(心理)들은 그동안의 산업화(產業化)에 부수되어 온 사회적(社會的) 병폐들을 제거(除去)하고 안정된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추방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다.

이들 3대 부정적 심리(心理)들이 완전히(完全) 추방된다면 우리의 사회개혁(社會改革)은 확고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그러한 사회개혁(社會改革)의 성공은 선진조국(先進祖國)의 창조(創造)를 위한 추진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上記)에서 지적한 부정적 심리(心理)의 추방만으로는 선진화(先進化)의 속도를 가속(加速)시킬 수가 없다.

80년대(年代) 중(中)에 선진조국(先進祖國)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선진화(先進化)의 속도(速度)를 가속(加速)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는 부정적 심리(心理)를 추방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선진화(先進化)를 촉진(促進)하는 적극적 심리(心理)들을 계발강화(啓發強化)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속적 선진화(先進化)를 위해 특히 개발 강화되어야 할 적극적 심리(心理)로는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다.

첫째, 국민의 저력(底力)이 보다 잘 발휘(發揮)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自信感)을 더욱 강화(強化)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일부에서는 우리가 처한 불리(不利)한 여건(與件)을 과대평가하며 우리 국민의 우수한 자질(資質)과 단합력(團合力)을 낮추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국가안보가 항상 위협(威脅)받고 있는 가운데 막중한 국방비를 부담해 가면서 경이적인 속도의 산업화(產業化)를 이룩한 세계(世界) 유일(唯一)의 국민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아무리 불리한 여건도 우리의 발전추진능력(發展推進能力)을 압도할 수 없다는 강한 자신감(自信感)을 가져야 한다.

둘째, 새로운 발전전략(發展戰略)과 새로운 기술(技術)을 개발하기 위해 창조정신(創造精神)을 계발(啓發)해야 한다.

기회(機會)는 창조적(創造的)이고 진취적인 민족(民族)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다. 한번 흥성했던 민족(民族)이라도 발전의지(發展意志)와 진취적 기상을 잃으면 그로써 쇠망하고 마는 것이 역사법칙(歷史法則)이다. 실령 국제적 환경과 여건(與件)이 우리에게 유리(有利)하게 전개(展開)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活用)하여 발전적(發展的)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그 민족(民族)의 창조적(創造的) 정신(精神) 및 의지(意志)가 발전(發展)지향에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진(中進)에서 선진(先進)으로의 제2도약(第2跳躍)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창조능력과 발전의지가 겸비되어야 하며 진취적인 기상과 성취 지향적인 기개로 충만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선진화과업(先進化課業)에 대한 모든 국민의 참여(參與)와 협력(協力)을 위해 긍정적 사고(思考)의 계발(啓發)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식민지배(植民支配)를 받아온 탓으로 부정적인 사고(思考)를 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것이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좋은 국민성(國民性)과 단합력의 발휘(發揮)를 저해해 왔다.

이제 선진조국(先進祖國)을 창조(創造)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政府)와 국민이 모두 합심협력(合心 協力)하려면 무엇에 대해서든지 단점(短點)을 비판하기에 앞서 장점(長點)을 칭찬하는 능동적(能動的) 사고방식(思考方式)을 국민 모두가 견지(堅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상기(上記)에서 소개한 3대 부정적 심리(心理)의 추방과 3대 적극적 심리(心理)의 개발 강화 이외에 선진조국(先進祖國)의 창조(創造)를 위해 요청되는 것은 시민(市民) 정신을 바탕



으로 한 공공생활(公共生活)의 생활윤리(生活倫理)[사회적(社會的)인 윤리(倫理)와 국가적 인 윤리(倫理)]이다.

시민(市民) 정신은 「나」만의 안일(安逸)과 자유(自由)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일과 자유」, 다시 말하면 공공(公共)의 이익(利益)과 질서(秩序)를 먼저 생각하는 인생관(人生觀)과 생활관(生活觀)의 바탕 위에서 함양(涵養)되는 것이다.

우리는 복지(福祉)·정의사회(正義社會)의 구현(具現), 다시 말하면 선진(先進) 조국의 창조를 위해 일로(一路)에 매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온갖 그릇된 물질 만능의 가치관에서 탈피(脫離)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근대화를 이룩하고 나보다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보다 큰 대아(大我)를 향(向)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民主市民) 정신의 함양(涵養)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要素)로 등장하고 있다.

### 국민화합(國民和合) 속에 국력배양(國力培養)

우리 국민이 이상(以上)과 같이 3대 부정적 심리(心理)를 추방하고 3대 적극적 심리(心理)를 계발강화하는 의식개혁(意識改革)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함과 아울러 민주시민(民主市民) 정신의 함양(涵養)에 박차(拍車)를 가(加)한다면 사회개혁(社會改革)의 성공과 선진조국(先進祖國)의 실현은 그만큼 더 앞당겨질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역사(歷史)는 언제나 난관을 극복(克服)하려는 의지(意志)와 용기(勇氣) 있는 국민에게 발전(發展)과 번영(繁榮)의 영광을 안겨 주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歷史的) 진실(眞實)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애로(隘路)가 있더라도 전진(前進)을 멈출 수가 없다.

어제는 불가능(不可能)하다고 생각되던 일도 오늘은 가능하듯이 오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우리의 노력(努力) 여하에 따라서는 내일에는 반드시 성취(成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능동적(能動的), 적극적(積極的), 전진적(前進的), 자세(姿勢)를 견지하고 국민 화합(和合) 속에 국력(國力)을 배양해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상(未來像)은 강력(強力)한 민족통일국가(民族統一國家)와 번영(繁榮)된 선진복지국가(先進福祉國家)로서 세계사(世界史)의 주류(主流)에 참여(參與)하고 기여하는 보람찬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 것으로 확신(確信)하는 것이다.

## 나는 이렇게 다짐한다

“하면 된다”라는 굳은 결의(決意)와 신념(信念)으로  
내 조국(祖國) 수호에 헌신할 터.

중령 고 석 진(高錫珍)  
(제3591부대)

평화(平和)는 전쟁(戰爭)을 억제(抑制)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유지(維持)되는 것이며, 힘의 뒷받침이 없이는 허구(虛構)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事實)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스스로의 생존권(生存權)은 스스로의 단합(團合)된 힘으로 지켜야지 다른 누구도 이를 보장(保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월남(越南)의 패망(敗亡)을 통(通)해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그 나라의 국방(國防)이 견고(堅固)하면 외적(外敵)의 침입(侵入)이나 정복(征服)으로부터 국가(國家)의 안전(安全)을 보장(保障)할 수 있었지만, 국방(國防)이 허약(虛弱)했을 때는 언제나 외부(外部)로부터의 침략(侵略)을 받아야만 했다.

돌이켜 보면 1948년(年) 정부수립(政府樹立)과 더불어 태어난 우리 국군(國軍)은 조국(祖國)의 간성(干城)으로서 전열(戰列)을 채 가다듬기도 전(前)에 김일성(金日成) 공산집단(共產集團)의 1950년(年) 6월(月) 25일(日) 무력남침(武力南侵)에 의해 우리 민족(民族)은 역사상(歷史上) 가장 쓰라린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悲劇)을 강요(強要) 당했던 것이다.

반면 우리는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의 세계적화(世界赤化) 야욕을 분쇄(粉碎)하고 세계 평화(世界平和)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수호(守護)를 위(爲)해 멀리 월남(越南)에까지 국군(國軍)을 파병(派兵)하기도 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듯 모진 도전(挑戰)을 슬기롭게 극복(克服)하고 성장(成長)을 하면서 자유(自由)의 십자군(十字軍)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能力)도 내외(內外)에 과시도 해 보았다.

우리는 일찍이 6·25동란(動亂)을 통(通)해 자주국방(自主國防)과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精神)이 얼마나 중요(重要)한 것인가를 몸소 체험(體驗)한 바 있다. 지난번의 비극적(悲劇)

的인 인지사태(印支事態)에서 자기(自己) 나라 안보(安保)를 남의 나라에 의존(依存)하던 시대(時代)는 이미 지나갔다는 교훈(教訓)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안보환경(安保環境)의 제일차적(第一次的)인 비중(比重)은 북괴(北傀)의 침략위협(侵略威脅)에 대처(對處)하는 데 있다.

그 외에 지난 70년대(年代) 후반기부터 특징적으로 노정(露呈)되고 있는 각박한 국제환경(國際環境) 속의 다면적(多面的) 도전(挑戰)에 능동적(能動的)으로 대처(對處)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존권(生存權)을 확보(確保)하기 어려운 여건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제정세(國際情勢)가 비록 핵전쟁(核戰爭)을 피(避)해야 할 상황(狀況) 속에서 강대국간(強대國間)의 긴장완화(緊張緩和), 평화공존정책(平和共存政策)의 추구(追求)로 전면전(全面戰)의 발발 가능성(可能性)은 줄어들었지만, 국지전(局地戰)의 가능성(可能性)은 오히려 증대(增大)되고 있다. 그 이유(理由)를 따진다면 강대국(強대國), 특(特)히 미국(美國)이 지역분쟁(地域紛爭)의 전면적(全面的) 확대(擴大)를 우려한 나머지 직접개입(直接介入)을 극히 꺼려하고 있는 반면, 북괴(北傀)를 위시한 국제공산세력(國際共產勢力)들은 지역분쟁(地域紛爭)을 이른바 민족내부(民族內部)의 문제(問題)라는 명분하(名分下)에 폭력혁명(暴力革命)의 방법(方法)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重要)한 사실(事實)은 국제정세(國際情勢)의 흐름이 어떻게 간에 북괴(北傀) 김일성(金日成)은 중·소(中·蘇)의 지원이 없어도 단독(單獨)으로 남침(南侵)할 수 있는 사력(事力)을 보유(保有)하고 있으며, 또한 무력적(武力的) 수단(手段)에 의한 적화통일(赤化統一)야욕을 6·25가 있는 지 33년(年)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事實)이지만 영국(英國)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國際戰略問題研究所)가 발표(發表)한 연례(年例) 군사력균형(軍事力均衡) 보고서(報告書)에 의하면 북괴(北傀)는 지금까지 평가(評價)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규모(規模)의 지상군(地上軍)과 중장비(重裝備)를 보유(保有)하고 있다는 사실(事實)이 재확인(再確認)된 바 있다.

이러한 의미(意味)에서 우리는 10월을 맞아 건군(建軍) 35주년(周年)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것도 우리의 안보 면(安保面)에서 중요(重要)한 일이라 하겠다.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產集團)은 우리 조상전래(祖上傳來)의 민족적(民族的) 전통(傳統)을 파괴(破壞)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북한(北韓)의 전 동포(全 同胞)들을 채찍질해 가면서까지 반민족적(反民族的)이고도 반(反)인도적인 만행(蠻行)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민족(民族)과 조국(祖國)보다는 공산당(共產黨)을 앞세워서 인간(人間)을 적화(赤化)의 실현수단(實現手段)인 물질적(物質的) 요소(要素)로 취급(取扱)하였으며, 침략정책(侵略政策)을 유일(唯一)한 기본이념(基本理念)으로 삼고, 혁명(革命)을 통(通)해 남한정권(南韓政權)을 뒤엎고 인민(人民)을 해방(解放)시킨다는 구실(口實)로 6·25라고 하는 엄청난 동족상잔(同族相殘)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 전쟁(戰爭)으로 인(因)하여 남북한(南北韓) 270만(萬)에 이르는 인명피해(人命被害), 막대한 재산(財産)의 파괴(破壞), 국토(國土) 및 산업시설(産業施設)의 황폐(荒廢), 거기에 동족간(同族間)의 씻을 수 없는 적개심(敵愾心)을 그대로 남긴 채 전선(戰線)은 휴전선(休戰線)을 그으며 일단락 지어졌다.

민족분단(民族分斷)은 순전히 강대국(強대國)들이 38선(線)을 그음으로써 시작(始作)되었지만, 그 후(後) 분단(分斷)을 고정(固定)시켜야 했던 이유(理由)는 무엇일까? 이 문제(問題)에 대(對)해서 우리들은 감상적(感想的)인 말만 해왔던 것이 사실(事實)이다.

피와 문화(文化)의 공통성(共通性)을 강조(強調)하면서 현실(現實)을 한탄(恨歎)하고 민족(民族)의 역사(歷史)는 하나였다고 회고(回顧)의 낯두리를 한다 해서 이 엄청난 현실(現實)은 변(變)하지 않고 있다.

금번 KBS가 주최(主催)한 이산가족(離散家族) 찾기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고 느끼고 있다. 피맺힌 6·25의 원한(怨恨)으로 그 비극(悲劇)은 반세기(半世紀)가 흘러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제까지 그 비통(悲痛)함이 계속될지 모르는 것이다. 한 핏줄을 가진 민족(民族)이면서도 나누어져 있는 우리가 서로 상봉(相逢)하고 통일(統一)을 이룩해야 한다는 데는 새삼스러운 이유(理由)를 말하지 않아도 국민(國民)이면 누구나 동감(同感)하고 바라는 것이다.

만 3년(年) 동안 전쟁(戰爭)으로 폐허(廢墟)가 된 후(後) 30여 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南北韓)이 보유(保有)하고 있는 그 힘은 6·25 전쟁당시(戰爭當時)와는 비교(比較)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 또한, 해마다 질적(質的), 양적(量的)으로 군장비(軍裝備)는 증대추세(增大趨勢)에 있으며, 이런 상황(狀況)에서 어떤 형태(形態)의 전면전(全面戰)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被害)는 상상(想像)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그동안 애써 이루어 놓은 우리의 경제성장(經濟成長)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變)할 것이며 최악(最惡)의 경우(境遇)에는 온 겨레가 지구상(地球上)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위험(危險)마저 없지 않다. 이러한 비극(悲劇)을 우리 민족(民族) 스스로가 자초(自招)해야 할 아무런 이유(理由)가 없다.

우리는 북한(北韓)의 호전적(好戰的) 태도(態度)와 적화통일(赤化統一)의 망상(妄想)을 달래고 국제적(國際的) 환경(環境)을 조성(造成)하여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앞당기는 데 총력(總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韓半島)는 지형학적(地政學的)으로 매우 중요(重要)한 위치(位置)에 있어서 한반도(韓半島)의 정세(政勢)가 주변국가(周邊國家)에 영향(影響)을 주고 있으며, 이 주변국가(周邊國家)들이 모두 세계적(世界的)인 강대국(強대國)이라는 점(點)을 생각하면 한반도(韓半島)의 안정(安定)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世界平和)에도 기여(寄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통일노력(統一努力)이 단순(單純)히 공산주의(共產主義)를 반대(反對)하고 증오(憎惡)하는 것으로만 정당화(正當化)될 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現實)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노력(統一努力)을 정당화(正當化)시키고, 또한 결실(結實)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北韓)의 이념(理念)과 체제(體制)보다 우리의 이념(理念)과 체제(體制)가 우리 민족(民族)의 전체(全體)에게 보다 나은 장래(將來)를 약속(約束)해 줄 수 있다는 확신(確信)이 있어야만 한다.

단순(單純)히 휴전선(休戰線) 이북(以北)의 북한지역(北韓地域)을 흡수(吸收)하여 영토(領土)를 넓히려는 소극적(消極的) 의미의 통일(統一)이 아니라, 북한(北韓)에 거주(居住)하는 동포(同胞)들에게도 자유(自由)로운 민주질서(民主秩序)와 복지혜택(福祉惠澤)을 누리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동포애(同胞愛)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推進)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努力)이 결실(結實)을 이루려면 먼저 그 기반(基盤)이 튼튼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意味)에서 한 나라가 전투능력(戰鬥能力)을 충분(充分)히 발휘(發揮)하고 승리(勝利)에 대(對)한 확신(確信)이 서 있어야만 미국(美國)을 위시한 우방국(友邦國)들이 방위지원(防衛支援)에 또한 응(應)해 올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境遇)에는 지원(支援)이 꼭 온다는 보장(保障)이 없을뿐더러 실질적(實質的)으로 승산(勝算)이 없는 지원(支援)은 하다가도 과감하고 단호하게 포기하고 마는 사실(事實)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전면철수(全面撤收)가 단행된다 해도 북괴위협(北傀威脅)에 능(能)히 대처(對處)할 수 있는 자주국방태세(自主國防態勢)를 하루빨리 완비(完備)하는 한편 한반도(韓半島)를 둘러싼 강대국(強大國)들의 이익중심(利益中心)의 치열(熾烈)한 경쟁 속에서 그들의 비밀(秘密) 흥정의 희생물이 될 위험요인(危險要因)도 안고 있음을 인식(認識)하면서 엄중(嚴重)히 경계(警戒)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자주국방태세(自主國防態勢)를 확립(確立)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로 정신전력(精神戰力)을 비롯해 둘째로는 인적(人的)·물적(物的)인 전력(戰力)이 적(敵)을 능가(凌駕)할 수 있어야 함은 재론(再論)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자주국방(自主國防)의 배양을 위(爲)해 많은 노력(努力)을 경주해 왔으며, 특(特)히 국방(國防)은 남의 나라에 의존(依存)할 수 없다는 신념(信念) 아래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자위(自衛)의식을 기조(基調)로 총력안보(總力安保) 태세(態勢)를 굳건히 그리고 확실(確實)하게 다져왔다.

물량적(物量的)인 면(面)에서는 날로 발전(發展)하는 국력(國力)을 바탕으로 방위산업(防衛産業)을 육성발전(育成發展)시키는 데 주력(注力)함으로써 이제 자주국방(自主國防)의 튼튼한 기반을 닦아 놓았다.

다만, 우리는 경제적(經濟的), 군사적(軍事的) 역량(力量)뿐만 아니라 특(特)히 정신적(精神的), 도덕적(道德的) 측면(側面)에서도 북괴(北傀)를 압도(壓倒)할 수 있어야 하는 점(點)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우리가 항상(恒常) 강조해 왔듯이 정신전력(精神戰力)은 경제력(經濟力)이나 군사력(軍事

力) 등(等) 물질전력(物質戰力) 못지않게 중요(重要)하다는 사실(事實)을 우리는 역사적(歷史的)인 전쟁사례(戰爭事例)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참전(參戰)했던 월남전(越南戰)에서도 충분(充分)히 확인(確認)했다.

오늘날과 같이 유동적(流動的)이고 급변하는 국제사회(國際社會) 속에서 국가(國家)와 민족(民族)이 자존(自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국력(國力)을 배양(培養)하고 자주국방태세(自主國防態勢)를 확립(確立)하는 데 있음은 다시 말할 여지가 없다. 특(特)히 우리의 경우(境遇)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분단국(分斷國)이란 특수(特殊)한 여건과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본질적(本質的)으로 복합적(複合的)인 도전요인(挑戰要因)을 잉태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국력배양(國力培養)이 평화통일(平和統一)의 지름길이라 믿고 모든 정책적(政策的) 노력(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국력(國力)이 충실(充實)해야 국민(國民)의 생활(生活)과 경제(經濟)가 윤택(潤澤)해지며,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產集團)의 무력도발(武力挑發)과 간접침략(間接侵略)을 막을 수 있고, 우리 국민(國民) 모두가 선택(選擇)한 자유(自由)와 인도주의적(人道主義的) 삶을 보장(保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력(國力)의 신장(伸張) 없이는 이 땅에 평화(平和)가 지속(持續)될 수가 없다는 것은 당연(當然)한 일이다. 전쟁(戰爭)을 막는 길은 자체(自體)의 대비(對備)에 있는 것이니 김일성(金日成)이 침공명령(侵攻命令)을 내릴 것인가에 대(對)해 대처(對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북괴(北傀)가 민족(民族)의 평화통일염원(平和統一願)을 악용(惡用)하여 무력도발(武力挑發)과 기만적(欺瞞的)인 위장평화(偽裝平和) 술책(術策)을 번갈아 획책(劃策)하면서 상대방(相對方)이 약(弱)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공격(攻擊)을 가(加)하고 힘에 벽자면 협상전술(協商戰術)로 나오는 그 간교(奸巧)함을 우리는 항상(恒常) 잊지 말고 기억(記憶)하여야 한다.

우리의 국력(國力)이 북한(北韓)보다 강(強)하고 군사력(軍事力)이 북한(北韓)을 압도(壓倒)하는 동안에는 절대(絕對)로 남침(南侵)해 오지 못할 것이다. 즉 평화(平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지닌 자(者)만이 보존(保存)할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다.

“힘이 적으면 적게 이루고”

“힘이 크면 크게 이루고”

“힘이 없으면 하나도 이룰 수 없다.”라는 안창호 선생(先生)의 말처럼 자력(自力)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크게 길러야 한다.

간교(奸巧)하고 악랄한 북괴 도당을 굴복(屈服)시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온 국민(國民)의 헌신적 노력(努力)이 결집(結集)되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以前)에 우리의 피담으로 이룩된 군사력(軍事力)이 북괴(北傀)를 능가(凌駕)해야만 한다.

자기편끼리 혈투고, 혈투기고 결국은 나약해져 패망(敗亡)한 월남국민(越南國民)들이 바다의 방랑자가 되어 방황하며 여러 나라로 흩어져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달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교훈(敎訓)을 받아 우리는 독자적(獨自的)인 전략증강(戰略增強) 계획(計劃)을 수립(樹立)하여 자주국방(自主國防)의 터를 구체적(具體的)으로 추진(推進)하게 되었고, 국민(國民)들은 75년(年)에 제정(制定)된 방위세법(防衛稅法)을 인내(忍耐)하면서 자력(自力)으로 국방력(國防力)을 성장(成長)시키기 위(爲)한 노력(努力)을 아낌없이 경주(傾注)하였다.

이러한 방위산업(防衛産業)의 추진(推進)은 보병(步兵)의 기본화기(基本火器)인 M16 소총을 비롯해서 수송용(輸送用) 차량(車輛), 공격용(攻擊用) 소형(小形)헬리콥터, 155M/M포(砲), 나이키 미사일, 호위구축선(護衛驅逐船), 수륙양용(水陸兩用) LVT, F-5E 제공호 전투기 등 새로운 차원(次元)의 전술무기개발(戰術武器開發)로 고성능무기(高性能武器)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成果)는 온 국민(國民)이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자주국방(自主國防)의 결의(決意)를 가일층 굳게 하고 경제력(經濟力)과 국방력(國防力)의 자립도(自立度)를 높이기 위(爲)해 혼신(渾身)의 노력(努力)을 다 바친 결과이다. 이는 조국(祖國)과 민족(民族)의 대의(大義) 앞에 헌신한 뜨거운 애국심(愛國心)의 소치(所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국군(國軍)은 급성장하는 경제력(經濟力)에 바탕을 두고 장비(裝備)와 훈련면(訓練面)에서 북한(北韓)과 맞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었으며, 향후에도 계속되는 국력(國力)의 신장(伸張)으로 인(因)하여 그 제압도(制壓度)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군사력(軍事力)이 북괴(北傀)를 능가(凌加)하게 되고, 국력(國力)이 절대적(絕對的)우위(優位)로 압도(壓倒)될 때, 강대국(強大國)들도 우호적(友好的)이고 협조적(協調的)으로 대(對)할 것은 더욱 분명(分明)할 것이며, 북괴(北傀)는 남침야욕(南侵野慾)을 포기하고 우리가 제의하는 평화통일(平和統一)을 받아들이게 되어 결국(結局) 평화(平和)는 정착(定着)되고 통일(統一)이 달성(達成)될 것이다.

이러한 영광된 통일조국(統一祖國)을 실현(實現)키 위하여 국민(國民)의 군대(軍隊)인 우리는 어떠한 고난(苦難)과 역경도 참고 이기는 불굴의 투지와 각자(各者)에게 부여된 본분(本分)과 책임(責任)을 다하는 왕성한 사명감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매사(每事)에 “하면 된다”라고 굳은 결의(決意)와 신념(信念)을 지닌 투철한 정신력(精神力)으로 내 조국(祖國)을 수호하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 나는 이렇게 다짐한다

대한의 아들로서 정정당당하며 비겁하지 않으며  
부끄럽지 않게 충성을 다하여 복무하리라.

창위 이창수  
(제3758부대)

전쟁이 시작되었다.

정성껏 가꾸었던 집을 버리고, 고향을 등 뒤로한 피난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이상과 꿈을 키우려던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치참히 꺾이온 채 떼를 지어 죽어야만 했으며,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은 생이별을 당해야 했으며, 아끼던 연인들의 행복이 토막 났으며, 무수한 야만과 잔인의 구렁텅이가 방방곡곡에 퍼졌고, 인간이란 자체를 회의로 몰아갔던 광란의 동족상잔 극이 시작되었다.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대한민국 국군의 반격의 포탄과 총알이 분노의 심장을 내던지듯 무수히 날아가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온 국민의 눈동자가 눈물과 분노, 그리고 통일의 염원으로 붉게 물들어질 때 전쟁은 끝났다.

국토와 민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인 대가로 휴전선이라는 상처 자국을 남긴 채!

화려한 잔치라 할지라도 막이 내려지면 허무와 허탈만이 남는 법(法), 맹렬히 살육해야 했던 피의 잔치마당이 끝나자 사람들의 가슴은 데카당의 우울한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암울한 유행가 가락이 귀신처럼 허공을 떠다니는 폐허가 된 자리, 설움에 겨운 술잔을 채워 허전함을 메꾸려는 사내들이 범람하던 거리, 한 맺힌 여인들의 곡소리가 바람마냥 휘몰아치던 황폐의 거리, 사람들은 허무를 느꼈고, 절망과 고독을 맛보며 이 나라 역사를 원망했다. 그리하여 새로운 바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간의 출현이 기대되어졌던 순간, 그 순간 그 자리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숙명으로 내 또래의 다른 아이들처럼 서서히 복구되어 가던 서울의 어두운 거리에서 나는 탄생했다.



6·25와 1·4 후퇴, 1·4 후퇴와 L.S.D 흥남 철수의 마지막 L.S.D를 타고 피난의 대열에 참여했던 청춘 남녀의 아들, 그 당시 미혼이던 아버지, 어머니는 흥남의 은행원이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욕심에 눈이 어두워 남겨둔 재산을 챙기려 갔던 가족들과는 출발의 벅고 동 소리에 의해 생이별을 당한 채 단신 월남해야 했던 부모! 그들은 자라는 나에게 고향 집 이야기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모든 일가붙이의 자랑스런 모습들을 싫도록 얘기했다.

거제도를 거쳐 부산 피난 시절, 세끼 밥을 먹기 위해 어머니는 떡도 팔고 양키 물건도 파는 행상이었다 한다. 떡 광주리를 멘 어머니를 우연히 아버지는 거리에서 보았고, 부끄러워 도망가는 어머니를 쫓아갔고, 그리하여 친신만고 연애의 결실로 나는 그들의 장남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술 취하신 날이면 지루하게 반복되던 부친의 이야기에 나의 뇌리엔 당시의 상황이 사진인 양 생생하게 박히게 되었고, 베갯머리에서 들려주던 어머니의 한탄에 숨도 못 쉰 채 귀를 종긋거리며, 처참한 스토리에 소름을 돋아내곤 했다.

친척이라고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외로운 가정의 맏아들로 자라고 자라나 철이 들 무렵의 대학 시절, 책자를 통해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모은숙 여사의 시도 접할 수 있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자꾸만 눈물이 흘렀다.

꽃다운 청춘들이 잡초더미 위에, 도랑에, 가파른 언덕길에, 빛바랜 군복을 입고, 두 눈을 부릅뜬 채 죽어간 모습들이 보였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했을까. 이름 모를 용사들과 어깨 위에서 죽음으로 얼룩진 반짝이는 계급장도 보였다. 전사의 소식을 들은 아나, 부모, 혈육들의 피눈물과 한숨도 보였다. 명예롭게 싸우다 말없이, 거침없이 육신을 희생한 군인, 그들은 용사였다. -국군은 그렇게 자라왔다-

나도 그들 같은 이 나라의 용사가 되고 싶었다. 결심을 세우고 각오를 굳혀 머리를 박박 깎은 R.O.T.C 후보생으로 지원했다.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어깨 위에 붙이기 위해, 부하들을 멋지게 통솔할 힘을 키우기 위해 안쓰럽도록 열심히 뛰고 공부했다. 8월의 태양 아래 완전무장 구보, 유격…… 모든 걸 해냈다. 허나 신은 나에게 육군 보병 소위의 꿈을 실현시켜 주시지 않았다. 임관 바로 직전 몸이 아팠던 탓!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같았다. 남자로서의 패배감을 맛보았다.

우울했던 방황의 2년이란 시절을 극복하고 다시 장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엔 공군 장교의 문을 두드렸다. 합격했고 어려움을 참아내며 무사히 훈련을 마쳤다.

사관후보생 드디어 난 자랑스런 푸른 제복을 입고, 총을 지급받고, 부하를 거느린 영공수호의 책임이 지워진 군인이 된 것이며, 35년이란 세월엔 막강 국군으로 성장한 강한 군대의 일원이 될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다.

나를 키워 준 나라, 한 치도 한 뼘도 떠나고 싶지 않은 나라, 가슴 속의 나라! 조국의 젊은이로서 당당하게 민족의 생존을 보장할 의무와 책임을 지닌 군인이 되었기에 결코 비겁하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나의 조국 땅에, 나의 민족의 아픈 가슴에 다시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지 않도록 나의 힘을 다하리라. 나의 손가락에 방아쇠를 당길 힘이 남아있는 한 위협하며 파괴하려는 일체의 적에 대해 정의의 탄환을 날리리라.

잠시 평화가 왔다. 비둘기는 공원에서 광장에 뿌려진 모이를 먹고, 불을 밝힌 가정에선 밤늦도록 도란도란 애기의 꽃이 피어나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기약하며 공부를 하고 골목 어귀엔 햇빛 같은 아이들이 뛰어나고 사랑에 겨운 선남선녀들은 주저 없이 손을 잡고 거리를 활보한다. 건설의 망치 소리는 하늘 찌를 듯 울려 퍼지고……

결혼을 했고 잘생긴 아들을 하나 낳았다. 백지상태인 아들, 이제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 물감을 찍어나가야 할 아들 그 녀석에겐 결코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어린 나에게 들려주시던 무서운 전쟁 이야기, 피난 열차 이야기, 굶주린 이야기,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도록 노력하리라. 밝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의 꽃 같은 이야기를 녀석의 귀에 힘차게 퍼부어 두는 나날이 되도록 노력하리라. 아들들아, 딸들아. 너희들은 우리들이 지켜줄게.

1983. 8. 7. 대낮 느닷없이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에 사람들은 의아해했고, 실제상황이라는 마이크 전달에 사람들은 경악했다. 잠시 그들의 얼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의 표정이 나타났으며, 귀순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안도의 박수를 쳤다.

불안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성이 많다는 나라, 생각 없는 사람들은 무섭다며 안전을 위해 이민 가려는 나라,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통일을 염원하며, 아들들을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라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주저 없이 내보내는 나라, 잠재된 불안 속에서도 평화의 탑을 쌓아나가는 나라, 그런 멋진 나라가 조국이기엔 지켜야만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건군 35주년,

무수한 고난과 희생을 치르면서 오늘에 성년이 된 국군.

온 겨레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국토방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군, 난 지금 자랑스럽게 그들의 대열에 서 있다. 내 겨레의 기대 속에 그들을 결코 실망시킬 수 없다는 각오로 서 있다.

군복을 입은 지금, 아니 대한의 아들로 태어난 지금, 정정당당하며 비겁하지 않으며 결코 부끄럽지 않게 영광스러이 충성을 다하여 복무하리라.

누군가가 너는 35년의 성년 국군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다짐하는가 묻는다면 난 자신이 있게 대답하리라.

“우리에게 맡겨라”

다시 누군가가 너는 35년의 성년 국군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다짐하는가 묻는다면 난 다시 자신 있게 대답하리라.

“충성을 다하리라”





# 항공기 구조용(構造用) 복합재료의 역학적 특성과 결합

대위 최 청 호

〈공군사관학교〉

## 1. 서론

1930년대 Von Karman은 구조물의 좌굴(Buckling)에 관한 보고에서 알루미늄 구조물보다 복합재료의 구조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40년대부터 공학적으로 진보된 Glass-Fiber-Polyester 복합재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1950년대에는 여러 종류의 Fiber와 Whisker들이 제작되었고, 1960년대에는 Boron Filament가 출현하게 되었다. 1970년대 미 공군에서는 Al-Boron 복합재료를 개발하여 항공기 구조물에 사용하였으며, 영국, 일본 등에서 복합재료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복합재료가 로케트나 항공기의 구조물에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량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힘을 받는 방향으로 강도(強度)나 강성(強性)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복합재료의 특성 때문에 그 용도는 더욱 급증하게 되었다. 최근까지 항공기에 사용된 복합재료는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재래 항공기의 구조물의 중량이 40% 정도이던 것이 복합재료를 사용함으로써 10~25%의 구조물의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복합재료의 제작방법은 얇은 관을 여러 겹으로 붙여서 만드는 적층판 복합재(Laminated Composites), 모재에 강화(強化) 섬유(Fiber)나 심선(Filament)이 있는 섬유 강화 복합재(Fiber reinforced composites), 매우 작은 섬유 입자를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모재에 배열시킨 입자강화 복합재(Particulate composites) 등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 방법들은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복합재료는 섬유의 방향을 조절하여 방향성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등방성(Isotropic)이 아니며, 방향에 따라 강도와 강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설계에 대단히 큰 장점을 주는 것이다. 또한, 강화섬유나 심선, 입자를 구성하는 원소 즉, Be, B, C, Mg, Al, Ti 등이 주기율표의 30번 이내의 원소들이므로 복합재료의 중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원소들로 만든 마이크로( $\mu$ ) 단위의 섬유는 격자의 결합이 없을 정도로 직경이 매우 작으므로 이들의 비강도(比強度), 비강성(比強性)은 재래의 재료보다 20~40배 정도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구조물의 중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로케트나 항공기의 성능을 증가시

킬 수 있는 방법이 되므로 복합재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설계하는 것은 연구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아직까지도 복합재료의 이용은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구조물에 사용되는 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미시적 거동과 접합 결합 및 설계 방향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표1〉 복합재료의 사용 예

F-5	graphite/epoxy fuselage
F-14	Boron/epoxy stabilizer
F-15	Boron/epoxy stabilizer
YF-16	graphite/epoxy stabilizer
F-111	Boron/epoxy fuselage
F-106A	Al/Boron, Wing, fuselage, bulkhead

## 2. 복합재료의 강도와 강성

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구성은 모재(Matrix)의 내부에 섬유, 심선, 강화선(Wire), 세라믹 또는 금속 Whisker를 마이크로 단위의 직경으로 배열시켜 재료의 비강도(比強度)(S/p)나 비강성(比強性)(E/p)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복합재료의 강도와 강성을 높이는 재료의 특성은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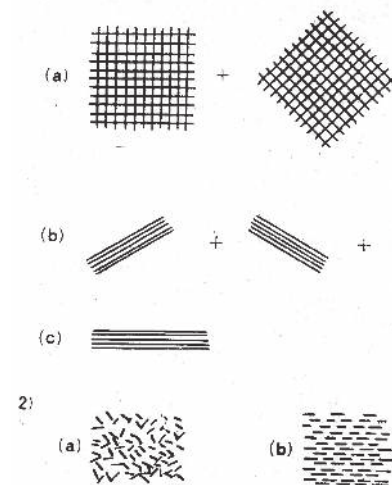


그림 1. 섬유 강화형 복합재료

강도와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루미늄이나 고강도 재료 및 Epoxy를 복합재료의 모재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미 공군에서는 E-glass fiber보다 탄성계수(E)가 18~30% 높은 S-994 filament를 개발하였다. 또한, S-glass fiber가 개발된 후 많은 Glass 복합재료가 E=20×106psi 정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Fiber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를 조절하는 문제와 밀도를 2.5 정도 유지시켜야 되는 제작상의 문제가 있었다. 보통 Glass-fiber는 탄성계수가 14~16×106psi 정도까지 개발되어 생산단계에 이르고 있다. 알루미늄이나 티타늄의 강성은 증가시키기 곤란하지만, Glass-filament는 S-glass의 3~4배 정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다. Boron fiber는 최초의 고강도 섬유였는데 이 재료는 낮은 밀도와 높은 탄성계수에 기본을 둔 것이었다. 그 외에 탄소나 베릴리움, 붕소 등은 Glass-fiber와 비슷한 밀도이지만 강도는 7~8배 정도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까지 사용된 복합재료의 섬유나 심선 등의 특성은 표 2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을 비강도(比強度)와 비강성(比強性)으로 나타내면 그림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그림 2에서 복합재료의 비강도와 비강성은 섬유나 심선보다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철합금보다는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강화용 재료의 특성

Whisker	Density, $\rho$ lb/in. <sup>3</sup> (kN/m <sup>3</sup> )	Theoretical strength, $S_T$ 10 <sup>9</sup> lb/in. <sup>2</sup> (GN/m <sup>2</sup> )	Experimental strength, $S^E$ 10 <sup>9</sup> lb/in. <sup>2</sup> (GN/m <sup>2</sup> )	$S^E/\rho$ 10 <sup>6</sup> in. (km)	Tensile stiffness, E 10 <sup>9</sup> lb/in. <sup>2</sup> (GN/m <sup>2</sup> )	E/ $\rho$ 10 <sup>7</sup> in. (Mm)
Copper	.322(87.4)	1.8(12)	.43(3.0)	13(34)	18(124)	5.6(1.4)
Nickel	.324(87.9)	3.1(21)	.56(3.9)	17(44)	31(215)	9.6(2.4)
Iron	.283(76.8)	2.9(20)	1.9(13)	67(170)	29(200)	10.2(2.6)
B <sub>4</sub> C	.091(24.7)	6.5(45)	.97(6.7)	106(270)	65(450)	71(18)
SiC	.115(31.2)	12(83)	1.6(11)	139(350)	122(840)	106(27)
Al <sub>2</sub> O <sub>3</sub>	.143(38.8)	6(41)	2.8(19)	196(490)	60(410)	42(11)
C	.060(16.3)	14.2(98)	3(21)	500(1,300)	142(980)	237(60)

Fiber or wire	Density, $\rho$ lb/in. <sup>3</sup> (kN/m <sup>3</sup> )	Tensile strength, S 10 <sup>9</sup> lb/in. <sup>2</sup> (GN/m <sup>2</sup> )	S/ $\rho$ 10 <sup>6</sup> in. (km)	Tensile stiffness, E 10 <sup>9</sup> lb/in. <sup>2</sup> (GN/m <sup>2</sup> )	E/ $\rho$ 10 <sup>7</sup> in. (Mm)
Aluminum	.097(26.3)	90(.62)	9(24)	10.6(73)	11(2.8)
Titanium	.170(46.1)	280(1.9)	16(41)	16.7(115)	10(2.5)
Steel	.282(76.6)	600(4.1)	21(54)	30(207)	11(2.7)
E-glass	.092(25.0)	500(3.4)	54(136)	10.5(72)	11(2.9)
S-glass	.090(24.4)	700(4.8)	78(197)	12.5(86)	14(3.5)
Carbon	.051(13.8)	250(1.7)	49(123)	27(190)	53(14)
Beryllium	.067(18.2)	250(1.7)	37(93)	44(300)	66(16)
Boron	.093(25.2)	500(3.4)	54(137)	60(400)	65(16)
Graphite	.051(13.8)	250(1.7)	49(123)	37(250)	7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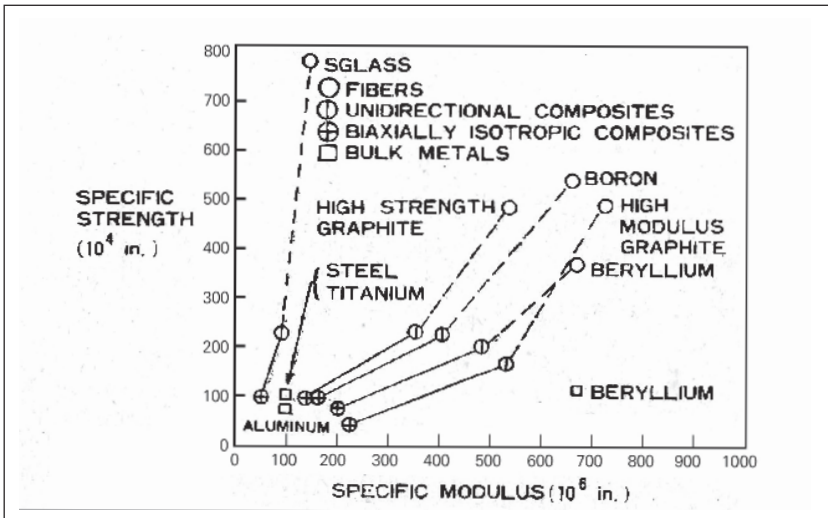


그림 2. 복합재료의 비강도와 비강성

### 3. 복합재료의 역학적 거동

복합재료가 힘을 받을 경우 나타내는 거동의 해석은 미시적 해석(Microscopic Analysis)과 거시적 해석(Macroscopic Analysis)으로 나누어 할 수 있다. 미시적 해석에서는 복합재료를 초기 응력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의 섬유 하나에 대하여 해석하며 복합재료 전체는 비균질성(Non-homogeneous)으로 본다. 이때 탄성 영역 내에서 재료의 탄성계수(E), 포와송비( $\nu$ ), 전단탄성계수(G)가 관심 있는 값이 된다. 거시적 거동에서는 복합재료 전체가 균질성(Homogeneous)이라 가정하고, 미시적 거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료는 탄성 영역 내에 있으며 섬유와 모재가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고 제한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미시적 거동에 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심선의 배열은 원통이나 사각형의 형태로 육각형 배열, 사각형 배열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그림 3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배열로써 모재와 결합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압출 과정 중에 불규칙하게 배열을 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복합재료 중에서 심선이나 섬유가 차지하는 체적비인데 이 값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달라지고 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복합재료의 미소 부분을 잡아서 볼 때 1-방향의 탄성계수 E1은 모재의 탄성계수를 E<sub>m</sub>, 섬유의 탄성계수를 E<sub>f</sub>, 섬유의 체적을 V<sub>f</sub>%라고 할 때 이들의 값들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값을 가진다. 2-방향 즉, 섬유방향과 수직 방향에서는 이때의 탄성계수를 E2라고 할 때 모재의 탄성계수와 섬유의 탄성계수가 같다면 섬유의 체적에 관계없이 일정하지만, 섬유의 탄성계수와 주요한 재료의 탄성계수의 비가 클수록 E2는 증가한다. 이때 섬유의 체적이 70% 이상에서부터 E2의 값이 크게 증가하는데 그림 5에서 보여주고 있다. 포와송의 비  $\nu$ 12는 그림 6에서와 같이 모재와 섬유의 포와송의 비  $\nu$ m과  $\nu$ f의 값이 클수록, 섬유의 체적이 클수록 복합재료의 포와송의 비  $\nu$ 12는 증가하고 있다. 포와송의 비가 너무 큰 값을 가지게 되면 강도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제작 과정 중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전단탄성계수 G12는 그림 7에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G<sub>m</sub>은 모재의 전단탄성계수이며 G<sub>f</sub>는 섬유의 전단탄성계수이다. 섬유의 체적이 증가하고 섬유와 모재의 전단탄성계수의 비가 클수록 복합재료의 전단탄성계수 G12는 증가하는데 섬유의 체적이 70% 이상에서부터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는 직사각형 섬유 배열에서 종탄성계수(E)와 전단탄성계수(G)의 계산인데 그림 8에서 보여주고 있다. 종탄성계수는 섬유의 체적이 70%, 섬유의 거리와 직경의 비가 0.113 이상에서부터 증가하고 있다. 전단탄성계수는 섬유의 체적이 75%, 섬유의 거리와 직경의 비가 0.044 이상에서부터 증가하고 있다. 직사각형 섬유는 그림 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섬유의 체적이 60~80%에서 복합재료의 세장비가 클수록 탄성계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단탄성계수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에서는 Glass-epoxy와 Boron-epoxy 복합재료의 탄성계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섬유의 체적은 70% 이상에서부터 탄성계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육각형으로 섬유를 배열하는 복합재료보다 사각형으로 배열한 복합재료의 경우 탄성계수는 증가하고 있다.



#### 4. 구조용 복합재료의 결합

복합재료는 용접은 할 수는 없고 보울트, 리벳, 혹은 핀으로 결합하는 기계적 결합이나 접착제를 사용하는 접착결합을 이용하거나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기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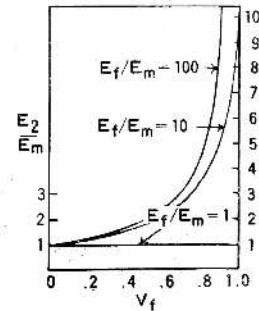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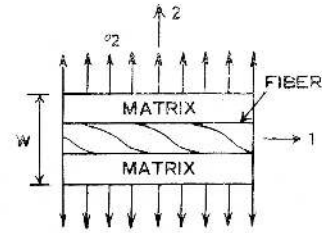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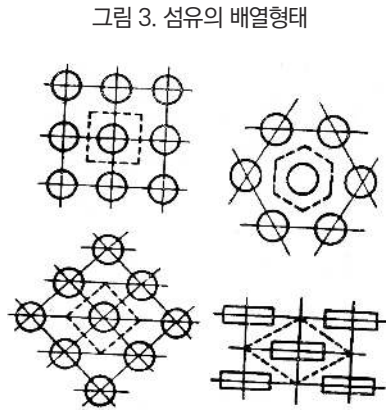


그림 5. 탄성계수(E<sub>2</sub>)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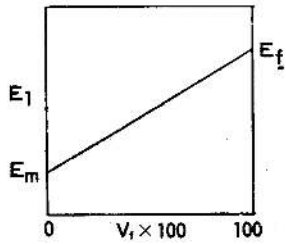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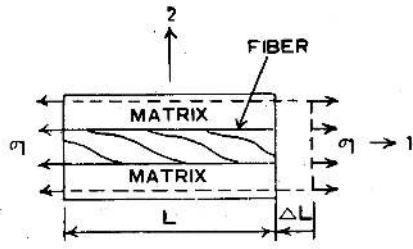


그림 4. 탄성계수(E<sub>1</sub>)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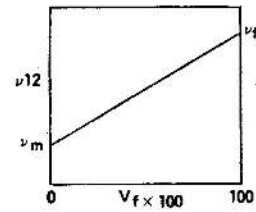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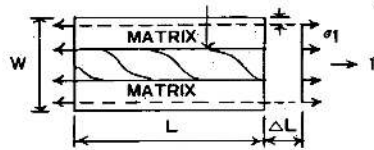


그림 6. 포와송의 비(nu<sub>12</sub>)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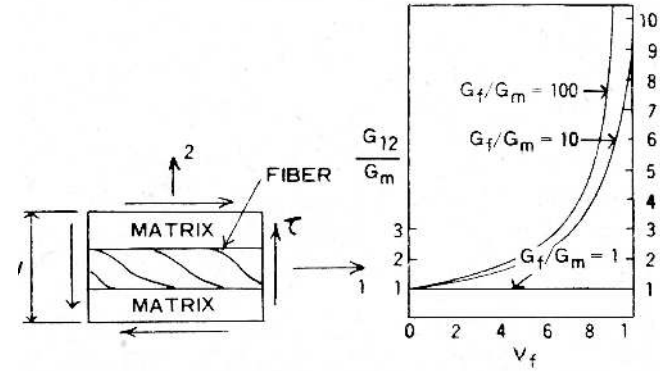


그림 7. 전단 탄성계수(G)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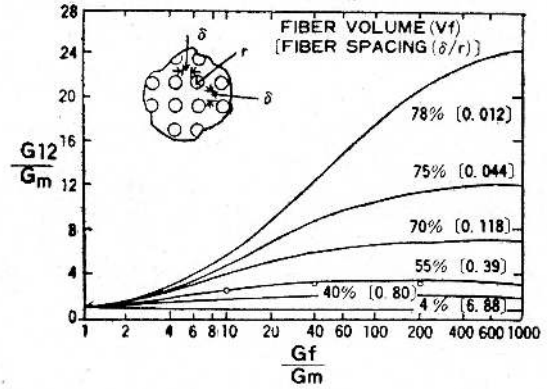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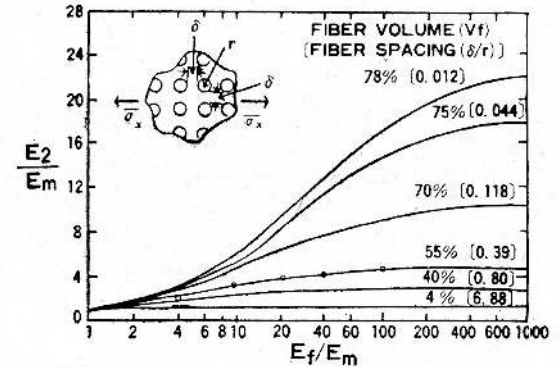


그림 8. 직사각형 배열의 E 값(a), 직사각형 배열의 G 값(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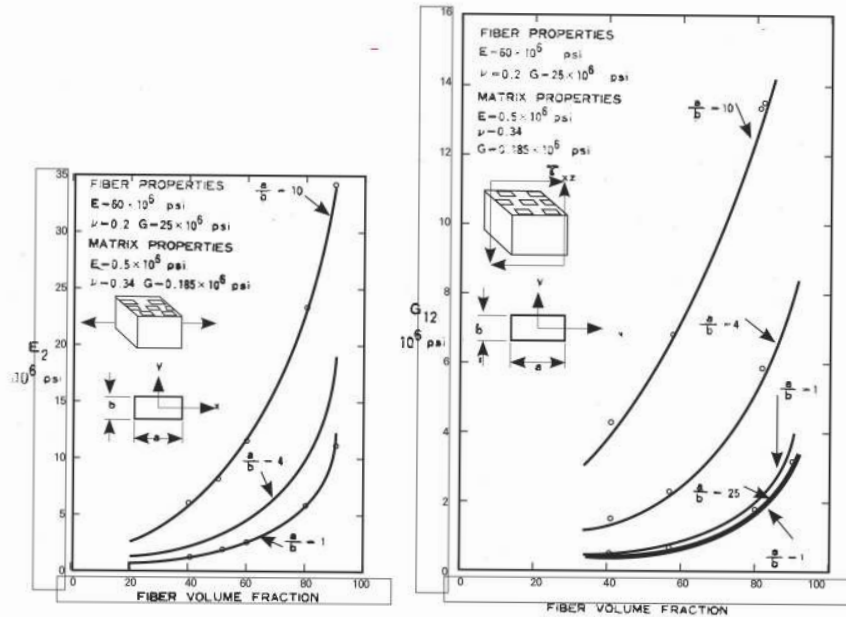


그림 9. 사각형 섬유들의 직사각형(다이아몬드) 배열에서의 E값(a), G값(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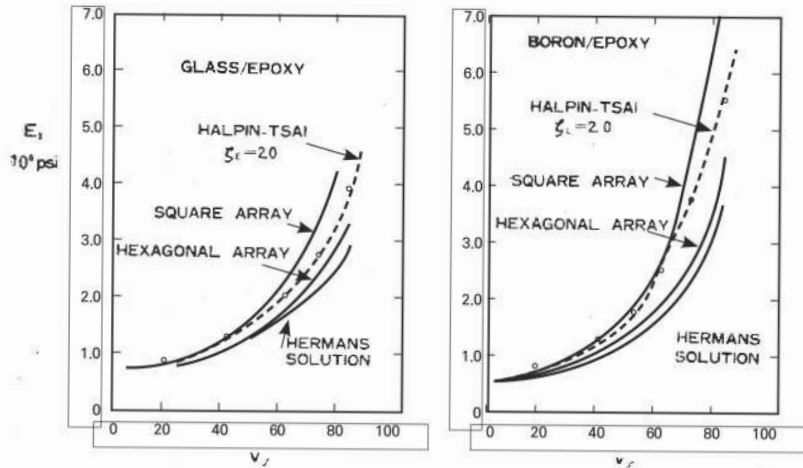


그림 10. 사각형 배열과 육각형 배열

결합 방법은 분해결합이 용이하고 결합부의 검사가 간단하며 높은 신뢰도와 함께 특별한 표면 가공이 필요 없다. 또한, 기계적 결합은 접착결합과는 달리 열 및 습기의 영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람직하지 않은 점은 보울트나 핀으로 인한 중량의 증가를 가져오며 드릴 구멍으로 인한 응력집중을 가져와 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공이 있는 유한 직교이방성 적층판이 인장 하중을 받을 때의 응력집중계수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섬유 방향과 원공의 직경 대 평판의 폭비(d/W)에 대한 변화가 있으며 기계적 결합부의 파손 형태는 금속재료의 경우와는 달리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적층의 섬유 방향에 따라 순수 인장파손이나 전단파손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응력 해석을 한 후에 적절한 파손이론을 적용하여 어떠한 거동을 보일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복합재료를 사용할 경우와 기계적 결합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은 금속의 경우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그림 13의 경우에서처럼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예를 들면, 그림 13(a)에서와같이 구멍 주위로 연속적 섬유가 통과하도록 성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연속섬유와 하중 방향이 일치하여 섬유들이 구멍 주위에 밀집되게 하고 수지(Resin)가 많은 부분이 있어 취약하기 때문에 그림 13(b)와같이 복합적 층판에 그대로 드릴 구멍을 뚫는 것이 좋다. 그림 13(c)와같이 구멍 주위를 강화하고자 할 때는 하중 방향과 섬유 방향이 같은 평판을 부착시켜 결합부만의 강성을 높이도록 하며, 그림 13(d)에서와같이  $[\pm 45^\circ]$  섬유 방향을 사용함으로써 구멍 주위를 연화하는 것이 응력집중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접착결합은 구조물의 경량화를 위한 효과를 성취하려고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실제 이용은 주요 구조 부분에 확대하려고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성공한 예도 있다. 접착결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두 개의 부품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고성능 접착제의 개발과 함께 많은 활용이 기대되는 방법이다. 접착결합의 장점은 기계적 결합에서와같이 리벳이나 보울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물을 경량화할 수 있으며 드릴 구멍으로 인한 구조물의 불연속을 초래하는 기계적 가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구조물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접착결합의 문제점은 분해결합이 용이하지 않으며, 접착부의 품질상태를 검사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다. 또한, 열이나 습기에 따라 접착제의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접착결합을 하려면 표면을 완전히 세척해야하는 표면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접착결합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섬유 방향은 그림 14(a)에서 보인 바와 같이 접착층에 접착되어 있는 적층판의 섬유 방향이 하중 방향에 수직인 것은 섬유의 높은 강도 및 강성을 활용하지 못한다. 그림 14(b)는 섬유 방향이 하중 방향과 일치하고 있어 좋은 설계법이다. 그림 14(c)는 미끄러운 표면이 요구될 경우에 사용되는 예로서 섬유 방향과 하중 방향이 일치한 층에서 꺾어져 접착층이 있어서 좋지 않으며, 접착을 한층 올리든지 혹은 내려서 접착층에 이웃하는 피접착 표면의 섬유 방향을 하중 방향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5(a)는 결합부의 강도를 중요시할 때 사용되는 경우로서 접착층의 전단응력의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피접착물의 끝이 경사진 것과 또는 반경을 갖는 것 등이며 가공의 난점을 피하기 위해 너무 복잡한 형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림 15(b)는 피접착

물이 서로 겹치지 않고 단면의 경사를 이용하여 접착층을 크게 하는 방법으로 원통형 구조물에 의 응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접착제의 종류는 표 3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복합재료에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 Epoxy를 들 수 있으며 사용온도가 더 높은 것으로 Polyimide를 사용하기도 한다. 보통 접착층의 두께는 0.004~0.008인치로 하면 최대의 결합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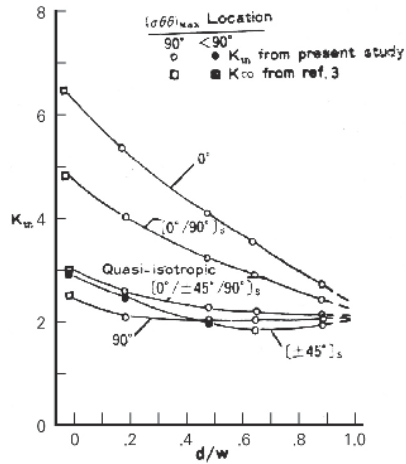


그림 11. 원공이 있는 유한 직교 이방성 적층의 응력집중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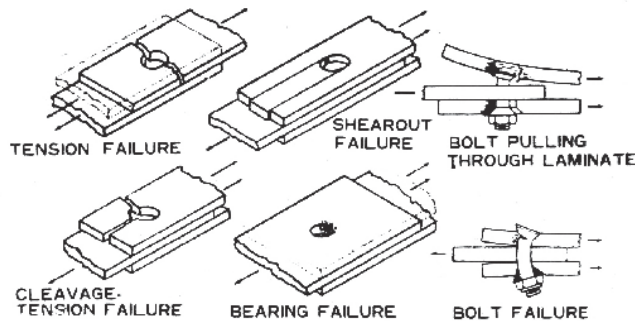


그림 12. 기계적 복합결합의 파손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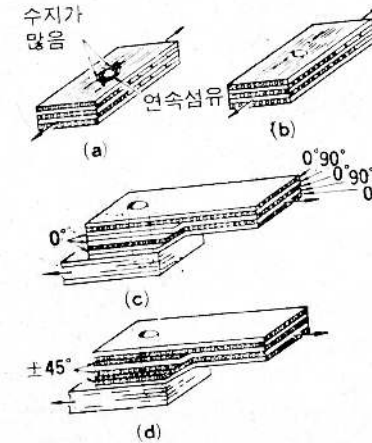


그림 13. 복합재료의 기계적 결합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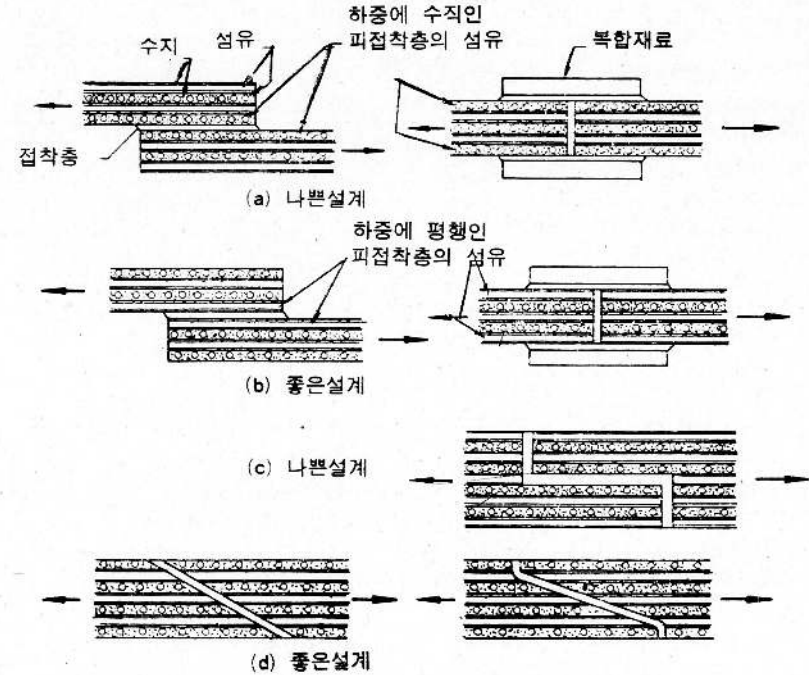


그림 14. 복합재료의 접착결합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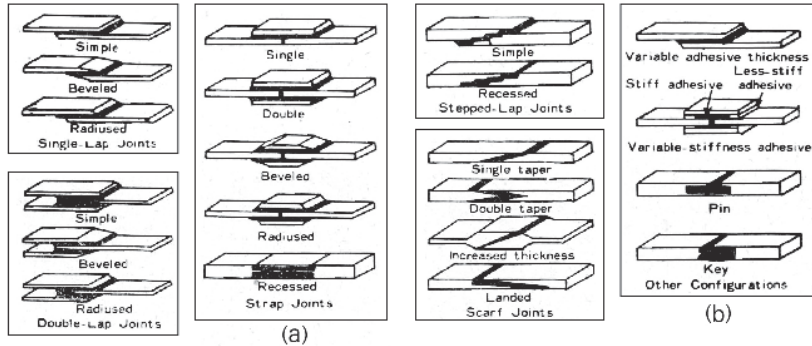


그림 15. 접착결합의 종류 (a), (b)

최근까지 복합재료의 항공기에 사용은 부분적인 활용 단계에 있으며 점차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재래 항공기의 구조물의 중량이 40% 정도이던 것이 복합재료의 사용으로 16~25% 정도의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복합재료를 사용하여 비강도와 비강성을 높일 수 있는데 섬유의 체적률이 70% 이상에서부터 종탄성계수, E와 전단 탄성계수 G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포와송의 비,  $\nu$ 는 하중의 종류에 따라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만 되는데, 이 값은 모재와 섬유의 포와송의 비가 클수록, 섬유의 체적률이 클수록 큰 값을 보여주었다.

섬유의 배열은 주로 육각형과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섬유를 사각형으로 배열하는 경우 섬유의 체적률이 60~80%에서 탄성계수 표가 증가하였으며 사각형으로 배열한 경우가 큰 E 값을 보여주었다.

복합재료의 결합은 기계적 결합과 접착결합이 있는데 기계적 결합은 하중을 많이 받고 분해 및 결합이 자주 예상되는 부품에 채택할 것이며 복합재료를 고려하여 보강 시에 부착하는 평판의 섬유 방향은 가급적 드릴 구멍 주위를 부드럽게 하여 응력집중을 낮출 수 있으며, 하중의 종류에 따라 적층의 섬유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응력집중을 조절할 수 있다. 드릴 구멍 주위의 파손은 평판의 폭과 구멍의 직경 등 기하학적 형태에 따라 다르며 섬유 방향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므로 응력해석을 한 후에 허용 능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접착결합은 작업이 간단하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하중을 많이 받는 구조물의 사용에 주의를 요하며 설계 방법도 매우 다양하게 제안되어 있어서 알맞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접착결합은 드릴 구멍 같은 불연속이 없기 때문에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으나 접착층의 전단 응력이 피접착층의 탄성계수, 접착층의 길이 등 기하학적 형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접착층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복합재료의 결합을 위한 수단으로서 접착결합

〈표 3〉 상업용 접착제의 종류

<i>Thermosetting Adhesives</i>	Dimethyldichlorosilanes
Epoxy resins	Phenyl-silicons
Epichlorohydrin-bisphenol A	Silicon-alkyds
Cycloaliphatics	Silicon-epoxies
Epoxy-novolacs	Elastomeric silicons(RTV)
Epoxy-nitriles	Polyimides
Epoxy-phenolics	Dianhydride-diamine(PI)
Epoxy-polyamides	Polybenzimid-azole(PBI)
Epoxy-polysulfides	<i>Thermoplastic Adhesives</i>
Polyester resins	Acrylic resins
Polyester-DAP	Methylmethacryate
Polyester-TAC	Cellulosics
Phenolic resins	Cellulose Acetate
Phenol-formaldehyde	Acetate-butyrate
Vinyl-phenolics	Cellulose nitrate
Nitrile-phenolics	Ethyl cellulose
Polyamide-phenolics	Vinyl resins
Resorcinol-formaldehyde	Acetal
Melamine-formaldehyde	Acetate
Silicon resins	Alcohol
Chloride-acetate	Inorganic resins
<i>Rubber-Base Adhesives</i>	Sodium silicate
Rubber resins	Magnesium oxychloride
Natural	Cement
Reclaimed	Plaster
Butyl	Natural resins
Butadiene-nitrile	Asphalts
Butadiene-styrene	Ester gum
Polysulfides	Rosin/casein
<i>Miscellaneous Adhesives</i>	

을 이용하려는 추세이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

# 최신 공대공(空對空)미사일 AIM-120 개발

윤형기(尹炯基) 역(譯)

Hughes사(社)에서는 구라파의 Phantom과 Tornado 외에도, 미군의 F-14, F-15, F-16 및 F-18에 무장하기 위하여 AIM-120 AMR-AAM fire and forget air to air missile을 개발하고 있다.

Sparrow 미사일은 과거 20년 이상 동안 미군의 표준 중거리용 공대공미사일로 사용되어 왔으며, 1986년 이후부터는 Hughes사에서 개발한 AIM-120 AMRAAM(Advanced Medium Range Air-to-Air Missile)이 새로이 소개되어 최신형 표준미사일로 사용될 것이다.

AMRAAM은 Sparrow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하여 월남전의 경험을 토대로 미 공군 및 해군의 통합 기술단이 개발한 것이다.

AIM-7 Sparrow 미사일은 1958년에 McDonnell Demon기에 최초로 사용되었으나 월남 공중전에서 여러 가지의 결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Sparrow 미사일은 최초 유효사거리가 너무 길어서 월남 상공에서 발생한 각종 형태의 공중전에서 적합하지 못하였다. Radar에 lock-on 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성능도 민첩한 목표물에 대해서는 양호하지 못하였다.

1965년에서 1969년 동안에 발사된 Sparrow 미사일 중 불과 10% 이하만 목표물에 명중되었으며, 1969년에 개조한 AIM-7E2가 소개되어 보다 짧은 유효거리와 보다 빠른 기동성 때문에 dogfight보다 효과적이었다.

AIM-7F는 Sparrow 미사일의 각종 결점을 보완 1975년경에 F-14 및 F-15에 사용되었으며, Foxbat와 같은 고고도의 기동성이 있는 목표물이나 저고도 항공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이 최신 AIM-7F Sparrow 미사일은 그 신뢰성과 Kill rate가 크게 향상되었다.

Monopulse seeker와 Digital electronics의 성능이 보다 우수한 최신형의 AIM-7 M Sparrow 미사일이 현재 소개되고 있으며, 이 미사일에는 Autopilot와 Active proximity fuze를 사용하였다.

새로운 Seeker는 Ground clutter 사항에서도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고 자체의 ECM을 사

용하는 목표물에 대해서도 매우 우수한 성공을 발휘한다.

Sparrow 미사일은 최초로 소개된 이후부터 계속 개조하여 왔으나, 이 미사일은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음이 최근에 기술진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함은 미사일 자체에 사용하고 있는 Semi-active radar homing 유도방식에 있었다.

## Launch-and-leave 능력

Sparrow 미사일의 발사 항공기는 교전 중 계속 목표물에 조명하기 위하여 Radar를 사용해야 한다. 조종사는 최초의 항공기에 타격을 가할 때까지는 제2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없다.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 조우 직면하게 될 때는 한 번에 오직 1개의 목표물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목표물의 수가 제한을 받게 된다.

목표물을 계속 조명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교전 중 기동에 제한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전술 상황을 계속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분리하게 된다.

레이다가 목표물에 Lock-on 되었을 때에는 조종사는 계속 새로운 전술 상황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새로이 개발이 요구되는 미사일은 화력 조종 레이더와 조종사의 시계에 방해됨이 없이 시계 밖의 여러 목표물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Launch-and-leave 능력의 미사일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미사일은 적기의 양상이나 고도 및 기동성에 관계없이 적기를 공격할 수 있어야 하고, 밀집된 목표물에 대해서는 장거리에서 그리고 육안으로 포착된 적에 대해서는 단거리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적정사항에서 어떠한 사항에서도 전천후 Lookdown/shootdown 능력이 있어야 함이 요구되었다.

## Track- While Scan 능력

발사 항공기를 최소한으로 개조 Track-while-scan mode로 작동하는 Fire control radar를 사용, F-14, F-15, F-16 및 F-18과 같은 최신 전투기에 새로운 미사일을 통합할 것이다.

새로 개발되는 AMRAAM은 어떤 새로운 훈련 과정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Cockpit 처리 절차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Sparrow 미사일보다도 신뢰성이 실제로 향상되었음이 입증되었다.

최신 중거리용 공대공미사일에 대한 개념설계는 1976. 12월에 착수하였으며, 이에 참여한 항공회사들은 Ford Aerospace, General Dynamics, Hughes Aircraft, Northrop 및 Raytheon사 등이다. 그 이후 1979. 2월에 Hughes사 및 Raytheon사와 확인/입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두 계약 회사들은 33개월 동안의 계획기간 동안에 F-14, F-15 및 F-16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각각 10발의 원형 미사일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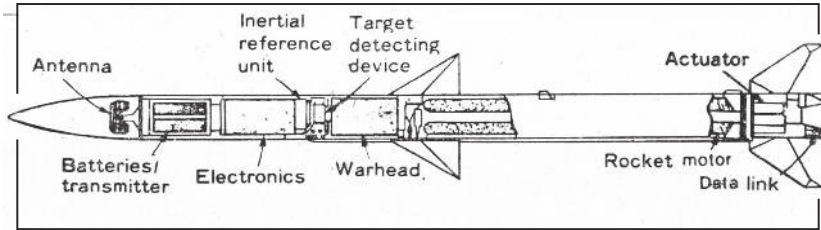
발사 시험은 6발(각각 3발씩)을 발사한 후 중지하였으며, 그 후 Hughes사가 1981. 12월에

최종 승리회사로 결정되었다.

AIM-120 공대공미사일의 중량은 종전의 미사일의 중량에 비하여 %정도로 경량이며, 따라서 F-16과 같은 소형 경량 항공기에도 여러 발을 장착할 수 있다.

AMRAAM의 모양은 AIM-54 Phoenix 미사일 및 AGM-86 Maverick 미사일의 모양과도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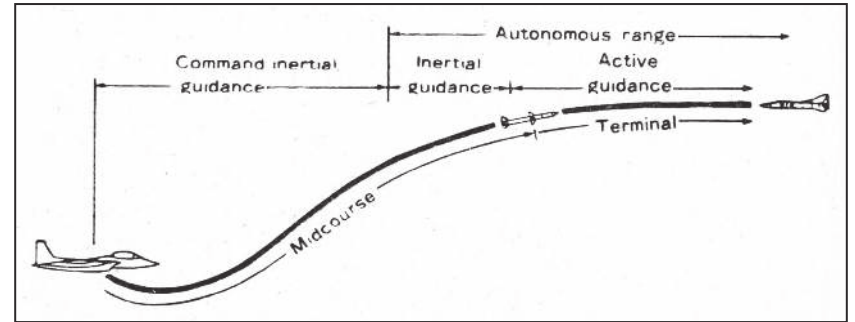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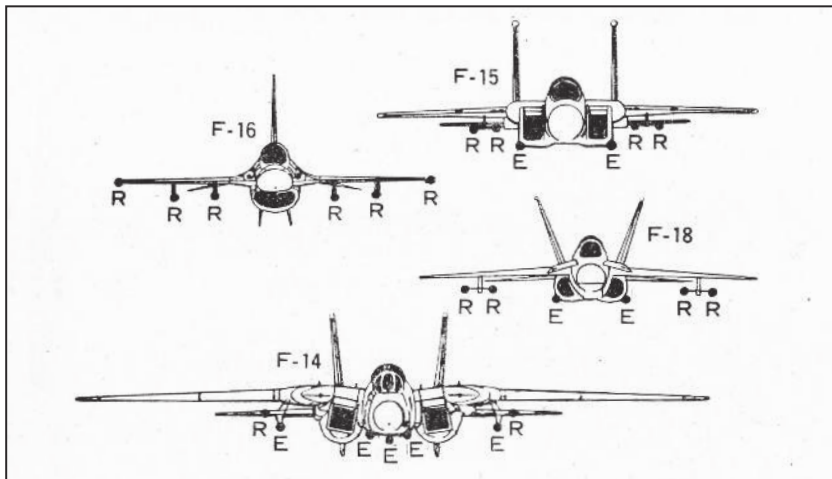
이 신형미사일은 종전의 미사일보다도 속도가 빠르며, 약 Mach 4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최신미사일의 Airframe은 그 자체가 강철로 되어 있어서 운동열을 지탱하도록 하였으며, 위장한 항공기가 잘 조화를 이루도록 눈에 잘 띄지 않는 회색으로 도금하였다.

AIM-120 미사일은 항공기의 Rail과 ejector에서 발사하도록 설계하였으며, AMRAAM과 Sidewinder용의 새로운 발사 Rail이 개발되었다. F-14, F-15 및 F-18 사용하는 기존 Ejector launcher는 Sparrow와 AMRAAM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다.

정확도



전자장비의 끝부분에는 Inertial reference unite와 목표물 포착 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폭약 자체는 Sparrow보다 작게 하였으며, 이는 능동 최종유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미사일의 후미 절반은 High-Impulse, low-smoke boost와 sustain solid-rocket motor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물이 미사일을 포착,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Smoke를 최대한으로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설계상 신속히 가속하도록 하였다. 혼합추진제에서 Aluminium oxide를 제거시켜 Smoke를 감소시켰다.

미사일의 후미에는 Data control fin이 4개 있으며, 이는 배터리로 전원을 얻는 전기식 Actuator에 의하여 작동된다.

Command-inertial datalink용 안테나는 Rocket-motor nozzle의 다음에 위치하여 있다.

AMRAAM은, 3단계 유도방식을 사용하며, 이는 Command inertial, autonomous inertial 및 active terminal 유도방식 등이다.

목표물은 항공기에 장착된 Track-while-scan mode로 작동하는 Fire control radar에 의하여 포착된다. F-18에 장착된 APG-65 레이더의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10개의 목표물(거리와 접근속도 기준)이 순서별로 유지되며,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8개의 목표물이 조종사가 볼 수 있도록, 그의 Radar display상에 나타난다.

조종사가 공격하기 위하여 목표물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목표물의 위치는 자동적으로 미사일의 관성 참조 장비에 Lock-on 된다.

미사일과 항공기는 발사 순간까지 공동으로 관성 참조의 기능을 한다. 발사 후에는 항공기만이 목표물의 최신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목표물이 추적하기에 용이할 경우에는 Active radar seeker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접근할 때까지 미사일은 계속 관성 유도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목표물이 기동할 때에는 미사일의 기억장치에 기억된 바와 같은 목표물의 위치가 새롭게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일에는 항공기에 사용된 Fire control radar의 low-power



sidelate를 사용할 수 있다.

매 “Frame”이나 또는 Radar가 완전한 주사를 한 후에는 목표물의 최신위치가 미사일의 관성 참조 장비에 제공된다.

Command-inertial midcourse 유도방식은 8개의 각기 다른 목표물에 동시에 8발의 AMRAAM이 유도되도록 허용하며, Fire control radar는 새로운 목표물을 포착하기 위하여 계속 주사한다.

Active radar로 Switch-on 하는 시간이 조종사에게 Display 되며, 따라서 조종사는 미사일 이 목표물을 포착한 후에는 공격하기 위한 Data 개발을 중지하거나 공격을 중지할 수 있다. AMRAAM의 X-band seeker는 목표물의 종류에 따라 mode를 선택한다.

### Home-on-jam 능력

Home-on-jam 방식은 목표물이 Clear 된 상태에 있을 때 사용된다. 공격기가 자체적으로 ECM을 한다면 미사일은 Midcourse 및 Terminal course에서 Radar home-on-jam 유도방식으로 발사할 수 있다. 미사일은 비행 중 이 유도방식을 교대로 여러 번 전환할 수 있다.

단거리 공격 시 조종사가 육안으로 목표물을 포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적기와의 같은 방향에서 Active radar homing 방식으로 직접 AMRAAM을 발사할 수 있으며, 이는 근접전에서 Launch-and-leave 능력을 제공한다.

수차의 사격 시험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일부가 입증되었다. 1981. 8. 26일 F-16에서 발사한 최초의 유도 시험 발사는 QF-102 target droneon 직접 명중되었다. F-16의 fire control system과 미사일의 active-radar terminal 유도방식의 통합이 시험에서 입증되었다.

1981. 11. 23일에 F-15에서 발사한 두 번째의 유도 발사 시험에서도 QF-102 목표물에 역시 직접 명중되었다. 교전 방식은 Look-down/shoot-down tail 공격방식이었으며, F-15는 6,000ft 고도에서 Mach 0.75의 속도로 1,000ft 고도에 있는 속도 Mach 0.7의 QF-102 목표물에 접근하였다.

F-15의 Radar에 의하여 정보가 제공되고, 그의 Store control system에 의해서 발사된 미사일은 관성 Midcourse 유도방식을 입증한 후 지상 크러터사항에서 목표물을 포착하였다.

1982년 후반에 실시한 최종 원형 미사일 발사 시험에서는 자체가 ECM을 하면서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의 능력을 입증하였다.

미사일은 400ft 고도로 F-15를 향하여 비행하여 오고 있는 QF-102 무인기에 고도 16,000ft, 거리 20km 떨어져 있는 F-15에서 발사되었다.

지령관성유도방식으로 발사되어 목표물을 포착 후 요격할 수 있도록 Active radar homing 방식으로 전환한 미사일은 탄두의 치명 유효범위 이내를 통과하였다.

다음 사격 시험은 1984년 초에 실시할 것이며, 87발의 개발 시험용 미사일을 사용할 것이다.

AMRAAM은 1986년에 취역, F-16에 무장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F-16기는 시계 밖의 미사일 능력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이는 계획 중에 있다고 한다.

F-16은 통합개발시험과 최종 작전 평가 단계에서 40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며, 이때 F-18, F-15 및 F-14에서의 개발 사격 시험도 실시할 것이다.

AIM-120의 개발모델의 설계는 1983년 말에 완료될 것이며, 제2단계의 대량생산 미사일에 대한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도록 된 18,000시간의 비행시험 외에도 개조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시험, 분석 및 고정 개념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신뢰도는 철저한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서와 10,000시간 이상의 Captive flight-testing에서 입증될 것이다.

F-16을 이용한 최종적인 작전 평가를 실시한 후에 1985년 후반에 최초로 생산 인도되어 1986년 중엽에 취역하게 될 것이다.

미 육군에서는 AMRAAM 20,000발을, 미 공군에서는 13,000발을, 미 해군에서는 7,000발을 각각 필요로 하고 있으나, 레이더를 장착한 AV-8B와 같은 다른 항공기에도 무장을 하고, Sea sparrow를 대처하기 위하여 해상 발사에도 이용된다면, 그 발 수는 증가할 것이다.

미 공군 및 해군을 위하여 연간 3,000발을 생산할 것이며, 따라서 제2의 생산회사로서 Raytheon사가 선정되었고, 1988년에는 Lot IV사와도 AMRAAM의 생산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AMRAAM이 Sparrow보다 능력이 향상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 공군에서는 McDonnell Douglas사에서 개발한 multidome air-combat simulator를 사용 철저한 Simulation 시험을 완료하였다.

이 시험에서는 Sparrow보다 능력이 2배 정도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최대거리에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식별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각종 능력향상

AMRAAM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완전하게 사용될 수 있으려면, Fire control radar가 정교하여야 하고, 적·아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AIM-120 AMRAAM은 AIM-7 Sparrow 미사일보다 적어도 2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25년간의 미사일의 수명을 위하여 AMRAAM은 계속 개조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AIM-120 B형은, 1990년경에 소개될 것이며, Active radar와 Passive terminal homing 유도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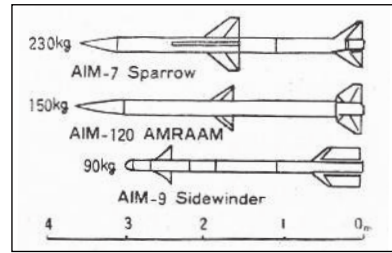
AIM-120C형은 1990년대 중엽에 소개될 것이며, 속도, 거리 및 기동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방사성 추적 AMRAAM도 고려 중에 있다.

Sea sparrow를 대처하기 위한 해상 발사 SAMRAAM 이외에도 각종 지상 발사형의 AIM-120이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 소련(蘇聯)의 화학전(化學戰) 능력(能力) 하(下)

최양수(崔良洙) 역(譯)

이상 기지용으로는 공군기지방어와 이동 중·단거리 방공 및 SAM “filler”로 사용될 것이다. 영국, 불란서, 서독 및 미국 등의 국가들이 서명한 협정에 따라 AIM-120 AMRAAM은 NATO의 표준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채택될 것이며, 일부 구라파 국가에서는 Sidewinder 미사일을 대처하기 위하여 ASRAAM을 개발할 것이다.



영국과 서독에서는 Tornado F-2와 F-4 F에 각각 무장하기 위하여 AMRAAM을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Tornado는 최대 6발의 AMRAAM을 장착하고, F-4 F는 4발을 장착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Track- while-scan fire control radar를 필요로 할 것이다.

AMRAAM은 크기는 Sparrow와 유사하나 중량은 불과 2/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북괴 도발사

#### 삼척, 울진 무장 공비 침투 사건(68. 11. 2.)

북괴의 무장 공비 50여 명이 2개 조로 나누어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에 침투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강원도 삼척군에 역시 50여 명이 2개 조로 나누어 침투 양민 학살을 자행했다.

이들은 양민을 꼬여 동조시킨 후 지세를 이용, 유격대를 조직, 후방 민심을 소란시킬 목적으로 침투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 일대에 군경과 예비군을 동원 소탕전에 나섰다. 이 전투에서 귀순한 괴뢰 정동춘 소위와 고등 중위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북괴가 자랑하는 124군 부대 소속으로 대남 침투만을 위해 훈련받은 자들이란 것이었다.

이 두 지구의 소탕 작전에서 생포 5명, 자수 5명 그리고 1백여 명을 사살했다.

특히 그들은 무모하게도 양민을 마구 학살하여 우리 측도 군·민 70명이 순직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밖으로는 평화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대규모의 무장 공비를 남파시킨 그들의 저의는 남한 주민들의 동조를 요구했으나 무위로 끝나 완전히 소탕된 사건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이 아닐 수 없었다.

### 소련의 화학무기의 공격적 이용

소련이 CW 방어를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은 오직 CW 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임이 몇 가지 분석의 결과에서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몇 가지의 분석에 의하면, 소련의 Vkhv(소련군 화학부대)의 주 임무는 부대 자체의 화학약품을 사용, 오염을 설치하는 임무와 전진하는 소련군 부대의 각종 오염된 차량에서 오염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문제이다.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구라파의 불란서 및 미군의 CW 능력은 전혀 무시할 수 없으며, 더욱이 NATO는 화학재무장을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CW 개시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어떤 군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화학전 방어 능력을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소련의 CW 방어 능력은 특히 NATO가 아주 제한된 공격 능력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볼 때, 적어도 단기전에서는 소련이 입게 될 피해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다고 소련이 확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소련은 화학무기는 핵무기와는 달리 NATO의 핵반응을 자극하지 않고도 사용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화학무기가 현재 재래식 무기로 간주되고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극히 빈약하다 하겠으나, 오늘날 CW에 대한 관심은 소련의 공개 군사 문헌에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다른 집중과포 무기에 관한 주의력은 지난 10년 동안에 다소 감소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에 실시한 주요 훈련에서는 핵무기의 사용을 제외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특색을 보여왔다.

화학무기는 공격하는 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군사적인 이점은 적의 CW를 위한 장비와 훈련이 빈약하고 제한된 회복능력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그 이점이 더욱 커지게 된다.

분명히 가장 강조되고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소량의 탄약을 사용하면서도 지형을 부수적으로 황폐시키지 않고도 적에게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Table 5. Chemical Delivery Means						
Division						
Weapon				Numbers		
Designation	Calibre, Type	Max range (m)	Max rate of fire	IIE projectile weight(kg)	MR Regt/ Div arty Tk Regt	MR Div/ Div Tk
M 43	120mm Mor	5,700	12~15rds/min	15.4	18/0(a)	54/18(a)
D-30/M-74	127mm How	15,200	6~8rds/min	22	18/0(a)	36/90/54(a)
M-73	152mm How	17,200	7~8rds/min	44	18	18/18
BM-21	122mm	20,500	40rds in 20secs(b)	19	18	18/18
Frog-7	600mm FFR	65,000	—	450	4	4/4

Notes : (a) It is reported that tank regiments in GSFG are receiving a motor rifle battalion and a D-30 battalion (IDR 6/1980, p. 802). This would give each tank regiment 6×120mm mortars and 18×122mm howitzers, and each tank division 36×120mm mortars and 180×122mm howitzers. The motor rifle division would be stronger by another 6 mortars and 18×122mm howitzers.  
(b) Reload time, 20 minutes.

Army						
Weapon				Numbers		
Designation	Calibre, Type	Max range (m)	Max rate of fire	HE projectile weight(kg)	Army and Arty troops	Front assets total (a)
D-20/M-73	152mm How	17,200	4/7~8rds/min	44	18	36/54
M-46	130mm Gun	27,000	5~6rds/min	33	36	36/72
BM-21	122mm MRL	20,500	40rds in 20s	19	18	18
M-77(b)	240mm MRL ? over	30,000 ?	?	?	18	18
Scud	850mm SSM	280,000	—	850	12	12/24

Notes : (a) The Front assets listed represent a typical augmentation of a main axis army from a Front level artillery division (e.g. GSFG's 34 Guards Artillery Division).  
(b) Details of this new multi-barrelled rocket launcher are still classified.

**Frontal Aviation**

The MiG-27 Flogger D, the Su-17 Fitter C, and the Su-24 Fencer are the most modern aircraft in Frontal Aviation's inventory. They are all capable of delivering CW munitions, having maximum payloads ranging between at least 2.5t (MiG-27) and 6t or more (Su-24).  
With a hi-lo-hi mission profile, they could all make chemical attacks on targets in the west of mainland Europe. The Su-24 has sufficient radius of action to reach all major operational airbases in the UK.

Table 5. Chemical Delivery Means

많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비록 훈련이 잘되고, 훌륭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대에 대해서라도 기습공격(CW 약품과 HE탄을 혼용하여 성취할 수 있는)을 하면, 약 20%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화학 공격은 비록 어떤 목표물에 대해서 소모율은 낮다 하겠으나 HE탄과는 달리 내구성이 있는 화학적 효과는 일시적이지 않다.

주요한 적의 부대와 적의 주요 시설물들은 그 능력과 효능이 저하될 수도 있으며, 서서히 계속 사상자가 발생되고, 아주 보호된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 생존하고 작업을 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사기가 또한 저하될 수도 있다.

**투하수단**

소련은 약제나 다소 특수하게 만든 투하체제를 사용하여 NATO의 작전지역을 중심 깊이까지 전반에 걸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투하수단은 다음 도표와 같다.

구경 100밀리 이상의 어떤 박격포나 또는 포는 화학탄을 투하하기에 적합하다.

다시 말해서 포탄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비율의 화학제가 운반된다. Gun이나 또는 곡사포로 발사된 HE/화학탄의 중량은 약 5%는 화학약품이다.

박격포탄은 포탄보다 더 많은 하중(약 10%)을 운반하며, 또한 속도가 보다 느리기 때문에 약품의 손실이 보다 적게 된다. 이는 포탄이 충격 시에 땅속에 깊숙이 파묻히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록 박격포탄은 사정거리가 제한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사용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사격률이 높기 때문에 전방에 위치하여 있는 적과 교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다.

지역표적(Area target)에 대한 이상적인 포 투하체제는 다연신 로켓발사대이다. 약품의 하중은 적어도 탄두 중량의 15%에 달하며, 약품 하중의 비율은 구경에 따라 증가되고, 불과 몇 초 이내에 많은 발수를 투하할 수 있다.

보다 장거리 공격 임무를 위해서는 Frog-7 과 같은 Free flight rocket나 Scud-B와 같은 지대미사일이 지역 표적과 교전하기에는 매우 적합하다. 이와 같은 무기는 탄두가 크기 때문에 정밀치 못한 정확도를 보완하여 준다.

모든 투하체제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항공기이다. MiG-27 Flogger D 및 SU-24 Fencer와 같은 최신 대지 공격용 항공기는 NATO의 작전지역 중심 깊이까지 전반에 걸쳐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미사일과는 달리 항공기는 격추될 수 있는 취약점도 갖고 있지만 보다 높은 정확도를 성취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는 공격 형태와 무장적재를 임무에 맞도록 적응시킬 수 있다.

분무기(Spray)는 목표물 지역 밖에서나 낮은 구름 위에서 발사 공격 방법으로 기습공격을 성취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고, 지상의 장거리의 넓은 도로를 오염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대량 파괴폭탄(500kg 폭탄은 60%까지 약제를 장착할 수 있음)은 수소시안화물과 같은 순간 약품의 아주 높은 농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폭탄이며, 반면에 집속 폭탄(Cluster-bomb)은 내구성이 있는 약품을 투하하는 데 아주 적합하다.

이는 이와 같은 폭탄이 단일탄두보다 더 많은 균일한 약품 살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은 여러 가지의 알맞은 투하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탄약에 어느 정도 비율로 화학약품이 장착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 수 없다. 다만 공개된 신문의 평가에 의하면, 5%에서 30% 이상까지로 되어 있다고 한다.

소련이 CW의 효과에서 확신을 갖고 있으며, 어떤 무기의 대량 사용만이 결정적이 될 수 있다는 소련의 주장 등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한 수준까지 향상되었음이 확실하다.

소련 전선공군은 많은 하중과 신속한 반응 시간으로 전방 및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화학전용 탄약을 보유하고 있을 수 도 있다.

소련의 작전전술미사일부대의 CW 임무는 적어도 작전이 핵 전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이들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요격에 대한 거리와 취약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이 점을 감안 해 볼 때, 위협이 될 수 있다.

### 이용(Emploment)

소련은 구라파의 중앙지역에서 공격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CW의 능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소련의 군사 문헌이나 제반 훈련 연습 등으로 미루어 보아, 소련의 화학전 방어부대가 맡고 있는 임무는 그들이 나토와 직면할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여러 가지의 추측을 반영하는 것이다.

소련의 책자에는 기습공격과 수적인 압도적 우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전쟁 중 최초의 화학적 공격은 분명히 최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최초의 핵 폭파 시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전장 지역에 중심 깊이 대량공격을 감행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공격의 목적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결정적인 NATO군의 활동을 일시적으로나마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확실하다.

만약에 공격이 매우 효과적이라면 지상군의 화학적 공격의 이용은 분명히 용이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최전선에서부터 사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원을 이용 조심성 있게 계획되고 잘 협조 된 공격을 동시에 실시한 후에는 전구사령부는 야전군사령관이나 또는 사단장에게 화학적 독립을 오직 위임할 것이다.

그 후부터는 내구성 약품의 통제는 야전군 수준에서 실시하고, 비 내구성약품의 사용은 전방 사단의 전진을 돕기 위하여 사단장에게 위임할 것 같다.

비 내구성약품의 주 가치는 적의 전방위치에 대한 공격 방법을 준비하는 데 있다. 적의 참호는 적에게 화학적 공격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제공하지 못한다.

참모들은 15% 이상의 사상자(이중 ¼은 사망)를 계산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에 화학적 기습 공격을 감행하거나 적절한 농도의 화학제로 살포 시에는 비록 잘 무장된 부대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있는 병사들은 약 10~30%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빈약한 방어나 더욱이 계속되는 포 공격에 의하여 마멸되거나 사기가 저하된 방어는 공격하는 전차부대나 자동소총부대에 의하여 쉽게 공략될 것이다.

화학전용 탄약은 기습이 최대로 성취될 것 같거나, 기상 조건이 항상 양호할 때, 야간에 투하한다. 물론 이와 같은 공격은 정확한 정보나 기상예보에 의존한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화학제를 살포함으로써 화학제를 사용하는 측에 부수적인 이익이 발생할 것이며, 주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집에서 달아 날 것이다.

이때 피난민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는 피난민으로 메워질 것이며 NATO군의 대형의 전개와 재보급 노력은 이와 같은 사태 발전에 따라 크게 방해될 수 있을 것이다.

내구성 약제는 군작전에 여러 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약제들은 NATO 군부대의 세력과 효능 및 사기는 약화시키고, 특히 NATO 군부대를 지연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군은 결정적인 시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군 및 영국군 부대의 구라파 전개군은 여러 항구나 비행장 그리고 비축된 장비나 차량 등의 임시 집적소에 항공기나 미사일로 투하된 오염에 따라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전장은 주요 도로의 연결 지점이나 좁은 길 및 주로 교량과 같은 Check point를 명중시킴으로써 차단될 수가 있다.

만약에 보급 종대나 또는 부대들이 오염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다른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오염을 운반할 것이다.

또한, 지상 오염은 소련의 전진 통로에 새로운 방어위치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거나, 예비대에 타격을 가하도록 노력하는 후방 지친 부대나 기타 부대를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화학약품은 대량 살상무기이기 때문에 공격자가 공격을 목표로 하는 부대의 정확한 위치를 알 필요가 없다는 점 이 또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내구성 약품은 대공 작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주요한 역할의 화학제이다.

비행장에 대한 재래식 공격은 CW 공격으로도 수행될 수 있으며, 오염은 주요한 시설에 대한 보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고 오염된 야전에서의 가동 항공기에 대한 제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더욱이 비행장에 대하여 적의 CW 공격의 위협이 있을 시에는 승무원들이 그 비행장에서 계속 작전을 하려면, 승무원들은 NBC복을 착용하고 비행하여야 할 것이다. 어쨌든 화학전용 탄

약의 적절한 사용은 적의 소티율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내구성 약품은 전술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핵 투하체제, 본부, 통신지휘센터, POL, 또는 탄약 집적소, 즉각동원에비대와 같은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물들은 무선 방향탐지방식에 의하여 대략적으로 그 위치가 확인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재래식 폭탄을 이용한 공격은 비실용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란 화학적 공격은 가능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공격 방법은 그 효과가 약간 장기적이라는 또 다른 이점도 있다. 그 외에도 포격 임무를 대대적으로 감행할 때에 HE탄과 일부 화학탄의 혼용 방식을 생각할 수도 있다.

### 소련의 CW 이용 전망

소련은 CW를 준비하는 데 막대한 자금과 연구력 및 인력을 투자하여 왔으며, 화학부대 및 화학무기는 모든 부대 및 편성의 구성요소가 되어왔다.

이는 대량파괴무기나 또는 비대량파괴무기 및 화학약품 등에 재래전을 위한 소련의 Inventory 중 일부가 되어왔음을 암시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Marshall V.D. Sokelovsky의 권위 있는 단언을 무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정치 및 군사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부대와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결정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소련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훈련 면에 있어서나 화학무기의 사용에 있어서 이미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장비 면에서 소련이 갖고 있는 현저한 우수성의 제반 이점을 충분히 이용할 것이며, NATO와의 전쟁 시 소련이 생각하기로 전쟁의 결과라 결정적이 될 것이라는 전쟁에서는 소련은 서슴지 않고 모든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소련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련보다 더 우수한 화학무기를 보유하는 방법이다.

핵 확산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CW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미국의 위협은 그 신뢰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NATO군을 위한 유일한 합리적인 정책은 포괄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화학방어 능력과 충분한 보복능력이 있는 부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 전자전(電子戰)의 현대화(現代化)를 위한 도전(挑戰)

대령 안 병 문 역(譯)  
〈공군본부〉

「어떠한 무기체제도 이를 고안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전장에서 그 성능을 그대로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전자전무기도 특수한 문제를 안고 있고 장래 또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화를 위한 역사적인 도전이란 단기 혹은 장기적인 면에서 변화되는 필요와 새로운 시대의 기회에 대해 우리의 능력을 적응시키는 것이다.

현대화를 유지하는 우리의 능력, 즉 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와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유일한 목표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전쟁 억제의 공식이란 이처럼 단순한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새로운 시대, 즉 미래에 우리가 이러한 억제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자유 세계의 산업기관 및 정부는 상당히 먼 장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변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병력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10년 내지 15년 후의 무기체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미래의 변화될 상황으로서는

- 새로운 위협 및 지속성 위협
- 새로운 과학기술
- 불확실한 작전 상황
- 가용자원의 변화
- 정치/경제의 단점

과거 수년간 국방성에서는 무기 획득 과정에 초점을 두고 미래의 계획수립에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우리는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미래가 요구하는 현대화를 위한 도전은 여러 분야의 능력이 균형을 갖춘다는 것이다. 전쟁을 지속할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무기만 많다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이들 무기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사회 전체가 전자전의 상황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면 별로 효용이 없게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래를 위한 계획에는 어떠한 단일의 해결안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모든 분야의 개발에 대해 모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도 없고 성공률이 100%가 되도록 보장할 수도 없다.

현대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문제점과 불확실성에 대한 융통성이 요구된다.

미래를 정확히 예언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변화 가능한 상황에 의해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예상변수를 예측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어느 누구라도 장애에 우리가 채택해야 할 전자전 체제나 정책 혹은 절차와 적의 의도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현대화에 대한 문제와 도전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고밖에 단정할 수 없다.

미래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미래가 우리가 원하는 바와 똑같이 실현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예상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최소한 우리는 현재의 추이와 이러한 추이가 암시할 수 있는 미래의 양상에 대해 포괄적인 예측은 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의 현재의 추이가 있다면 그것은 센서 기술, 정보처리능력과 각 군과 임무 간에 사용되는 무기체제의 보편화이다.

이러한 추이는 전자과학 기술의 발전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에 등자, 화약 및 핵 에너지의 발명으로 인한 전쟁 양상의 변화처럼 현대전에서는 전자침이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들 한다.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이 주는 정확한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

우리는 센서 과학에 있어서의 혁명을 겪고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정보의 성격의 「전쟁의 안개」에 비유하였다.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전쟁의 수행은 적의 위치와 심지어는 아군의 위치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종 이루어졌다. 센서 과학의 발달은 이러한 전통적인 전쟁의 양상을 크게 변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전천후 조건 하에서 standoff 영상 능력을 확보하여 전체적인 전장을 실시간(Real-Time)에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전쟁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정보처리능력이 근간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이다.

현세대를 핵과학의 시대라고 한다는 우리의 손자 세대인 20세기 후반에 가서는 정보처리과학이 역사의 진로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정보처리의 혁명은 인류발달사에 있어서 농업혁명이나 산업 혁명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정보전파의 능력은 불과 수십 혹은 수백 메가 빌에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 단위가 기가 빌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레이더 광학 디스크 등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정보전파가 매우 신속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 이러한 대량 정보처리 능력은 센서 과학기술과 함께 우리에게 많은 장점을 제공하지만,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전쟁의 안개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인적인 요소와 신호와 잡음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기존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수많은 자료를 평가, 종합 및 분석하고 각급 제대에 필요한 정보의 발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게 될 것이다.

전자전이 주는 암시는 매우 명확하다.

세 번째는 각 군과 임무 간의 협조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추세와 연관되며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존재한 각 군, 상이한 임무와 무기체계 및 지휘 통제상의 특색을 불분명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래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통합된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센서 과학기술과 정보처리능력의 발달과 적의 기동 능력의 향상은 이러한 통합 전자전 체제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또한 가능케 한다.

정밀지점 공격체계(PLSS)와 같은 다중 임무 능력의 개발은 이러한 추세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무기체계와 전자전 체제는 상호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관 관계를 갖고 발전할 것이다.

윈스턴 처칠 경은 전자전 문제에 대해 「제한된 비밀서클」이라고 칭하였으나 이러한 발언도 앞으로는 틀린 말이 될 것이다. 유럽 및 기타 지역의 공치 전투 개념을 우리는 앞으로 크게 주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이미 시작되어 국방성에서도 현재 치명을 주는 폭탄과 전자파 제압을 위한 적절한 혼합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결과를 곧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를 정찰, 탐색 및 목표포착에도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는 전반적인 전자전의 추세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게 될 것이다.

향후의 환경조건이 크게 변화될 것을 예상하여 다른 방향으로도 연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3가지 추세는 우리에게 충분한 도전이 되고 있다.

현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분야로서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는 질적인 우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우리 서방세계는 상대방에 비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질적 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이것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양적인 경쟁방법을 선택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오늘의 주요 이유는 이제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대는 그간 현대 과학기술에 매우 많은 투자를 하였고 이제 그들은 그 투자에 대한 수확을 하고 있다.

질적인 우세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전자전을 타 분야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전투의 관리와 작전적 측면 및 과학기술 분야 모두와 함께 전자전을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로는 적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다. 현대전에 있어서는 전쟁의 강도와 치명도가 매우 극심하여 상호 간의 소모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하여 우리는 정교한 적의 센서와 정보처리 능력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소모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우의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중의 하나는 우리의 무기체계가 미래의 환경에서 여하히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다.

이제까지 존재했던 어떠한 무기도 이를 고안한 사람이 기대했던 대로 그 성능을 완전히 발휘한 무기는 없다. 아무리 효과적인 재밍무기를 발명해도 이것이 과면 미래의 환경에서 우리가 원했던 대로 그 성능을 발휘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또한,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무기를 다룰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넷째로는 가장 정의하기도 어려운 「조치와 대응」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현존하는 적의 무기체계 혹은 가까운 장래에 나타날 위협에 대해서만 대응한다면 항상 적의 페이스에 말리게 될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먼 미래에 대한 무기체계를 연구하여 상대가 우리의 체계에 대응토록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정부와 학계 그리고 관련 산업체가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함으로써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밝은마음 바른예절 피어나는 나라자랑

# 왜 우리는 핵 방어능력을 보유해야만 하는가?

이 글은 미 국방장관 CASPAR W. WEINBERGER가  
DEFENSE 83” 3월호에 기고한 것을 번역한 것임.

소령 최병선 역(譯)  
(공군본부)

우리는 핵의 시대를 살고 있다.

1945년도에는 핵무기는 생명 같은 사실이 되었다.

우리는 핵무기들이 멀리 사라지기를 바랄 수도 없고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도 없다.

미국이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적용한 체제와 전략적 정책의 발달과 방어의 개념에 관하여 과거 37년 동안 취급해 온 현실적 방법을 검토하면, 오늘날의 미국의 핵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방어개념은 거의 40년이나 낡은 것이다. 미국과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방어 정책을 발달시켰으며, 그 골자는 전쟁이 자아내는 엄청난 살육과 유린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시도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전쟁이 낳은 증상보다도 차라리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간직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정된 행동 방침은 제일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중국에 가서 미국은 원자무기가 정복과 탄압을 위해서는 아니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나 침입을 방어하고, 그 공격 의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쓰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던 것이다.

오늘날 방어 정책은 「과거 37년간이나 지속됐듯이」 우리의 전략적 핵 정책의 주춧돌과 범국가적인 안전 형태의 주춧돌로서 남아있다.

우리의 전략은 방어적인 것으로 공격, 그것도 특별히 핵 공격을 막기 위해서 시도되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핵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만 된다. 또한, 침략자에게는 빼앗기는 비용이, 침입을 통해서 얻기를 바라는

어떤 소득보다도 더 많으리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핵전쟁의 결과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핵전쟁에서는 승리자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이 우리가 원하는 효과적인 방어나 전쟁의 돌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소련의 지도자들도 우리처럼 이 사실을 똑같이 이해하는 것이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것이다.

우리는 소련의 지도자들이 침략의 위험성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들의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수준 어떤 기간에 걸친 핵전쟁도, 우리의 보복능력 때문에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어 주어야만 한다.

만약 소련 지도자들이 우리의 군사력이 어떤 수준의 분쟁에서든지 그들의 목적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들은 심사숙고하게 되며, 또한 그러한 분쟁이 그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이룩한 정치, 군사, 경제를 파괴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도 계산에 넣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방어 체제는 강화되어지고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하기를 추구하는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미국의 방어개념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동안, 소련의 개념은 군사능력 내에서 변화를 맞기 위해서 발전해 왔다.

40년대 후반과 50년대 초반의 대륙 간 핵 체제에 있어서 우리의 실질적인 독점은, 재래식 방어무기에 대한 우리의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걸 의미한다.

소련은 우리의 「대량보복」 하의 정책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소련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의 핵 공격은 제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50년대가 지나고 60년대가 도래하면서 소련은 장거리 핵 능력을 개발하고 획득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핵과 재래식 공격 능력은 성장을 계속한 반면 적의 핵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위협은 재래식과 핵 양면에서 모두 감소되었고 신뢰성도 감소되었다.

따라서 60년대의 미국과 60년 이후의 북대서양 조약 동맹국은 「유연반응전략」을 채택했다. 이런 개념 하에서 미국과 북대서양 동맹국들은 소련의 재래식 무기 공격을 조우 시 더 훌륭하게 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전투군을 강화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동시에 우리의 핵 능력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일반전투군을 지원하고 제한된 소련의 핵 공격에 대해서 전 기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때에는 선별적으로 대처하는 등의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게끔 증가되어 있다. 좀 더 큰 대량규모의 보복을 선택하는 일은 소련의 대량 핵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유지되어 왔었다.

이와 같은 유연반응전략은 오늘날 우리의 전략의 기본원리로서 남아있다. 유연반응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융통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우리의 핵전력을 위하고, 그것이 미국의 국익을 침입하는 상황에 처절하게 대응하는 수단으로 개발되고 의도된 대로 사용하기 위한 융통성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핵무기들이 더욱 더 대량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사

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제한된 핵전쟁이나 혹은 어떤 조건 하의 특별한 핵전쟁을 위한 유연반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핵 방어 정책을 지원해 온 우리의 기본전략은 그렇게 유지되어 왔고, 또 어떤 침입에 대한 저지수단 즉 핵이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침입 저지수단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은 핵 방어가 실패할 경우, 공포적인 핵 분쟁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물리치는 데는 무기력하고 비도덕적일 수도 있다. 더 확실히 이야기해서 어떤 제한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금지 저항도 우리가 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룩할 수 있다는 보장이 도처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방어를 위해서이지만 우리는 그것의 실패에 관해서도 생각할 필요는 있다(어떤 이유에서든).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소련의 핵 공격의 본성을 예견할 수도 없고, 소련의 공격이 제한된다 해도 무엇부터 시작이 될지에 대해 어떤 확실성도 보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사력과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가에 대하여 유연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침입 가능성을 최저 수준으로 하고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처리 능력을 재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못 되지만,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방위를 담당할 사람들이 무책임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유연성과 억제 전력을 보유하고서 이 정도의 파괴만을 추구하는 것이 추구의 새로운 개념만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20년 이상이나 미국의 전략적 사고의 중심을 이루며 건설하게 존재해 왔던 것이다. 간략한 기록조사가 이 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60년대 초반 미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McNamara)가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전략보복군의 주 임무는 소련의 핵 공격군과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도시사회까지도 포함해서 적의 전쟁 발발 잠재력을 분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전쟁 발발을 저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제일격을 흡수한 뒤에는 우리가 재차 그들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우리가 제2차 공격군을 세우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 2차 공격군이야말로 우리에게 전략의 선택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갖게 하며, 특별히 다음의 능력을 선택 가능하게 할 것이다.

- (1) 동시에 전 소련의 목표체계를 보복 공격계 하는 능력
- (2) 일차로 소련의 폭격기 기지, 미사일 기지, 속행되는 어떤 공격력의 감소를 위해서 장거리 핵 공격군과 관련되는 군사시설을 보복할 수 있는 능력 -또 필요하다면 소련의 통제되고 계획된 도로 내에 있는 도시와 산업 단지에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

한 10년 뒤에 미 국방장관 제임스 쉐슬링저(James Schlesinger)는 의회에서 방어 전략은 신

리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저지시키기를 원하는 적의 위협과 더불어서 일관성이 있어서만 된다는 것에 대해 연설할 때에 전략군의 유연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만일 외부로 확대되는 핵전쟁 이외의 어떤 것과 자멸 혹은 항복 이외의 또 다른 것을 선택할 필요성이 적국이 보유한 군사력의 성장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면…… 소비에트는 도시 이외의 다른 목표물에 대한 선별적인 공격을 감당할 만한 미사일 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전략적 방어 신뢰도를 굳건히 하고 우리의 전략 체제와 목표정책에 있어서 상응한 능력을 갖춘 점을 명백히 하고, 또한 소련이 이 점에 대하여 착오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당면과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80년대가 시작됐을 때 헤럴드 브라운은 의회에서 방어 정책을 설명했고, 그의 전임자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소련으로 하여금 어떤 단계의 분쟁이나 어떤 규모의 공격에서도 그들에게 핵무기의 사용을 유도하여 침략할 길이 없음을 알린다면 우리의 전략은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를 명백히 할 것이다.

소련의 전 목표체계를 황폐케 하는 힘 외에도 미합중국 소비에트 지도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책 및 군사 통제, 핵 및 재래식 군사력 그리고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지 등이 매우 비싼 대가를 지불 강요하는 소규모 보복 공격이나 좀 더 선택권이 있는 공격을 위한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계획은 광대한 목표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부분의 핵 군사력을 적용함에 있어 축소된 명백한 목표에 겨냥된 전략적 무기나 혹은 전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적은 수량의 핵무기를 정리하고 선택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과거 35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관계되는 2개의 중심되는 과제를 공부했다. 즉,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참작해야만 되는 그런 과제들 말이다.

첫째, 우리의 보복 의지가 신용할 만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수단도 보유한 것처럼 보여야 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가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것처럼 인식된다면 그것은 허세 부리고 무시되는 것처럼 보여질 것이다.

둘째, 방어는 동적인 것이지 정적인 것은 아니다. 성공적으로 적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적의 능력이 바뀌는 대로 변화되어야 하고, 방어력의 증진에 필요한 지식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필요한 능력과 군사력을 소유하지 못하면 유연 반응을 통한 방어 정책은 우리와 우리 동맹국들에게 빈틈이 생기고 신뢰도가 상실될 수도 있다. 결과로서 그들이 비이성적이 되어 핵을 사용하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개하고 획득한 전략적



핵무기체제를 유지해 왔고 또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이 외관상의 역설은 우리의 전략적 방어 양상의 심장부에 있다. 60년대 초기까지는 우리는 B-47과 그 후 새로운 타입인 B-52에 의해 운반되는 7,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다.

미국의 핵 군사력은 60년에 한 개의 기본적인 유인폭격기들로부터 현상군형 유인폭격기나 대륙 간 육상 탄도미사일, 우리의 편대 잠수함 군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로 발전되었다.

통상 “Triad”로 알려진 이 군의 형태는 그것이 미국의 전략적 핵군사력을 공격하는 적의 능력을 복잡하게 하고 Triad의 한 부분에 기술적 곤란이나 혹은 적의 행동을 통해서 파국적인 실패에 대한 강박과 최대의 유연성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 군의 형태는 지속되어야 한다. Triad는 과거에도 우리에게 훌륭하게 봉사했고 또 미래에도 계속할 것이다.

60년대를 통해서 우리의 전략적 양상은 소련의 계획관이 미국보다도 먼저 선점을 결정했기 때문에 소련의 계획관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소련이 보유한 무기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미국의 전략군에 대해서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류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만약 소련의 계획관이 우리의 견고한 유도탄 지하격납고와 비상 폭격기 기지를 겨냥했었다면 그는 우리의 보복력을 별로 감소시키지도 못하고 그의 병기창만 고갈시켰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의 군사력과 사회에 대한 대량 파괴를 제한하는 그의 능력은 차라리 더 적었다.

한편 만일 소련의 계획관이 미국의 도시들을 겨냥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많은 능력과 더 규모가 큰 미국의 병기로부터 그 자신의 도시에 대한 미국의 보복 타격군의 학살을 그는 느끼게 될 것이다. 또다시 그는 저지당할 것이다.

70년대를 지내는 동안 비록 우리의 질적인 부분이 유지는 되었으나 소련의 조병창은 길과 양의 두 가지 면에서 성장을 시작했다. 소련은 그들의 육상 미사일군 기지와 견고하게 보호되는 그들의 미사일 지하격납고를 확장했다.

동시에 미국은 소련에게 기습공포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일격을 가하는 데 충분한 수준의 전력계획을 수립하여 소련미사일군의 정확한 활동이나 양보를 향상시키지 못하도록 미국은 의도적인 선택을 했다. 이로 인한 순수한 결과는 소련에게 소련의 ICBM군을 위한 성전을 구축케 허용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군사력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는 탓이다. 그러나 소련은 우리의 선도를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미국의 ICBM 격납고를 공격하도록 설계된 ICBM의 생산을 개발했다.

70년 후반기까지 미국의 치명적인 미사일과 소련의 미사일 성전의 복합은 소련계획관의 초기의 긍지를 편안케 했다. 오늘날 우리가 보복력이 선택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는 동안 우

리의 더욱더 적어진 군사력에 의한 공격에 의해 미국이 보복할 것이라는 것을 소련의 계획관이 면밀히 조사하여 그는 감정적으로 핵의 대결을 상상해왔다.

만일 소련이 이것을 그럴싸하게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면 우리의 방어 정책과 결과로서의 지구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음지도 모르는 것이다. 70년대 후반기에 불균형 속의 불균형이 계속됨에 따라서 즉, 이를테면 그들이 재래식 무장에서 우세를 유지하는 동안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전장 내의 핵균형이 기울어짐에 따라서 위험은 더 증대되었고 이런 류의 제한된 공격은 소련군에게 매력적인 일로 부각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 10월에 시작한 전략 현대화 계획은 이렇게 전도되고 불균형된 상황을 제기하도록 의도되었다. 그것은 소련의 전략적 침입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안전의 폭을 원상회복시킨 것이다.

필수적으로 이 계획은 2개의 일반적인 목표를 수행키 위해 의도된 것이다.

첫째는 그것은 우리의 현재와 계획된 군사력의 생존성을 증가시키게 되어, 그들은 소련이 선점을 위한 유리한 목표를 제공받아도 미래에 존재할지도 모를 위기를 깨뜨리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둘째는 존재할지 모를 소련의 전 목표 범위를 격파하고 위협도 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정책의 신뢰도를 유지시킬 것이다. 군사능력과 향상된 생존성의 병합은 소련의 지도자가 계속해서 명확하고 애매하지 않게 인식하고 또한 그들이 핵 침입을 실시함으로써 상상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도록 의도되는 것이다.

우리의 정책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현대화 계획은 우리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군사 신뢰도를 우리에게 제공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핵무기의 기원이 시작된 이래 미국은 방어 정책을 통해서 핵전쟁의 방지를 추구해 왔다.

그 정책은 거의 40년간이나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우리는 그 정책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현신할 것이다.

## 지상에선 점검철저

## 공중에선 경계철저

# Microwave Landing Systems

## 착륙 유도장치

대위 박홍부  
 <제9341부대>

- 목 차 -

- I. 착륙 유도 유래와 동기
- II. 유도 및 착륙 보조장비
- III. MLS(Microwave Landing System)
  - 가) MLS 경쟁
  - 나) System
  - 다) 주사 빔(Scanning beam) 착륙장치
- IV. ILS(Instrument Landing System)와 MLS의 비교
  - 가) Beam pattern과 특징
  - 나) ILS와 MLS의 장·단점 비교
  - 다) 발달사
- V. ILS와 MLS의 전망

동굴 안에 있는 박쥐가 깜깜한 동굴 속에서 쉽게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박쥐에게서 방사되는 신호에 의해서라고 한다. 그래서 한 동굴 안에 수백 마리의 박쥐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 없이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Radar의 원리이다. 흔히들 Radar를 공중의 눈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와 같은 연유에서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항공 세계에 있어서 항공기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정확히 어느 지점에 착륙한다는 것은 실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기상이 나쁠 때, 즉 비, 눈, 안개, 구름…… 등으로 도저히 시계(Visibility)가 불량할 때 항공기가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한다는 것은 전자장비의 유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항공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항공 세계에서는 계기에 의한 착륙 시스템을 개발해 내었고 이것이 VHF/UHF대의 ILS(Instrument Landing System)이다. 그러나 날로 복잡다단해가는 과학의 발달과 특히 통신 분야의 급격한 발달은 한계 있는 ILS보다는 더 좋은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등장한 것이 ILS보다 좀 더 높은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MLS(Microwave Landing System)이다.

그러나 MLS는 아직 국제적으로 실용화되지 못했고 여러 선진국가에서 개발, 실용화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현대의 초음속 항공기가 활주로에 정확한 착륙을 가능케 한 전자적 유도장치에 대한 유래와 현 국제적으로 실용화되고 있는 장비 ILS의 동작 원리와 ILS에 도전해서 앞으로 더 좋은 착륙 유도장치로서 등장한 MLS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 착륙 유도의 유래와 동기

착륙 유도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종종 기본적인 수준에서 오해가 발생한다.

표준계기착륙장치(ILS)는 착륙장치가 아니라 저 접근(Low-approach) 유도장치이다. 적어도 완전한 착륙장치라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저 접근 유도뿐 아니라 항공기가 지면에 완전히 착륙할 때까지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착륙장치로서 보편적으로 함축되어진 요건으로는 착륙하려는 항공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주파 신호를 전송하는 장치와 Human pilot(조종사)나 Auto pilot(자동 조종 장치)에 의해 수행될 제어 정보를 신호로 받고 보내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서 유도는 반드시 착륙에 기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착륙장치의 이상적인 목적이 바퀴다리(Landing gear)가 지면에 정확하게 접지하는 점으로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을 지금까지 성취하지 못하였고, 국제 표준화를 위해 제시된 어떠한 장치도 이러한 점을 성취하기 위해 고안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조건과 접지 유도를 보장해 주는 착륙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접지 전 어느 지점에서 조종사는 착륙지점을 봐야 하고, 시계 참조물(Visual reference)에 의해서 성공적인 접지의 착륙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요건이다. 그 지점은 수천 피트 고도에 있을 수도 있고, 공향으로부터 수 마일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또한, 활주로와 정대 되어 있지 않거나 수십 피트 고도에 있을 수도 있고 활주로 중앙선상에 있을 수도 있다.

착륙 유도의 개발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마치 “Better mousetrap” 전통을 반박하는 것 같다. 문제의 근원은 무선유도장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상이나 공중에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서로 다르고 독립된 작동자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치일지라도 서로 정확하게 협동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목시적으로 발생한 곳이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로서 여기에서 착륙 유도장치로서 전문화된 특성을 가진 ILS를 정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의 일차 요구는 비용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 이러한 영향의 한 예는 지난 35년 동안 작동하는 G.C.A.(Ground Control Approach) 레이더의 엄청난 수에서 볼 수 있다. 이들 Unit는 높은 원가와 많은 유지비가 들고 지상 작동자의 Full-time 근무가 요구되지만, 아직도 인기가 있는 것은 항공기에 작동 장비가 필요 없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공항운영자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을 때 G.C.A. 정밀 접근 레이더를 설치함으로써 계기 착륙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G.C.A. 정밀 접근 레이더의 현대화와 개발로 인해 국한된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협조적인 착륙 유도장치의 심한 경제적인 문제로서는 항공기 소유자가 항공기에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공항의 소유자가 Ground Station을 설치할 때 이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착륙유도장치는 낭비가 된다는 사실이다. 항공기가 Companion Air-borne Set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항에 착륙 유도장치가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고, 역으로 항공기가 그러한 수신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공항의 착륙 유도장치도 소용없는 것이 되어 심한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새로이 개선된 착륙 유도장치를 채택하는 것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항공기의 착륙(Landing)에 대한 특성과 이에 따른 착륙 유도의 동기(Motivation)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속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의 착륙의 무서운 특성은, 항공기가 공기 역학적으로 성공적인 원활한 접지를 한다는 것은 교신하기 전 불과 수 초 동안에 변경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입증된다. Hard Landings와 활주로의 짧음(활주로에 항공기가 늦게 접지하였을 때)의 어려움은 항공기가 랜딩패턴에 들어갈 때 하강률의 조그만 에러에 의해 야기된다.

본래에 착륙하고자 한 지점을 육안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착륙 유도의 필요성이 절실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착륙 유도과 기상(Weather)은 냉혹하게 관련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쨌든 이러한 관계에서 또 다른 오해가 있게 된다. 하나는 날씨가 맑고 무제한된 시계(Visibility)에서라면 착륙유도장치가 필요 없다는 가정과 또 다른 하나의 가정은 착륙유도장치는 모든 기상조건 하에서 따르는 착륙에 유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정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기상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무한한 시계(Visibility)에서부터 태풍과 같은 바람과 함께 오는 눈을 뜰 수 없는 눈보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착륙 장치의 기능은 무한한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착륙장치의 유용성은 착륙 빈도의 증가와 착륙이 이루어질 때 안정도의 증가, 활주로 접근과 착륙 기동에 소요되는 시간의 감소 등의 관점에서 대부분 측정되어진다. 따라서 착륙유도장치

는 이러한 조건들 중에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위하여 기여가 되고 그러한 기여가 악기상에 관계 없이 필요하게 되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실제로 좋은 기상하에서의 착륙유도장치 사용에 대한 추세는 항공기에의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진보되었다. 그것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그 경로를 최적의 경로로 제한되게 했는데, 이것은 첫째, 다른 항로에 대한 비간섭, 둘째, 환경에 대한 최소의 소음, 셋째, 공기 역학상의 가장 좋은 선택, 넷째, 요구되는 활주로의 최단 거리는 무선 유도신호로 결정될 수 있는 3차원적인 정확성에 기인되기 때문이다.

조종사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실제적인 접지를 하기 전 착륙지점을 오랫동안 확장된 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데에는 어려운 조건들이 있다. 수평, 수직 비행에서 성공적인 착륙과 실패적인 착륙 사이의 차이는 1/4°정도의 차이밖에는 안 되고, 또한 만일에 하강률이 허용치보다 5배 내지 10배 정도가 되면 항공기는 활주로 정대에서 수백 피트나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착륙 기동은 조종사들에 의해서 매우 많이 연습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어려움을 배격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항공기 작동 중에 있을 수 있는 매우 순간적인 불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조그만 에러와 실패는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종사의 시계 관측 대신에 이러한 기동에 기여하기 위해 고안된 유도장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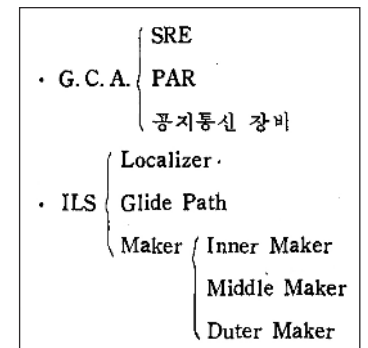
## II. 유도과 착륙 보조장비(Aids to Approach and Landing)

유도와 착륙 보조장비의 운영 목적은 약천후 시 시계(Visibility)가 나쁠 때 항행하는 항공기를 활주로 근처로 유도하여 무사히 착륙시키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

유도장치로서는 G.C.A.(Ground Control Approach)가 사용되는데 이 장비는 60마일 반경 내의 항공기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탐색 레이더 계통(S.R.E. : Surveillance Radar Element), 최종 착륙지점까지의 접근 시 추적하기 위한 정밀 레이더 계통(P.A.R. : Precision Approach Radar), 그리고 지상과 항공기의 교신을 위한 무선통신장비의 세 주요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기 착륙장치(ILS : Instrument Landing System)로는 수평 정보를 제공하는 Localizer, 수직 정보를 제공하는 Glide Path와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Maker의 세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ILS는 시계 비행규칙(VFR; Visual Flight Rules) 사용 불가 시 사용하게 되는데, VFR 조건으로는 수평 시계(Horizontal visibility) 5km 이상 수

### 〈유도·착륙 보조장비의 구성〉





직 시계(Vertical visibility) 300km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ILS와 MLS이므로 ILS의 작동 원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MLS의 작동 원리도 일부를 제외하고 ILS의 작동 원리와 거의 같으므로 현장비로 많이 쓰이고 있는 ILS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았다).

ILS는 공항 근처로 유도된 항공기가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장비로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 부분의 각각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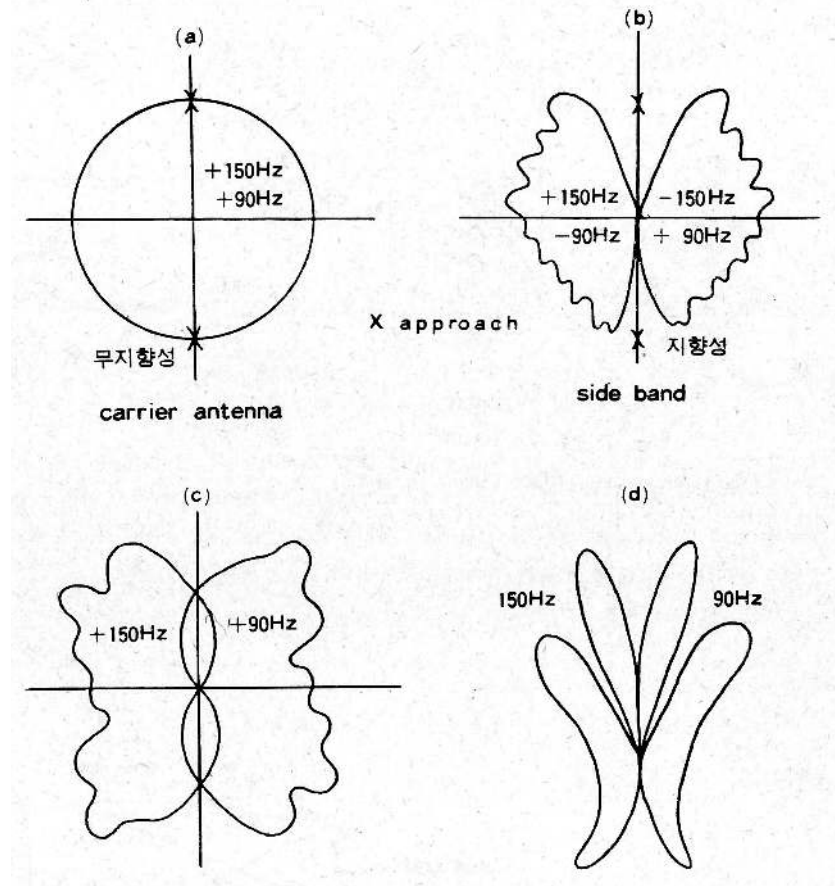


그림 1. Radiation pattern

### 가. Localizer

Localizer는 활주로의 수평적인 위치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장치로서 VHF-band(108~110MHz)의 주파수 신호를 사용하여 7~8개의 나열된 안테나를 3개의 Group으로 구성하여 반송파(Carrier)와 Side band signal을 송신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전파의 방사형식은 (그림 1)과 같다. 방사 방식은 무 지향성 안테나인 반송파 안테나와 지향성 안테나인 Side band 안테나에서 방사된 빔이 합쳐서 (그림 1)의 (c)와 같은 모양을 나타내 좌·우 신호를 제공하게 된다. 이때 Course bending이라는 Obstacle에 의한 굴절에 의해 반사 방식에 찌그러짐이 생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d)와 같은 빔 폭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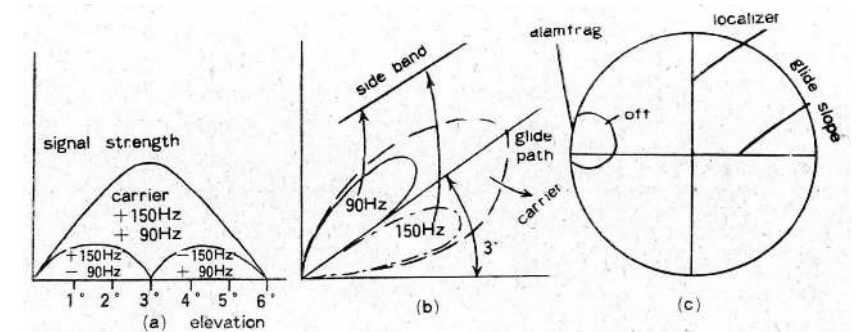


그림 2. Glide Path radiation pattern

### 나. Glide slope system : Glide P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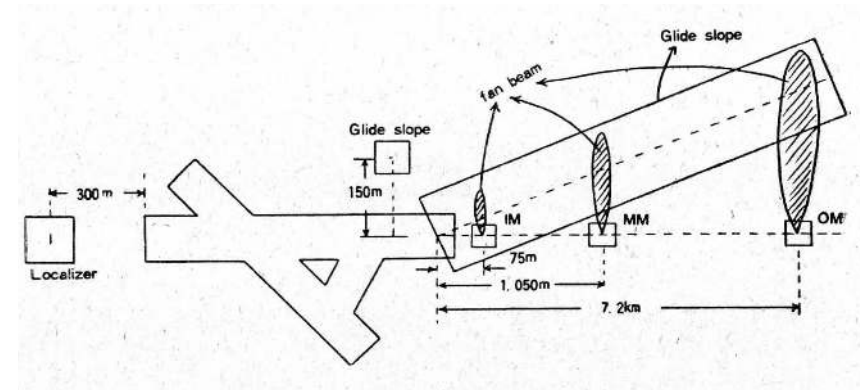


그림 3. ILS의 배치

Glide Path는 UHF-band(339.3~355MHz)의 주파수 신호를 사용하여 Upper 안테나와 Lower 안테나에 의해 전파를 방사하여 주파수의 차이에 따라 Glide path를 벗어날 경우 Warning이 주어지게끔 구성된 장치이다. 각 안테나에서 방사하는 신호는 (그림 2)와 같은 방식인데 항공기가 제 경로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그 위치에 따른 신호가 (c)와 같이 주어질 경우 수정을 알려 주게 되어 있다.

#### 다. Marker Beacon

Marker Beacon은 75MHz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부채꼴 모양의 빔의 형식으로 400Hz, 1,300Hz, 3,000Hz의 AF 신호를 실어 방사하는 것으로 활주로와 일직 선상에 위치한다. 이것은 활주로 끝단에서부터 75m 위치에 Inner Marker, 1,050m 위치에 Middle Marker, 7.2km 위치에 Outer Marker가 (그림 3)과 같이 설치되어 항공기가 각 위치의 빔을 통과할 경우 버저(Buzzer)가 울어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이다. 각 Marker의 작동을 간단히 살펴보면 7.2km에 위치하는 Outer Marker는 400Hz의 Tone의 신호를 1초에 두 번 울리게 하여 주는 작동을 하고 1,050m에 위치하는 Middle Marker 1,300Hz의 Tone의 신호를 3초에 두 번 울리게 하여 주는 작동을 하고 75m에 위치하는 Inner Marker는 3,000Hz의 Tone의 신호를 1초에 여섯 번 울리게 하여 주는 작동을 한다. ILS의 구성 요소는 (그림 3)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

### III. Microwave Landing System

항공계에서 MLS는 2차 세계대전 중에 개발되었던 현존하는 국제적인 VHF/UHF대의 ILS<Instrument Landing System>에 대한 더 좋은 대안으로서 오랫동안 주목되어 왔다.

MLS는 ILS의 주요한 결점, 즉 주파수 채널에 대한 제한된 수자라든가 여러 공항들의 사이트 중에서 알맞은 지역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신호 경로로 인한 간섭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용도에서 MLS는 군사적인 용도에서 많이 연구되고,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광범위하게 민항(Civil Aviation)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간단하게 MLS에 대한 발달사를 살펴보면 1940년대에 처음으로 연구되고, 1950년대에 개발되어, 1960년대에 비로소 제작, 사용 가능케 되었다.

그러나 국제 표준 규격으로서의 채택은 지연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유는 항공산업의 모든 체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었던 단일 표준 신호체계로 인한 폭넓은 이들에 대한 욕망에서였다.

이러한 MLS의 이상화된 특성 속에서는 지금까지처럼 군사적인 활주로와 민간 항공 활주로에서의 필요성과 또한 항공기 각 Type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표준 장비를 갖춘 항공기

라면 어떤 알맞은 장비를 갖춘 활주로에 유도되어 세계 어느 곳에든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러한 MLS가 각 국가에서 어떻게 경쟁이 되고 있으며, System 발전과 주사 빔 착륙장치에 대하여 살펴보자.

#### 가. MLS 경쟁

실제로 MLS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각 국가마다 다소 다른 형태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그 주요 5개 국가에서 내세운 착륙 시스템에 대한 목표는 대체로 다음 4가지 형태가 된다.

- (1) 시스템의 감도를 줄이는 빔의 반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 (2) 송신 구역을 넓히기 위해 즉, "Curved and dog-legged" 형태의 경로에서도 유도가 될 수 있도록
- (3) 똑같은 시스템이 모든 종류의 항공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조종사가 항공기 안에서 Receiver-terminal 경로 선택이 제공되게 하기 위해
- (4) 주요한 민간 항공 터미널에서 조그만 군사적인 전술 착륙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적용을 하기 위해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TRSB(Time Reference Scanning Beam)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항공기 접근각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사 빔(Scanning-beam)이 To-Fro 경도 사이의 시간차를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영국에 의해서 제안된 시스템은 Doppler MLS인데 이 시스템은 항공기 접근각을 결정하기 위하여 라디에이터(Radiator)에서 방사하는 잇따른 신호의 주파수 Doppler-shift를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두 시스템 TRSB와 Doppler 시스템은 모두 C-band(5.0~5.25GHz)에서 작동되고 지상으로부터 송신되는 정보를 받아서 판독하기 위해 항공기에 장착된다.

이에 반해서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제안된 시스템은 지상에서 정보를 판독하는 시스템인데 독일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항공기 위치 정보가 항공기에 장착된 표준 장비에 의해서 보내진 L-band(1.025~1.150GHz) 펄스파에 대한 간섭계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방향 조정은 지상에서부터 항공기까지의 Data-linked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항공기 위치 정보가 전통적인 지상 유도과 항공기에 대한 Data-link 조정에 입각한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 중 MLS 경쟁은 특히도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격렬해졌는데 극단적으로 각 국가들에 의해서 제안된 시스템은 여러 주요한 공항에서 공공연의 실험까지 실행되었다.

그렇지만 최근까지 그 두 시스템은 똑같은 조건과 설계 아래서 실험되어 왔다. 두 시스템 모두 전자적으로 스위치 되는 안테나를 구동시킴으로써 항공기의 정보 교환 기술을 정교하게 해 주었다.

그 밖에 ICAO 표준화로 컨텐딩되지 않은 MLS는 북미와 유럽의 여러 주요 도시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다. 그러한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데 FAAIS(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endorsed Interim Standard) MLS는 미국의 여러 공항에서 설치되고 보충되었고, 펄스로 코딩된 빔을 사용하는 Ku-band(15.4~15.7GHz) 주사 빔 시스템은 미국 해군과 스웨덴과 핀란드 공군에 의해서 채택되었고 또한 세계 40개 장소에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2,500대 이상의 항공기에 장착되었다. AIL에 의해서 설치된 시스템은 최근에 완성된 실험을 포함해서 각 임무에 따른 랜딩단계에서 공간 진동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 의해 채택되었다.

## 나. 시스템 발전

국제적인 표준 규격품으로서 ILS를 받아들인 지 몇 년 후인 1950년대 초반에 이르러 ILS의 폐지와 교체는 폭넓은 관심이 되었다. 그때 주된 관점은 주요 공항에서 전통적인 항공기 작동의 착륙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만큼 ILS는 결점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ILS와 MLS의 비교」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 밖에 ILS의 각 부분의 문제와 발전을 살펴보기로 한다.

Localizer에 있는 문제들은 반사와 또한 수직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인한 Multipath radiation에서 기인된다. Localizer 안테나 빔은 100MHz 범위에서 작동하는 안테나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그때의 빔은 실질적인 안테나 크기와 구조로는 조정하기가 어렵고 장애물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를 감소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Localizer 경로의 다른 한쪽 편에서 Hard over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확인 신호의 35° 각도를 얻기가 어렵다. 또한, 300MHz 범위에서 작동하는 Glide Path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구되는 방사 Pattern을 땅의 Mirror로부터 발생하는 방사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약 2,000ft 고도로 원활한 지역은 서로 다른 신호 경로가 만들어진다면 다른 방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또한 목표물을 얻기가 어려워진다.

초기 경험의 결과로서 착륙장치 개발은 고주파(Radio frequency)를 되도록이면 Microwave 영역까지 증가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또한 그 영역에서 실제 규격의 안테나는 빔의 Sharp 함을 극복하기에 더 좋은 제어를 가능케 했다. 실제로 Microwave 시스템은 현 ILS가 채택될 때 강한 경쟁자였다.

1954년에 이르러서 A.N.D.B.(Air Navigation Development Board)와 C.A.A.(Civil Aeronautics Authority)와의 공동으로 미국 공군은 오하이오주의 Dayton에 있는 Patterson 공군 기지에서 여러 가지 고정된 빔 Microwave 시스템에 의한 비행 평가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그런데 이때 X-band(7~10GHz)의 높은 주파수로 작동하였으나 그래도 반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기본적인 문제는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었다. 지상으로부터 생기는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이득의 통제는 이루어졌지만 요구되는 경로를 따라서 생기는

반사된 에너지는 그 사이트가 이상적이 아닐 때는 이상을 야기시킬 만큼 충분히 큰 것이었다.

1950년대의 미 공군의 다른 관심은 자동 G.C.A. 즉 지상으로부터의 명령이 직접 항공기 비행 제어장치로 연결되는 G.C.A. 장치에 대한 반응 시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통적인 G.C.A. 레이더 장치에서는 지상 작동자가 항공기의 움직임을 Scope 상에서 관찰하여 Voice radio로 항공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직은 일반적으로 군사적인 용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좋은 시스템 개발을 위한 미 공군 TRACALS(Traffic Control and Landing System) 계획의 목표는 일직선적 접근보다 여러 가지 곡선 경로의 접근을 허용하는 폭넓고 지속적인 적용 범위를 갖고 있는 착륙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다. 곡선 경로에 대한 개념은 활주로 착륙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TRACALS는 필요한 항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분당 2대의 착륙률을 얻기 위한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다른 속도를 가진 항공기가 완전히 똑같은 경로에 배열된다면 불가능하지만 항공기에 각각의 활공 경로를 지정해 줌으로써만, 하강을 하고 있는 항공기의 마지막 몇백 피트까지는 가용 가능한 분리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다. 주사 빔 착륙장치(Scanning beam Landing System)

1955년에 결정된 자동 G.C.A. 실현 가능성 연구가 주사 빔 착륙장치를 낳게 하였다.

Angular Sector를 통해서 탐지되는 G.C.A.빔과 같은 좁은 빔이 적당히 암호화되어 항공기에 보내어진다면 조종사에게 정확한 각도상의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에서 G.C.A. 팀은 요구되는 모든 암호 특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사 빔 착륙장치가 전형적인 Hardware 구조로서 더욱 조사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사 빔 착륙장치가 전형적인 Hardware 구조로서 더욱 조사 연구되어야 했던 것은, 비록 주사 빔 기술에 의한 Volumetric coverage가 이미 초기에 인정되었지만 주사 빔이 Low-earth-grazy angle에서 신호 경로의 많은 개선된 특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였다.

이러한 주사 빔 착륙장치도 조명 활주와 Touchdown 지역은 지역 상공 1.5°~2° 정도에서 방사되는 에너지에 의해 Cover 되어야 하는데, Scan 방향에서 1.5° 정도의 빔으로는 0.5° 정도까지의 상승각에서 0.05° 정도보다 더 좋은 정확성과 또한 안정성을 가진 유도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가능성은 Grazing 각도 위에 있는 항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송신이 시간차로 발생하는 반사 때문에 식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빔의 Peak 부분이 항공기에 투사될 때 낮은 에너지 성분만이 수신기 입구 아래에 있는 반사경에 이끌리게 되며 높은 에너지 주 빔(Main beam)이 반사경에 조명될 때는 항공기 수신기에는 이미 그 정보가 수신되게 되어 있다.

미 공군과 새로이 형성된 연방 FAA(Federal Aviation Agency)는 Microwave scanning beam 개념에 대한 연구 노력을 계속하였다.



1960년대 초 미 공군 후원 아래 있는 Gilfillan 회사에 의해 만들어진 REGAL 시스템과 AIL이 단독으로 만든 Flaescan 시스템이 드디어 NAFEC(National Aviation Facilities Experimental Center)에서 드디어 평가되었다. 이 두 시스템은 정해진 시간에 그 목표물이 신호 주기 동안 정확한 유도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Elevation-scanning 기능만 수행했다. 이것은 전통적인 고성능 항공기의 착륙을 위해 감소된, 최저 기상조건(Weather minimums)을 얻게 해 주었다.

또한, 활주로 조명이 꺼졌을 때 항공기에 부가적인 유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실제로 Scanning beam이 마지막 200ft 내지 그 정도의 고도에서의 하강에 사용되는 ILS의 Glide path에 대한 부수물로서 완전한 Landing System으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상업적인 항공회사들은 100ft 고도에서의 최소 기상조건을 감소시키려는 노력과 거의 동시에 ILS와 관련된 활주로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한 계획을 착수하였다. 그러한 항공회사들은 그들의 잡업을 영국 정부에 의해 후원을 받고, 또한 FAA에 의해 평가된 초기 노력에 의거했는데, 이러한 계획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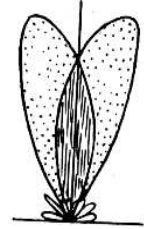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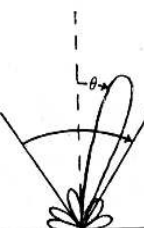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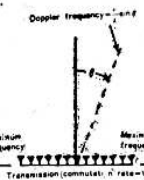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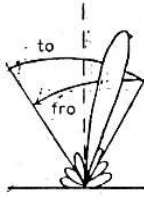
ILS의 개량에 부가해서 활주로 조명, 활주로 시계 측정, 비행 조정 가능성과 신뢰성, Radio altimeter, cockpit display, 조종사 기술 등 100ft 최저 기상조건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건들, 또한 사용된 착륙 유도장치에 관계없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개선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오늘날 많은 항공회사나 일반적인 항공기에 채택되었다.

그런데 FAA는 Microwave scanning beam 기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성공해서 FAA는 AIL로부터 Localize, glide path, 거리 측정 그리고 정확한 접근 레이더 기능을 혼합하고 있는 완전한 착륙 시스템의 모형을 만들어서 1965년 NAFEC에 그것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고안된 Ku band(15.4~15.7GHz) 장비인데 빔의 각 위치(Angular position)를 나타내주기 위하여 펄스코드를 가지고 있는 빔을 방사한다. 이것이 작동을 할 때 항공기본 그 빔의 위치를 해독함으로써 항공기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Ku-band 시스템은 그 후 수년 동안 평가, 실험 계획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Type의 microwave scanning beam 장비로 기대될 수 있는 고도의 신호 통합과 정확성, 안정성을 입증하였다.

#### IV. ILS와 MLS의 비교

##### 가. Beam pattern과 특징

제안된 MLS와 현 규격품 ILS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은 각 시스템이 항공기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고주파수(RF)와 높은 주파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종류	구분	Beam Pattern	특징
MLS	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과 같은 고정된 Overlapping beam을 사용함으로써 항공기 위치를 결정한다.</li> <li>○ 현재 국제 표준 규격으로서 대부분의 착륙 유도 장치로서 쓰임</li> <li>○ 사용 주파수; 100~350MHz</li> </ul>
	군사적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주파수의 좁은 주사 빔을 암호화 시켜서 그림과 같이 방사하여 항공기의 각 위치(Angular position)를 결정한다.</li> <li>○ 군사적인 용도에서 많이 쓰인다.</li> <li>○ 사용 주파수; X-band(7~10GHz)</li> </ul>
	도플러 M.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디에이터(Radiator)에서 그림과 같이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방사되는 기준 주파수로부터 Doppler shift에 의해 항공기의 각 위치(Angular position)를 결정한다.</li> <li>○ 영국에서 채택 개발되고 있다.</li> <li>○ 사용 주파수; C-band(5.0~5.25GHz)</li> </ul>
T.R.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과 같은 수평·수직 주사 빔의 to-fro passages 사이의 시간차를 측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접근 각 위치(Angular position)를 결정한다.</li> <li>○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채택되어 개발되고 있다.</li> <li>○ 사용 주파수; C-band(5.0~5.25GHz)</li> </ul>



쓰이고 있는 ILS의 축출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도전을 받고 있는 셈이다. MLS가 완전히 실행 될 때까지는 단순히 채택되어 사용될 수 없고, 적어도 그 자체의 실용성의 가치가 그만큼 완전 하게 인정되고 팔려야 한다. ILS가 비록 현재로서 미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MLS의 특수한 적용법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 증명되고, 또 군사적 전술 면에서 특별히 유용하 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유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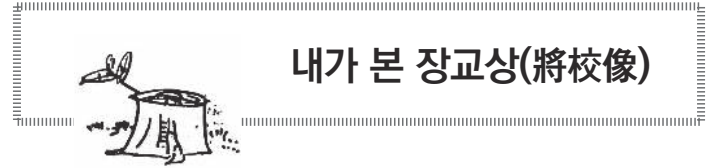
ILS의 실용에 있어서 실제적인 난점은 안테나와 Radio 선단에 관련되어 있다. 아무도 VHF/ UHF가 ILS에 이상적인 주파수 영역이라고 주장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살아왔고 이것의 능력과 제한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MLS는 수년 동안 그것의 실용에 앞 서 기능적 사용을 해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기능이 어떠한 공박이나 요구에도 쉽게 대처할 수 있 을 만큼 그 능력과 제한점 등에 대해서도 잘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년 이내에 MLS의 완전한 실용화를 보여줄 만한 원본을 계획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ILS는 적어도 1985년까지는 ICAO에 의해 보호될 것이고 의심할 것도 없이 이러한 잔존 기 간은 적어도 10년간은 전개될 것이고 세기(Century)가 교체될 때까지는 진행될 것이다.

방담에 방첩없고

안일에 승공없다

수필隨筆



내가 본 장교상(將校像)

소령 김 덕 룡(金德龍)

(공군본부)

어느 무덥고 습(濕)한 초(初)여름날, 나는 부인(婦人)과 함께 동네 화원(花園)에 나들이를 하였다. 오랜만에 화초(花草)를 하나 살까 해서다. 막상(莫上) 화원을 들어서니 기화요초(琪花瑤草)가 만발(滿發)하고 이름 모를 화초가 많은데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많은 화초 중(中)에서 나의 시선(視線)이 머무는 곳이 있었으니, 선인장(仙人掌)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부인과 상의(相議)하여 그 가지 돋친 선인장 화분(花盆) 하나를 사 들고 돌아와 아파트 베란다 위에 올려놓고 곰곰이 생각에 젖어 보았다.

선인장이란 식물(植物)은 왜? 다른 식물과 달리 잎과 줄기도 구별(區別)할 수 없을 만큼 특이(特異)한 형태(形態)의 뾰족한 가시가 돋쳐 버렸을까? 아마도 메마르고 햇볕이 강(強)한 자연환경(自然環境) 속에서 제 나름대로 생(生)을 유지(維持)키 위(爲)한 방편(方便)일 게다. 가령 수분(水分)이 충분(充分)한 열대지방식물(熱帶地方 植物)은 대부분(大部分)이 무성(茂盛)한 잎을, 북극(北極)과 남극(南極)처럼 추운 지방에서 살아가는 植物도 역시 자연환경을 극복(克服)하기 위(爲)하여 적당한 형태와 생활양식(生活樣式)을 각기(各其) 달리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人間)에게서도 이와 같은 자연섭리(自然攝理)에 따라 식물계(植物系)와 마찬가지로 삶의 형태와 생활양식이 다양(多樣)한 것이다. 다만 인간(人間)은 다른 식물계가 갖지 못한 인식력(認識力), 의지력(意志力), 창조력(創造力), 그리고 원대한 이상(理想)을 지닌 점(點)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能力)이나 이상은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다. 비록 같은 환경이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그 적응성(適應性)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인간특성(人間特性)의 단면을 살펴 가면서 가장 이상적인 공통인자(共通因子)를 추출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勿論) 국가발전(國家發展)에 이바지하는데 큰 뜻이 있을 것이다. 환경(環境)에 적응하는 속성(屬性)으로 보아 바람직한 장교상(將校像)은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상관(上官)으로부터 신임(信任)받는 장교(將校), 동료로부터 신



망(信望)을, 부하(部下)로부터 존경(尊敬)을, 정의(正義)와 책임감(責任感), 지도력(指導力)이 갖추어진 장교(將校), 개척자적 정신(開拓者的 精神)으로 일을 추진(推進)해 나가는 목표(目標) 지향력(指向力)이 뚜렷한 장교(將校), 조직(組織)능력과 의사전달(意思傳達)능력이 탁월한 장교(將校), 동기부여(動機賦與) 능력이 남보다 뛰어 나는 등(等) 여러 유형(類型)이 있겠지만 이들 모두는 상대가치성(相對價值性)은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가치성(絕對價值性)은 없다. 역시 인간(人間)의 본질(本質)이 다양한 특성(特性)을 지닌 때문인가 보다. 그러나 무엇인가 함수관계(函數關係)를 도출해 내긴 하여야 할 것이다. 장교(將校)도 장교 이전(以前)에 하나의 군인(軍人)이며 그에 앞서서 하나의 인간(人間)이기 때문에 인간(人間)으로서의 품성(品性)을 지녀야 한다.

내가 바라는 장교상(將校像)은 제일 먼저 인간성(人間性)이 넘쳐 흘러야 된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포괄적(包括的)인 개념(概念)이지만 역시(亦是) 인간(人間) 바로 그것이며 또 그래야만 한다는 엄연한 사실(事實) 때문일 것이다. 인간성(人間性)이란 부하(部下)를 인격적(人格的)으로 대(對)하고 항상 친절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人間關係) 즉, 인정(人情)과 의리(義理)로 맺어지는 인화(人和)를 조성(造成)하는 덕성(德性)이 풍부한 인격자(人格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적(人間的)으로 신뢰(信賴)받지 못하는 장교(將校)는 부하(部下)를 완전연소(完全燃燒)시킬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정의(正義)의 정신(精神)을 구현(俱現)한다는 것이 곧 군인(軍人)의 생명(生命)과 직결(直結)된다는 점(點)에서 정의감(正義感)을 들고 싶다. 금전(金錢)이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탐(貪)하지 않는 청렴결백(清廉潔白), 옳고 그른 것을 가려 옳은 것만 택(擇)하는 공평무사(公平無事), 정의(正義)를 위(爲)해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용기(勇氣), 거짓을 미워하며 응징할 줄 아는 정직성(正直性), 진정한 인간(人間)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선량(善良)한 양심(良心) 이런 것들이 바로 군인정신(軍人精神)의 귀감인 동시(同時)에 부하(部下)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考慮)할 때 우선적(優先的)으로 구비해야 할 요건(要件)이 아닌가 한다.

세 번째는 지도력(指導力)이 필요(必要)하다. 지도력(指導力)이란 간단히 조직능력(組織能力)과 관리(管理)능력 등(等)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 대인관계(對人關係)를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이 강조(強調)된다. 지도자(指導者)는 정서적(情緒的) 안정성(安定性), 통찰력(洞察力), 성실성(誠實性), 책임감(責任感) 있는 자질(資質)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개척자(開拓者)인 사고방식(思考方式)을 갖고 끊임없이 미경험(未經驗)의 문제(問題)와 대결(對決)하고 극복(克服)하여 자신(自身)을 얻는 게 중요(重要)하다. 또한, 자신(自身) 증대에 따른 도야성(陶冶性) 감퇴와 시야협소(視野狹小)의 위험(危險)을 방지(防止)

하기 위(爲)하여 자기(自己)의 방향(方向)을 설정(設定)해야 한다. 하루하루 전력(全力)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이 없을 것이며 동시(同時)에 최후의 목표(目標)에 능히 도달(到達)하지 못할 것이다.

군(軍)은 전제적(專制的)인 특성(特性)이 있어서 상(上)과 하(下)의 관계(關係)가 어느 조직(組織)보다 밀접하게 접근(接近)되어 있어서 장교(將校)가 부하(部下)에게 미치는 영향(影響)은 직접적(直接的)이고 강렬한 데가 있게 마련이다. 부하(部下)는 항상(恒常) 장교(將校)의 생활양식(生活樣式)을 선악(善惡)의 구별 없이 우선 배우고 쉽게 모방(模倣)해 버린다는 사실(事實)을 깊이 인식(認識)하여 보다 바람직한 장교(將校)로서 자질(資質)을 키워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교(將校)는 자기(自己)가 결단(決斷)한 것에 대(對)하여는 초지일관(初志一貫)하여 부하(部下)를 움직이는데 끈기와 객관적(客觀的) 사고력(思考力)을 동원하여 언제나 상대편(相對便)의 입장(立場)에서 생각하는 태도(態度)를 지님과 동시에 항상 풍부한 지식(知識)과 덕성(德性)을 쌓고 심신(心身)의 단련(鍛鍊)에 힘쓰며 처사(處事)를 공명정대(公明正大)히 하고 제반(諸般) 법규(法規)를 준수(遵守)하며 솔선수범(率先垂範)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귀감(龜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얼마짜리요?

최병훈  
〈공무원〉

시장바구니를 들고 나선 우리들의 주부(主婦)라면 맛있고 영양가(營養價) 높은 것을 찾으면 서도 그것을 최대한(最大限) 싼값으로 사려고 한다.

콩나물 100원어치를 사면서도 가게주인이 주는 양(量)보다 한 줌이라도 더 가져오려 하고, 같은 양(量)이라면 단돈 10원이라도 깎아보려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알뜰한 주부(主婦)의 모습이 각쟁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무척이나 정겹게 보일 때도 있다. 거액(巨額)의 돈을 만지면서 보통 사람들로서는 평생(平生) 구경도 못 할 액수(額數)를 한 달 용돈으로 몰 쓰듯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정겹고 소박(素朴)한 모습도 잘못 진전되다 보면 아름답기는커녕 추하고 죄악시(罪惡視)되기까지 돌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느 교수(教授)의 실제(實際) 경험담(經驗談)이다.

결혼(結婚)한 지 10년(年)이 지나도록 한 번도 부인(婦人)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해보지 못한 자신(自身)이 너무 무심(無心)했다는 생각에 평소(平素) 잘 가지도 않던 명동(明洞)엘 가서 결혼(結婚) 14주년(週年) 기념으로 스카프 하나를 샀다. 무척 반가워할 부인(婦人)의 환한 모습을 연상하며 가벼운 걸음으로 집에 왔다.

대화(對話)가 걸작이었다.

교수(教授) : 여보, 이것 받아요.

부인(婦人) : 얼마짜리요?

교수(教授) : (다짜고짜로 값부터 묻는 바람에 어안이 병병해서)……!

부인(婦人) : 도대체 이게 뭐요?

교수(教授) : (고맙다는 인사는 고사하더라도 적어도 이 질문이 먼저 나왔어야

정상(正常)이었다는 생각 끝에 한풀 기분이 상해서) 풀어보면 알 것 아니요.

부인(婦人) : (풀어보고는) 얼마 주셨어요?

얼마짜리요?

교수(教授) : (통명스럽게) 8천 원!

부인(婦人) : (기다렸다는 듯이) 바가지요. 내가 샀으면 5천 원만 주어도 충분할 텐데.

교수(教授) : (입이 딱 벌어진 채)……

부인(婦人) : 누가 당신더러 이런 일 하랬어요?

결코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극단적인 경우다.

콩나물 한 줌을 더 얻으려 하고 10원이라도 물건값을 깎으려는 모습과 본질(本質)에 앞서 가격(價格)을 물어보아야 직성이 풀리고 고마움에 앞서 세상 물정에 어두운 남편을 책망해야만 속이 시원한 모습은 너무나 큰 대조(對照)를 이루며, 이는 분명 죄악(罪惡)에 가까운 변화(變化)인 것이다.

「죄(罪)와 벌(罰)」에서 라스폴리 니코프라는 대학생(大學生)은 “모든 사람에게 해(害)를 입히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돈을 빼앗아 여러 가지 사업(事業)과 계획(計劃)을 성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동기(動機)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노파를 살해하고 돈을 훔치려 한다.

더욱 잔인한 것은 같은 작중인물(作中人物)인 스비드 리가일로프의 “누군가가 열쇠 구멍으로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손에 잡히는 무엇으로든 노파의 대갈통을 때려줘도 괜찮아요.”라는 말이다. 이들은 自身들이 비범하다는 초인주의적(超人主義的) 생각에 가득 차서 죄의 식(罪意識)을 망각한 것이다. 가까운 이야기도 있다.

담보로 잡은 견질어음을 왜 유통시켰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경제(經濟)는 유통(流通)이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재판관은 물론 방청객을 실소(失笑)케 한 장영자(張玲子) 피고의 태도가 그런 것이다.

죄책감(罪責感)보다는 「재수 없게 걸렸다」는 저항감을 갖거나, 마치 자기(自己)가 무슨 희생자인 것처럼 대표(代表)(?)로서의 자부심(自負心)마저 갖는 경우가 있으니 정말 문제다.

좀 색다른 예(例)를 들어보자.

흉악한 죄(罪)와 살인죄(殺人罪)까지 범한 사형수(死刑囚)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 “어머님, 죄송(罪悚)합니다.”라는 말을 눈물을 흘리면서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다. 자기(自己)의 잘못으로 피해(被害)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반성(反省)의 뜻을 어머니를 향(向)해 진정한 용서를 비는 것이었으리라.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바로 죄책감(罪責感)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선조(先祖)들은 아름다운 마음씨를 물려주었다.

문전걸인(門前乞人)이 동냥하러 왔을 때, 문틈으로 밥 한 주걱을 내밀면서 쫓아 보내려는 며느리의 모습이 못마땅하여, “걸인(乞人)도 내 집을 찾은 손님이니 밥상을 차려 대접해 보내 드려라.”라고 타이르던 시어머니의 인자(仁慈)함, 매일 먹을 양식(糧食)이 궁(窮)한 이웃집에서 쌀 한 되만 꾸어달라고 했을 때, 두세 되를 꾸어주던 인정(人情)과 여유(餘裕). 은혜(恩惠)를 입으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에 보답(報答)하려던 의(義)로운 마음……

이처럼 아름답던 마음씨가 물질적 환경(物質的 環境)이 변했다고 반드시 따라 변해야만 하는가? 죄(罪)스러운 마음을 뉘우치기보다는 재수가 없어서 나만 당하게 되었다는 식(式)의 파렴치한 생각으로 말이다. 무엇인지도 알아보기 전에 값을 따지고 고마워하기에 앞서 잘못을 꼬집어 책망하려는 자세(姿勢)는 분명 본질(本質)을 보는 시각(視角)의 왜곡(歪曲)이요, 감사(感謝)하는 마음의 상실(喪失)인 것이다.

물론(勿論) 내심(內心)으로 감사의 뜻을 표(表)하고 깊이 간직하거나, 장난 어린 핀잔 형식으로 그 뜻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것이 오랜 우리의 전통(傳統)이었는데도 모른다.

그러나 고맙다는 표시(表示)를 정중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感謝)하는 마음이 확산(擴散)될 수도 있다. 「슬픈 일은 둘로 나누면 반(半)으로 줄어든다고 기쁜 일은 둘로 나누면 배(倍)로 늘어난다.」는 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어린이의 선행(善行)을 칭찬하는 효과(效果)가 성인(成人)이라고 적용(適用)되지 말라는 법(法)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부부(夫婦) 사이에서 고맙다는 표시(表示)를 한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결들일 필요(必要)가 있을까?

예의(禮儀)란 것도 따지고 보면 내심(內心)과 외행(外行)이 고루 갖추어져야 하는 만큼, 때로는 형식(形式)에 의하여 실질(實質)이 더욱 굳건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결코 외형주의(外形主義)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거 얼마짜리요?”하는 물음의 뒷면에는 틀림없이 비싼 값으로 사 왔을 것이라는 추측이 숨어 있고, 또 그 뒤에는 웬만하면 남을 속여서 지나친 이득(利得)을 보려는 못된 상혼(商魂)에 대한 불신(不信)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멀리 돌려 보면, 굳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자신이 선(善)을 행하면 되는 것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 계선편(繼善篇)에 이런 글귀가 있다.

「일일행선복수미지화자원의(一日行善福雖未至禍自遠矣), 일일행악화수미지복자원의(一日行惡禍雖未至福自遠矣)」(하루라도 선(善)을 행(行)하면 복(福)은 비록 당장 오지 않더라도 화(禍)가 멀어지고, 하루라도 악(惡)을 행(行)하면 화(禍)가 금방 미치지는 않더라도 복(福)이 멀어진다.)

얼른 보기에는 매우 소극적인 교훈(教訓) 같지만, 인생(人生)을 관조(觀照)하는 깊은 통찰력(洞察力)이 숨은 적극적인 가르침이다. 선(善)을 행(行)하고 의(義)를 쫓아가며 감사(感謝)하는 마음으로 생(生)을 이어갈 때 즐거움은 더해지고 복(福)은 서서히 다가올 것이다.

## 서부전선(西部戰線)

김학응(金鶴應)

비가 올 것인가  
삼복(三伏)이 익어가는 대성동  
자유(自由)의 담  
모퉁이 돌아 열린  
뜻밖  
저어하는 초계(哨戒)의 부채였다가  
물들어 다시 돌아오는  
눈먼 까치놀  
여름은 짧은 차단입니다.  
먼지 낀 이내  
거뭇거뭇 어리는 젓빛 깃쪽지  
모두 다 영혼 깊이  
이사 간 뒤  
지평에 머무는  
눈부심  
시원스레 번쩍이며  
검은 바람 쏟아져 오던  
온 누리



기러기 날아가는 내 어릴 적 자리  
 모든 커지는 부피와 공간(空間)으로 가득 차는데  
 텅 빈 음악으로 문(門) 닫아버린 산천(山川)은  
 누구의 뜻이오니까  
 임진 나루에 물오리떼 날아들고  
 조효부(鳥孝簿) 조효부(鳥孝簿) 우는 까마귀  
 배따라기여  
 갈대강(江) 솟아  
 숲에 눈 가려주다  
 주먹뿐인  
 눈망을 굴리다가  
 정전위원회(停戰委員會)  
 솔숲 넘어 울던 까치도  
 피 묻은 산에  
 가고  
 없으니 눈발이 곤두선  
 산하(山河)  
 저  
 하늘

## 자유(自由)의 다리에 서서

박 정 엮(朴貞擘)

일본 제국의 군화가  
 대륙(大陸)을 삼키려고 건너던 다리  
 이리 때가 몰려왔다 밟고 간 다리  
 죽은 냇이 자유(自由)를 절규하던……

내 나라 내 땅이면서  
 자유(自由)로이 건너지 못하는 다리 밑을  
 천년(千年)의 신비를 안고  
 임진강이 흐른다.

겨레의 맥박은 파도가 되고  
 겨레의 눈물은 강(江)물처럼 흘렀으니  
 청사(靑史)는 증인하리.

전쟁(戰爭)이 훗날 간  
 대지(大地) 위에  
 북행선(北行線) 하나는 폭파되어  
 땅속에 묻히고  
 앙상한 교각 위에는  
 비둘기의 놀이터가 되었다.

흩어진 잔해는  
 전쟁(戰爭)의 슬픈 유산  
 돌아앉은 우리들의 뒷모습  
 그러나 이것은  
 부활을 꿈꾸는  
 통일(統一)의 지주석(支柱石)

저기 세월이 흐르는 북녘 하늘  
 지금 빙하 속에  
 동면하는 겨레를 위하여  
 통일(統一)의 그 날을 기다리자

이 시간(時間)에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염원을  
 우리들의 가슴마다  
 쟁쟁하게 울렸어야 했을 목소리  
 환히 트인 통일로(統一路) 위에서  
 빛나는 탄생을 눈앞에 두고  
 힘차게 달려가 보자꾸나..  
 겨레여! 겨레여!

## 김일성(金日成) 주체사상(主體思想)의 기능(機能)과 비판(批判)

허영식

- 차례 -

### 서언 : 관점과 필요성

1. 이데올로기와 주체사상
2. 사람중심사상
3.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
4. 남조선 혁명론
5. 주체사상의 순기능과 역기능
6. 김일성 주체사상의 비판

### 결언 :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 서언 : 관점과 필요성

김일성은 197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30주년에 즈음한 연설을 통하여 「우리 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창건되었으며,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조직 지도해 왔다. ……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는 주체사상의 찬란한 결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김일성 주장의 참과 거짓은 제쳐두고라도 김일성이 이같이 주장함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주체사상이 북한 사회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로서 북한 사회의 사상 세계를 점유하고 있는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의 분단과 통일이라는 현실과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체사상은 하나의 중요한 연구과제로서 등장한다. 왜냐하면, 분단으로 인한 대립에서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서로의 양해 아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에 대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오직 그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글은 그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그만 시도에 불과하다.

김일성이 주장하고 있는 주체사상 — 김일성 주체사상은 앞에 「김일성」이란 관형어가 붙긴 하지만 김일성의 독창적 사고의 결과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Marx와 Engels의 사상적 전통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조류 속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오직 김일성이 자신의 사상인 양 선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 관심에서부터 김일성 주체사상의 기능을 연구함으로써 그 실체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Marxism-Leninism의 연계선 상에서 그것의 허위성을 비판함으로써 김일성 주체사상의 사이비성과 공산주의에 공통된 허구성을 폭로하고, 우리의 확실한 방향을 결정할 필요성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필요성에 대응하여 이 글은 먼저 김일성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규명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람중심사상」을 논하며, 다음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의 두 가지 입장인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거한 이른바 「남조선 혁명론」을 다루고, 이 같은 분석에 근거해서 김일성 주체사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해본 다음, 마지막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의 비판을 통하여 그것의 사이비성과 허구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 1. 이데올로기와 주체사상

이데올로기는 일반적으로 「한 집단의 정치·사회적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그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서 그 활동 자체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자연과 사회와 인간의 집단에 관한 그 집단의 기본적 신념의 체계」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그것이 하는 기능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이데올로기는 그 이데올로기가 통용되고 있는 집단이 기존질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집단일 경우 기존질서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그 이데올로기가 기존질서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집단일 경우, 기존질서 및 그 지도자의 권위와 권력 행사를 합리화하는 기능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자를 혁명 이데올로기라고 또 후자를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다. 이를 Karl Manueim의 용어를 따라 비교해 본다면 전자를 피지배계급의 의식인 Utopia와 후자를 지배계급의 의식인 Ideologies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 소위 혁명 이데올로기는 제대로 존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의 공산화는 기존질서에 대한 혁명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소련군의 점령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공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집권층으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이런 등장에 의해 통치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등장하게 된 것이 김일성 주체사상이라 할 것인데, 따라서 우리의 김일성 주체사상의 기능을 바로 이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에서부터 규명할 수 있다.

통치 이데올로기의 기능은 두 가지 측면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통치 이데올로기는 기존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통치 이데올로기는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대중을 동원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자를 통치 이데올로기의 체제 유지의 기능, 후자를 대중동원의 기능이라 이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기능을 이 두 가지 측면 즉, 체제 유지의 기능과 대중동원의 기능 면에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 2. 사람 중심사상

### 가. 내용

북한의 정의를 따르면,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사상」을 창시하였다는 선전의 현란함에 비하면 너무도 단순하고 소박한 명제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이 명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의 의미이다.

북한에서 비록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이며, 이를 추종하는 힘도 인민이라는 사상」이 바로 주체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인민에는 모든 인간이 속하지 않는다. 오직 소위 인민 근로대중이 속할 뿐이다.

최근 김정일이 집필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논문 “주체사상에 관하여”에는 「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반동적 착취계급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인민대중」이란 개념도 공산 진영 내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와도 또 다른 것이다. 「자기의 머리로 사고하고 생각해가는 것은 바로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주체사상의 구현인 당 정책과 노선이 가르칠 대로 꾸러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북한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주체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결정하는 사람의 의미는 일반적인 인간에서 근로인민대중 즉, 계급으로 또 인민대



중에서 당 즉, 근로인민대중의 전위대로 다시 당에서 김일성 개인으로 한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역할을 변호하기 위하여 앞에서 인용된 김정일의 논문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자유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한다. 혁명운동 공산주의 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른 아닌 인민 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 문제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김일성의 영도 없이는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에 따르면 주체인 인민대중이 지도의 객체, 영도의 객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김일성이야말로 유일한 주체라는 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인 것이다.

이같이 김일성 결정론의 가면인 사람결정론을 들어 김일성 주체사상은 또한 사적유물론의 기본인 「토대결정론」을 거부하고 유인론(唯人論)을 주장하고 있다.

「의식은 물질에 그 원천을 두고 물질에 의해서 형성되고 물질에 의해서 규정되지만, 그것이 일단 발생한 다음에는 상대적 차이점을 가지고 물질세계에 대해서 실천을 통해 큰 힘으로 적극적으로 반작용한다.」

이것이 김일성이 그의 「주체사상에 기인하여 물질과 의식의 호상 관계, 특히 의식의 능동적 역할」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변증법적 유물론을 더욱 발전시켰다는 내용이다.

마르크스 등이 당시에 시대적 조건으로 해서 물질이 의식을 규정하는 측면을 논증함으로써 관념론을 분쇄하는데 주된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의식이 물질에 대하여 반작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완전한 해명을 주지 못했는데, 김일성이 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이다.

#### 나. 의도

이같이 김일성 주체사상이 사람결정론을 그 기초로 하여 이제까지 보아온 것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의도를 우리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통치 이데올로기의 두 가지 기능 즉, 체제 유지의 측면과 대중동원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체제 유지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결정론은 김일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 등과 필적하는 또는 우월한 사상가라는 것으로서, 이는 김일성의 절대권력을 확대하고, 또 반김일성세력에 대한 숙청의 구실을 제공하며, 제3세계 외교의 선전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하겠다.

대중동원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결정론은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조장하고 유인론(唯人論)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유재산철폐로 인하여 상실한 주민들의 창조성, 능동성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극을 주며, 소위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 부진의

책임을 주민에게 돌려,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착취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하겠다.

### 3.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

#### 가. 내용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인 까닭에 사람은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이다.

이는 1972년 4월에 「전국사회과학자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정치위원인 동시에 김일성의 사상 비서인 양형섭에 의하여 제창된 내용인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 「자주적 입장」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태도이며, 「창조적 입장」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적용하려는 태도이다.

그는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이렇게 정의한 다음, 자주적 입장은 「사대주의를 극복하는 힘 있는 사상이론적 무기」이고,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의 책임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혁명적 태도와 관점」이며 창조적 입장은 「혁명과 건설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옳게 결합시킨 것」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것을 혁명 실천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의도

이런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의 의도는 이런 입장의 정책적 표현인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등에서 더욱 또렷이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체제 유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에서의 자주」와 「사상에서의 자주」가 주로 이런 측면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정치에서의 자주」는 「혁명과 건설이 모두 노선과 정책을 자기의 독립적 판단과 결심에 따라 규정하고 민족 내부의 힘으로 그것을 끝까지 집행해 나가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동등한 성원으로서는 당의 대소는 있어도 지배 복종의 관계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사상에서의 주체」는 각국의 당은 자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책임지고 타국 당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이 사상에서의 주체와 정치에서의 자주를 내세우는 이유는 결국 당내의 반대세력을 수정주의자, 교조주의자, 종파주의자 등으로 돌아 숙청함으로써 김일성의 독재권을 확립하고, 중

소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 주민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데 있다 하겠다.

대중동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에서의 자립」이 주로 관계된다고 하겠는데, 이는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고, 식민지적인 편파성을 완전히 없애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적인 공업을 건설하는 일」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같이 경제에서의 자립을 내세우게 된 것은 중소분쟁 속에서 중소의 지원 없이 경제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그리고 군사력 증강과 관련한 중공업 우선 정책의 강력 추진을 위한 변명으로서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하겠다.

#### 4. 남조선 혁명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권력 장악 이래 계속 통일문제를 강조해 왔는데, 그것은 그들의 당 규약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북한 노동당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전국적 범위에서 건설하는 데 있다」라고 당 규약은 당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들이 통일문제 즉, 공산주의 사회의 전국적 범위에서의 건설을 중요시하는 것은 체제 유지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Georg Simmel의 법칙 즉,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도발함으로써 내부적 단결의 강화를 기도하고 일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심본 응용하고 있다 하겠다. 「국방에서의 자위」 또한 이런 맥락에서 그 의도가 이해되리라 생각된다.

대중동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통일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의 전국적 범위에서의 완수 및 동포해방 때까지 제한되고 결핍된 생활을 인내하도록 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독려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통일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는 그들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이론의 핵심은 ① 주체라는 명분하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케 하고 ② 남조선혁명의 주체는 남조선 인민들 자신임을 강조하여 남한에서의 혁명 정세를 조성하고, 나아가 폭력혁명으로 유도하여, ③ 상대적으로 남한의 정치, 경제 및 여러 분야의 지도적 담당자들은 비주체적이라고 선전하여 이른바 전국적 범위에서의 공산화를 도모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로 판단할 때, 결국 김일성 주체사상에 근거한 「남조선 혁명론」의 의도는 민족 감정에 호소하여 미군을 철수시키고, 정통성의 우위 확보로 남한체제를 약화시키며, 남한에서의 자발적인 혁명 정세를 유도한 후, 국방에서의 자위에 입각한 4대 군사 노선에 준비 완료된 능력을 발휘하여 소위 '주체적'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에 있다 하겠다.

#### 5. 주체사상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제까지 보아온 것과 같이 김일성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론은 김일성 통치체제의 유지와 그와 관련한 대중동원의 측면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순기능적인 것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데, 먼저 체제 유지의 측면에서 보면 김일성 주체사상 및 남조선 혁명론은 <대내적으로는> 김일성의 절대권력을 구축·유지할 수 있도록 김일성 세력 숙청의 구실을 제공하고, 김일성에게 카리스마적 권위를 부여하며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애국심을 격발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고, 또 북침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내부적 단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제3세계의 비동맹 외교에 있어서 선전의 자료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대중동원의 측면에서 보면 첫째, 사유재산철폐로 상실한 북한 주민의 능동성 창조성을 되살리고, 둘째, 소위 저들의 혁명과 건설이 부진한 책임을 주민에게 돌림으로써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짜내며, 셋째,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중공업 우선 정책에 기인한 생활고에서 나타나는 주민의 불평불만을 무마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북한 사회에 있어서 순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피상적인 차원에서 순기능과는 반대로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발전의 여러 가지 요인을 무시하고 오직 인간적인 요소만을 강조함으로써 주체사상은 경제발전의 올바른 노선을 은폐시키게 되고, 그같은 결과로 주체사상을 강조하면 할수록 경제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또 전문가와 행정가 사이의 의견의 대립 또한 주체사상의 허구성에서 비롯되는 내적 분열이라 하겠다.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주체사상은 주체사상의 유지를 위한 폐쇄체제를 결과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관료 병리적 현상을 전 사회에 만연시키게 된다. 이런 것은 노동당의 메카니즘화, 창의성의 결여, 선동정치와 휴머니즘의 상실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렇게 순기능과 역기능, 체제 유지의 측면과 대중동원의 측면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의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 6. 김일성 주체사상의 비판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언어적 표현이 지시하는 바와 그 사상의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의 괴리를 지적함으로써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상체계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 즉, 독창성, 사상성 등의 진위를 가림으로써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전자의 입장에서의 비판은 이미 김일성 주체사상의 기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미 수행되었다고 보는 까닭에 여기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여 비판하도록 하겠다.

### <독창성의 문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주체사상을 가리켜서 마르크스 이래 해석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던 공산주의 활동의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준 독창적 이론이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은 소위 「철학강좌」에서 “김일성의 주체철학은 ……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 …… 불멸의 철학이다.”라고까지 기술하고 있다.

과연 김일성의 독재 사상은 그렇게 독창적인가? 이런 물음은 김일성이 소위 그의 주체사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간결정론이나 주체적 사상 전개를 모택동의 인간중심론이나 신민주주의론과 비교해 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다.

모택동의 인간중심론은 “급진적인 경제발전은 물질적 자극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며 헌신적이고 협조적인 「공산주의 인간」 즉, 유능하고 생산적인 인간에 의존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주된 주장으로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물질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더구나 모택동의 대약진운동이나 해방 등의 군중 노선은 김일성의 천리마 운동이나 청산리 방식과 또한 그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은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 진리는 중국이라는 국가적 특수성과 결합되어야 하며, 마르크스주의가 실용적 효과를 가지려는 일정한 국가적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그의 거듭된 주장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김일성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마르크스 - 레닌의 진리를 역사적 배경, 국가적 특수성, 국가적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명제와 상통하고 있다.

또 김일성주의자들이 김일성의 탁월한 업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부구조의 토대에 대한 반작용이론도 그 근원을 찾아보면, 마르크스의 하부결정론이란 정통적 이론에 수정을 가한 소련의 수정이론이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결국 김일성의 천재성은 사상의 독창성에 있다기보다도 그 모방과 은폐의 독창성에 있다고 하겠다. 그의 사상의 독창성이란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오직 극단적 폐쇄사회에서 가능한 개인숭배의 구실과 결과로서 만들어진 허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계급성의 문제>

다음으로 우리가 김일성 주체사상의 비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상성의 문제이다. 비록 그들은 「철학강좌」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김일성은 우리 시대 즉, 혁명 시대의 수령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이며……”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진정으로 그가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이나 하는 것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순전히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입장에서 논할 때 포이에르바하의 공과는 다음과 같이 진술될 수 있다. 즉, “포이에르바하는 인간을 신의 자리에, 혹은 신을 인간의 자리에 뒹으로써 인간의 복권을 시도했지만, 이는 인간을 추상적 절대라는 의미에서 신과 대치한 것일 뿐이다. 즉, 그에게는 유적 입장에서 절대화된 인간 즉, 이른바 인간에 대한 독단적 형이상학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마르크스의 포이에르바하의 비판의 관점에서 보면 김일성의 인간관 또한 포이에르바하의 인간관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마르크스의 인간관이 노동을 통한 계급적 인간관으로서 자연, 인간, 사회에 관한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초하고, 포이에르바하의 절대적 인간관을 넘어서 있는 데 반해, 김일성의 인간관은 노동자의 계급적 입장으로서의 주체라기보다는 포이에르바하적 의미에서의 추상적으로 절대화된 인간으로서의 주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결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자체적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실제로 소위 저들이 말하는 계급의식이 부재하는 인간관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가 수령에의 절대 충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김일성 개인의 신격화라든지, 김정일의 권력 세습 등이 가능하다고 보겠다. 결국,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란 전혀 비 마르크스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독재성의 문제>

김일성의 소위 주체 이념 즉,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비 마르크스적인 것과 일맥상통하게, “주체사상은 유일사상체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인 인민은 수령의 무리에 철통같이 단결하여 수령의 통일적 영도 밑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비 마르크스적이다.

마르크스·레닌의 입장에서 적어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이거나 당의 독재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정통적 이론에 대해 최초로 반기를 들고 개인 독재를 실시한 이는 바로 스탈린이었다.

스탈린에 대한 평가는 후르시초프의 비밀연설 이후, “노예적 관료주의자들에게 지지받는 주관적 명령주의 방식을 창출하고 자기 자신의 권력 옹호를 위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왜곡하고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윤리적 충성과 신앙적 종속으로 문제의 본질을 전도하였다”는데 있다. 이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스탈린비판은 바로 김일성에게 들어맞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런 스탈린의 명령의 결정적 표준은 바로 권력 세습의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위 저들의 「계승론」에 따르면, “국제공산주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은 수령의 후계자는 반드시 수령에게 끝없이 충성한 공산주의 혁명가여야 하고, 후계자는 새로운 세대에 출현하여야



하며, 또한 후계자는 수령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이어받을 일정한 역사적 준비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존경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수령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주체 위업의 유일한 후계자이시다”라는 것을 김정일의 권력 세습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김일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강하고, 김일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똑 닮았고,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한세대 젊었으므로 김정일 외에 김일성의 후계자가 없다는 논리로서 북한 사회가 얼마나 노예적 관료에 의해서 운영되며 신앙적 종속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가를 웅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김일성은 이론에 있어서 비 마르크스·레닌적일 뿐만 아니라 소위 저들의 혁명에 있어서도 배반자임이 명백하다 하겠다.

## 결언 :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북한 사회의 절대적 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의 연구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스탈린이 북녘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면 그것은 스탈린적 오류는 공산주의 자체의 오류와 바로 이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같은 오류의 핵심은 바로 독재이다. 마르크스의 인간관은 비록 자본주의사회 아래서의 그것도 제한된 의미에서의 자본주의사회 아래서의 인간의 소외현상을 주목하고, 그것은 소외를 극복하고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조성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극복의 통로로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채택함으로써 비인간성의 첫 번째 씨앗을 뿌린 썸이 되었고, 레닌은 러시아혁명의 전술상 당의 독재를 강조함으로써 그 같은 인간성의 파괴를 가속화했으며, 스탈린은 그것의 어떤 극단을 노출시켰다고 보겠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있어서도 이런 독재의 문제는 마찬가지로인데, 결국 이런 독재의 문제는 그것의 전제조건이 되는 절대 진리성의 문제에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주의체제는 절대 진리의 존재를 긍정하는 체제이며, 개인주의체제는 절대 진리를 회의하는 체제라는 구별이 있듯이 공산주의체제는 그것이 계급의 독재를 행하든 당의 독재를 행하든, 개인의 독재를 행하든 절대적 진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며, 인간성의 올바른 구현에 대한 장애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이런 형태의 극단적 경우라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 북괴 도발사

#### 남침용 북괴 제3땅굴 발견(78. 10. 27.)

1978년 10월 27일 판문점 남방 4km 지점인 비무장지대 안에서 북괴가 구축한 남침용 제3땅굴을 발견했다.

이 땅굴은 1975년 3월에 철원 부근에서 발견된 제2땅굴과 마찬가지로 73cm 깊이의 암석층을 뚫어서 만든 것으로, 굴의 높이나 폭이 각각 2m나 되어 중화기로 무장한 전투병력이 3~4열로 통과할 수 있는 대규모의 땅굴이다. 또한, 이 땅굴은 판문점 남방 4km 지점인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4백 35m까지 진출해 있으며, 임진각으로부터 서북방으로 4km, 통일촌으로부터 3.5km 지점으로 유사시의 수도권을 목표로 하는 최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제3땅굴도 제2땅굴과 마찬가지로 출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유사시에는 병력을 수 개 지역으로 침투시킬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정규 및 비정규전에서 필요한 병력과 장비를 단시간 안에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북괴의 남침 땅굴 공사는 이미 지난 7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유엔군과 한국군은 그간 최신장비와 인원을 투입, 탐색 활동을 계속해 74년 11월에는 제1땅굴을, 75년 3월에는 제2땅굴을, 그리고 다시 제3의 남침용 땅굴을 발견한 것이다.

# 기독교(基督教)의 섭리사관(攝理史觀)과 공산주의(共產主義)

유 무 상(柳茂相)

유한공업전문대학(柳韓工業專門大學) 교수(教授)

## 1. 러시아사회의 전체주의적(全體主義的) 유산(遺産)

오늘날 소련공산정권(蘇聯共產政權)이 혁명(革命)을 통해 과거의 유산(遺産)을 청산(清算)했다고 하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은 놀람과 전율(戰慄)을 느끼기까지 한다. 그러나 한 사회(社會)가 그 전통적(傳統的) 유산(遺産)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오늘의 소련은 오히려 비잔틴 유산(遺産) 중의 정치적(政治的) 상속물(相續物)로 전체주의 국가제도(全體主義 國家制度)를 승계(承繼)하고 있다고 봄이 일반적(一般的) 정론(正論)이다. 또 한편으로는 소련이 그 문화적(文化的) 맥락(脈絡)은 달리하나 정치체제(政治體制)로 볼 때 중국(中國)의 선진유가(先秦儒家)들이 지탄한 패도정치(霸道政治)와 일치(一致)하는 점이 많다고 보인다. 폭력(暴力)에 의한 정권탈취(政權奪取)와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지향하면서도 정의(正義)와 평화(平和)를 가장하는 「이력가인(以力假仁)」의 집단(集團)이란 점에서 소련 공산주의(共產主義)는 동양적(東洋的)인 패도(霸道)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소비에트 공산사회가 제정(帝政)러시아를 통해 어떻게 비잔틴 사회의 전체주의적(全體主義的) 유산(遺産)을 물려받았는가를 검토(檢討)해 보기로 하자.

과거 10여 세기 동안 러시아 국민(國民)은 서구문명(西歐文明)의 구성원(構成員)이기보다는 비잔틴 문명(文明)의 구성원(構成員)이었다.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비잔틴 문명(文明)은 서구문명(西歐文明)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로마 문명(文明)을 친가(親家)로 하는 서구사회(西歐社會)의 자매문명(姊妹文明)이지만 이 문명(文明)은 서구문명(西歐文明)과 별개(別個)의 문명(文明)이다. 이 비잔틴 문명(文明) 구성원의 하나인 러시아인(人)들은 서구문명(西歐文明)의 압도(壓倒)를 느껴 항시 저항(抵抗)을 계속해왔다.

저들은 서구사회(西歐社會)로부터의 정복(征服)을 막기 위해 서구(西歐)의 과학기술(科學技術)을 의도적으로 습득(習得)해야 했다. 서구(西歐)사회와 러시아 간(間)의 문명(文明) 내지 힘

의 공방관계(攻防關係)는 오늘에까지 그 평행(平行)을 유지하고 있다.

서구인(西歐人)이 본 러시아는 언제나 침략자(侵略者)였고, 러시아인(人)의 자의식(自意識) 속에는 자신(自身)들은 서구침략(西歐侵略)에 의한 항구적(恒久的) 희생자였다. 러시아인(人)들은 14, 17세기의 폴란드의 침략(侵略),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침공, 20세기 초 독(獨), 영(英), 불(佛) 등 열강(列強)의 침략을 잊지 않고 있다. 실로 러시아인이 10세기 말엽(末葉) 희랍 정교(正教)를 받아들여 개종(改宗)한 이래 비잔틴 문명(文明)의 유산을 간직한 완고한 이방문명(異邦文明)의 신봉자(信奉者)라는 점에서 서구사회(西歐社會)로부터 적대감과 침략을 자초(自招)하고 있었다.

15세기 중엽 비잔틴 제국(帝國)의 수도(首都) 콘스탄티노플이 터어키인에 함락되고 동(東)로마제국(帝國)이 패망(敗亡)하자 모스크바 공국(公國)은 이제 서구기독교 사회와 이슬람교 사회에 대항하여 희랍정교(正教)의 힘을 재규합(再糾合)할 거점은 러시아라 단정(斷定)하고 비잔틴제국(帝國)의 유산을 그리스인으로로부터 인계받고 말았다.

1472년 모스크바 대공(大公) 이반 3세(世)가 동(東)로마의 마지막 황제의 질녀(姪女)와 결혼(結婚)한 사실은 동(東)로마의 유산(遺産)을 인계받는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이 혼사(婚事)로 인연해 모스크바 대공(大公)은 전(全)러시아의 군주(君主)로 군림(君臨)하게 되었고, 동(東)로마의 멸망(滅亡) 이후 터어키에 쫓긴 동(東)로마 성직자(聖職者)들은 그리스정교회(正教會)의 인연을 따라 러시아로 망명(亡命)해 왔다.

이제 모스크바야말로 제2의 로마인 콘스탄티노플을 계승하는 <제3의 로마>가 된 것이다. 그 후 이반 4세(世)의 짜아르[황제(皇帝)] 지칭(指稱), 즉, 동(東)로마 황제(皇帝)로서의 칭호와 대권(大權)을 자임(自任)한 사실은 정치(政治)와 종교(宗教) 양면(兩面)에서 위계질서상(位階秩序上) 놀라운 변혁(變革)이었다. 즉 정치(政治)와 종교(宗教)에 있어 양대패권(兩大霸權)을 비잔틴세계로부터 완전히 승계(承繼)해 온 결과(結果)가 되었다. 16세기 러시아의 유명(有名)한 수도승(修道僧) Theophilus의 한 공개서한은 「동서(東西) 두 개의 로마는 쇠망했으나 <제3의 로마>는 굳건히 서 있다. <제4의 로마>란 도대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여 비잔틴제국(帝國)의 유산을 의도적으로 자체적(自體的)으로 수용(受容)하고 있음을 분명(分明)히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국민(國民)은 서구사회(西歐社會)에 대한 전통적 저항정신을 비잔틴제국(帝國)으로부터 계승(繼承)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기초(精神的 基調)는 1917년(年) 공산혁명(共產革命) 이후에도 변함없이 견지(堅持)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西歐)를 대표(代表)한 프랑크족(族)이 서구인(西歐人)이야말로 이스라엘, 그리스, 로마 등의 유산(遺産)을 이어받아야 할 성서상(聖書上) 언약(言約)의 후사(後嗣)로 믿고 있음과 같이 비잔틴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미래(未來)를 보장(保障)받은 언약(言約)의 민족(民族)으로 자처(自處)해 왔다. 이러한 비잔틴계의 정통적(正統的) 선민의식(選民意識)은 그대로 러시아인(人)에게 유입(流入)되었다. 그것이 희랍정교 사회(正教 社會)가 하늘이 허여(許與)

한 섭리관(攝理觀)에 사로잡혔던 것과 같이 오늘의 소련의 공산정권(共産政權)도 제정(帝政) 러시아로부터 세계구원(世界救援)의 선민의식(選民意識)을 신(神)을 배제(排除)한 채 물려받고 있다.

이점에 관해 Toynbee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Marxism은 물론 일후(一後) 서구적(西歐的) 산물(產物)의 신조(信條)다. 그러나 그것은 서구문명(西歐文明)의 생명(生命)을 노리는 서구적(西歐的) 신조(信條)다. 따라서 19세기의 슬라브 민족주의자(民族主義者)를 아버지로 가지고 있으며, 경건한 희랍 정교도(正敎徒)를 할아버지로 가지고 있는 20세기의 러시아국민이 서구사회(西歐社會)에 대한 전래(傳來)의 적대(敵對) 자세에 대한 재교육(再敎育)을 받을 필요도 없이 열렬한 Marxism의 신봉자(信奉者)가 된다는 것은 과연 있음직한 일이었다. …… 모든 서구(西歐)세계의 것들은 이단적이요 퇴폐적인 것들이라고 러시아인(人)에게는 단정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국민이 서구(西歐)사회에 대한 전통적(傳統的) 단죄(斷罪)를 그대로 보존(保存)하게 하며 이미 산업화(産業化)가 끝난 서구사회(西歐社會)에 대해서 정복(征服)당할 위협을 막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 사회(社會)를 산업화(産業化)하는 방편(方便)으로 러시아 정부(政府)에 도움을 주는 신조(信條)라면 그것은 선민(選民)의 무릎 위에 자연(自然)히 굴러떨어진 섭리(攝理)에 의한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동서구(東西歐) 사이의 선민(選民)의 상속권(相續權) 싸움은 멀리 9세기경까지도 소급되어 질 수 있다. 당시 동방(東方) 희랍정교(正敎)의 총대주교였던 Photius(820~897)가 라틴 서방(西方)기독교를 향해 사도신경(使徒信經)을 멋대로 뜯어고친 분열주의(分裂主義) 교파라고 치명적(致命的)인 매도를 가해 정치적(政治的) 투쟁(鬪爭)으로까지 비화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싸움이 중근세(中近世)를 거쳐 오늘의 미(美)·소(蘇) 간(間)의 동서(東西)문제로 연계(連繫)되어 졌다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중세(中世)의 그리스정교회(正敎會)가 비잔틴적 전체주의(全體主義) 국가제도(國家制度) 속에서 세속적(世俗的)인 정치권력(政治權力)의 장식품으로 전락했었음을 상기할 때 오늘의 공산주의(共産主義)도 소비에트 전체주의국가체제(全體主義 國家 體制)를 다져주는 촉진제라 해도 무방(無妨)한 것이다.

다만 중세교회(中世敎會)의 표상인 십자가(十字架)의 깃발을 낮과 망치의 깃발로 바꾸었음 뿐이며, Theophilus의 말대로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로 건재(健在)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果然) <제3의 로마>는 그 수명이 영원하기만 할 것인가?

11세기 말경(末頃) 프랑크족(族)과 터키족(族)의 협공으로 비잔틴세계(世界)가 몰락(沒落)할 때에도 유독 러시아만이 생존(生存)할 수 있었던 것은 내륙오지(內陸奧地)라는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언약(言約)의 선민(選民)이라는 최후 영광도 비잔틴 기독교에도 최후의 개종자(改宗者)인 러시아로 안겨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러시아의 영광은 어떠한 지리적(地理的) 호조건(好條件)도 무위화(無爲化)될

수 있는 현대(現代)에 와서는 그 시효(時效)를 잃고 있다. 역시 Toynbee는 이러한 러시아의 미래(未來) 문명에 대해 「러시아의 전체주의국가제도(全體主義國家制度)가 러시아 장래(將來) 운명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며 또 러시아가 하나의 서구국가(西歐國家)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반서구적(反西歐的) 입장(立場)을 견지(堅持)해 갈 것인지 누구도 짐치기 힘들 것」이다 한다. 그러나 Toynbee가 역사(歷史) 풀이에 있어 종교사관(宗教史觀)을 중시(重視)하는 한 이에 대한 해답은 모두 고등종교(高等宗教)에서 말한 역사적(歷史的) 예정성에서 찾아보았어야 했을 것이다.

Schopenhauer적(的)으로 역사(歷史)가 맹목적(盲目的) 의지(意志)가 아닌 한 인간(人間)의 상상을 초월한 큰 의미성(意味性)이 있음을 부인(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인류가 낳은 최대(最大)의 종교(宗教)인 기독교 사회(社會)가 라틴 서구(西歐) 기독교사회와 동방(東方) 희랍정교(正敎)사회로 분리되고, 다시 동방(東方) 희랍정교회(正敎會)가 Marxism으로 각색변장(脚色變裝)해 러시아 전체주의(全體主義)를 이룩해감도 모두 역사적(歷史的) 의미성(意味性) 내지 섭리(攝理)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기독교의 깃발 아래서도 반서구(反西歐)를 표방한 것이 기왕의 러시아였고 보면, 더구나 자유주의사회(自由主義社會)와 전연(全然) 이질적(異質的)인 Marxism의 옷으로 갈아입은 현금(現今)의 소비에트가 서구(西歐)와 합류(合流)할 리 없으며, 또 소련이 비잔틴의 전체주의적(全體主義的) 패도성(覇道性)을 답습하는 한 그 자체수명(自體壽命)이 길지 못할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중세(中世) 비잔틴 전체주의체제(全體主義體制)가 비잔틴 문명(文明) 발전에 불과(不過)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상기(想起)해 보면 짐작이 갈만한 것이다.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비잔틴 사회(社會)의 전체주의제도(全體主義制度)는 그 사회(社會)의 자체발육(自體發育)을 저해하며 풍부한 문명(文明)의 창조적 가능성(可能性)을 너무도 허실(虛失)시켜 버리곤 했다.

요컨대 비잔틴 사회(社會)의 전체주의(全體主義)라는 변태제도(變態制度)가 그들 자체(自體)의 수명을 단축시켰듯이, 오늘의 소비에트가 Marxism에 기초한 전체주의(全體主義)를 고집하는 한 그 몰락(沒落)은 조만간(早晚間) 올 것으로 보여진다.

## 2. 성서(聖書)의 마귀와 역(易)의 항룡(亢龍)의 종말적 재난(終末的 災難)

기독교에서의 용(龍)의 개념(概念)과는 달리 동양(東洋)에서는 용(龍)을 상서(祥瑞)로운 영물(靈物)로 여겨왔다. 그러나 용(龍)의 개념(概念)을 경학적(經學的)으로 좀 더 세밀히 검토(檢討)해보면 기독교에서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음을 기록하고 있다. 하늘을 항극(亢極)한 오만으로 인해 타락한 용(龍)(마귀)은 종말적(終末的)으로 지상(地上)에서 인류(人類)를 움직여 분쟁(紛爭)을 일으키는 전범자(戰犯者)임을 역(易)과 성서(聖書)는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

역(易)은 본래 인문주의적(人文主義的) 입장(立場)에서 천지시변(天地時變)을 보았으므로 지



상영물(地上靈物)인 용(龍)을 상서시(祥瑞視)했고, 성서(聖書)는 신본주의(神本主義)의 절대적 입장(絶對的 立場)에서 출발하므로 용(龍)은 하나의 피조물(被造物)로 하늘이 부리는 천사(天使)에 불과했다.

즉 구약(舊約) 창세초(創世初)에 하나님의 부림 받던 지혜 천사 루시퍼가 지존(至尊)한 하늘 보좌(寶座)를 넘보는 역천행(逆天行)을 범하고 나서 사탄 혹은 용(龍)(뱀)이라는 마명(魔名)을 받고 지상(地上)으로 추방당하고 말았다(요계 20).

옛 뱀으로서의 용(龍)이 신약(新約)에 와서는 좀 더 강력한 힘과 조직(組織)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요계 12; 13).

기독교에 있어서의 이 같은 용(龍)의 곡예적(曲藝的) 행태(行態)는 사실상 유교(儒敎)의 그것과 너무도 일치(一致)함에 새삼 경이(驚異)스럽기까지 하다.

성서(聖書)가 창세초(創世初)부터 뱀이 간여해 성도(成道) 직전의 아담 부부(夫婦)를 유혹했거니와, 역(易)에 있어서도 건괘초효(乾卦初爻)부터 용(龍)이 등장한다. 이효(二爻)에서 대인(大人)과 만난 용(龍)은 결국 상구(上九)에서 천위(天位)를 넘보는 향룡(亢龍)으로 둔갑하여 구제불능(救濟不能)의 마물(魔物)로 전락한다.

성서(聖書)에서도 용(龍)은 당초에 수중영물(水中靈物)로 밝혀졌듯이 (욥 7:12, 시편 74:13, 사 27:1) 역(易)에서도 건괘초효(乾卦初爻)의 수중잠룡(水中潛龍)에서부터 성장(生長)한다.

잠룡(潛龍)은 아직 미숙(未熟)한 선룡(禪龍)으로 「물용(勿用)」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효(二爻)에서 지상(地上)에 올라온 「견룡(見龍)」은 대인(大人)과 교섭(交涉)하게 되고 이때의 군자(君子)는 건건역락(乾乾場落) 하는 근신(謹慎)으로 내외괘(內外卦) 사이의 위기(危機)를 극복할 수 있었다. 군자(君子)는 역시 군룡(群龍)과 더불어 육룡(六龍)의 일위(一位)를 얻게 되었다.

사효(四爻)로 건너간 용(龍)은 아직 자신의 시위(時位)를 알고 잠약(潛躍)의 진퇴(進退)를 거듭하면서 장차 창공(蒼空)을 비상(飛翔)하기 위한 훈련을 쌓는다. 오효(五爻)에 와서 완숙(完熟)한 비룡(飛龍)은 운행우시(雲行雨施) 조화(造化)를 발휘한다.

이처럼 잠(潛)·견(見)·약(躍)·비(飛)와 과정을 거치기까지의 용(龍)은 별무대과(別無大過)였다. 즉 「재상불고 재하불우(在上不驕 在下不憂)」(건문언삼(乾文言三))의 분수를 지켜왔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言及)한 대로 성서(聖書)에서 사탄이 아담 부부(夫婦)와 함께 하늘 보좌(寶座)를 넘보는 교만(驕慢)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림 받던 지혜 천사(智慧天使)였음을 말해준과 같다.

「너는 기쁨 부음을 받은 뉘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되 내가 하나님의 성산(聖山)에 있어서 화광석(火光石)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完全)하더니 마침내 불의(不義)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貿易)이 풍성하므로 네 가운데 강포(強暴)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犯罪)하였도다. 너 뉘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山)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火光石) 사이에서 멀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驕慢)하였으며 네가 영화(榮華)로우므로 네 지혜(智慧)를 더럽혔음이어。」

역(易)과 성서(聖書)는 모두 용(龍)의 타락 동기가 교만(驕慢)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성서(聖書)에서 미(美)와 지(知)를 겸비해 완전(完全)했던 그룹천사(天使)가 타락하게 된 동기가 교만(驕慢)이었고, 역(易)에 오효(五爻)까지 자기 시위(時位)를 잘 지켰던 비룡(飛龍)이 상구(上九)에서 자신(自身)의 성세(盛勢)에 취해 교만(驕慢)해진 것이 범과(犯過) 한 동기였다.

상구(上九)에서 천위(天位)에까지 항극(亢極)한 향룡(亢龍)은 회한(悔恨)을 머금고 떨어진 것이다. 「무위무민(無位無民)」 한 상태까지 치달아 금기(禁忌)의 성역(聖域)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항(亢)이란 본래 「고극(高極)·적대(敵待)·자오(自傲)」의 의미가 있다. 건원(乾元) 자리의 존엄(尊嚴)을 모르는 향룡(亢龍)을 물리침은 하늘의 권좌(權座)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 조치였다. 이와 같이 건괘(乾卦)에서 과회(過悔)를 일으킨 향룡(亢龍)의 곤괘(坤卦)에 와서는 더욱 「도궁(道窮)」해졌다. 지상(地上)에까지 전락(轉落)해 전란(戰亂)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종말적(終末的) 재앙(災殃)을 낳게 한다.

구약(舊約)의 이사야는 룩의 항해(亢海)의 이 같은 역사(役事)와 너무도 일치(一致)한 말을 하고 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啓明星)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列國)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적혔는고, 네가 네 마음께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결 위에 나의 보좌(寶座)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회(北極集會)의 산(山) 위에 좌정(座定)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 음부(陰府)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뜨리로다. .... 네가 자기 땅을 망(亡)하게 하였고 자기백성(自己百姓)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一般)으로 안장(安葬)함을 얻지 못하니 악(惡)을 행(行)하는 자의 후손을 영원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하리라。」

동일(同一)한 내용(內容)의 말을 역(易)에서 또 인용(引用)해 보면 「용(龍)이 지상(地上)에서 전쟁(戰爭)을 일으키니 그 피가 검고 누렇게 되었도다. 이같이 용(龍)들이 땅 위에서 싸움하는 것은 그 앞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도(使徒) 요한 역시 말세(末世)에 용(龍)의 무리인 사탄조직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 쫓겨 일대 환란을 일으킬 것을 예언하고 있다.

「하늘에 전쟁(戰爭)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使者)들이 용(龍)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龍)과 그의 사자(使者)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지라. 큰 용(龍)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魔鬼)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는 온 천하(天下)를 피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使者)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禍) 있을진저 이는 마귀(魔鬼)가 자기(自己)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음이라。」

이상에서 성서(聖書)나 역(易)에 기록한 용(龍)의 작태(作態)는 종래 동양인(東洋人)의 용(龍)에 대한 일반적(一般的)인 관념(觀念)과는 달리 너무도 일치(一致)함에 유의(留意)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易)도 성서(聖書)도 인간(人間)구원을 위해 내려진 도(道)의 문서(文書)이고 보면, 본고(本稿)가 의도하는 바는 역(易)에 있어서의 용(龍)의 본질적(本質的) 속성(屬性)보다도 그러한 역(易)의 소장법칙(消長法則)이 현실적으로 인류역사(人類歷史)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즉 용(龍)의 성장(生長) 과정과 마지막 단계의 항룡화(亢龍化), 그리고 최후의 군룡(群龍) 간의 종말적(終末的) 싸움은 공산주의(共產主義)의 발전 내지 소멸(消滅) 과정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항룡(亢龍)(사탄)의 역사(役事)는 그대로 인류사(人類史)에서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 생태(生態)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증거를 들어보자.

① 항룡(亢龍)이 천위(天位)의 절대성을 항극(亢極)한 데서 빚어진 범과(犯過)라면, 공산주의(共產主義) 역시 절대적(絶對的) 주재자(主宰者)로서의 천도(天道)의 신성성(神聖性)을 부인(否認)하는 교만한 집단이다.

천(天)은 양(陽)의 원질(原質)이요, 땅은 음(陰)의 실체(實體)라면 음양(陰陽)의 본질(本質)을 바꿀 수 없듯이 자연(自然)의 이법(理法)이다. 본래 천(天)에 대해 「유순리정(柔順利貞)」하고 「승천시행(承天時行)」해 감이 군자(君子)의 도(道)[곤도(坤道)·이도(叡道)·신도(臣道)]인 것이다.

② 역(易)은 군룡간(群龍間)의 싸움이 음(陰)[천(天)에 대해 용(龍)은 음물(陰物)]이 극성(極盛)해 양(陽)을 무시한 데서 빚어진 것이라 했다. 음(陰)이 너무 교활해져 마치 양(陽)인 것처럼 행세하려 하므로 용(龍)이라 칭(稱)한다 했다.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유물 무신론적 사고(唯物無神論的思考)는 음(陰)이 「힘어무양(嫌於無陽)」한 오만행인 것이며, 이것은 결국 반질서(反秩序)의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社會的)으로 전란(戰亂)을 일으키게 된다고 역(易)은 지적하고 있다. 즉 항룡(亢龍)이 하극상적(下剋上的) 교만으로 우주질서를 깨고 천상(天上)과 지상(地上)에서 전란(戰亂)을 일으켰음과 같이 공산주의도 계급간(階級間)의 피의 투쟁과 무력혁명(武力革命)이라는 반질서적(反秩序的) 행위(行爲)를 권장(勸獎)한다.

③ 항(亢)의 개념(概念)이 「지진이부지퇴 지득이부지상(知進而不知退, 知得而不知喪)」[건문언(乾文言)]하는 자신의 정위(正位) 상실에서 오는 것이며, 또 성인(聖人)의 도(道)란 「진퇴존망 부실기정(進退存亡 不失其正)」[건문언(乾文言)]으로 정의할진대 공산주의(共產主義)의 무신론(無神論)이야말로 「부지천명이부외(不知天命而不畏)」[공자(孔子)]하는 항룡적(亢龍的) 소인도(小人道)인 것이다.

④ 건도(乾道) 앞에 「유순리정(柔順利貞)」해야 할 곤도(坤道)를 망각하고 낙회(落梅)한 항룡(亢龍)은 종말적(終末的)으로 「신시기군 자시기부(臣弑其君 子弑其父)」의 난륜상(亂倫相)을 빚는다. 그러므로 역(易)은 이러한 사회상을 차고 살벌한 「상수지재(霜水之災)」로 비유한다. 공

산주의(共產主義)가 당(黨)에 충성한다는 구실로 친족밀고(親族密告)나 상사시해(上司弑害)도 미덕시(美德視) 한다면 이는 분명(分明) 항룡적 패륜행위(亢龍的 悖倫行爲)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공산주의(共產主義)는 인류사(人類史) 속에서 항룡(亢龍) 내지 사탄의 밀명(密命)을 받은 마(魔)의 집단(集團)임이 분명(分明)하며, 섭리론적(攝理論的)으로는 선천(先天)에 아직 성도(成道)하지 못한 음세(陰勢)[도(道)]가 최대한 장성(長成)함으로써 양세(陽勢)[도(道)]와 빚어지는 일시적(一時的) 위지(違知) 현상인 것이다. 역(易)은 이러한 현상을 「뇌풍(雷風)과 음양(陰陽)의 상박(相薄)」[설괘전(說卦傳)]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成就)되기 이전의 신구약사 전체(新舊約史 全體)(6천년간)가 하나님 백성과 사탄의 조직과의 영적(靈的) 싸움으로 일관(一貫)한 것과 동일(同一)한 원리(原理)인 것이다.

이 같은 음양(陰陽)의 상충(相衝) 현상이 인간사회(人間社會)에 드러난 것을 역(易)과 성서(聖書)는 용(龍)의 싸움으로 상징 지워지며 현실적(現實的)으로 무신론(無神論)과 유신론(有神論)의 싸움, 유물론(唯物論)과 유리론(唯理論)의 싸움, 나아가서는 동서(東西)의 Ideology 싸움으로까지 번져가게 된 것이다. 이것은 역(易)과 성서(聖書)가 우주사(宇宙史)와 인간사(人類史)를 표리(表裏)를 이루는 양면적(兩面的) 관계에서 본 사실적 귀결(事實的 歸結)인 것이다.

요컨대 항룡(亢龍)과 사탄의 밀명(密命)을 받아 그 영맥(靈脈)을 같이하는 공산주의(共產主義)는 선천(先天)의 「내소인외군자(內小人外君子)」하는 역사적 미완성(歷史的 未完成) 단계에 나타난 음세(陰勢)의 일시적(一時的) 극성(極盛)현상에 불과(不過)하다. 이것이 후천(後天)의 「내군자외소인(內君子 外小人)」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轉廻)를 거칠 때 반드시 쇠(衰)하고 마는 우주사(宇宙史) 내지 인류사적(人類史的) 법칙(法則)이 있음을 역(易)과 성서(聖書)는 말하고 있다.

### 3. 새 시대(時代)의 도래(到來)와 적(敵) 그리스도세(勢)의 종말(終末)

역(易)에서 용(龍)이 일정시한(一定時限)까지는 자신(自身)의 시위(時位)에 맞게 적의(適宜)한 행태(行態)를 발휘했으나 상구(上九)에서 항룡(亢龍)이 되고 곤괘(坤卦)에서는 독룡(毒龍)으로 변해 전란(戰亂)을 야기시키는 장본(場本)으로 화(化)해 버렸다 함은 이미 전술(前述)한 바이다. 이 같은 용(龍)의 행적(行跡)은 성서(聖書)에서도 유사한 과정을 보인다.

구약(舊約)의 사탄은 본질적(本質的)으로 악(惡)의 존재(存在)가 아니라, 인간(人間)을 시험하는 일을 맡은 천사적 존재(天使的 存在)였다. 하나님의 진노(震怒)와 심판(審判)을 집행하는 어둠의 천사(天使)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종의 역할을 수행했다.

즉 사탄이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順從)하는 고발자(告發者)로 하나님 백성(百姓)의 검사역(檢事役)을 담당했다는 점이며(욥1:21, 출12:23), 심지어는 하나님 존전(尊前)에 나가기도 했고(욥1, 2장)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신약(新約)에 접어들면서 극적(劇的)인 전환(轉換)을 보인다. 하나님의 종(從)의 위치

(位置)에서 「원수」로 표변한다. 그리고 「현세(現世)의 지배자(支配者)」로 온 세계가 그 악(惡)한 자의 지배(支配)에 떨어져 버린다(요한 1서 5:19-고후 4:4). 세례 요한에게서 사탄의 자식으로 낙인 받은 사두개 바리새파는 아예 「독사의 자식」으로 매도(罵倒)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震怒)의 대상이었다.

이때 예수에 대한 요한의 세례(洗禮)를 방해하다 실패한 사탄은 예수의 득도(得道) 초기부터 광야(曠野)에서 시험하다 물러갔고, 3차로 베드로의 간언(諫言) 형식(形式)으로 나타났다가 물러가고 만다.

그러나 사탄과 그에 충성(忠誠)하는 악령(惡靈)들은 천상(天上)의 지위 권세(權勢)를 아직 그대로 지닌다. 사탄은 단독으로 활동(活動)하지 않고 잘 조직된 왕국(王國)의 두목이며 방대한 영적 조직(靈的 組織)을 거느린 통솔자이다(마 25:41, 요계 12:7).

이같이 신약(新約)은 성령(聖靈)[양신(陽神)]과 사탄[음신(陰神)]과의 싸움으로 시종(始終)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약전체(新約全體)는 마귀론(魔鬼論)이 그 전면(全篇)에 걸쳐 내재(內在)되어 있고, 그 명칭도 다양하여 인류(人類)를 파괴하는 온갖 악(惡)의 대명사(代名詞)였다.

이같이 현세(現世)가 마귀의 지배(支配) 아래 있으므로 「모든 피조물(被造物)이 다 함께 신을 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롬 8:22)」.

신(神)의 심판에 의한 신천지(新天地)의 건설은 미래적(未來的)인 소망(所望)이며, 기독교의 종말론적 사상(終末論的 思想)은 그 직접원인(直接原因)이 마귀이며, 신약 복음서는 그 마(魔)의 정체(正體)를 드러내고 최종적 결박으로 끝낸다.

그런데 이같이 신약사(新約史) 2천 년을 뒤흔든 마귀(魔鬼)의 타락 동기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교태(驕怠)와 탐심(貪心)이었다.

선악(善惡)을 아는 지혜천사(智慧天使)가 하나님 조직 속에서 돌변(突變)한 것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항극(亢極)이었다. 그는 피조(被造) 당시부터 완전(完全)했고 기쁨 부음 받은 자로 영화를 누리던 자이나 교만이 자신의 타락을 가져왔다(겔 28:14~17).

이 타락을 가져다준 「선악과(善惡果)」란 다름 아닌 상대개념(相對概念)이요 분별지(分別知)를 의미한다. 절대(絕對)를 모르는 거짓 지혜(智慧)인 것이다. 결국 차별상(差別相)에 떨어져 만유(萬有)를 평등시(平等視)하지 못하고 상대적(相對的)인 모순(矛盾), 갈등(葛藤), 이율배반(二律背反)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것은 피조물(被造物)의 지혜(智慧)이며 지혜천사(天使)는 역시 피조물이었다. 선악(善惡)을 초월한 자리가 진리(真理)의 자리 곧 하나님의 자리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이 같은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마(魔)의 모순논리(矛盾論理)는 오늘 의 공산주의(共產主義)와 어떠한 관계성이 있느냐에 있다. 이제 그 영맥상(靈脈上)의 계보적(系譜的) 관련성을 가늠해 보자.

창세초(創世初)부터 하나님을 선악(善惡)을 초월한 절대적 존재(絕對的 存在)로 보지 못한

사탄의 착각(錯覺)은 이브를 반진리(反眞理)의 사설(邪說)로 유혹, 그에게서 마(魔)의 자식(子息) 가인을 출생(出生)시켰다. 가인은 더욱 영안(靈眼)이 어두워 영혼(靈魂)의 불멸성(不滅性)조차 모르는 물질주의자(物質主義者)가 되었고, 자신이 죽인 육(肉)의 형제(兄弟) 아벨의 피소리에 대경실색하였다. 어린양(羊)(예수를 상징)을 제물(祭物)로 드러 하나님 앞에 열납(悅納)된 아벨과 곡물 제사(穀物 祭祀)[불경(不敬)한 제사]로 거절당한 가인과 그의 살육(殺戮)은 단순한 감정 아닌 최초의 Ideology적(的) 살인(殺人)이었으며, 영(靈)의 싸움이요, 도(道)의 싸움이었다. 즉 진(眞)과 위(僞)의 대결이었고 종교적 살인(宗教的 殺人)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Ideology적(的) 싸움은 오늘의 동서구(東西歐)의 Ideology 싸움과 맥종(脈終)을 같이 한다. 한 형제(兄弟)의 싸움이 민족(民族)의 싸움으로 번져 마침내 세계심판(世界審判)을 초래하고 만 것이다.

사실상 가인의 물질주의적(物質主義的) 사고(思考)와 거침없는 살인행위(殺人行爲)는 일사불란(一絲不亂)한 혈대(血代)와 영맥(靈脈)을 타고 흘러와 오늘의 공산주의(共產主義)에서 그 극치(極致)를 이루고 있다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제 그 영맥상 계보(靈脈上 系譜)를 더듬어 보면 아담-가인-에녹-이랏-므후야엘-라멕... 등의 살인자(殺人者)의 계대(系代)를 이어오다가 중간시대(中間時代)에는 알렉산더의 인간복음(人間福音)을 통한 이상향(理想鄉) 건설시도, 안티오쿠스 에피파테스의 유대교 박해를 거쳐 예수 당대의 사두개 바리새파, 그리고 가롯 유다에서 구약(舊約)의 결전을 피로 마무리한다.

이 같은 사탄의 계보(系譜)는 마태복음 1장의 40여 대에 걸친 예수의 계보(系譜)와 대조를 이룬다. 사탄의 악(惡)의 계보(系譜)는 신약(新約)에서 네조를 비롯한 로마제국의 기독교 탄압, 중세암흑기(中世暗黒期) 교황청(教皇廳)의 타락, 그리고 동(東)로마의 그리스정교회(正教會)의 세속화(世俗化)를 거쳐 러시아로 유입(流入)되어 진다. 동(東)로마의 전체주의적(全體主義的) 유산(遺産)과 아울러 극도로 세속화(世俗化)해 정치시녀(政治侍女)로 전락한 그리스정교회(正教會)를 받아들인 러시아는 Marx-Lenin의 적(敵) 그리스도적 공산주의(共產主義)로 각색변용(脚色變容)하고 만다. 사탄이 거대(巨大)한 지상조직(地上組織)과 거점(據點)을 확보한 것이다. Marx가 예수와 동족(同族)인 유대인이라는 데서 사탄의 계획된 전략이 있는지도 모른다.

Marx, Lenin, Stalin 등 공산주의(共產主義) 지도자들은 사탄의 영맥(靈脈)을 이은 가인의 Ideology적(的) 후예(後裔)인 것이다(요 8:44, 요일 3:8~12).

이제 공산주의(共產主義)가 사탄의 영맥(靈脈)을 타고 흘러나온 적(敵) 그리스도 집단(集團)임을 좀 더 확증(確證)해 보기 위해 사탄의 역사(役事)와 공산주의이념(共產主義理念)과의 공통성(共通性)을 간추려 보기로 하자.

○ 절대자(絕對者)인 하나님의 권위(權威)를 부인(否認)하며 하나님의 「불순종(不順從)의 아들들」 위에 군림(君臨)한다(엨 2:2, 5:6) [무신론적(無神論的) 적(敵) 그리스도 입장]

○ 전략(戰略)과 전술(戰術)로 인류(人類)에게 죄악(罪惡)을 교사하며 온 천하(天下)를 피려한다(고전 7:5, 롬 16:18) (무산대중의 폭력혁명 유도).



○ 선(善)과 악(惡)의 모순대립(矛盾對立) 등 이율배반적 발상(二律背反的 發想)에서 출발한다(창 3:5)[변증법적 유물사관(辨證法的 唯物史觀)].

○ 자신을 광명(光明)의 천사(天使)로 가장 거짓을 진리로 꾸며 내세운다(고후 11:13)[유물론(唯物論)의 진리성 강조].

○ 우는 사자같이 포악(暴惡)하고 삼킬 자를 찾는다(벤전 5:8)[반동(反動)의 색출과 숙청]

○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며 구원(救援)받지 못한 자에게서 그것을 뺏어 내려 애쓴다(마 13:19) (종교를 아편시하며 탄압함).

○ 가신(假神)을 섬기는 사제복음(私制福音)과 우상숭배(偶像崇拜)로 타락하고 도(道)의 머리를 잡지 못한 자다 (엡 5:5)[물질지상주의(物質至上主義)].

○ 배만 섬기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빌 3:19, 롬 16:18)[경제 우선의 하부구조 중시(下部構造 重視)].

○ 창조주의 거룩한 경륜(經綸)을 무시하고 자신(自身)의 뜻을 실현시키려 꾀한다(사 29:15) [인위적(人爲的) 프롤레타리아 왕국(王國) 건설].

○ 하나님과 인간(人間)을 배신하며 (신 13:5, 겔 14:5)

○ 부모자식간(父母子息間)에도 죽는데 내어준다(마 10:21)[노사 간의 이간 선동과 친족밀고(親族密告) 행위].

이상과 같은 유사성(類似性)으로 미루어 볼 때 공산주의(共產主義)란 사탄의 영적(靈的) 계보(系譜)를 타고 나온 마(魔)의 지상조직(地上組織)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 내 집요하게 인간사회(人間社會)를 파고들 같이 공산주의도 교묘하게 기독교 교리의 인감(印鑑)을 위조하여 최대의 사교집단(邪教集團)을 꾸며가고 있다.

일찍이 이 점을 간취(看取)한 Russel은 공산주의(共產主義)를 「하나님 없는 기독교」로 보아 기독교와 Marxism을 다음과 같이 대비(對比)한 바 있다.

기독교	공산주의
1. 예수그리스도	..... Marx
2. 성경(聖經)	..... 자본론(資本論)
3. 천국(天國)	..... 공산사회(共產社會)
4. 지옥	.....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
5. 교회(教會)	..... 공산당(共產黨)
6. 고해성사(기도)	..... 자아비판(自我批判)
7. 선민(選民)	..... 프롤레타리아
8. 이단(異端)의 처단	..... 당분자 숙청
9. 세계심판(世界審判)	..... 무산계급의 혁명

Russel의 이 같은 비교는 공산주의(共產主義)가 하나의 종교(宗教)나 다름없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공산주의(共產主義)가 하나의 종교성(宗教性)을 띤 것과 또 그것이 사교집단(邪教集團)이라는 점에서 다른 종교(宗教)를 탄압하지 않고는 그 존속(存續)이 어려운 것이다.

즉 「공산교(共產教)」가 전체주의정권(全體主義政權)과 결부(結付)되어 이단(異端)을 거부하는 독선일변(獨善一邊)으로 나가는 것이다. 성서(聖書)는 경배(敬拜)받으려는 열망(熱望)이 강한 사탄은(마 4:9) 끝날에 「불법(不法)의 사람」에게 권세(權勢)를 줌으로써 만족된다 (살후 2:9~11, 계 13:4)라고 기록하고 있거니와 소련은 현대사회(現代社會)에 있어서의 최대의 적(敵) 그리스도국가이며 사탄의 밀명(密命)받은 정치 조직적인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싸움은 어떻게 승부(勝負)가 결정될까? 사탄은 강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적(敵)이긴 하지만 성서(聖書)는 그가 제약(制約)된 존재(存在)임을 명시(明示)하고 있고, 그가 초인적(超人的)이긴 하나 하나님과 대비(對比)할 존재(存在)가 아닌 피조물(被造物)이란 데서 그 승부(勝負)는 자명(自明)해지는 것이다(누 4:6, 계 2:10).

신약(新約) 27권(卷) 전체가 예수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 승리로 판정(判定) 지워지고 있음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나, 이보다 앞서 BC 550년경(年頃)의 구약(舊約) 에스겔은 마지막 때에 강대한 적 그리스도국인 소련이 중동(中東) 지역을 유린하려다 패망(敗亡)해 버리는 놀라운 사실을 예언(豫言)해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때의 에스겔은 단순한 묵시문학(默示文學) 형태나 투시안적(透視眼的) 요소를 지닌 예언자만이 아니었다. 그는 예수와 그 추종자(追從者)들과 도맥(道脈)을 같이하는 성령(聖靈)에 감동(感動)된 계시(啓示)의 인물(人物)이었다.

예수가 요한복음 10장(章)(1~39)의 기록된 말을 할 때 에스겔서 34장(章)의 전체(全體)를 인용(引用)하여 그리스도인 신앙(信仰)의 새로운 자세를 강조했고, 또 그는 유독 에스겔이 50여 회나 사용(使用)했던 「인자(人子)」라는 칭호를 자주 사용했음을 주목할 만하다. 사도(使徒) 요한 역시 요한복음 15장(章)을 에스겔서 15장(章)의 개작(改作)이라 할 만큼 논리적(論理的) 일치점(一致點)을 보이며, 요계 19장 17절 이하(以下)는 겔 38 이하의 예언에 직접 의존(依存)하고 있음(곡, 마곡, 아마겔돈 등)을 볼 때 에스겔의 예언적 확실성(豫言的 確實性)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그 시기에 있어서도 종말적(終末的) 상황(狀況)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약속(約束)에 의해 이스라엘과 세계만방(世界萬邦)이 하나님의 존대(尊大)하심을 알게 함이라 했다. 이같이 기독교 예언의 구약적 배경을 이루는 에스겔은 북방(北方)의 무서운 이방(異邦)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패괴(敗壞)되고 말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는 유태인이 열국(列國)에 이산(離散)된 지 먼 훗날 이방족(異邦族)들의 박해를 벗어나 고토(故土)에 복귀(復歸) 안주(安住)할 시기가 올 것을 백골(白骨)의 소생(蘇生)으로 비유하고 나서 그의 적(敵)들을 섬멸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다.

구약(舊約)에는 겐 38~39장(章)과 함께 단 11:40~45, 올 2:20에는 이스라엘이 북방정치세력권(北方 政治 勢力圈)과의 결전(決戰)을 치르게 되는 중대(重大)한 예언이 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예언의 적응 시기에 대해 몇 마디 시사(示唆)하고 있다.

첫째 말년(末年) (38:8)과 끝날(38:16)이라는 것이다. 즉 역사심판(歷史審判)의 직전인 악(惡)의 통치의 종말기(終末期)를 말한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百姓)이 칼을 벗어나서 열국(列國)에서부터 모여들어 오며 이방(異邦)에 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平安)히 거(居)하는 중이라」(38:8)하고 또 「열국(列國)에서 취(取)하며 사면(四面)에서 모아서 그 고토(故土)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民族)이 되지 아니 할지라」(37:21~22)한다. 이것은 바벨론 한 나라의 단기간의 폭로로부터 놓임 받은 시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복귀(復歸)와 영적 중생은 메시아가 설립(設立)하겠다고 약속한 영원한 왕국(王國)의 시작이다(겔 37:26). 이 하나님의 왕국(王國)에 사탄의 지상조직(地上組織)인 곱(Gog)과 마곡(Magog)은 도전해 온다. 성경해석자들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침략(侵略)하는 사령국(司令國) 곱은 바로 소련이라고 수 세기 전 말하고 있다. 이 북방대장(北方大將)은 마곡 땅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곱이라고 했다(38:2). 이것은 후대인(後代人)들의 이해(理解)를 돕기 위해 북방대장(大將)의 부족계보(部族系譜)를 말할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다. 여기의 로스 메섹 두발 등은 러시아 모스크 등 러시아족의 선조(先祖) 내지 부족(部族)의 명칭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북방대장(北方大將)을 확인하는 최종 증거는 그 나라의 지리적(地理的) 위치가 이스라엘로부터의 「극(極)한 북방(北方)」(38:6.15) 「먼 북방(北方)」(39:2)이라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극북(極北)에 위치한 적성국가(敵性國家)는 소련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소련의 동맹국(同盟國)은 파사(이란), 구스(이디오피아), 붓(리비아, 알제리아), 고멜(체코, 폴란드, 동독), 도갈마(남러시아) 족속 등이라 한다. 물론 소련의 동맹국(同盟國)들을 오늘의 국가군(國家群)으로 직접(直接) 단정(斷定)해버림은 다소 어려운 점이긴 하나, 부족(部族)의 계보상(系譜上) 이상과 같이 분류(分類)해 봄은 거의 일반화(一般化)된 경향인 것이다.

환언하면 무신론(無神論) 위에 건설된 공산 소련은 그의 동맹국(同盟國)들이 아랍권 내지 동구공산권(東歐共產圈)의 맹주(盟主)로 등장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것이다. 이곡의 장구(章句)는 에스겔에서 최초로 언급(言及)되나 이곡과 마곡나 요게의 내세(來世)의 마지막 회전(會戰)이라고 하는 Armageddon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에스겔에서 인명(人名)인 곱과 지명(地名)인 마곡이 요계에서는 모두 인물(人物)로 나타난다. 그러나 양자(兩者)의 경우 그것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반항(反抗)하는 악(惡)으로 묘사되었으며 그들의 반역(反逆)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能力)(지진, 질병, 우박, 유황불 등)으로 진멸(珍滅)될 것이라 한다. 이스라엘은 그 전후(戰後) 처리에만도 7개월이 소요(所要)된다는 것까지 명시(明示)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소련 공산주의도 하나님께서 작정(作定)한 한계를 한 걸음도 넘어설 수 없음

을 뜻하며 또 소련과 그 동맹국(同盟國)들의 패망(敗亡)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도와서 존재(存在)함을 증거하는 행동(行動)에 연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영광을 열국 중(列國 中)에 나타내어 열국(列國)으로 나의 행(行)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權能)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列國)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罪惡)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구원(靈的 救援)과 아울러 공산주의(共產主義)의 무신론적(無神論的) 교만(驕慢)과 패역성(悖逆性)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攝理的事役)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에스겔서에서 마곡은 사탄의 밀명(密命)받은 국가군(國家群)이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대항해 보려고 집결(集結)해 보고는 패배(敗北)당하고 마는 인간(人間) 역사상의 초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마곡 세(勢)가 격퇴되고 나서야 하나님 백성이 안전(安全)해지고 천국(天國)은 확립된다.

우리는 간혹 「신(神)이 있다면 잔학무도(殘虐無道)한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존재(存在)이 유와 그 팽창력의 제지(制止)가 여의(如意)치 못한 이유가 무엇이나」고 소박(素朴)한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다.

이 같은 성격(性格)의 질문(質問)은 예수의 제자(弟子)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며,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가 마:13장에서 분명(分明)히 해 주고 있다.

「천국(天國)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군(秋收軍)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고간(庫間)에 넣으라 하더라」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人子)요 밭은 세상(世)이요 좋은 씨는 천국(天國)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惡)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世)이요 추수군(秋收軍)은 천사(天使)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世)이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人子)가 그 천사(天使)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한 것과 또 불법(不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그때 의인(義人)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한 예수의 「천국(天國)의 비유」는 인류역사(人類歷史)의 전개(展開)와 그 수렴(收斂)과정을 가장 평이(平易)한 방법(方法)으로 설명한 것이다. 인류역사(人類歷史)가 완성(完成)

되기 이전에 선(善)과 악(惡), 진(眞)과 위(爲)가 상대적(相對的)으로 공존(共存)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이 세상(世上) 악(惡)의 조직(組織) 배후에는 마령(魔靈)의 세력(勢力)이 도사리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정시한(一定時限)이 차면 이 「악(惡)한 자의 아들들」(엡 5:6)에서 역사하는 그 조직(組織) 전체를 처리해 버리는 일대심판작업(一大審判作業)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수와 에스겔선지(先知)의 예언(豫言)이 허언(虛言)이 아닌 한 공산중주국(共產宗主國) 소련과 그 동맹국(同盟國)들은 그 미래적(未來的)인 시한(時限)이 그리 오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 고사·일화

#### 설교자의 자세

독일의 류름갈트시를 방문한 어떤 전도사가 당시 독일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로서 활약하던 요한 브렌즈의 선교를 들으려고 그의 교회로 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교회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예배가 끝난 후 이 전도사는 브렌즈에게로 가서 저윽히 놀란 표정으로 어찌 된 이유인가를 물었다. 그러자 브렌즈는 이 전도사를 데리고 어떤 샘가로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나그네에게 물기를 이 샘물의 가장 큰 특색은 무엇이나고 물었다. 한참 동안 전도사가 대답을 못 하고 있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샘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시러 오는 사람이 적거나 많거나 언제든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설교자도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북한(北韓) 주민들의 생활실태(生活實態)

북한주민(北韓住民)들은 「김일성(金日成)·김정일(金正日)의 명령 없이는 죽을 권리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인간(人間) 생지옥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임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김 영 준(金榮準)  
(내외통신(內外通信))

북한(北韓)은 이미 지난 80년 제6차 당대회(黨大會)에서 김정일(金正日)을 김일성(金日成)의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부자세습(父子世襲) 체제를 구축,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김가왕조(金哥王朝)」를 구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北韓)은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 및 강도 높은 중노동을 일 층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집단체제(集團體制) 아래서 조직 생활을 통한 개인의 사고(思考)나 행동이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北韓) 주민들의 사회생활은 개인, 가족, 의식주(衣食住), 경제, 오락 등 일체의 생활이 당(黨)이라는 절대적인 통제 아래 놓이게 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과 가정, 각종의 집단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상호 경쟁하는 생활양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북한(北韓)주민들은 공산당(共產黨)에 맹종(盲從)하지 않으면 불안해 견딜 수 없을 만큼 만성적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북한(北韓) 주민들은 공산당(共產黨) 정책의 독선적(獨善的)인 강요와 함께 이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북한(北韓) 주민들이 개인의 집합체로서의 사회보다도 사회의 한 구성분자로서 개인만을 인정하는 기본입장은 72년 12월 채택한 신헌법(新憲法) 제(第) 49조(條)에서 「공민(公民)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서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억압되고 통제된 북한(北韓) 사회에서의 강제노역과 주민 생활실태는 최근에 자유대한(自由大韓)의 품으로 잇달아 귀순한 이용평(李雄平) 소령, 신중철(申重哲) 대위, 정범호(鄭範鎬) 씨 등의 증언에서 실감할 수 있는데 특히 김정일(金正日) 후계 세습체제가 확립되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김정일(金正日)이 막강한 전력을 휘두르고 있는 시점에서 북괴군(北傀軍)의 잇따른 월남(越南) 의거는 북한(北韓) 사회의 강요된 삶을 실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北韓)은 기본적으로 사유(私有)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유(共有)의 원칙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北韓) 주민들 간에는 자연히 공유(公有) 재산에 대한 애호심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노력 경쟁운동으로 증산(增産)을 다그치고 있음에도 생산성(生産性)이 뒤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에서 주민 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의식주(衣食住) 문제를 비롯해 임금(賃金)수준과 물가(物價),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각종 노력 경쟁운동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 임금(賃金)과 물가(物價)

북한(北韓)에서 일반 근로자, 사무원들의 월평균(月平均) 임금은 약 80원(북괴화(北傀貨)) 정도의 저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은 직종 및 기능급수에 따라 격차를 두고 있으며 노동자의 경우는 「임금 기능등급제(技能等級制)」에 의거 1급으로부터 8급까지 구분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사무원이 60~70원, 3급 노동자(일반 노동자) 60원, 8급 노동자(광부(鑛夫), 제철, 제련공) 95원, 지방기관장 1백 원~1백5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물가(物價) 수준은 일부 배급제는 식량을 비롯하여 최소한의 식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필품(生必需品)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고급 일용품, TV, 라디오 등 가전제품과 사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계, 신사복 등은 대단히 비싼 편이다. 이웅평(李雄平) 소령의 증언에 의하면 평등(平等)을 제외한 대부분이 생활필수품이 모자라는 형편이며 세탁비누 1개 1원, 닭 1마리 7원 정도이나 「농민 시장」에서는 세탁비누가 5원, 닭이 40~5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손목시계 같은 사치품은 1개당 암거래로 1천4백 원에 달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로서는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렴한 임금(賃金)과 고물가(高物價) 정책의 불균형한 모순은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일터로 내몰기 위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신적으로 해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일상생활의 사치성향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다.

### 의류 실태(衣類 實態)

북한(北韓)은 직물(織物)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 의복을 자유로이 해 입을 수 없는 데다가 대부분의 여성(女性)들이 남자들과 동등하게 각종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임으로 작업복을 입는 시간이 많다. 거기에서 현재 북한(北韓)의 섬유공업 수준과 옷을 만들어내는 봉제(縫製)기술이 이를 뒤따르지 못해 의류의 수요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北韓)이 지난 6월 평양(平壤)에서 소집한 당(黨) 6기 7차 「전원회의(全員會議)」(6.15.~17일, 平壤)에서 화학

고지와 천생산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토의하면서 현재 6억 정도에 불과한 직물생산을 80년대 말(末)까지 15억대로 증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순천(順川) 지구에 나일론의 초기 단계로서 북한(北韓) 직물류의 주종(主宗)을 이루고 있는 이른바 「비닐론」공장을 건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공장 노동자들은 1년에 2벌 정도 배급하고 있는데 고위 간부들을 제외하고 회색, 국방색 계통의 작업복, 국민복이 남자들의 일상복이며 여자들은 주로 한복의 흰 저고리와 짧은 검정 통치마를 입어 왔으나 최근 들어 양장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南北)대화 이후 한국민(韓國民)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외부 세계로부터의 영향에 자극되어 취해진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남녀(男女) 복장 상태는 나들이의 경우 작업복 위주의 남자(男子) 복장에서 넥타이 차림으로, 여성(女性)의 경우 색깔이 화려한 한복(韓服)이나 양장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그 수준(水準)이 한국(韓國)의 60년대(年代) 초와 비슷한 것으로서 조잡할 뿐만 아니라 레저용 복장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실정에 머물고 있다.

### 식량 실태(食糧 實態)

북한(北韓)은 57년 11월 내각(內閣) 결정 96조 및 1백2조에 따라 식량의 자유 판매를 금지하고 완전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식량 배급제의 목적은 부족한 식량문제의 해결과 식량 배급을 통한 주민 통제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배급량은 신분에 따라 1인당 최저 3백g에서 최고 8백g까지 배급해왔으나 75년부터는 외화(外貨) 부족에다 「전쟁 비축미」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1백g씩 공제, 배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배급되는 식량은 평양(平壤)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백미(白米) 3에 옥수수, 밀가루, 조 등 잡곡(雜穀) 7의 비율로 혼합 배급하고 있으며 평양(平壤)의 경우는 5대 5의 비율로 배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黨) 간부급들 및 고위 관리들은 전량 백미(白米)로 배급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을 사고 있으나 겉으로 드러내놓고 불만을 나타낼 수도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일반 주민들의 경우 식량 배급을 받는 양만으로는 통상 보름에 2일분 정도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가 각 가정별로 전시 배낭 속에 4~5일분의 식량을 자체 비축도록 강요하고 있어 북한(北韓) 사회에서는 「쌀은 곧 공산주의」라는 구호가 생겨나고 있다. 농촌주민들은 각급 협동농장별(協同農場別)로 「결산 분배모임」이란 것을 열고 노력일(勞力日)을 평가, 분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농사비(종자대(代), 비료대(代), 농기계 구매료 등 다수) 명목을 붙여 수탈하고 난 잔여분을 지급하는 데다가 최소한의 식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강제 수매(收買)하고 있다. 계층별로 식량 배급량을 살펴보면 도표와 같다.

계층별 식량 배급량(量)

대 상(對 象)	배 급 량(g)
당(黨) 간부 및 고위 관리	700g(전량 백미(全量 白米))
군인(軍人)	600g(잡곡 40%)
사회안전원	600g(잡곡 50~70%)
대학교원	600g(잡곡 50~70%)
중노동자, 유해 노동자	700g(잡곡 50~70%)
일반 노동자, 사무원	600g(잡곡 50~70%)
대학생, 고등전문학생	600g(잡곡 50~70%)
중학생, 인민학생	400g(잡곡 50~70%)
부양가족	200~300g(50~70%)

특히 북한(北韓)은 여성(女性)들이 각종 노동에 동원되고 있어 가사(家事)를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 「밥 공장(工場)」 「반찬 공장(工場)」이란 것 등이 생겨 이곳에서 타다 먹고 있으며 부식의 경우는 간장(도토리, 강냉이, 콩 혼합제조), 된장, 소금 등은 구매권을 가지고 상점에서 매입해다 먹고 있는데, 육류는 김일성(金日成) 생일(4.15)이나 김정일(金正日) 생일(2.16), 그리고 당(黨) 창설일이나 먹어볼 수 있는 정도이다.

주택 실태(住宅 實態)

북한(北韓)은 휴전(休戰) 이후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집단화하고 밀집화하기 위해 도시에서는 일률적으로 규격화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농촌에서도 주택을 집단취락화하였다. 북한(北韓)에서는 개인소유의 주택이 있을 수 없으며 당(黨) 간부 외에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들은 자재의 부족과 밀집화에 따라 10평(坪) 내외의 소규모여서 협소하기 이를 데 없으며 그나마 거주지 이전 등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아 개인 사정으로 거주지를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北韓)에서의 거주지 이전은 대부분이 정치적인 이유와 기타 이유에 의한 강제이주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데 지난 58~60년간에 중앙당(中央黨) 집중지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全) 주민에 실시한 정치 사찰(査察)과 63~64년 기간에 실시된 주민(住民)등록을 통해 개성(開城) 등 휴전선 일대의 원주민과 반동분자, 반당(反黨)계층으로 몰려 정치적으로 숙청된 자들의 연고자들을 집단적으로 압록강 및 두만강 지역의 벽지로 이주시킨 바 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 새로 건설한 문화주택이란 것도 「국가(國家)건설위원회」에서 제정한 1호

(號)부터 7호(號)까지의 표준설계에 따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협동농장(協同農場)에의 계층과 직책에 따라 주거생활이 다르고 가구도 최소한만 갖추어져 있으며 변소도 공동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마치 합숙소(合宿所)를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이용평(李雄平) 소령의 증언에 따르면 비행사의 경우도 결혼할 경우 방이 배당되지 않아 1~2년간 별거 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지어 장기간 별거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방에 칸막이를 한 후 신혼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부부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력난까지 가중, 한 세대당 25촉짜리 백열등 1등만 사용토록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용품(日用品) 및 부식물(副食物)의 공급실태

최대의 노력 동원을 위한 각 가정의 부녀자(婦女子)까지도 완전 노동에 참여시킴에 따라 여성(女性)을 해방시킨다는 구실로 「밥 공장(工場)」까지를 동(洞) 단위로 만들어 놓고 있으나 밥을 지어주는 공임(工賃)이 kg당 10전으로 kg당 8전 하는 식량 배급가격보다 비싼 결과를 나타내어 또 하나의 수탈수단으로 지목받고 있다. 부식물(副食物)은 대부분 조리되어 있는 것을 조금씩 사다 먹어야 하며 육류(肉類)는 사서 먹을 수는 있으나 너무 비싸 평소에는 사 먹을 엄두도 내지 못하며 김일성(金日成)이나 김정일(金正日) 생일(북한(北韓)에서는 최고의 명절로 꼽는다) 때나 특별히 나오는 고기를 먹어볼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식량 사정과 부식(副食) 사정의 악화는 비단 주민(住民)들뿐만 아니라 휴전선에 배치된 군인(軍人)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하도 배가 고파 자기 분대장(分隊長)의 밥까지를 훔쳐먹고 겁이 나서 월남해왔다는 어느 귀순 용사의 말은 북한(北韓)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각종 학력(學力) 동원 실태

북한(北韓)에서의 노력 동원이란 여러 종류의 노동력을 아무런 보수도 지급하지 않은 채 동원하는 것을 뜻한다. 즉, 직장근무시간과 협동농장 작업시간을 제외한 노동자, 농장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작업연장동원과 타직종(他職種)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학생, 군인, 가두 여성(女性)들의 노력 동원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노력 동원의 형태는 학생, 사무원, 군인들의 농촌지원 전투, 공장과 농장들에서 벌어지는 기본 노동시간의 보수 및 복구작업 동원, 파지(破紙), 고철(古鐵)수집과 토기 기르기 등의 동원, 경쟁운동과 돌격전에 의한 노동시간의 동원 등 다양하다.

북한(北韓)지역에서 사무원들의 연간(年間) 의무노력 동원일은 40~50일이며 고등중학생 10주간, 대학생 12주간으로 되어 있다.

북한(北韓)은 특히 부진(不振)한 경제계획과제의 완수와 긴급한 봉사들을 기한 내에 해내기 위하여 노동력이 왕성한 청년들로 「돌격대」란 것을 조직, 각급 작업장에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4대(大) 자연개조사업」, 즉 20만 정보 새 땅 찾기, 30만 정보 간석지개간, 남포(南浦) 갑문(閘), 태천(泰川)발전소에 이들 「청년돌격대」를 앞장 세워 공사의 조기완공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이는 전시(戰時)에 돌격전투를 할 때와 같이 사력(死力)을 다해 일하라는 것으로서 노동 강도(強度)는 극한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北韓)은 단위시간에 노동 강도를 극대화(極大化)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극한적으로 짜내기 위한 수법으로 이른바 「사회주의 경쟁운동」이란 것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운동은 개인별, 작업 분조별, 작업반별, 직장별, 공장, 기업소별로 전개되고 있는데 전후(戰後)에 이를 복구하기 위해 시작한 「천리마 운동」 이후 그 종류와 명칭도 다양화되고 있다. 현재 북한(北韓)에서는 「3대(大) 혁명(革命) 붉은 기 쟁취운동」「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새 기록, 새 기준 창조 운동」「80년대(年代) 속도창조 운동」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쟁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북괴(北傀) 선전매체들은 이 같은 운동들이 모두 김정일(金正日)에 의해 발기, 운영되고 있다고 요란하게 떠들고 있다.

개인의 자산(資産) 소유가 금지되고 있는 북한(北韓)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작업능률의 향상(向上)을 높이기 위해 「속도전, 섬멸전, 전격전」 등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각종 구호들을 내걸고 북한(北韓) 주민들의 노동력 제고(提高)에 안간힘을 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 2중 3중의 감시망과 통제, 매일같이 부과되는 과중한 작업량 완수에 북한(北韓) 주민들은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정일(金正日)의 사병격(私兵格)인 이른바 「3대(大) 혁명소조원(革命小組員)」들이 각급 공장, 기업소 등 생산단위는 물론 북한(北韓) 각지에 파견되어 사상감시는 물론 노동력을 높이기 위해 채찍을 가하고 있어 팍팍한 생활과 함께 북한(北韓)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북한(北韓) 주민들은 북괴(北傀)가 입버릇처럼 떠드는 「김일성(金日成)·김정일(金正日)의 명령 없이는 죽을 권리도 없다」라고 하듯 그야말로 인간 생지옥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임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 안전사고(安全事故) 방지(防止)로 전력증강(戰力增強)을



민 영 기(閔榮基)

〈공군본부〉군무사무관(軍務事務官)

우리는 안전사고(安全事故)로 인해 해마다 많은 인명(人命) 및 재산손실(財産損失)을 초래(招來)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安全事故)에 대(對)해서 한때, 일부인사(一部人士)들은 사고(事故)라는 것은 필연적(必然的)인 것이며, 그것을 방지(防止)한다는 것은 불가능(不可能)한 일이라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다. 사전(辭典)에도 사고(事故)란 얘기(豫期)할 수 없는 일이라고 기술(記述)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全的)으로 정확(正確)한 정의(定義)가 되지 못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왜냐하면 사고(事故)란 우연히 발생(發生)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어떤 원인(原因)에 의해서 발생(發生)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고(事故)의 원인(原因)에는 두 가지 요소(要素)가 있다 하겠다. 즉(卽) 불안전(不安全)한 행동(行動)과 불안전(不安全)한 조건(條件)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불안전(不安全)한 행동(行動)이라는 것은 모든 원칙(原則)을 벗어난 불합리(不合理的)하고 무리(無理)한 행동(行動)을 말하며 불안전(不安全)한 조건(條件)이란 것은 불안전(不安全)한 물리적 조건(物理的 條件)과 기계적 조건(機械的 條件)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고(事故)의 원인(原因)은 늦게나마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사전(事前)에 취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사고(事故)를 방지(防止)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措置)란 계획적(計劃的)이며 조직적(組織的)인 안전업무(安全業務)의 확립(確立)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세 가지의 기본적(基本的)인 필수요건(必須要件)이 있는 것이다.

첫째, 가장 중요(重要)한 필수요건(必須要件)은 전부대(全部隊)의 지휘관(指揮官)과 감독(監督)들이 사고방지(事故防止)를 위한 책임(責任)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임(責任)은 지휘관(指揮官)이나 감독관(監督官)들에 대한 과외의 책임(責任)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휘관(指揮官)에게 부과(賦課)된 전체적(全體的)인 책임(責任)의 일부(一部)인 것이다. 지휘관(指揮官)과 감독관(監督官)들의 적극적인 지원(支援)과 술선수범 없이는 사고(事故)를 미연(未然)에 방지(防止)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안전사고 방지(安全事故 防止)를 위해 각자(各自)의 책임(責任)을 충분(充分)히 이해(理解)하며 이 업무가 그들 자신의 안전(安全)을 위한 업무이며 그들 부하(部下)들의 안전(安全)과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裝備)와 물자(物資)의 안전(安全)을 위한 업무라는 것을 충분(充分)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셋째, 모든 사람이 안전(安全)에 대한 흥미를 창조 유지(創造 維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안전사고방지(安全事故防止) 요건(要件)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모든 안전사고(安全事故)는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고(事故)의 원인(原因)은 뚜렷하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때 불안전(不安全)한 행동(行動)과 불안전(不安全)한 조건(條件)을 과감(果敢)히 제거(除去)하는 동시에 합리적(合理的)이고 규칙적(規則的)인 생활(生活)을 한다면 모든 안전사고(安全事故)는 미연(未然)에 방지(防止)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결론(結論)이며 우리는 힘을 모아 제반사고(諸般事故) 미연방지(未然防止)에 힘써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안전사고로 인해 야기되는 대표적 안전사고 몇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겨울철의 화재사고(火災事故)이다. 특(特)히 불이란 겨울철과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關係)에 놓여 있다. 군대에서의 내무반 또는 식당 그리고 창고 심지어는 특수초소(特殊哨所)에까지도 난로를 피우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자칫 실수하면 화재사고(火災事故)를 당하게 된다. 누구나 춥다 보면 난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규정(規程)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상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그마한 실수가 귀중(貴重)한 인명(人命)을 앗아가게도 하고 또 땀 흘려 부모(父母)가 바친 세금(稅金)으로 마련한 장비(裝備) 및 보급품(補給品) 기타 값비싼 재산(財産)을 하루아침에 날려 보내는 결과(結果)를 초래(招來)하게 한다. 불의 종류(種類)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즉(卽), A급(級) 불은 나무나 기타 화재(火災)(일반적으로 가연성 물질(可燃性 物質)), B급(級) 불은 휘발유 및 기타 각종(各種) 유류화재(油類火災), C급(級) 불은 전기화재(電氣火災), D급(級) 불은 동력부분(動力部分) 자체(自體)의 과열(過熱)로 일어나는 화재(火災)[각종 기관(各種 機關) 모터, 발전기(發電機)]가 모든 불의 종류(種類)는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이 관계(關係)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화기안전수칙(火氣安全守則)을 간추려 알아보자.

① 인화물질(引火物質)을 격리(隔離)하자 : 각종 인화성 물질(各種 引火性 物質)은 화기(火氣)와 최소한 50m 이상 격리해서 보관(保管)하고 (휘발유, 알콜, 페인트 등) 난로 주변 침대는 2m를 격리(隔離)해야 할 것이며 방열과 내부 또는 주변에 세탁물 기타 인화성 물질 접근을 금해야 한다.

② 난로 설치 요령(要領) : 난로 설치하는 건물과 최소한 1.5m 이상 격리 설치하고 난로 주변에 인화물질 접근을 금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대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연 통에 불꽃이 센 구멍이 없는가를 확인(確認)하고 연결 부분이 탈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N”형 핀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철사줄로 고착시켜야 한다.

③ 난로사용 요령 : 연료(유류(油類)난로)는 카브레터 5도 이상 초과하지 말고 과열시키지 말 것이며 난로에는 난로사용 및 점검책임자를 임명하여 수시로 불안정한 난로 상태 및 사용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에서 겨울철에 발생빈도가 많은 화재사고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면 다음엔 군(軍)에서 가장 주축(主軸)을 이루고 있는 차량사고(車輛事故)에 대해 알아보자.

군(軍)에서 사용(使用)하고 있는 차량(車輛)은 군 기동력(軍 機動力)의 주축(主軸)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요성(重要性)에 대해서는 세삼 논(論)할 필요(必要)가 없다고 본다. 이 중요(重要)한 기동력(機動力)인 차량(車輛)이 전(全) 안전사고(安全事故)의 36.2%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군(軍) 전력증강(戰力增強)에 많은 지장(支障)을 초래(招來)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因)한 물적(物的), 인적 손실(人的 損失)은 막대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귀중(貴重)한 인명(人命)을 빼앗아 가고 재산(財産)을 손상(損傷)시키는 차량안전사고(車輛安全事故)는 과연 미연(未然)에 방지(防止)할 수 없는 필연적(必然的)인 사실로만 생각할 것인가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확신(確信)한다. 모든 차량(車輛)의 사고는 우리 인력(人力)으로 충분(充分)히 방지(防止)할 수 있다는 사실을 뚜렷이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努力) 없이 요행만을 바라고 차량안전사고(車輛安全事故)를 없애겠다는 심산은 큰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모름지기 사고(事故)를 미연(未然)에 방지(防止)하기 위해서는 감독관(監督官)(수송장교(輸送將校) 및 하사관(下士官))은 감독관(監督官)대로, 그리고 정비병은 정비병대로 또한 운전병(運轉兵)은 운전병(運轉兵)대로의 그 맡은 바 책임(責任)과 임무(任務)를 성실히 수행할 때 모든 사고는 비로소 감소 내지는 전무(全無)하게 된다는 사실(事實)이다.

이렇게 감독관(監督官), 정비병(整備兵), 운전병(運轉兵)이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스스로의 책임(責任)과 임무(任務)를 100% 완수(完遂)하는 길만이 차량안전사고(車輛安全事故) 미연방지(未然防止)의 결정적 요소라 하겠다.

그러면 그 책임(責任) 하나하나를 고찰해 보면,

① 감독관(監督官)의 책임(責任) : 군(軍)에서 흔히 명령은 5%, 감독(監督)이 95%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명령만을 내리고 감독(監督)을 소홀(疎忽)히 하면 모든 작전(作戰)이 성공(成功)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強調)한 말이라 하겠다. 따라서 차량(車輛)의 감독관은 정비병 혹은 운전병에게 임무수행(任務遂行)만을 명령(命令)해서는 안 된다. 일단 명령을 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수행(遂行)할 것인가를 세밀하게 지시(指示)하는 한편 아울러 그것을 무사히 수행하려면 어

면 주의(注意)가 필요한가를 알려주는 등 부단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임무수행차(任務遂行次) 출동(出動)하기에 앞서 정비 여부를 확인(確認)하고 그날의 기후조건(氣候條件), 운행(運行) 거리 그리고 지리적 조건(地理的 條件) 등을 자상하게 운전병에게 알려주어야 함은 물론 운전병의 휴식상태, 근무 의욕 등 다방면(多方面)으로 관찰해서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를 위하고 군(軍)을 위하고 나아가 국가(國家)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감독관의 책임인 것이다.

「앗차」 실수가 보임은 물론(勿論), 전우의 생명(生命)을 빼앗고 국가재산(國家財産)을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함으로써 운전병으로 하여금 기어이 사고 없이 귀대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불러일으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② 정비병(整備兵)의 책임(責任) : 특히 기온이 강하하는 겨울철이면 모든 장비를 손질하는 빈도가 줄어들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산이다. 겨울철일수록 우리는 더욱 세심한 주의(注意)를 기울여 동계 장비정비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자칫 움츠리기 쉬운 동계기간 정비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분발해서 동파 방지, 부분품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운행시간 도중에 어떤 사소한 고장도 나지 않도록 철저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자기가 정비한 차량은 아무런 사고(事故) 없이 귀대케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전우애를 발휘해서 충분히 정비하고 조이고 닦아서 출동케 하는 마음가짐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만 하는 것이다.

③ 운전병(運轉兵)의 책임(責任) : 차량안전사고(車輛安全事故) 미연방지를 위해서 운전병(運轉兵)의 책임은 그 누구보다도 무겁고 크다 하겠다. 감독관의 부단한 교육과 감독도 중요하고 정비병(整備兵)의 세심한 정비기술도 무시할 수 없는 기본요소라 하겠으나 뒤편해도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병의 끊임없는 주의력(注意力)과 기술(技術), 그리고 제반 안전수칙(諸般安全守則)을 생활화(生活化) 함으로써만이 안전사고(安全事故)는 근절(根絶)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운전병은 출동전(出動前)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한다. 눈뜨고 존다는 말이 있다. 자기가 어떻게 운전하고 있는가조차 모를 정도로 피곤한 가운데 운전을 계속할 때 사고도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다. 충분(充分)한 휴식, 사전점검(事前點檢), 과속(過速)을 피한 철저한 예비운전 등은 모든 운전병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安全守則)인 것이다. 이렇게 차량사고 근절(車輛事故 根絶)을 위해서는 감독관, 정비병, 운전병이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나만이라도 절대로 사고(事故)를 내지 않겠다는 확고(確固)한 신념(信念)을 가지고 임무(任務)에 임한다면 모든 안전사고(安全事故)는 능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결론적(結論的)으로 우리 군(軍)은 오직 가용한 모든 여건과 자원(資源)을 경제적(經濟的)으로 운영(運營)하여 전력증강(戰力增強)에 기여하고 정예화(精銳化)된 군 육성(軍 育成)에 중점(重點)을 두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는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제아무리 막강한 군대라고 해도 위에서 말한 화재사고(火災事故)나 차량사고(車輛事故) 등(等) 갖가지 안전사고(安全事故)

가 연발한다면 기강(紀綱)은 해이(解弛)해지고 전투능력(戰鬪能力)은 자연 감소 현상(減少 現狀)을 나타내게 마련이다. 겨울철 흔히 발생(發生)하기 쉬운 제반안전사고(諸般安全事故)를 미연에 방지(防止)하는 데 있어서 장병(將兵) 모두는 스스로 내가 먼저 참여한다는 정신자세(精神姿勢)가 필요(必要)하며 또한, 모든 사고(事故)의 예방은 장병(將兵) 스스로가 자율적(自律的)으로 그리고 생활화(生活化)한다는 적극적(積極的)인 기풍(氣風)이 조성(造成)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안전사고 예방(安全事故 豫防)을 위해 어떤 특출한 일을 했다면 그것을 개인의 미담이나 상징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그치거나 치하(致賀)하는 것만으로 돌리지 말고 그것을 하나의 부대 기풍(部隊 氣風)으로 만들어 전장병(全將兵)이 다 같이 그와 같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 나귀의 허세를 시험한 호랑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단한 실력이나 있는 듯이 뽐내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세히 뜯어보면 오히려 실속 없는 허세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중국의 귀주성을 금이라고도 불렀다. 원래 이 금에는 나귀가 없었다. 그런데 어떤 호사가가 나귀 한 마리를 이 고장에 끌고 왔다. 나귀는 처음에 산 밑에 있었는데 나귀를 본 그곳 호랑이는 생전 처음 보는 동물이어서 매우 불안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그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서 굴속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를 자주 듣고 보니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슬금슬금 나귀에게로 가까이 갔다. 나귀는 화가 나서 호랑이를 한 번 걷어찼다.

호랑이는 나귀에게 한 번 걷어차여 보니 생각한 것보다 힘이 약한 것을 알고 더욱 깔보게 되었다. 나귀가 몸집은 크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서는 얼마 뒤에 곧 잡아먹고 말았다.

## 신앙생활과 군 정신 전력(軍精神戰力)



유 범 성

〈대한불교 종계국 연화사〉 주지

### 1. 신앙생활의 필요성

군대를 이룩하는 요소에는 인원(人員), 장비(裝備), 전기(戰機) 등 세 가지가 있다고 본다. 이들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 즉 병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수한 장비도 우수한 인원이 있어야 그 위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우수한 병력은 우수한 전기를 창안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원이란 타고날 때부터 일사불란한 훈련을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닌 저마다의 사상적 배경이 다르고 삶의 자세가 다른 여러 사람을 모아서 이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목적하는 바를 향하여 매진할 수 있는 힘을 발휘케 하려면 흐트러지지 않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을 위해서 군에는 계급과 직책이 부여되는 것이다. 여기에 전우애(戰友愛)가 가미된다면 계급과 직위는 수직적인 조직력이 되고 전우애는 수평적인 조직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에서 강한 전투력을 도출해 내는 데는 이 조직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먼저 군의 근간이 되는 개개인의 완성이 필요하다. 개인이 모여서 단체가 되는 것처럼 군인이 모여 부대가 되는 것인즉 한 사람 한 사람의 군인이 강하면 부대 전체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군인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는 강한 군인정신이요, 둘째는 강인한 체력 연마이며, 셋째는 우수한 전기를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어떤 어려운 훈련도 감내해 내며, 어떤 치열한 전투에서도 견디어 내는 신체훈련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정신무장이라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정신무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급 부대마다 그 부대 지휘관의 지휘지침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개 「정신전력 강화」나 「군인정신 함양」과 같은 군의 정신무장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저마다의 사상을 지니게 마련이고, 그 사상은 인간 행위를 지배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 사상이 바르면 행위도 바르게 되나 그 사상이 바르지 못하면 그 행위도 바르지 못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군인에게는 항상 무기가 주어져 있어 그에게 바른 사상이 심어지면 국토를 방위하는 애국 병사가 되지만, 바르지 못한 사상과 인간성을 지니게 되면 그 충구를 선량

## 신앙생활과 군 정신 전력

한 시민에게 항하게 되고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올바른 사상을 지니지 못한 젊은이에게 막대한 경비를 들여 군인으로서 필요한 훈련을 시키고 무기까지 준다면 결국은 미친 사람에게 무기를 주는 것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군인에게 올바른 사상과 성실한 인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필요하며 보이는 물질전력이 보이지 않는 정신전력(신앙)의 튼튼한 기초 위에 서게 됐을 때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 2. 신앙생활과 사생관

종교적 바른 신앙은 확실한 인생관을 확립한다.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생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 해답은 오직 바른 신앙에서만 얻을 수 있다. 왜 인생은 방황하며 회와 실망에 빠지는가? 올바른 인생관 나아가서는 바른 사생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으로 인생관을 바로 깨닫고 사생관을 확실하게 가지면 첫째 생에 대해서 감사와 외경심을 갖는다. 우리 인간은 의미 없이 주어진 생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 포기 들꽃도 나고 죽음에 뜻이 있고, 나는 새 한 마리에게도 사는 가치가 부여되었거늘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야 얼마나 깊은 의미와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가진 생은 가장 귀중하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단 한 번 주어진 단 하나의 귀한 생명임을 알 때 어찌 부질없는 허무함에 사로잡히며 생을 저주할 수 있단 말인가? 구름을 뚫고 빛나는 태양과 같이 온갖 인간고(人間苦)에 에워싸다고 하더라도 빛나는 생명은 조금도 그 빛을 잃을 수가 없다. 우리의 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종교적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신앙은 우리를 외롭게 살게 하고 깨끗하고 보람을 느끼고 죽도록 한다. 그리고 보다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신앙은 죽어도 사는 삶과 영원히 사는 해탈을 약속받는다. 신앙으로 갖추어진 인생관 내지 사생관은 우리를 가장 용기 있고 슬기 있는 군인으로 만들어 주며 신앙생활은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시키고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의 자세, 즉 윤리관을 세워지고 신앙을 통한 사생관을 확립시켜 죽음을 초월한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지니게 한다. 그러므로 정신전력을 위해 신앙생활을 보다 권장하고 보다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생활화하여 우리 장병들에게 일기당천 필승의 신념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고종 23년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여 국난을 극복하였던 역사는 신앙생활을 통한 정신무장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하는 좋은 예인 것이다.

임전 태세 완비와 전투력 강화를 위하고 정신무장 강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군내에서의 신앙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역사의 새로운 장을 맡을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정신무장을 시켜야 할 것이다.



### 3. 신앙과 정신전력

「듀르케임」은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 하였고, 「프르탁」은 나는 정부를 조직하지 못한 백성과 도시와 법률을 가지지 못한 민족을 많이 구경했으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한 백성이나 민족을 본 일이 없다고 하였다.

지진이 많은 일본의 관동지방에서 1923년 9월 1일에 대지진과 화재가 일어나 피복창 광장에서 4만 명이 폐죽음을 한 일이 있었다. 그중에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부처님을 찾더라고 하였다.

신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첫째, 해탈을 통한 영원한 삶이다. 우리 인간이 인간의 무상함을 여실히 알아 집착과 탐욕에서 해탈해서 재미나 공명보다 영원한 진리와 함께 진리대로 사는 삶과 조국과 민족을 위해 값있고, 영광되게 사는 삶이 있다. 우리는 이 삶을 죽음에 없는 삶이며 영원한 삶이라고 한다. 즉 인류와 조국과 겨레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군인은 후자의 삶을 말할 것이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다. 국가방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특히 내외 적의 침략 위협을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활동을 맡고 있는 것이 군인이다.

우리는 민족의 자유와 국가보존을 위해 많은 피를 흘려 왔고 싸워왔다.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을 쓰고 용감하게 적을 물리쳤던 민족은 존속하여 번영을 누렸고 국방을 게을리하고 외부의 침략을 물리치지 못한 민족은 국가의 멸망에 따라 그 민족도 소멸되고 말았던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강인한 체력과 투철한 애국정신을 겸비한 군인은 「국력의 상징」이다. 승리는 군인의 궁극적 목표이다. 예리한 지력과 강건한 체력을 길러 슬기로운 승리를 쟁취할 「군인관」을 올바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군인은 병들어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가름하는 전쟁터에서 불멸의 공을 세우고 죽는 것이 최대의 영광이며 자랑인 것이다.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각오해야 하며 때로는 초계와 같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생에 대한 애착을 갖게 마련이다. 그러나 자신의 안일을 위해 삶을 추구하기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룩한 죽음이 군인에게 필요한 것이다. 겨레와 나라를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떤 역경에 처해 있더라도 선뜻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태연하게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가 바로 해탈을 통한 영원한 삶이면 이것은 바로 불교적 신앙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을 때 비로소 확립되는 것이다.

둘째, 참된 평안이다. 술이나 여자나 기타의 향락으로 얻어지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못되며 오래 가지도 못하나 참된 신앙을 통하여 얻어지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다.

셋째, 희망을 주며 인간변혁을 일으킨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무너지기 쉬우나 부처님을 통한 신앙적 소망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통하여 인간성을 변혁시킬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의 승패는 신앙을 주축으로 하는 정신무장의 강도에서 좌우됨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신앙성은 전투 행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그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투의 요소가 되는 군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며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나아가 국제평화 유지에 공헌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그중에 하나라도 위협이나 침략을 받을 경우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야 한다. 전쟁터에 나가서는 군인이라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것의 의미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실존들인 것이다.

「죽음」이라는 말이 평소에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단어에 불과하던 것이 전쟁터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협하게 되며 「생명」이란 말이 가장 흔하게만 들리는 단어이던 것이 그곳에서는 가장 의미 있고 귀하게 여겨져서 인생을 보람 있고 값있게 보내야 하겠다고 느끼게 된다. 그럴 때 신앙은 삶에는 가치를, 죽음에는 의미를 부여해 주고 용기를 불어일으켜 준다.

국토방위의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장병은 부조리, 나태, 퇴폐적 사고방식, 비생산적 요소를 과감하게 버리고 참된 믿음을 통하여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임전 태세를 가다듬어 선진조국의 선두에 서서 전진해야 하겠다.

#### 고사·일화

##### 기발한 광고

유명한 소설가 W.S. 모옴이 문단에 데뷔했을 무렵, 그의 소설은 별로 인기가 좋지 않았다. 출판업자들도 그의 소설에 대해선 더이상 선전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저자 모옴은 자기 스스로 특수한 방법의 선전을 고안하여 출판업자를 놀라게 하였다. 즉 그는 런던의 각 신문에 가명을 써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냈다.

「본인은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교양이 있으며 또한 온화한 성품의 사치한 기질의 젊은 백만장자입니다. 모든 점에서 W.S. 모옴의 최근작에 등장하는 여주인공과 꼭 같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의 결혼을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광고가 발표된 지 6일 후에는 그의 소설이 완전히 매진되었다 한다.

## 독심술과 대인관계(對人關係)



민 재 훈

〈국방부 인사국〉 사무관(事務官)

사회생활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는 현대의 오늘날, 대인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일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며 때로는 결정적인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도 한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란, 따지고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으로부터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싹이 트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토록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뜻하는 바를 쉽게 이룰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갑자기 생면부지의 사람과 첫 대면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 옷차림, 얼굴 생김새, 표정의 변화, 몸짓 등등, 극히 미세한 점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의 변화와 심리상태를 재빠르게 읽어보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 1. 옷차림, 소지품으로 본 성격판단

누구나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우선 얼굴, 다음에는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소지품에서 대강 짐작을 하기 마련이다. 옷차림이나 소지품이 자아의 연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것들이 본인에 의해 선택되고 몸에 지녀짐으로써 더욱 그 사람다운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는 말하자면 본인의 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옷차림이나 소지품은 단순히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취미와 성격까지 표현한다. 이를테면 성실한 성격의 사람은 그 옷차림도 빈틈없이 단정하며 사물에 구애되지 않는 성격의 사람은 옷차림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며 아무렇게나 걸치고 나왔다는 투의 인상을 준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단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경제상태, 환경 등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옷차림에 추호의 빈틈이 없는 사람이 있다. 고급외제 양복지에 실크넥타이, 구두도 카아프나 키드의 외제품이며 악어가죽 허리띠에 시계는 스위스제이고 안경테 역시 이탈리아제의 최고급, 거기에 신사용 화장품을 써서 향수 냄새를 풍기는 사내, 이런 인물은 우리 군에서는 없을 것이나, 사회의 주변엔 간혹 있게 마련이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공통된 성격과 심리가 있는 듯하다.

이를테면 옷차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취미의 범위가 좁은 듯하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기를 장식한다는 의식이 강하여 외관을 꾸밈으로써 남보다 심리적 우위의 입장에 서서 내부의 약점을 커버하려는 일면이 있다.

그 약점이라는 것은 육체적 콤플렉스일 수도 있고 여성 콤플렉스나 욕구불만 따위일 수도 있다. 또한, 성격적으로도 호탕한 개방형이 적고 신경질, 소심증, 내향형 등이 대부분이며 머리칼이 흐트러지거나 담배재, 넥타이의 매듭 같은 것에 극단적으로 신경을 쓰는 타입이다.

그러나 하면 어엿한 부인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속옷은 모두 자신이 빨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결벽성을 지닌 사람도 있다. 이러한 것은 더럽혀진 것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극심한 결벽성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대개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자기도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자기 맡은 일은 결코 남에게 맡기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일관성을 지닌 사람이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옷차림이나 소지품을 택할 경우 우선 빛깔부터 정하는 사람과 형태를 보고 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빛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명량하고 사교적인 타입이거나 약간 자제심이 빈약하고 감정적인 성격이 많다. 심리학에서는 조율성의 기질, 외향성 기질이라고 부르는 성격이다. 물건을 고를 때 빛깔이 마음에 들었으니 모양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겠다고 하는 타입이며 항상 빛깔에 우선권을 둔다. 모양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성적이고 사교성이 빈약한 내향형 타입이다. 심리학에서는 분열성 기질, 내향형 기질이라고 부르며 물건을 고르는 것도 빛깔보다 모양에 중점을 두고 모양만 마음에 들면 빛깔이 불만스러워도 그것을 사게 된다.

이상과 같이 빛깔에 대한 관심이 강한 타입과 모양에 관심이 강한 타입이 있는데 이 경향은 옷차림이나 소지품에 대해서도 반응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격판단에 좋은 재료가 된다.

### 2. 표정으로 본 판단

「눈은 마음의 창이니」 「눈은 입에 못지않게 말을 한다」는 표현이 있듯이 인간은 그때그때의 마음의 움직임이 눈에 반영된다.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말로 하기보다 빨리 눈에 반응하는 것이 인간이며 이것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 아무리 말로는 반대되는 소리를 해도 눈이 찬성하고 있는 수가 있으며 말로는 그럴듯한 소리를 해도 눈이 진실이 아님을 나타내는 수가 있다.

#### 가. 먼 데를 보는 눈

대화 중에 상대방이 이따금 이런 눈이 되었될 경우, 상대방은 당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지 않거나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수가 많다. 그것이 중요한 거래의 상대방이라면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거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작전 따위를 궁리하고 있는 터이다.

또한, 이해관계가 없는 상대였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거나 별도로 마음을

쓰는 무엇인가가 있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러한 눈길을 했을 때는 이쪽에서 솔직하게 무슨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 좋다.

나. 평소보다 움푹 팬 느낌이 드는 눈

비교적 친한 상대방이라도 이런 눈과 마주칠 경우가 있으며 초대면의 사람이라도 대담 중에 이런 눈을 순간적으로 보이는 수가 있다. 이 눈의 정체는 주로, 의혹, 오해, 죄의 경계 불신을 나타내는 눈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가까운 사이인데도 이런 눈을 했을 경우에는 당신의 부재중에 중상이 있어 오해를 하거나 불신감을 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상대방은 완전히 오해하여 경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지 못하는 단계에 있을 때의 눈인 것이다. 상대방이 이런 눈을 했을 때는 당신이 불신이나 경계를 품게 한 원인을 생각해 보고 오해를 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 콧구멍이 벌렁거릴 때

대담 중의 상대방이 희미하게 콧구멍을 벌렁거릴 때는 당신에 대해, 만족, 불만, 감정의 억제 등과 같은 마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수가 많다. 흔히 사람은 콧구멍이 확대될 때는 노여움이나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흥분이나 긴장 상태가 되면 호흡과 가슴의 동계가 빨라지게 때문에 콧구멍이 확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콧숨이 세다는 따위의 표현은 우쭐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역시 일종의 흥분 증상이라고 하겠다.

상대방의 이러한 코의 움직임이 우쭐해서 신바람이 나 있느냐 또는 불만이나 노여움의 감정을 억제하고 있느냐는 대답하는 상대방의 갖가지 반응으로 판단해야 옳을 것이다.

라. 메마른 입술

평소에 입술을 잘 빠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야 별도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입술을 자주 빠는 것은 흥분이나 긴장으로 인한 속마음의 동요를 억압하고 있을 경우이다. 이를테면, 남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이 언급되거나 거짓말을 할 때, 갑자기 입안이 말라 냉수를 마시거나 입술을 떤다.

형사사건의 범인이 취조를 받으며 태연한 체할 때 흔히 이런 상태가 된다. 인간은 마음속에 동요가 있고 더구나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노력할 경우,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목이 타거나 발한작용(發汗作用), 가벼운 호흡 발진 등이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상대방이 입술을 자주 빨 때는 이마나 손바닥 같은 데에 땀이 촉촉이 배어있지 않는가, 또는 생 침을 삼키지 않는가 하는 것 등을 아울러 관찰하는 것이 좋다.

3. 언어 동작으로 본 판단

가. 평소 말이 없는 사람이 능변이 되었을 때

이것은 흔히 경험하는 일인데 누구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면 평소보다 말수도 많고 말도 경

쾌해진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분명한 이유도 없이 말수 적었던 사람이 능변이 되었을 때는 마음속의 불안이나 동요를 상대방에게 눈치채이지 않도록 하려고 반동적으로 걸꾸미는 수가 많다.

즉,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가 이끌어 언급되고 싶지 않은 화제로부터 일부러 벗어나거나 되도록이면 본론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불안이나 동요에 대해, 불필요한 허세를 부리며 스스로 예방선을 쳐서 자기 자신의 기분을 속이거나 위로 하려고 한다. 이처럼 평소에 적었던 말수가 능변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심리적 불안이 반드시 다른 동작이나 생리적 변화 표정의 변화 등에도 나타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알기가 쉽다.

나. 정중한 말씨와 비꼬는 말투

평소의 말투와는 달리 지나치게 정중한 말씨를 쓰거나 때로는 비꼬는듯한 말을 하는 것은 마음속의 적이나 반감을 갖고 있는 수가 많다. 이것도 마음속의 적이나 반감의 반동적 표현으로서 그러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못할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과의 사이에 거리를 두려고 하는 심정이 나타나는 것이며 때로 비꼬는 투가 섞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경우 달리 나타나는 변화로서는 눈에 주의해야 하며 눈에서 친근감이나 부드러운 빛이 사라지고 약간 날카로워지거나 눈빛이 더욱 빛나기도 한다. 웃는 방법에도 자연스러운 여유를 잃거나 표정이 굳어진다.

다. 앞지르는 말이나 변명

이쪽에서 아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거나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잇따라 앞질러 말하거나 설명하고 변명하는 인물이 있다. 이러한 상태는 비교적 소심한 인간에게 많은데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나 비밀이 탄로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초조감을 견디지 못하고 또 상대방이 자기를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앞질러 말해서 예방선을 치거나 변명하여 빨리 불안한 기분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심리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에 이쪽에서는 오히려 의혹을 갖기 마련인데 그런 기색은 추호도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동조하며 맞장구를 쳐주면 상대방은 겨우 안심하여 침착을 되찾는다. 아무튼, 소심한 인간인 만큼 다른 면에서도 태도의 변화를 볼 수 있어 눈동자가 겹을 먹고 불안정하거나 태도조차 안절부절을 못한다.

라. 손의 움직임

손가락 끝으로 토닥거리며 무엇인가를 치고 있는 것은 마음속의 초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담배 끝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은 마음이 동요되고 있거나 긴장 또는 흥분하고 있는 것이며 또 부지없이 바지의 먼지를 털거나 손톱을 후비고 있는 것은 마음이 떠들떠 있음을 나타낸다.



## 충무공(忠武公)의 오자정신(五自精神)

김 덕 룡(金德龍)

오천년(五千年)의 유구(悠久)한 역사(歷史)를 통(通)해서 국가(國家)와 민족(民族)을 위기(危機)에서 구출(救出)하고 불후(不朽)의 영웅(英雄)으로서 민족적(民族的) 숭앙(崇仰)의 대상(對象)이 된 충의열사(忠義烈士)는 수(數)없이 많았건만 유독 이충무공(李忠武公)을 손꼽지 않을 수 없는 이유(理由)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침략(侵略)해 온 왜군(倭軍)을 무찌러 이 나라의 위기(危機)를 극복(克服)하기 위(爲)한 진충보국(盡忠報國)과 멸사봉공(滅死奉公) 때문만이 아니며, 또 세계(世界) 최초(最初)로 거북선을 제작하였기 때문만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충무공(忠武公) 이순신 장군(李舜臣 將軍)을 숭앙(崇仰)하고 추모(追慕)하는 보다 큰 이유(理由)는 공(公)의 구국(救國)에 대(對)한 공적(功績)과 더불어 공(公)의 가슴속 깊이 맥맥(脈脈)히 흐르고 있었던 구국정신(救國精神)과 민족의식(民族意識), 동포애(同胞愛), 그리고 두 번씩이나 옥고(獄苦)를 치르면서도 결코 모함(謀陷)한 자(者)들을 중상모략(中傷謀略)하지 않았던 마음가짐, 또한 자신(自身)을 가혹(苛酷)하게 다스린 국가(國家)를 원망(怨望)하기는커녕 2차(次)에 걸친 백의종군(白衣從軍)을 기꺼이 응낙하여 전선(戰線)으로 달려갈 만큼 숭고(崇高)하고도 고매한 인격(人格)에 자연(自然)히 머리가 수그러져 여기 충무공(忠武公)을 다시 한번 드러내 놓지 않고는 도저히 배길 수 없는 충동(衝動)으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動機)가 된 것이다.

### 1. 공(公)의 생애(生涯)와 주변정세(周邊情勢)

충무공(忠武公)께서는 이조(李朝) 인종 원년(元年), 서울 건천동 지금의 인현동에서 4형제 중(兄弟 中) 셋째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남달리 재주가 비범하셨고 병정놀이를 즐겨 하여 언제나 대장이 되어서 남을 지휘(指揮)하였습니다. 그러나 공(公)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활쏘기, 말타기보다는 글공부를 해야만 되겠다고 깨달아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感)은 없지 않으나 늦게 과거(科擧)에 응시(應試)하셨는데 역시(亦是) 문과(文科)보다는 무과(武科)를 택(擇)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궁술과 마술(馬術)에 뛰어난 공(公)은 결국(結局) 32세(歲)에 무과(武科)에 급제(級弟)하시어 동구비보(지금의 함경도)의 권관이라는 무관(武官)으로서의 관직생활(官職生活)의 첫발을 내디딤으로 우리나라 북쪽 끝에서부터 전라도(全羅道) 남단(南端)에 이르기까지 변방생활(邊方生活)이 연속(連續)되셨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공(公)은 국가(國家)를 위(爲)해서는 보직(補職)에 대(對)하여 아무런 불평(不平)도 없이 여러 곳을 전근(轉勤)하다가 공(公)의 춘추(春秋) 43세(歲)에 이르러 녹둔도(鹿屯島) 둔전관(屯田官)으로 봉직(奉職)하다가 이일이라는 자(者)의 모략(謀略)으로 파직되어 1차(次) 백의종군(白衣從軍)을 한 바 있으시며, 그러다가 47세(歲)에 그 당시(當時) 재상(宰相) 유성룡(柳成龍)의 천거(薦擧)로 전라좌수사(全羅左守使)(정삼품(正三品))의 벼슬까지 임명(任命)되셨지만, 공(公)께서는 비교적 험한 무관생활(武官生活)을 바탕으로 국가(國家)와 민족(民族)만을 위(爲)한 멸사봉공(滅私奉公)의 희생(犧牲)으로만 점철된 생애(生涯)는 우리의 값지고 보배로운 유산(遺産)인 것이다.

그때 우리의 국내사정(國內事情)은 어떠하였는가? 안으로는 조정이 부패(腐敗)하였으며 당쟁(黨爭)과 사화(士禍)는 계속되어 국론(國論)이 통일(統一)되지 못한 절박한 처지(處地)에 놓여 있었으며, 밖으로는 일본(日本)의 풍신수길(豐臣水吉)이란 자(者)를 시켜 침략(侵略)의 야심을 품고 명(明)나라를 지나가기 위(爲)한 길을 터 달라고 우리나라에 요청(要請)해왔으나 그 당시(當時) 우리는 힘을 없었지만, 문호개방(門戶開放)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조정에는 양론(兩論)이 대두되기 시작(始作)하였는데 하나는 일본(日本)이 대륙을 침략(侵略)해 온다는 주장(主張)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반대(反對)의 의견(意見)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정의 의논이 분분할 때에 공(公)께서는 오직 구국(救國)의 일념(一念)으로 국방(國防)을 강화(強化)하자고 상소하셨지만, 그 당시(當時) 공(公)의 간청을 누구 하나 귀담아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歷史)를 통(通)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 2. 임진왜란(壬辰倭亂)과 거북선

서기(西紀) 1592년(年)(선조(宣祖) 25년(年)) 임진년(壬辰年) 봄, 일본군(日本軍)은 소서행장을 선두로 20만(萬) 대군(大軍)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불법(不法)으로 침략(侵略)하는 이른바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는 처참한 7년(年) 전쟁(戰爭)이 발발하였던 것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당황하여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에 원균(元均)을 임명(任命)하고 그 밑에 충무공(忠武公)을 좌수사(左守使)로 임명하여 일본군(日本軍)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태(事態)는 이미 늦어 왜병(倭兵)은 부산(釜山) 상륙후(上陸後) 불과 18일(日) 만에 서울로 치달아 선조대왕(宣祖大王)은 평양(平壤)으로 천도(遷都)하여 잠시 난(亂)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평양성(平壤城)까지 함락당하는 쓰라린 역사(歷史)를 남기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때 공(公)께서는 전함(戰艦) 한 척(隻) 없음을 통탄(痛歎)하고 판옥선(板屋船), 뒤에 거북선이라 명명(命名)한 조그만 배를 천우신조로 제작(製作)하게 되었으니, 이 배의 전체(全體) 길이는 약(約) 5미터, 허리의 너비는 4.5미터, 높이 2.5미터 정도(程度)의 배로써 양쪽에 구멍을 뚫어 포탄이 나가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붕에는 널빤지를 거북의 비늘처럼 붙여서 이것이 후에 거북선이란 이름을 붙인 연유가 되었으며, 또한 이 배를 무섭게 보이기 위해 용(龍) 머리를 만들어 붙이고, 안에서 유황과 염초를 태워서 연기를 밖으로 뿜어내게 하였던 것이다. 노는 양쪽으로 열 개를 붙이고 빨리 움직이게 하였으며 34개의 대포(大砲) 구멍이 일시에 자열(灼熱)하도록 설계(設計)되었던 것이다.

충무공(忠武公)께서는 창의력(創意力)에 의(依)한 이 거북선을 제작(製作)하시어 1차(次) 해전(海戰)인 옥포(玉浦), 2차(次) 당포해전(唐浦海戰)을 승리(勝利)로 이끌고 임진란(壬辰亂)의 전환점(轉換點)이 되었던 3차(次) 해전(海戰)인 한산도대첩(閑山島 大捷)에서 일본군(日本軍)을 후방(後方)으로 유도한 다음 우리 수군(水軍)으로 하여금 바다의 밑물을 이용(利用)하여 갑자기 뱃머리를 돌리게 하고 진격해 나가는 바람에 일본군(日本軍)은 풍비박산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육전(陸戰)은 일본군(日本軍)이 우리나라 전역(全域)을 뒤흔들었으며 오직 해전(海戰)에서만 승리(勝利)하여 선조대왕(宣祖大王)은 공(公)의 공적(功績)을 치하하고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로 영진(榮進) 시키셨던 것이다. 충무공(忠武公)의 창의(創意)와 개척정신(開拓精神)이 최고도(最高度)로 발휘(發揮)된 것이 바로 거북선의 창제(創製)인 것이며, 이는 공(公)의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精神)이요, 또한 새길을 뚫고 가는 개척정신(開拓精神)이었다.

### 3. 원균(元均)의 모함(謀陷)

그러자 원균(元均)은 상관(上官)의 직위(職位)에서 부하(部下)로 전락(轉落)하게 되어 자신(自身)을 부끄럽게 여기고 공(公)의 명령(命令)을 거역하자 원균(元均)을 충청병사(忠淸兵使)로 전보(轉補)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원균(元均)의 감정(感情)은 더욱더 나빠지고 정유재란시(丁酉再亂時)에는 장군(將軍)이 작전상(作戰上) 출전기일(出戰期日)을 늦추고 출전(出戰)치 않자 왕(王)의 명령(命令)을 거역한다고 원균(元均)은 공(公)을 평소(平素) 시기하던 대신들과 짜고 모함(謀陷)하여 공(公)을 옥(獄)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게 하였던 것이다.

이후(以後) 다시 원균(元均)이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가 되었지만 역시(亦是) 방탕한 생활(生活)과 근무 태만으로 왜군(倭軍)에게 칠천량 해전(海戰)에서 대패(大敗)하여 역사(歷史)의 오점(汚點)을 남기고 수군(水軍)을 지리멸렬(支離滅裂)하게 하였으니 이 또한 통탄(痛歎)할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라.

### 4. 거룩한 최후(最後)

이때 조정에서는 다시 장군(將軍)을 석방하여 출전(出戰)토록 명(命)하고 패잔병 일부(一部)와 배 겨우 12척(隻)밖에 없었으나 공(公)께서는 그 용맹(勇盟)과 지략(智略)으로 작전(作戰)을 펴서 왜선(倭船) 수백 척(隻)을 단숨에 쳐부숨으로써 병사(兵士)의 사기(士氣)는 다시 중천하고 백성들도 농사(農事)를 마음 놓고 짓기 시작(始作)하였던 것이다. 그 후(後) 공(公)은 또 노랑 앞바다에 나가 사력을 다하여 싸웠으나 불행(不幸)히도 적탄에 맞게 되지만 공(公)께서는 죽는 순간(瞬間)까지도 국가를 먼저 생각하여 방패로 자신(自身)의 몸을 가리고 부하(部下)들에게「내가 죽더라도 싸움이 끝날 때까지 발표하지 말라」라는 마지막 구국(救國)의 사명감(使命感)으로 한 마디 당부를 남기신 채 한(恨) 많은 53세(歲)를 일기로 세상(世上)을 하직하셨으니 호애재라! 거룩한 님이여! 이렇듯 자기(自己) 역할(役割)에 최선(最善)을 다하고 성실(誠實)하게 군무(軍務)를 수행(遂行)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나라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진정한 애국혼(愛國魂)이 어디 있겠는가?

후에 조정에서는 공(公)의 전사 소식(戰死 消息)을 접(接)하고 애식(哀惜)히 여긴 나머지「충무(忠武)」라고 호를 내리시고 집에는「충신지문(忠臣之門)」을 세워 길이 추모토록 하였으나 공(公)은 이미 유명을 달리하셨고 이리하여 한(恨) 많던 7년간(年間)의 임진란(壬辰亂)은 드디어 종말(終末)을 고(告)하였던 것이다.

「이 원수(怨讐)를 무찌른다면 죽어도 유한(遺恨)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함상(艦上)에서 두 무릎을 꿇고 비장(悲壯)한 각오(覺悟)로 하늘에 기원(祈願)을 올린 공(公)은 최후(最後)의 노랑 해전(露梁海戰)에서 국가(國家)와 민족(民族)을 위(爲)하여 싸우다 갔다.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은 한 보잘것없는 가난한 선비의 집안에서 태어나, 갖은 고난(苦難)과 수모(受侮)를 받아가며 웅게 생애(生涯)를 마친 인류(人類)의 의표(義表)로서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되는 위업(偉業)과 교훈(教訓)을 남기셨다.

### 5. 5자정신(五自精神)

지금까지 서술(敘述)한 바와 같이 충무공(忠武公)께서는 너무나 고귀(高貴)한 가치관(價値觀)을 지니시고 우리에게 교훈(教訓)을 주셨으니 그 깊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되었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覺悟)를 다짐하게 하셨던 것이다. 과거(過去) 200여 년 전(餘年前)의 국난(國難)의 극복(克服)과 불안(不安)을 뚫고 간 산 역사(歷史)의 교훈(教訓)을 세월(歲月)이 흘러갔다고 버릴 수는 없지 않는가? 이제 우리는 비로소 국민총화(國民總和)가 이룩되고 경제성장(經濟成長)이 고도(高度)로 발전(發展)되어가고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자조(自助), 근면(勤勉), 협동(協同)하는 새마을정신(精神), 의식개혁운동(意識改革運動)을 보다 확고(確

固)히 다져 나아갈 때임을 명심(銘心)하고 충무공(忠武公)의 오자정신(五自精神)을 본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사료(史料)되는 것이다.

충무공(忠武公)의 5자정신(五自精神)의 제일은 「제힘으로 사는 정신(精神), 즉 자주(卽 自主), 자립정신(自立精神)이다. 공(公)께서는 평생(平生)을 남에게 의존(依存)하지 않고 종친(宗親)에게도 부탁(附託)하지 않는 자신(自身)의 힘만으로 일생(一生)을 살았고 자기신념(自己信念)대로 일관(一貫)해 오셨다. 요즈음과 같이 자국(自國)의 이익(利益)을 앞세우는 실리정치(實利政治), 외교(外交)의 가치관(價値觀)을 중시(重視)하는 때일수록 본받을 정신(精神)인 것이다. 또한, 공(公)은 특(特)히 옥(獄)에서 나와 통제사(統制使)로 재임명(再任命)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결의(決意)는 역시(亦是) 자기(自己) 몸소 쌓아 올린 자기(自己) 힘에 의(依)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정도(正道)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는 충무공(忠武公)은 과연(果然) 제힘으로 사는 정신(精神)을 가진 귀감(龜鑑)이었다.

두 번째는 정의(正義)를 목표(目標)로 삼는 정신(精神)이라 생활(生活)의 목표(目標)를 이해(利害), 승부(勝負) 만에 두지도 않았으며, 오직 「정(正) · 부정(不正)」, 「의(義) · 불의(不義)」 만에 두어 바르고 옳은 일이면 취(取)하고 그른 일이면 과감히 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공명정대(公明正大)를 부르짖는 3·1정신(精神)도 이 정신(精神)을 본받은 것이다. 공(公)이 두 번씩이나 억울한 누명(陋名)을 쓰고 옥(獄)살이와 백의종군(白衣從軍)을 하면서도 자신(自身)의 정의정신(正義精神)을 강조(強調)하셨으니 과연(果然) 민족(民族)의 스승이었다. 우리도 참 진리(眞理), 정의(正義)를 지닌 국민(國民)이 되어 부패(腐敗)한 공무원(公務員)이 아닌 양심적(良心的)인 공무원(公務員)만이 안정(安定)되게 일할 수 있는 사회풍토(社會風土)가 조성(造成)되어야 하겠다.

세 번째는 국토(國土)를 사랑하는 정신(精神), 즉(卽) 애국정신(愛國精神)이다. 애국(愛國)은 다른 것이 아니다. 조국(祖國)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自體)가 애국정신(愛國精神)일 것이다. 애국(愛國)이란 내 국토(國土)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始作)해야 하고, 제 몸을 아껴서 국토(國土)를 떠난다고 하면 벌써 나라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다. 나, 너 할 것 없이 국가(國家)가 존립(存立)하는 한(限) 우리 국가와 나는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것이 충무공(忠武公)의 국가관(國家觀)인 것이다. 나라 사랑은 바로 스스로를 사랑함이고 자신(自身)에 대한 충성(忠誠)인 것이다. 나만을 위(爲)한 생활(生活) 보다는 보다 크고 바람직한 국가(國家)를 위(爲)한 그것이라면 더욱 보람될 것이 아니겠는가?

네 번째는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精神), 즉(卽) 애민정신(愛民精神)으로 국가(國家)와 민족(民族)은 불가분(不可分)의 관계(關係)가 있으므로 서로 돕고 한민족의 긍지를 모아 힘차게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충무공(忠武公)께서는 백성(百姓) 사랑하기를 마치 친자식(親子息) 사랑하듯 했으므로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백성(百姓)들이 모여들었고 따랐던 것이다. 공(公)

의 행적(行績) 속에, 일기장(日記帳) 속에서도 백성(百姓)을 사랑하고 농민(農民)을 걱정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으니 정말 훌륭한 장군(將軍)이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公)의 빛나는 정신(精神)은 「새길을 뚫고 가는 정신(精神)」, 즉(卽) 창조(創造)의 정신(精神)인 것이다. 충무공(忠武公)은 전쟁(戰爭)을 예상(豫想)해서 사전(事前)에 군대(軍隊)를 훈련(訓練)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뜻을 몸소 펴고, 무기(武器)를 정비(整備)했고, 더욱 거북선을 창제(創製)하는 등(等) 실(實)로 없는 데서 있게 했고 막힌 것을 열어 놓았으며, 나라와 민족(民族)으로 하여금 죽음 속에서 삶을 찾을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우리에게 지혜의 슬기과 과학(科學) 하는 정신(精神)을 뿌리 깊게 심어주신 공(公)을 다시 한번 우러러보며 앞날의 국가발전(國家發展)을 기약하여 개척(開拓)의 정신(精神)으로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바탕으로 주체의식(主體意識)을 높여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에 최선(最善)을 다하고 매사(每事)에 솔선수범하여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姿勢)가 바로 조국(祖國)을 수호하는 가장 뜻 있는 일이며 선열(先烈)들의 애국정신(愛國精神)에 보답(報答)하는 길이 될 것이며, 지금 현대(現代)의 첨단을 걷고 있는 영광(榮光)된 조국(祖國) 대한민국(大韓民國)의 후손들에게 행복(幸福)과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지켜주는 도리(道理)가 될 것으로 확신(確信)하는 바이다.



## ♥♥♥♥♥ 신용사회(信用社會)로 가는 길



상사 김 중 호(金仲浩)  
〈공군본부〉

「어느 점잖은 신사가 부인과 함께 귀금속상에 들어섰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비넥타이를 단 정하게 맨 점원이 굵실거리며 양손을 맞대 비벼댄다. 상사와 부인은 점잖게 진열대를 한 번 둘러보고는 손짓을 하니가 점원은 깨끗한 쟁반 위에 귀금속을 올려 보인다. 신사는 보석 반지를 천천히 집어서 부인의 손가락에 끼워주고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짓는다. 신사는 품속에서 수첩 같은 것을 꺼내어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몇 자 쓰는가 했더니, 한 장을 떼어 점원에게 건네준다. 점원은 황송하게 받아 힐끗 들여다보고는 두말없이 꾸벅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뒤돌아서신사 내외에게 재차 들려달라고 굵실거린다. 신사는 부인과 함께 유유히 문밖으로 사라진다.」

이상은 서구의 상류사회를 배경으로 한 외국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좀 이상하게 여겼을 것이다. 저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돈 대신 지불 되는 것이라면 보증수표(자기앞수표)를 사용했고 그것도 받는 사람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되어 뒷면에 주소, 성명을 적으라느니, 주민등록증을 보자느니 잘못된 수표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발행 은행에 전화를 하는가 하면 금액이 너무 커서 거스름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는 등 수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죄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현실에서는 좀 납득하기 힘든 장면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금이 아니면 돈이라 여기질 못했고,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 현금으로 주고받아야 뒷맛이 깨끗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인지도 모른다. 비교적 거액(?)을 몸에 지니다 보니 소액권은 부피가 많아 여행할 때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어서 고액권을 선호하는 습성이 자연히 발달되었나 보다.

아무튼, 이런 습성이 있는 우리에게 신사가 한 장의 종이쪽지에 몇 자 적어서 지불 한 것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계수표 또는 신용카드(Credit-card)와 같은 것이었다면 더욱 놀랐을 것이다. 우리도 상인과 고객 사이에 부드럽고 자유스러운 거래가 될 수는 없을까.

본시 성품이 근면하고 성실한 우리 국민은 불과 20년 남짓한 사이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또 세계적인 경제 대국을 향해 온 국민이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나날이 전진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이제 우리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금융단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과의 신용을 얻지 못하면 사회 활동이 좀 힘들 것이라고 한다. 금융기관은 신용거래를 위한 각종 상품을 개발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정부의 저축장려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가계 종합예금이다.

현재 우리 공군에서도 가입 대상자 중 80% 이상이 가계 종합예금에 가입 (5월 말 현재)했고 그것을 통해 가계수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2년간 실험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사용해 왔었는데 지난 1년간 사용실적이 742회, 그중 가계수표 발행이 363매, 현금 자동 지급기 사용이 296회,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가 71회, 전화 요금 자동이체가 12회였다.

사고라고는 현금지급기에서 비밀번호 착오로 비밀번호가 지워진 적이 한 번 있었고, 은행 창구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한 착오가 두 번 있었다. 이만한 거래량에서 이 정도의 착오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한데 일부에서는 몹시 불편하다는 것이다. 비 통계자료이지만 불편하다는 측의 여론을 종합해보면 은행이 별로 매력 있는 곳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많은 사람들의 은행거래는 용자를 받기 위해 간 것이 대부분이며 그때 몹시 시달림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 은행에 예금한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과,

셋째, 수표는 남에게 주기는 좋아하면서 받는 것은 좀 꺼린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은행은 문턱을 넘는 것조차 기분이 좋지 않고, 수표보다는 현금이 좋고 예금보다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마음 든든하다는 것이다. 물론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다소 불편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을 들춰보면 우선 봉급날이면 은행에 가계수표를 들고 현금교환(인출) 희망객들로 붐빈다. 은행 측도 이 많은 손님을 맞기에 상당한 고역이다. 자연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 그래서 이용자는 불편하다. 어느 은행의 비공식 통계를 보면 입금 당일과 다음날의 인출금이 70%를 넘는다고 한다. 왜 그럴까? 수표보다는 현금이 좋기 때문이다. 6월부터 영외거주자에게 지로(GIRO) 제도에 의한 개인 예금 구좌에 입금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은행 창구는 더욱 번잡하다.

한편 은행 문턱이 높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은행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신문기사에도 실린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가계종합예금만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대출문제에서 특히 기업자금의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그중의 일부분이지만, 흔히들 경험했을 봉급생활자 대출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은행의 성격상 대출희망자보다 예금자가 많아진다. 예금보다 대출이 많다면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대출한도를 정하게 되고 각 은행에 시달리며 적극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중에 일부가 봉급생활자 안정자금 대출이다. 은행은 각 거래선 별로 배당을 하게 된다. 우리가 속한 부대에서도 마찬가지다. 할당액보다 대출희망자가 적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희망자가 더 많다. 그러면 공평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접수 순서대로 처리해 준다.

그 자격 요건 또한 까다롭다. 자격을 갖추면 대출신청서와 그 보증이 될만한 서류를 여러 장 작성해서 첨부해야 된다. 보증인도 두 명 이상 세워야 한다. 최종적으로 부대 관리참모나 부대

장이 서명 날인을 하게 된다. 은행에 가면 다된 서류니 선뜻 돈을 주면 좋으련만 그렇질 못하다. 거기도 나름대로 결재를 받고 자금계획을 세워야 되므로 또 며칠 기다린다. 좀 치사한 생각도 든다.

남에게 구걸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용납하질 않을 것 같지만 참아야지 어쩌겠는가. 지난번 국내가 떠들썩하던 부도사건만 보더라도 대출을 잘못해서 은행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쉽사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는가.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그럭저럭 기포(은행에서 결제가 끝난 것을 말함)가 떨어져 다시 은행에 가면 수표로 주는데 그것도 신청액 전액이 아니고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다. 그 수수료를 별도로 받으면 좋으련만 군이 대출액에서 공제를 해야 업무처리가 좋단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과 거래해본 경험이다. 그러나 이жат돈 얻어쓰는데 나름대로 마음에 새겨둔 수도도 그러려니와 은행에 친근감을 갖기엔 좀 어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행과 가까이 자주 드나드는 사람일 수록 가계생활도 질서가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상당수의 주부들이 생활비를 예금해두고 필요에 따라 인출해 쓰는 것이 눈에 뜨인다. 82년도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81년도 민간 저축률은 전체 저축액에 비해 12.8%로 나타나 있다. 거기서 단체로 권장하는 것과 재형저축 등을 빼고 나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은행을 거래하는 저축은 거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웃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607달러인 81년도와 비슷한 연대인 78년의 대만은 국민소득이 1,539달러일 때 21.8%에 비하면 거의 곱절에 가깝다.

그 차이는 불과 9%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나라의 저축신장률이 82년도의 꼭 10년 전인 72년도에 비해 0.7%가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9%의 신장은 몇 년이 더 걸린다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됐든 가계비를 은행에 예금시켜 놓고 필요에 따라 인출해 쓰는 주부, 즉 은행에 자주 드나드는 주부는 항상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본다. 잘 살아서 쓰고 남아서 은행에 예금한다는 사고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우리는 국민경제가 급속히 성장된 데 반해 국민경제 의식은 아직도 미숙하다. 71년도라고 기억된다. 국민소득이 278달러일 때다. 당시 국무총리는 10년 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 모습을 TV를 통해 진지하게 설명한 적이 있다. 80년대의 우리 국민소득은 1,000달러가 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어느 수준의 생활 여유를 갖게 될 것이며 꿈같은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우리는 그것을 78년에 1,330달러로 몇 년을 앞당겨 넘어섰고 82년에는 1,678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국민경제 의식은 좀처럼 달라지질 않았다. 최근에 발표된 박혜경 씨의 「우리나라 주부들의 가계관리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83. 1. 1일 자 참조).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주부들은 교육수준의 고하를 막론하고 가계 운영의 가장 기

본이 되는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계부 기록 여부에 관해서도 53.5%가 “아니요”란다. 다시 말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빌려 쓰고, 그것도 안 되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부들의 가계부 기록 부재가 더욱 심화시켜 준다. 가계부란 말 자체가 좀 거창하게 생각된다면 그냥 메모라도 좋다. 그날그날 쓴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두는 것이 곧 가계부인 것이다. 그렇게 적어 나가다 보면 자주 들여다보게 될 것이며, 반성할 기회도 생기려만 도대체 남겨놓은 기록이 없으니 지난 일정기간 동안 수입은 얼마이며 지출은 얼마인지 또 어떻게 썼는지(가계분석)를 알 수 없으니 계획성 있는 가계설계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때로는 가계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주먹구구식밖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만 할 것인가. 이제부터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우선 가계수표를 많이 활용해야겠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신 있게 말한다. 그러니까 더욱 다방면의 경험을 해서 자신을 얻는 것이다.

만 원 이상의 지출은 가계수표를 발행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물건은 신용카드로 구입한다. 은행이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으면, 잡다한 돈은 현금지급기를 사용한다. 그리고 수표용지에 첨부되어있는 입출금 기입표를 활용해야 한다. 적어도 사용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왜, 즉 6하원칙은 아니라도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월말에 은행으로부터 거래명세표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하여튼 이런 방법이 몇 달간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가계부 기록방법도 알게 되고 그 필요성도 스스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 지로(GIRO)로 연결되고 있는 전화, 전기요금 등 필요한 것들을 가계예금 거래은행에 가서 신청서 한 장만 써주면 일일이 제날짜에 불입하러 다니지 않아도 자동 입금된다. 예금 잔액이 없더라도 자동대월 한도 내에서 입금 처리된다. 사용해 보지 않고는 그 편리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지불 능력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만 한다. 간혹 소수의 사용자가 지불 능력이 없어 부도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기의 신용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 될 건 아무것도 없다. 많이 사용해 보고 거기서 파생된 문제들을 실제 체험함으로써 여러 면에서 전인교육(全人教育)의 일부와 훌륭한 경제교육을 받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가계종합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가능한 한 다각적으로 많이 사용해 보자. 가계수표, 신용카드, 현금지급기, 지로제도 등등. 은행에 가서 요구만 하면 신용카드도 구입할 수 있는 가맹점 명부를 준다. (현재 국민은행만 있음) 가맹점 표시가 붙어있는 점포는 전국 어디서나 통용된다.

이미 은행의 보증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그 카드에 기록한 범위 내에서 은행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사용하여 본인의 신용을 본인이 지켜나가야

한다. 금융단의 얘기로는 평생을 그 신용이 따라 다닌다고 한다. 돈 몇 푼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기엔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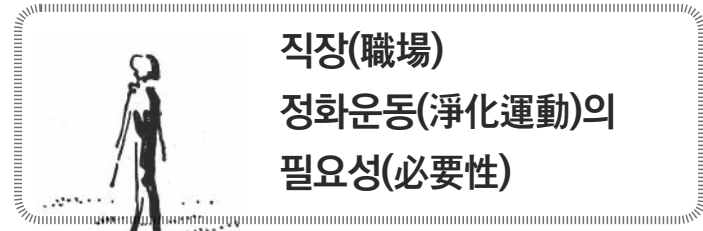
우리 경제도 안정권에 들어서 있다. 갖고 싶은 건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네 욕망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그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성취하려니까 무리가 생긴다. 그곳엔 단계가 있다.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인가.

계획성 있는 생활이 스스로의 부유함을 만드는 가장 기본인 것이다. 결국, 신용이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신용을 얻었으니 가족과 함께 쇼핑을 가봅시다.

신용카드 마크가 붙은 곳은 어디서나 무엇이건 까다롭지 않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계 수표와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이 별로 필요 없을 테니까, 그리고 어느새 내 스스로가 서구영화의 주인공처럼 의젓하게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민 폐 요 인    제 거 하 여  
 국 민 유 대    강 화 하 자



**직장(職場)  
 정화운동(淨化運動)의  
 필요성(必要性)**

증령 임 성 호  
 (제3252부대)

정의사회(正義社會)의 구현(具現)이라는 표어(標語)를 내걸고 제5공화국 출범(出汎)과 함께 시작된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은 정직(正直)·질서(秩序)·창조(創造)를 3대이념(3大理想)으로 내세우고 국민의 행동규범(行動規範)과 직결시킴으로써 실천적 차원으로 전개하여 온 나라에 팽배해 있는 각종 악습과 비리(非理)들을 추방하고 옳은 것은 찾아내어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며 인간관계(人間關係) 및 사회관계(社會關係)가 이루어지는 왜곡된 사회풍토나 올바르지 못한 행동 양식을 바로 잡고 그러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사회구조나 제도를 개선하려는 운동인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 책은 정화(淨化) 운동에 관한 방안(方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았는데 사회정의(社會正義)를 부르짖고 사회개혁(社會改革)을 외치고 있는 이 운동(運動)이 우선 일시적, 정치적 수단이 아닌 역사적, 민족적 차원에서 방향이 결정되고 그렇게 실천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규정 사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념(理念)을 정립하고 확산하여 사회(社會) 분위기를 건전하게 함으로써 국민(國民) 모두가 이 운동에 주체가 되어야 하며, 공직자(公職者)와 사회(社會)지도층이 적극적인 정화(淨化) 자세를 가지고 활성화시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여의식으로 특권계층에 대한 외양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의 생각을 올바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정화 운동은 관료적(官僚的) 방식에서 민주적(民主的)인 타율적(他律的) 수동적(受動的) 자세에서 자율적 적극적인 자세로 형식적인 활동(活動)에서 실질적 활동으로, 객관적 입장에서 주관적 입장으로 바뀔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生活) 태도를 지니고 정의(正義)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推進)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의 필요성(必要性)을 느끼고, 의식구조를 개혁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율성의 원칙 아래 주인의식(主人意識)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남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自身)과 우리들 운동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고 주민 다수가 원하는 사회적(社會的) 홍보 효과의 공익성(公益性)이 큰 사회정화운동 이념(理念)에 부합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정부 주도형으로 된 이 운동은 교육(教育)수준이나 생활(生活)수준이 낮을수록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점은 복지국가의 실현을 우선적으로 바라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1970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한 새마을 운동의 여파로 산업화가 광적으로 급진 되면서 또한 폭발적인 도시화를 가져왔으며 산업화된 도시화의 급진전은 급속한 행정주의적 관료화를 주축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분화의 결과 어떠한 사회(社會)의 변동과정에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한국사회(韓國社會)라는 특수한 여건과 상황은 특이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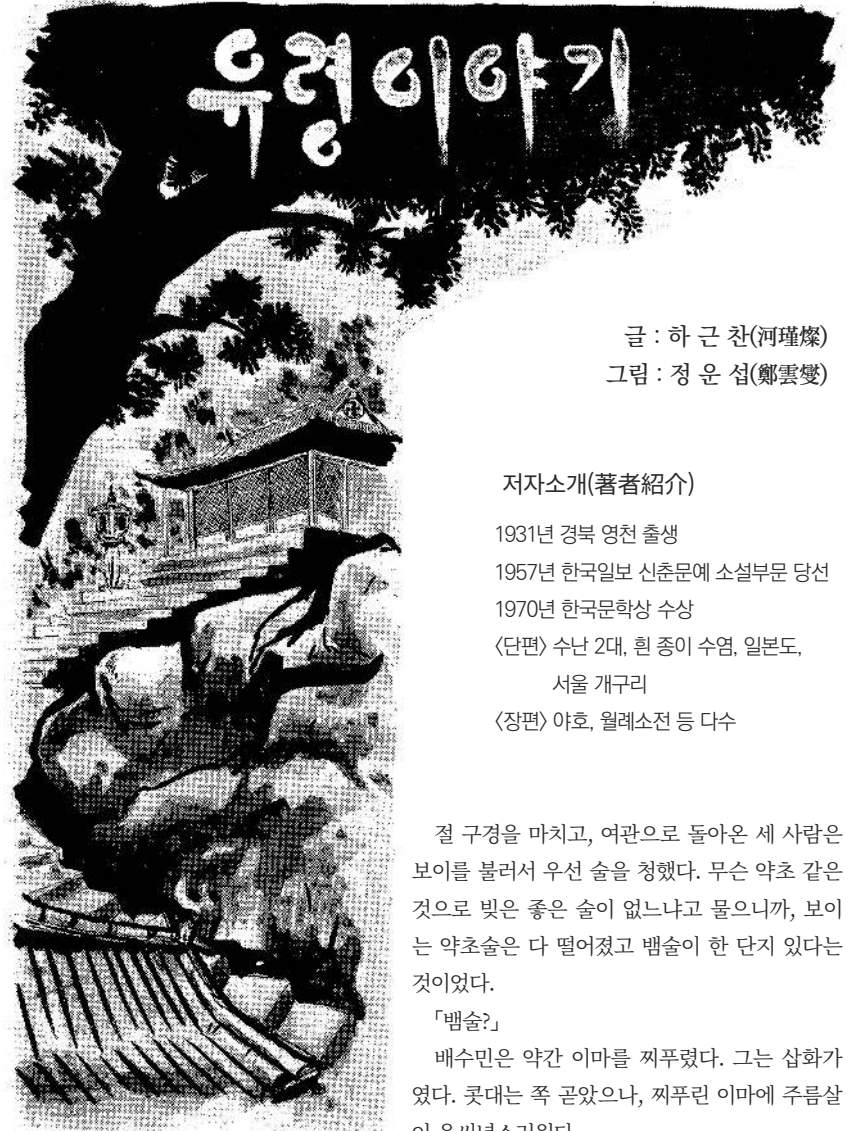
그렇게 됨에 따라 자연히 문제(問題)가 된 것이 국가건설(國家建設)을 지나치게 성급하게 단축 시키고자 했던 정책수립자들의 급진적 개혁주의(改革主義)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정신자세는 따르지 못하고 과도한 물질 풍요로 인한 사람들의 사고방식(思考方式)이 옛날의 유교적(儒敎的) 전통과는 판이한 또 하나의 사회를 정립(定立)시켜 놓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병폐를 찾아내어 자를 건 자르고, 키울 건 키우는 새로운 차원(次元)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타 선진국가(先進國家)들처럼 부강하게 되지 말라는 법(法)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부강(富強)하게 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과도기적 성향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국민성에 있는 것이다.

잘살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바로 열심히 노력(努力)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다. 그 마음가짐이 있을 때야말로 지금 불고 있는 사회정화(社會淨化)운동에 편승하여 우리들을 정화해서 꾸밈이 없는 창조(創造)보다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즉, 아름다운 창조(創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한 가지 일을 하는 데는 몇 가지 보수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세계(世界)에서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해놓고 여기서 그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經濟的)으로 풍요해지면 무엇하는가? 진실된 정(情)이 흐르지 않고 맑고 건강한 기풍이 없으면 그야말로 텅 빈 껍데기뿐이다. 어렵게 잡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관(官)은 민(民)을 사랑으로서 감싸주고, 민(民)은 적극적인 참여의식으로 착실한 성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시키는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끌어 나가는 측도, 따라가는 측도 양쪽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의 맡은 바 임무(任務) 면에서 또한, 처해 있는 입장에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과학적(科學的)인 합리적(合理的)인 사고(思考)로 명쾌한 해답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발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소중하게 뿌려서 잘 가꾸어 들여야 하는데 여기서 빨리 거두어들일겠다는 조급한 생각은 저버리고 먼 훗날을 위하여 즉, 우리 세대(世代)에 안 되면 그다음 세대라는 생각으로 초석을 다져나가야 하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글 : 하 근 찬(河瑾燦)  
그림 : 정 운 섭(鄭雲燮)

저자소개(著者紹介)

1931년 경북 영천 출생  
1957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소설부문 당선  
1970년 한국문학상 수상  
〈단편〉 수산 2대, 흰 종이 수염, 일본도, 서울 개구리  
〈장편〉 야호, 월례소전 등 다수

절 구경을 마치고, 여관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보이를 불러서 우선 술을 청했다. 무슨 약초 같은 것으로 빛은 좋은 술이 없느냐고 물으니, 보이는 약초술은 다 떨어졌고 뱀술이 한 단지 있다는 것이었다.

「뱀술?」

배수민은 약간 이마를 찌푸렸다. 그는 삼화가였다. 콧대는 쪽 곧았으나, 찌푸린 이마에 주름살이 을씨년스러웠다.

그러나 윤길홍과 곽인철은,

「그거 좋지.」 「그거 한 번 마셔 보자구.」 서슴지 않고 말했다.

드라마작가인 윤길홍은 코 밑이랑 턱에 굵슬굵슬한 까만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얼굴은 남달리 흰 편이어서 묘한 인상이었다. 곽인철은 공업전문대학의 물리학 교수인데 머리가 어느덧 반

백(半白)이었고, 매우 도수가 높아 보이는 안경을 끼고 있었다. 윤길홍과 광인철이 좋다고 하니, 배수민도 좀 꺼림칙 하기는 했으나, 뱀술을 마셔보는 수밖에 없었다.

뱀술은 노르스름한 것이 정종보다 약간 짙은 빛깔이었다. 맛도 향긋한 편이어서 조금도 역하지 않았다. 그저 뱀으로 담근 술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좀 이상할 따름이었다.

「뱀술을 유식한 말로 복주(蝮酒)라고 하지。」 윤길홍이 웃으면서 말했다.

「뭘 복주? 무슨 복 잔데?」

광인철이 묻자, 윤길홍은,

「별레 충 변에 이렇게 쓰는 잔데, 독사 복 자지. 살모사 복이라고도 하고,」

젓가락 한 개로 술을 찍어 상에다가 「복(蝮)」 자를 써 보였다.

「되게 유식하군. 그런 글자까지 어떻게 알고 있지?」

광인철이 말하자, 배수민도, 「글쎄 말이야. 혹시 부친께서 독사연구소 같은 것 경영하셨던 게 아니냐?」 하고 웃었다.

「헛헛하…」 과 인철도 재미있다는 듯이 도수 높은 안경 속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웃었다.

「뭘? 말조심해.」

윤길홍도 웃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삼십대 때 한때 한 직장에 근무를 했었다. 잡지사였다. 윤길홍과 광인철은 편집에 종사했었고, 배수민은 사진과 그림을 맡았었다. 한 직장에 있을 때도 그들은 단짝이었지만, 서로 헤어진 뒤에도 곧잘 만났다. 만나면 으레 대포였다. 어쩌면 그들 사이를 그처럼 가깝게 한 것은 술이었던지도 모른다. 서로 막상막하의 실력이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일정한 날을 정했다. 일정한 회비를 가지고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 사람의 술 마시는 계인 셈이다. 명칭도 그럴듯하게 「삼군자회(三君子會)」라고 했다. 이제 나이들도 어느덧 오십을 훨씬 넘었으니 술도 알맞게 마시고, 매사에 원만한 군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그렇게 붙였다. 지난번의 모임에서 배수민이 제안했었다. 다음 달에는 한번 여행을 하자고 그러자 광인철이 추운 겨울에 무슨 여행이나고 여행을 하려면 봄철이나 가을철에 해야지 하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배수민은 봄, 가을의 여행 못지않게 겨울 여행도 독특한 멋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봄, 가을에는 사람들이 들끓어서 오히려 기분 잡친다고. 그리고 다음 달은 새해이기도 하고, 자네는 방학 중이기도 하니 좋지 않냐고, 광인철의 반대 의사를 누그러뜨렸다. 윤길홍은 찬성이 었다. 그래서 이달에는 삼박사일 예정으로 겨울 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주거니 받거니 흔흔히 취해가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 윤길홍이 불쑥 말했다.

「자네들 유령 본 일 있나?」

그 말에 광인철과 배수민은 난데없이 무슨 유령인양 싶은 듯 멀뚱히 그저 윤길홍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본 일 없지? 난 본 일이 있어.」

「뭘 유령을 봤다고? 헛헛헛...」

광인철은 어이가 없는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배수민 역시 약간 휘둥그레진 눈으로 윤길홍을 바라보며,

「자네 뱀술을 마시더니 어떻게 된 거 아냐? 허허허...」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거렸다.

그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보이였다.

「저녁상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가져올까요?」

「밥은 그만두고, 술이나 더 가져와. 밥은 나중에 가져오라거든 가져오고,」

윤길홍이 지금 밥을 먹게 됐느냐는 듯이 보이를 쫓아 버리고는,





「농담이 아니야. 정말이라구.」  
 하고 필요 이상 지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 친구 웃기는군. 유령을 보다니.... 아마 정신착란중에 걸리기라도 했던 모양이지. 유령을 봤다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그건 환각 상태에 빠졌던 거야. 일종의 정신병이지...」  
 물리학 교수인 박인철이 과학자답게 말하자, 삽화가인 배수민도 동감이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신병? 허허허.....내가 정신병에 걸렸었다는 건가? 내 얘길 들어보고 말하라구.」  
 「정말 유령을 봤단 말이야?」  
 배수민은 호기심이 당기는 듯 두 눈을 반짝거렸다.  
 「정말이라니까. 나한테 누님이 한 사람 있었거든.」  
 「어디 한 번 들어보자구.」  
 배수민이 조금 자세까지 고쳐 앉자, 박인철도 도수 높은 안경 속에서 두 눈에 빙글빙글 웃음을 담으면서,  
 「허허, 유령을 봤다. 재미있군. 어디 한 번 들어볼까.」  
 하고 말했다.  
 유령을 보다니 말 같지도 않은 얘이지만 호기심은 동하는 모양이었다. 윤길홍은 우선 잔을 들어 입안을 추가듯 훑쩍 한 모금 마시고는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었다. 그리고,  
 「우리 누님이 죽은 것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 누님이 죽은 것은 내가 스물한 살 때의 일이었다. 1951년, 그러니까 6.25가 일어난 이듬해였다. 그러나 나는 그해에 누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언제 죽었는지 그 날짜를 모른다. 나뿐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모르고, 내 누이동생도 모른다. 그리고 누님의 죽음이 병사인지, 자살인지, 혹은 타살인지 그것도 확실치가 않다.  
 1951년은 1.4후퇴가 있었던 해다. 1.4후퇴 때, 우리 가족은 누님 한 사람을 집에 남겨두고, 피난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누님은 그때 운신을 못 하는 몸이었다. 늑막염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도저히 함께 피난길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누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난을 안 가고 그대로 서울에 눌러앉아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6·25가 터지고, 서울이 공산 치하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쩌다가 피난을 못 했었다. 그래서 적지 3개월 동안에 우리 집안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소방서 책임자로 있던 아버지가 그들에게 붙들려가 끝내 소식이 없어졌고, 어머니와 누님도 불려 다니며 곤욕을 치렀다. 나는 그때 대학 1학년이었는데, 의용군에 끌려가는 것이 두려워 사촌 형 집의 다락 신세를 지는 바람에 무사했다.  
 불 끄는 일에 종사한 것도 그들 말대로 반동인지, 좌우간 우리 집은 반동으로 낙인이 찍혀 재산까지 역산(逆産)이라 하여 쓸만한 가재도구는 모조리 몰수를 당했다. 누님의 늑막염도 실은

그때 얻은 병이었다. 누님은 두 번 그들에게 불려가 곤욕을 치렀는데, 두 번째 집에 돌아왔을 때는 사람이 거의 못쓰게 되어 있었다. 뉘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고, 몸이 말이 아니었다. 몽둥이 뜬 질을 당한 듯 등에 시퍼런 자국이 죽죽 수없이 나 있었다. 누님이 것처럼 그들에게 시달림을 받은 것은 그들 말대로 「반동 놈의 딸」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재산을 몰수해 갈 때, 분을 못 이겨 그만 자기도 모르게, 「이 날강도 같은 놈의 새끼들아!」 하고 욕지거리를 퍼부었던 것이다.  
 그들이 몰수해 간 가재도구 속에는 누님의 혼수로 마련해 놓은 미싱도 들어있었다. 그 무렵 미싱이라면 꽤나 귀한 물건이었다. 국산이란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이다. 그런데 어찌어찌 용케 마련해 놓은 그 새것과 다름없는 미싱까지 그들이 가져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미싱이 두 대 있었다. 하나는 어머니의 낡은 것이었다. 그들이,  
 「이 반동 놈의 집엔 재봉틀이 두 대나 있어. 남들은 하나도 없는데.」 하면서 그 누님의 혼수감 미싱까지 꺼내자, 누님은 열린 달려들어 그것을 감싸듯 안았다.  
 하나만 가져가면 됐지, 두 겹 다 가져가느냐고, 이것만은 제발 좀 봐달라고 애걸을 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이 없었다. 누님이 기어이 안 놓으려고 버둥거리자, 사정없이 냐다 발로 차 밀어내 버렸다. 그래서 누님의 입에서 그만 욕지거리가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아버지를 붙들어가 어떻게 했는지 소식이 없는 데 대한 분노까지 함께 폭발을 했던 셈이다. 두 차례나 불려가 「악질 반동년」이라는 욕설을 들어가며 누님은 모진 곤욕을 치렀는데, 그들은 별로 트집 잡을 건더기가 없으니까 공연히 나를 가지고 들볶았다. 대학에 다니는 동생이 있다는데 어디에다가 숨겼느냐고, 틀림없이 네님이 빼돌려 놓았다고, 어디에다가 피신시켰는지 바른대로 대라고 말이다. 그러나 누님은 불지를 앓았다. 내가 어디 가 있는지 누님이 확실히 모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촌 형 집이 시내 어디메에 있는데, 혹시 거기 가 숨었을지도 모른다는 정도는 입 밖에 내려면 낼 수도 있었던 것이다.  
 누님은 몸에 시퍼런 자국이 날 만큼 몽둥이 뜬질을 당하면서도 끝내 모른다고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그런 사실을 나는 나중에 들어서 알았다. 누님이 그런 몸쓸 곤욕을 치른 게 내 탓인 것만 같아 나는, 어쩔할 바를 몰랐다. 누님이 그때 고통에 못 이겨 짐작이 가는 대로나마 입을 열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아찔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코허리가 시큰해지도록 누님이 고마웠다.  
 수복이 되어 국군이 들어오자, 나는 자진 입대를 했다. 그리고 곧 통역장교가 되어 미군을 따라다녔다.  
 누님은 그때 골병이 든 몸이 끝내 풀리지 않고 늑막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 몸서리나는 변을 당했으니, 이번에 또 그들이 몰려온다는데 그냥 서울에 눌러앉아 있을 수는 도저히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중공군까지 몰려온다는 것이 아닌가. 누님을 그냥 남겨두고라도



피난길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차라리 이대로 모두 한자리에서 죽어 버리자고 어머니는 통곡을 했으나 결국 모진 게 목숨이었다. 병자를 혼자 남겨둔 채 발길을 떴던 것이다. 어머니, 누이동생 그리고 이모 이렇게 세 사람이었다. 그 무렵 홀몸이 된 자식 하나 없는 이모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고 있었다. 누이동생은 그때 여중 1학년인가 2학년이었다.

그들이 집을 나설 때 누님은 잠들어 있었다. 잠이 들었는지, 울다가 지쳐 까무러쳐 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아무튼, 큰방 아랫목에 이불을 덮고 바깥 여윈 새하얀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누님의 머리맡에는 온갖 것이 다 놓여 있었다. 전란 중이라 약이나 음식 같은 것이 흔했을 턱이 없지만 좌우간 집에 있던 약이란 약, 음식이란 음식, 그리고 깨끗이 씻은 요강이랑 심지어는 화장품까지 놓여 있었다. 누님이 베고 있는 베개 밑에는 지폐까지 놓여 있었다.

그때의 광경을 상상하면 나는 지금도 몸서리가 쳐진다. 사람이란 결국 그렇게 독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렇다고 어머니랑 누이동생, 또 이모를 나무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 때 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별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병자를 업고 피난길을 떠날 수는 없었을 게 아닌가. 물론 나는 장교복을 입고 전선을 누비고 있는 몸이라, 집에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긴 줄을 꿈에도 몰랐다.

내가 일주일간의 휴가를 얻어 서울집을 찾은 것은 그해 가을이었다. 그동안 줄곧 미군 전투 부대를 따라 일선을 누비고 다니느라 나는 가족들의 안부도 모르고 있었다. 1.4후퇴 때 피난을 갔는지, 갔다면 어디로 갔는지 피난을 가서 대구나 부산 같은 데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는지, 아니면 서울로 돌아왔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몰랐다. 휴가를 얻은 나는 막연히 그저 서울의 집을 한 번 찾아보았던 것이다.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지도 의문이었다. 집을 떠난 지 꼬박 일 년 만이었다.

그런데 용케 집도 그대로 남아있었고, 또 집에 가족들이 있었다.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중위 계급장을 달고 나타난 나를 본 어머니는 한동안 입을 딱 벌리고는 말을 못 했다. 그리고 그만, 「아이고, 길흉아—」 하면서 붙들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옆에서 누이동생도 덩달아 질금거렸고, 이모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반가워했다. 물론 누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누님은?」 나의 묻는 말에 어머니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대답을 못 했다. 누이동생이, 「죽었어. 오빠.» 하고 다시 울먹였다.

누님이 죽은 차초지중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었다.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지 입이 얼어붙는 듯했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아찔한 현기증 같은 것이 눈앞을 지나갔다.

이야기 중에서 나를 가장 전율케 한 것은 가족들이 피난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누님의 죽어 있는 광경이었다. 가족들은 피난을 대전까지 밖에 가지 못했다. 가지 못한 것이 아니

라, 안 간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대구로, 부산으로 서둘러 내려갔으나, 우리 가족들은 대전에서 멈추었다. 그렇게 누님을 집에 두고 떠나는 터이라, 도저히 더 멀리 내려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전선이 곧장 밀려 내려온다면 하는 수가 없었겠지만, 전세가 호전되는 듯했던 것이다. 서울이 다시 수복되지만 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집으로 달려가 봐야 될 게 아닌가.

몇 달 뒤, 집에 돌아와 보니 누님은 죽어 있었다. 큰방 아랫목 그 자리에 그대로 누운 채였다.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것들은 깨끗이 없어졌고, 베개 밑에 넣어두었던 지폐도 간 곳이 없었다. 그런데 누님은 어이가 없게도 거의 알몸으로 시체가 되어 있었다. 가족들이 그 장면의 설명을 얼버무렸지만, 짐작건대 누님은 그런 몸으로 능욕을 당할 대로 당했던 모양이었다. 인간이란 것처럼 추악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이기도 한 것인지... 나는 치를 떨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락에서 조그마한 항아리를 하나 꺼내 놓으며, 그 속에 누님의 유골이 들어있다는 말을 했을 때도 나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화장을 하고, 뼈를 버리기가 너무나 가슴 아파 내가 돌아올 때까지나마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로 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그제야 짙은 슬픔이 견잡을 수 없이 줄줄줄 녹아내리는 것이었다. 누님이 가련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많은 술을 마셨다. 부대에서 가지고 온 양주를 반병 넘어 비웠다. 물론 얼음 같은 것이 있을 턱이 없으니 스트레이트로 말이다. 어머니는 본래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그날 밤은 조그마한 유리잔에 반 잔 정도 마셨고, 이모가 한 잔을 비웠다. 그리고는 내가 혼자서 그렇게 마셨던 것이다. 술에 취한 나는 이모가 이부자리를 해 준 작은방에서 혼자 잠이 들었다. 그 방은 본래 내가 거처하는 공부방이었다.

그런데 몇 시쯤 되었을까. 나는 썰렁한 한기를 느끼며 어렴풋이 잠이 깨었다. 아직 술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했다. 방안은 어두웠다. 바깥에 바람이 불고 있는지, 와—와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올리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러나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머리가 약간 명해서 그런지 쉬 잠이 오지가 않았다.

반수반성(半睡半醒) 상태로 누워 있는데, 큰방 쪽에서 삐그득 어렴풋이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대청을 사이에 두고 큰방이 있었다. 그런데 그 문 열리는 소리는 큰방의 미닫이가 아닌 듯했다. 미닫이 같으면 스르르 하고 열릴 텐데 말이다. 방 안쪽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다락문 열리는 소리가 아닌가 싶었다. 가족 중의 누군가가 다락문을 여는가 보다 하고 예사롭게 생각하며 나는 하품을 했다. 그리고 돌아누웠다.

이번에는 스르르 큰방 미닫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분명히 큰방 미닫이 소리였다. 그러나 나는 누군가가 변소애라도 가나보다 싶으며 지그시 두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잠이 들려 하는데, 푹푹 푹푹...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자고있는 작은방 문을 노크하는 소리였다. 작은방에는 문이 두 개 있었다. 대청 쪽으로는 나무로 된, 당겨서 여는 문이

있었고, 마루 쪽으로는 창호지를 바른 작은 미닫이가 있었다. 대청 쪽의 나무문을 노크하는 소리였다.

「누구요? 엄마요?」

나는 부스스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누가 변소에 가는 줄 알았는데, 내 방문을 노크하다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싶었다. 똑 노크 소리는 그쳤다. 아무 대답도 없었고, 무슨 기척이 나지도 않았다.

「이문가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노크를 했으면 무슨 말이 있거나,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해야 할 게 아닌가. 나는 이상하다 싶어 엉금엉금 그 문 쪽으로 다가가서 문을 열어 보았다. 그런데 아무도 없질 않은가. 분명히 노크 소리가 났는데 아무도 없다니, 어이가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쇠— 좌— 바람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나는 성큼 일어서서 대청으로 나가보았다. 바깥은 어두웠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는 아니었다. 이리저리 둘러보았으나, 역시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그만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등골을 타고 찬물이 짝 흘러내리는 듯 몸이 떨리기까지 했다. 얼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자리에 눕기가 바쁘게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쓰고 말았다.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렇게 숨을 죽이고 있다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바깥쪽 동정이 궁금하기도 해서 슬그머니 얼굴을 이불 밖으로 내밀어 보았다. 바람 소리가 들릴 뿐 다른 기척은 없었다. 나는 가만히 그 방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러나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래도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독한 양주를 과하게 마신 탓으로 청각(聽覺)에 약간 이상이 생겨 귀뚜라미나 쥐새끼 같은 것이 내는 소리가 그런 엉뚱한 소리로 착각이 되어 들린 것 같았다.

어둠 속에 멀뚱멀뚱 눈을 뜨고 있다가 잠시 후 나는 틀림없이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아으익 기지개를 켜다. 그렇게 긴장이 풀리자, 곧 잠이 쏟아져 왔다. 그런데 막 잠의 수렁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판인데, 이번에는 난데없이 마루 쪽 미닫이가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썰렁한 한기까지 얼굴에 확 끼쳐 왔다. 마치 바깥의 바람이 방안으로 몰려들어 오듯 말이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미닫이 소리가 나고, 한기까지 확 끼쳤는데, 미닫이는 그대로 닫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둠 속이라 확실하지는 않았으나, 아무래도 그대로 닫혀 있는 듯했다. 나는 얼른 머리맡 쪽을 더듬었다. 재떨이 옆에 굴러 있는 라이터가 손에 잡히자 찰칵 불을 켜다. 아나나 다름까, 미닫이는 그대로 닫혀 있었다. 괴이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스르르 미닫이 열리는 소리가 틀림없이 나고, 한기까지 확 끼쳐와서 놀라 벌떡 일어났는데, 미닫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닫혀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버르르 떨었다. 잠시 나는 숨을 죽이고 휘둥그레진 눈으로 미닫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지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꼬꾸대 꼬꼬— 꼬꾸대 꼭꼬—

그 계명성(鷄鳴聲)이 꼬끼요— 하고 길게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자, 나는 이상하게도 후유— 절로 큰 숨이 내쉬어졌다. 마치 딱 막혔던 숨이 스르르 트이는 듯한 그런 안도의 숨이었다. 묘한 일이었다. 이제 일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고, 몸에 돋았던 소름이 풀리고, 따스한 피가 돌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실제로 방안에 감돌던 한기도 어느결에 가신 게 아닌가. 참 신기하고 알곳은 일이었다. 나는 가벼운 피로를 느끼며 자리에 드러누웠다. 그리고 곧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늦게 잠이 깬 나는 간밤의 일이 생시였는지 꿈이었는데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실제로 다락문 여는 소리, 큰방 미닫이 여는 소리, 작은방 문 노크하는 소리, 그리고 작은방 미닫이 열리는 소리, 닭 우는 소리…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다 꿈속의 일이었다. 실제로도 그렇고, 도무지 아리송하기만 했다. 술은 말짱 깨어 있었으나 기분은 개운치가 않았다. 몸이 좀 나른하고 멍한 느낌이었다.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자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는 듯했고, 그리고 간밤의 일이 결코 꿈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그런 괴이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아침밥을 먹으며 나는 가족들에게 물어보았다.

「혹시 누가 간밤에 내 방문을 노크 안 했어요? 노크하거나 열어보거나 한 일 없어요?」

그러자 모두 멀뚱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이.

「그럼 참 이상한데…」

내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듯 고개를 기울이자,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물었다.

「아 글썸, 간밤에 말이예요. 몇 시쯤 됐을까…」

나는 간밤에 있었던 그 괴이한 일을 대강 이야기했다. 그러자 누이동생이,

「아이 무서워. 귀신 아니야?」

하면서 찢끔 목을 움츠렸다.

「하하하 귀신은 무슨…」

이모는 대수롭지 않은 듯 웃으며,

「잘못 들었겠지. 술이 많이 취했더라, 보니까. 내가 이부자릴 해 주니까 엉금엉금 기어가서 푹 쓰러지던데… 술에 취해서 헛소리 들은 거야. 귀신은 무슨 귀신. 밤으로 더러 쥐가 설치더라.」

이렇게 말했다. 이모의 그 말에 나는 더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이모의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싶었다. 그러면서 어쩐지 석연치가 않았다. 어머니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좀 예사롭지가 않고, 혹시나 하고 속으로 무슨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러다가 힐끗 다락문을 한번 바라보고는 가만히 입을 열었다.

「답이 올고부터는 아무 일도 없더냐?」

「예」 어머니는 아무래도 무슨 짚이는 게 있는 듯했다. 그러나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에 짙은 우수 같은 것이 서려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다. 물론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그 방에서 혼자 잠자리에 들어있었다. 그날은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질 않았다. 저녁을 먹고 큰방에 잠시 앉았다가 곧 내 방으로 건너갔던 것이다. 처음엔 일찍 잠을 자려 했다. 그러나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다. 그래서 머리맡으로 촛불을 땡겨놓고 누워 외국 잡지를 한참 뒤적거리다가 포켓북으로 된 추리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미군 장교한테서 빌어 가지고 온 것이었다. 그런데 그 추리소설이 의외로 재미가 있어서 오히려 오는 잠을 쫓아가며 그것을 읽고 있었다.

밤이 얼마나 깊었을까. 책은 어느덧 절반 이상 넘어가 있었다. 사위는 고요할 대로 고요했다. 그날 밤은 바람도 한점 없었다. 책에 장신이 팔렸던 나는 문득 누군가가 또 문 여는 기척을 느꼈다. 빠그르 소리가 나는 것이 큰방의 다락문인 듯했다. 그리고 곧 큰방의 미닫이가 스르르 열리는 것 같았다. 어젯밤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듯해서 나는 바짝 긴장이 되어 가만히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는 자박자박 자박자박..... 가만가만 걷는 그런 발자국소리가 대청에서 들렸다. 발자국 소리는 대청에서 내방 앞 마루 쪽으로 오고 있었다. 나는 머리끝이 주뻔하게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누구야?」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발자국소리는 방 앞 마루 끝에서 멎었다.

「누구야, 누구?」

나는 손에 쥐었던 소설책을 떨어뜨리고, 열린 미닫이를 열어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썰렁한 한기가 얼굴에 확 와닿을 뿐 마루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그런데 미닫이를 열자 촛불이 곧 꺼질 듯이 나불나불 춤을 추었다. 마치 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 들어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썰렁한 한기가 얼굴에 와닿기는 했지만, 어젯밤같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말이다.

나는 마루로 나가 보려다가 그만두고 촛불이 꺼질까 봐 후닥닥 도로 미닫이를 닫았다. 참 괴이한 일이었다. 자박자박 발자국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마루 끝에 와서 멈추어 서는 듯한 기척이 틀림없이 났는데, 아무도 없더니... 또 착각이었던 말인가. 어젯밤엔 술기운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서 착각이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정신이 맑은 대로 맑은 상태가 아닌가. 나는 썰렁한 한기가 또 머리끝에 몰리는 듯해서 버르르 몸을 떨었다. 나불거리던 촛불이 문이 닫히자 조용해졌다. 그러자 그때, 미닫이의 창호지에 무엇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그림자였다.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처음에는 희미하게 어른어른 덮이더니 그것이 차츰 선명해지는데 보니 사람의 그림자가 아닌가.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문에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바깥은 별이 총총하긴 했으나, 그믐께라 어두운 밤이었다. 그러니 설령 사람이 방문 밖에 와서 섰다 한들 어떻게 그 그림자가 문에 비칠 수가 있는가 말이다. 더구나 방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방문에 그림자가 비치려면 촛불과 방문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촛불과 방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촛불은 내 머리맡에 놓여 있었고, 나는 누워서 책을 읽다가 일어나 앉았으며, 방문은 내 옆쪽에 있었다. 그래서 내 그림자는 방문과는 오히려 반대편에 가까운 벽과 천정을 온통 커다랗게 덮고 있었다. 그런데 방문에 사람의 그림자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그림자는 사람의 전신이 아니라 윗부분이었다. 머리와 어깨, 그리고 허리께까지가 비치고 있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거꾸로 치솟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뼈뼉뼉뼉 굳어진 듯한 팔을 뻗어 한 손을 미닫이로 가져갔다. 그리고,

「누구요?」

소리를 지르면서 또 미닫이를 왈각 열어젖혔다. 바로 거기 마루 끝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앉아 있는 뒷모습이 희끄무레하게 눈에 들어왔다. 얼른 보아도 여자였다. 흰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방문이 열렸는데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물처럼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숨이 꼭 막히는 듯했다. 턱이 덜덜덜 떨렸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나는 혹시 어머니나 이모가 변소에 가려다가 그렇게 마루 끝에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누굽니까? 어머님입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그 순간, 여자가 날 보라는 듯이 얼른 얼굴을 돌렸다. 하얀 얼굴이었다.

「으악!」 나는 질겁을 하고 냅다 비명을 질렀다. 누님이었다. 그 하얀 얼굴은 틀림없는 누님의 얼굴이었다. 여월 대로 여윈 해골 같은 앙상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누님은 씩 웃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메!」

나는 나도 모르게 벌떡 몸을 일으켰다. 마치 어디로 도망이라도 치려는 것처럼. 그러나 다음 순간 눈앞이 핑 돌았고, 나는 비실 쓰러졌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날이 희부영게 밝아오고 있었다. 어머니와 이모가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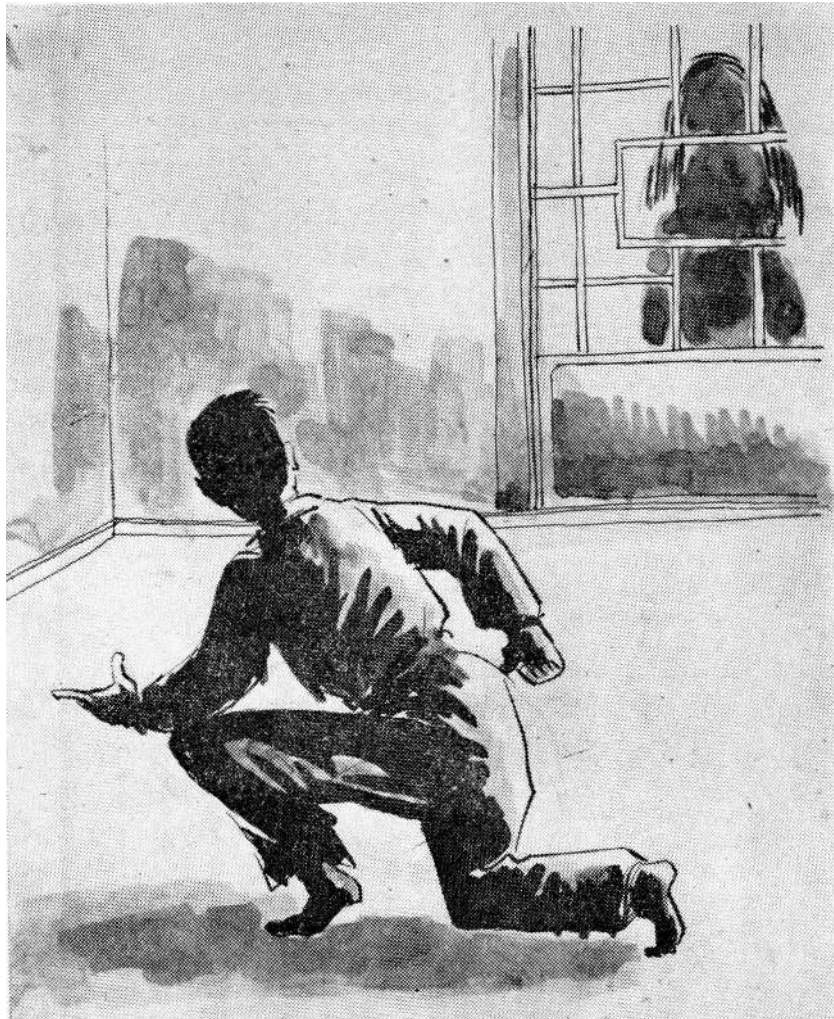
「아이고,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모양이구나.」

「아이고 야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머니와 이모는 반가움과 근심이 뒤섞인 그런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마치 깊은 악몽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온몸이 탈진한 듯 나른했고 머리가 무겁고 약간 어질어질했다.

날이 밝고, 정신이 좀 차려지자 나는 간밤의 그 괴이한 일을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를 듣자 가





죽들은 모두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오빠,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무서워.」

누이동생은 새파랗게 질렸고, 이모는 눈이 휘둥그레 가지고,

「아이고 맏소사.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비명을 질렀구나. 난 깜짝 놀라 무슨 일인가 싶어서 뛰어 일어났지. 아이고 별일도 다 있지. 별일도...」

곧장 으스스하면서도 신기하고 알곶어했다. 어머니는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그런 눈빛으로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더니,

「틀림없는 너거 누나더냐?」

하고 다져물었다.

「예, 틀림없었어요.」

「웃은 무슨 웃을 입고?」

「하얀 치마저고릴 입었던데요.」

어머니는 잠시 침통한 얼굴로 말이 없더니,

「빠를 물어줘야겠구나.」

혼자 중얼거리듯이 말하고는 힐끗 다락문을 바라보며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그날 우리는 누님의 유골을 산에 갖다 묻었다. 아침을 먹자 곧 어머니와 나, 그리고 이모도 함께 세검정 쪽의 산을 찾아가서 적당한 자리에 단지째 뼈를 묻었다.

그날 오후, 나는 부대로 돌아갔다. 아직 휴가가 며칠 남아있긴 했으나, 나는 집에 머물러 있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이틀 밤의 일을 생각하면 정나미가 떨어져서 도저히 더 집에서 밤을 맞이하고 싶지가 않았다.

내가 부대로 돌아간 그 날 밤, 그러니까 누님의 유골을 산에 묻은 그 날 밤, 이번에는 어머니가 괴이한 일을 당했다. 당했다기보다 이번에는 목격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나의 경우는 틀림없이 당한 셈이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당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휴가를 와서 들은 이야기다.

그날 밤, 자정이 훨씬 지났을 무렵, 어머니는 소변이 마려워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강이 마루에 있었다. 마루에 나가 요강에다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지 여자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서럽게 흐느껴 우는 소리였다. 대문 밖에서였다. 어머니는 이 밤중에 누가 저렇게 방문 밖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가 싶어 요강에서 일어나서 고무신을 끌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어머니가 대문 쪽으로 다가가자 여자의 울음소리는 그쳤다. 어머니는,

「누구요? 이 밤중에...」

하면서 대문을 열었다.

그러나 대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어머니는 이상하다 싶으며 왈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여자의 울음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에는 저만큼 먼 곳에서였다. 대문 앞으로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개천 저만큼 멀리 희끄무레한 것이 서서 흐늘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곳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느새 여자가 그렇게 먼 곳으로 갔는지 참 이상했다.

가만히 보니 여자의 흐늘거리는 모습이 차츰 작아지는 듯했고, 울음소리도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여자가 울면서 어디론지 멀리멀리 사라져가는 모양이었다.

방으로 뛰어 돌아온 어머니는 이불 속에 폭 얼굴까지 묻었다. 그리고 새우처럼 오그린 온몸을 바르르 한 번 떨고는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어머니는 후유 하나씩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의 두 눈에서는 지르르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 후 다시는 그런 괴이한 일이 없었다.

이야기를 끝낸 윤길홍은 얼굴이 별정계 상기되어 있었다. 술기운 탓이기도 했지만, 옛날 그 섬뜩하고 아픈 기억을 되씹은 셈이어서 가볍게 흥분이 되어 있었다. 윤길홍은 잔을 들어 쪽 비웠다. 그러자 배수민이, 「아니, 그게 정말이야?」 하고 물었다.

실컷 지금까지 이야길 듣고 나서 정말이냐고 묻다니, 윤길홍은 좀 기분이 언짢아서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정말이라면 그것참 세상이 놀랄 일인데...」

배수민의 말을 받아 괄인철이 피식 웃으며, 「정말은 무슨 정말. 윤길홍이가 창작해낸 괴기(怪奇) 드라마지.」 하고 말했다.

「허허허.....」

「본래 이 친구 괴기 드라마 좋아하잖아. 말하자면 오늘 밤 드라마는 전쟁이 만들어낸 유령 이야기군. 허허허....」

그러자 윤길홍은 슬그머니 화가 치밀었다. 별로 들추고 싶지 않은 과거의 끔찍하고 슬픈 집안의 상처를 자기 탄은 마음먹고 들추어 보인 셈인데, 괴기 드라마니 어찌니 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이다니.

「뭘이 어째? 사람을 뭐로 아는 거야?」

그러자 괄인철은, 「아니, 이 사람 화를 내나?」

뜻밖의 일에 눈이 둥그레졌다.

배수민도 약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는 곧, 「화가 나게 됐잖아. 실컷 남의 이야길 듣고는 괴기 드라마니 어찌니 하니 말 이야. 안 그래? 허허허....」

웃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휘저은 셈이었다. 그리고 윤길홍에게 말했다.

「아, 이 사람이, 그런 기가 막히는 이야길 왜 지금까지 안 했었나? 왜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지?」

「지금까진 그런 이야길 할 계제도 없었고, 또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런데 오늘은 문뜩 그 이야길 꺼내고 싶잖어. 이렇게 여관방에서 뱀술을 마시고 있어서 그런지... 좌우간 드라마가 아니야. 정말이야. 드라마 같으면 하필 욕되게 우리 누님을 등장시키겠어. 안 그래?」

윤길홍도 씩 웃었다.

그때였다. 푹푹 푹푹..... 방문에 노크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세 사람은 일제히 방문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세 사람은 모두 바짝 긴장이 되어 있었다.

「누구야?」 배수민이 소리를 질렀다.

방문이 열렸다. 보이었다. 보이가 얼굴을 들이밀며, 「이제 저녁상 가지고 올까요?」 물었다.

「아이고 깜짝이야. 간이 덜렁했네.」 괄인철이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배수민이, 「유령을 부인하던 과학자가 제일 놀라는군. 뭘 그렇게 간이 덜렁하도록 놀라나.」 하고 웃었다.

「허허허....」 윤길홍도 기분 좋다는 듯이 마주 웃었다.

「왜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보이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야, 유령이 온 줄 알았어.」 배수민이 대답했다.

「뭘요? 유령이 와요? 하하하... 웃기시네. 세상에 유령이 어딴어요. 아저씨들 뱀술을 잡수시 더니 어떻게 된 게 아납니까? 하하하... 저녁상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제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보이는 재미있다는 듯이 문을 팡 닫고는 휘파람을 불며 사라져 갔다.

설 득

공자가 몇몇 제자를 거느리고 여행할 때 잠시 쉬고 있는 사이에 타고 다니던 말이 농가의 밭에 뛰어 들어가 곡식을 먹었기 때문에 밭 주인에게 끌려갔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자원해서 농부를 설득하겠다고 갔으나, 농부는 자공의 말을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았다.

이때 공자의 뒤를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사람이 농부를 설득해 보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농부에게,

「당신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를 경작하고 있지 않소, 그러니 이 말로 말하면 당신의 농작물을 먹지 않고서는 배길 도리가 없지 않소?」하고 말하자, 농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설득도 당신과 같이 멋있게 한다면 이해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겠소, 앞서왔던 놈과는 다르오.」하면서 말을 내주었다 한다.

- 독자에게 알립니다 -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부지불식간에 적의 전략 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은 책자의 취급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 있으시 기 바랍니다.

3700

제목 : 공군지 186, 187 합병호

1983년 11월 25일 인쇄  
1983년 12월 1일 발행

발행 : 공군본부  
편집 : 정훈감실  
인쇄 : 공군교재창

<연락처> 전화: 827-2691, (호)-5115

## 보라매의 꿈

심수삼실 작사  
이내영 작곡

준십배

1. 시성 의나 만소리 나 - 들 깨우 고  
2. 훈격 의요 동소리 시 - 죽 혼 날 고

우렁찬 북을 소리 삼천 만 음 깨우 - 네  
목음 이베 아리 처 하 - 늘 시 켜 - 나

길부른 하늘 위 에 하얀 줄 무늬 -  
오늘 도 나 는 다 처 하 늘 들 의 -

오늘 도 우 리 - 는 하 - 늘 - 에 산 - 다  
오늘 도 나 는 - 다 처 - 하 - 늘 들 - 이

(후렴)

이곳 이 배 집 이 다 내 북 숨 건 곳  
끝 없 이 될 처 지 는 보 라 매 의 꿈

### 군인(軍人)의 길

나는 영광(榮光)스런 대한민국(大韓民國)  
군인(軍人)이다.

하나: 나의 길은 충성(忠誠)에 있다.

조국(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의 승리(勝利)에 있다.

불굴(不屈)의 투지(鬪志)와 전기(戰技)를 닦는다.

하나: 나의 길은 통일(統一)에 있다.

기필코 공산적(共産的) 적(敵)을 쳐부순다.

하나: 나의 길의 군율(軍律)에 있다.

엄숙히(嚴肅히) 예절(禮節)과 책임(責任)을 다한다.

하나: 나의 길은 단결(團結)에 있다.

지휘관(指揮官)을 핵심(核心)으로 생사(生死)를  
같이 한다.





## 공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런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